

THE COMET

丑 兜 三



第21號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항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연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 → 그(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피에테 → 괴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크바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짚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였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벌서 → 벌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랑캐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한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기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일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셋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삼펜 → 삼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아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씨어클 → 씨클
에피쏘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 『가 책, 논문일 경우 →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21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췌〉	이희세(李喜世)
〈비(扉) 췌〉	우경희(禹慶熙)
☆ 칼을 든 렘브란트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②〉	렘브란트
코메트 화보(畫報)	
◇ 김(金) 참모총장 극동지구 공군지도자회의에 참석	
◇ 미 공군 교향악단 대연주회(大演奏會) 성황	
◇ 미 공군 항로통신보안단장(航路通信保安團長) 내한(來韓)	
◇ 전(前) 미 8군 사령관 공군본부를 방문	
〈권두언(卷頭言)〉 명량(明朗)한 정신건설(精神建設)	이중승(李鍾勝) 2
아주반공대회(亞洲反共大會)와 그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	김신실 4
자유(自由)의 능보(稜堡) 한국(韓國)을 수호(守護)키 위(爲)하여	장지량(張志良) 10
항공기술(航空技術)의 신과제(新課題)	외지(外誌)에서 52
구라파기행(歐羅巴紀行) 〈이태리(伊太利)와 서서(瑞西)〉	박동섭(朴東燮) 26
수필(隨筆)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주요한(朱耀翰) 138
동양적(東洋的) 광감(曠感)	김동리(金東里) 140
유명세(有名稅)	정비석(鄭飛石) 142
생사(生死) 모두 무서운 것	박운대(朴運大) 145
기상(機上)과 예보(豫報) 〈자연현상(自然現象)은 어디까지 예보(豫報)할 수 있나〉	김낙성(金洛聲) 60
아인슈타인 박사(博士)의 회상(回想)	외지(外誌)에서 172
군인생활(軍人生活)과 건강(健康)	박천규(朴天圭) 40
원자력(原子力)과 공군(空軍)	김준명(金俊明) 45



군인(軍人)을 위한 윤리(倫理)	김기석(金基錫) 169	명작해설(名作解說)	
다시 제트조종사(操縱士)에게 창공(蒼空) 스무고개 행각기(行脚記) 아나운서의 처녀비행	강영숙(姜暎淑) 105 천정희(千貞姬) 106 김인숙(金仁淑) 109	마농 레스코<프레보 작(作)> 적색(赤色)과 흑색(黑色)<스탕달 작(作)>	181 188
☆ 해외항공만화선(海外航空漫畵選) ☆ 가위와 풀	여기저기 이곳저곳	공사교(空士校) 4기생(四期生) 졸업식(卒業式) 참관기(參觀記)	
특집(特集)		영화소개(映畵紹介)	
미소(美蘇) 공군(空軍)과 군사기지(軍事基地)		로버츠 씨(氏)	148
북극권(北極圈)의 미소(美蘇) 군사기지(軍事基地)	외지(外誌)에서 114	해저 2만리(海底二萬哩)	150
미(美) 전략공군(戰略空軍)은 왜 존재(存在)하는가?	C. E. 리메이 121	실화(實話)<단편소설(短篇小說)> 딜란 토마스, 최승묵(崔升默) 역(譯) 192	
소련 제트전투기(戰鬪機)는 여하(如何)히 발달(發達)했는가	M 구라빛치 129	미공군독립(美空軍獨立)의 비화(秘話)<실화소설(實話小說)> 임학희(林學喜) 197	
영국간첩사건(英國間諜事件)에 드러난 제3의 사나이	외지(外誌)에서 100		
시원(詩苑)			
심해어(深海魚)의 여행(旅行)	이진희(李鎭熙) 68		
연가2제(戀歌二題)	공중인(孔仲仁) 70		
<아르키메데스>의 하루	이활(李活) 72		
천지무획(天地無劃)	박재삼(朴在森) 74		
정비사좌담회(整備士座談會)			162
인간(人間)의 신체(身體)는 발달(發達)한다	외지(外誌)에서 160		
교양(教養)			
실존주의문학(實存主義文學)과 사상(思想)	손우성(孫宇聲) 94		
부통령(副統領)과 그 지위(地位)	한태연(韓泰淵) 90		
케인즈 경제학(經濟學)과 경제정책(經濟政策)	이면석(李冕錫) 85		
「유네스코」의 이념(理念)과 그 사업(事業)	장내원(張洵源) 76		
끼연(喫煙)에 대(對)한 공포(恐怖)는 사라질 것인가?	외지(外誌)에서 158		
어느 예술가(藝術家)의 생활삽화(生活插話)<교향곡해설(交響曲解說)>	이강염(李康濂) 152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칼을 든 렘브란드 동판(銅版)(엣칭그)

렘브란드(Rembrandt Van Rijn)

오란단의 미술이 융성하던 17세기의 가장 우수한 화가인 동시에 르네상스시대의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겨누는 세계 회화사상의 거장이다.

그는 처음에는 초상화가로서 인기가 높았으나 독특한 광선과 음영에 의해서 걸으로 닳기보다도 인간정신의 깊이와 개성의 특징을 그리기에 이르러 차츰 인기를 잃어 만년에는 고독과 가난 속에 일생을 마쳤다.

그는 초상화 이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속에 직접 젖어 드는 따뜻한 애정이 배어나는 종교화에 능란했고 풍경화나 정물화에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특히 엣칭그 작가로서는 짝을 찾기 어려운 대가이다. 여기에 보인 것은 1634년의 작품으로서 3 스테이트 중의 제2 스테이트로서 원판의 왼쪽이 이 제2 스테이트에 이르러서 조금 잘렸기 때문에 서명의 R자의 절반이 없어진 대신에 칼의 일부가 바른쪽 테(柶)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그의 자화상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서 유명한 것이다.

(1606~1669)

명작사진(名作寫眞)



“Rose”

Works by Edward Weston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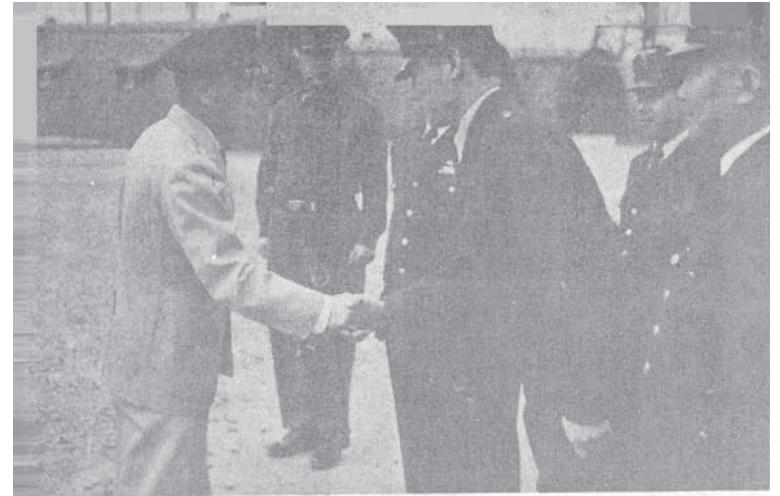
명작사진(名作寫眞)



“Shirley Mclane”

Yuji Hayata 作

극동지구 공군지도자회의에 김(金) 참모총장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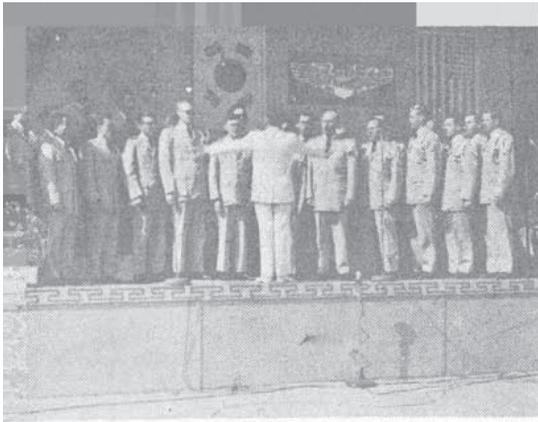


상(上) 필리핀의 바기오에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극동지구 공군지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4월 30일 여의도공항을 출발하는 김 참모총장을 환송하는 본부 참모

하(下) 극동지구 공군지도자회의에 참석하고 9일 귀국한 김 참모총장과 국내외 기자들과의 인터뷰 광경

미 공군 교향악단 대연주회(大演奏會) 성황

영 각하 내외분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 및
인 동 악단의 연주를 듣고자 운집한 수만
반 음악 애호가들 앞에서 성대히 진행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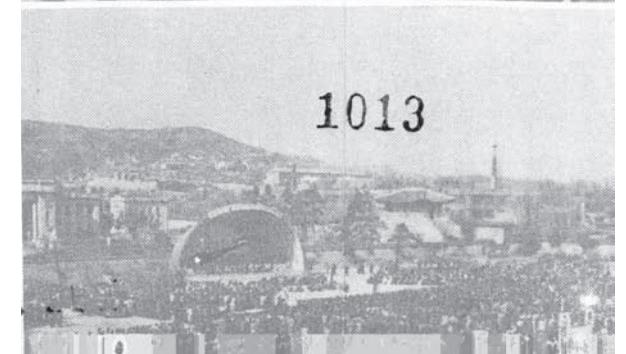


(1) 동 연주회에 참석하신 이(李) 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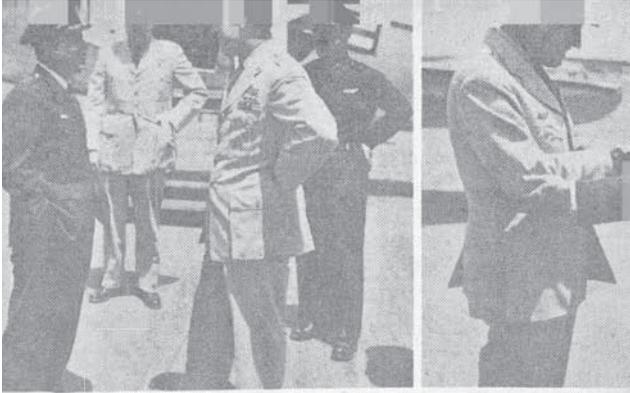
비롯한 내외 귀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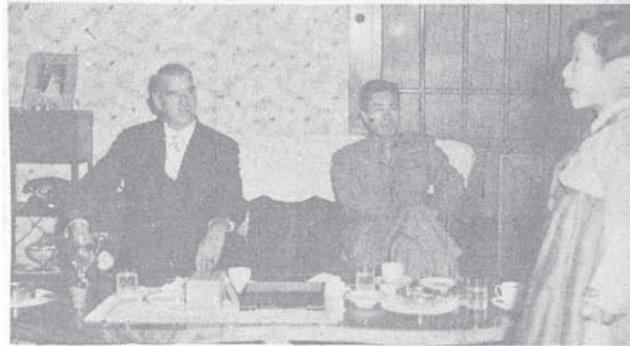
한국 내의 한미 양 공군의 항로통신보안 (航路通信保安) 상황을 시찰코자 5월 10일 내한한 미 공군항로통신보안단장 더들리 D 헤일 소장(좌)과 영접하는 김(金) 참모총장



비행장에서 환담하는 양(兩) 장군



상(上) 5월 16일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본부 참모들의 영접을 받는 전(前) 미 제 8군 사령관 제임스 A 밴프리트 장군 중(中) 5월 17일 저녁 김 참모총장 댁에서 베풀어진 밴프리트 장군의 환영회 광경



하(下) 5월 17일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작년에 월남한 이운옹(李雲庸) 대위 및 이인선(李仁善) 소위와 인터뷰를 하는 미 할리우드의 시티즌 뉴스 지(紙) 편집인 오스틴 카노버 씨(좌로 두 번째)



코메트

THE COMET



제21호

명랑(明朗)한 정신건설(精神建設)

정훈감(政訓監) 이종승(李鍾勝)

5월 달은 계절가운데서 제일 명랑한 때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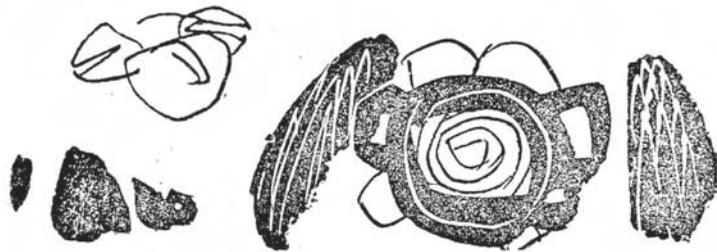
“5월의 태양은 명랑의 심볼(상징(象徵))”이라는 흔히 쓰이는 평범한 형용어 어떤 시인의 어구(語句)에서 비롯한 것인지 또 어느 때부터 내가 쓰게 된 말 인지는 지금 생각나지 않으나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남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게 그 변화가 확실하고 뚜렷한 계절가운데서도 5월처럼 싱싱한 맛이 대지에 감도는 때는 또 없을 것이다. 많고 새파랗게 구름 한 점 없이 가라앉은 아늑한 창공.

그 아늑한 창공을 향해서 감돌고 퍼져 올라가면서, 신선한 생명이 약동하는 신록(新綠)의 훈향(薰香).

5월이란 달은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는 한국의 계절가운데서만 매력 있는 때가 아니라 실로 지구와 자연 전체에 있어서 그 명랑과 신선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세월인 것도 같다.

이렇듯 명랑한 자연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명랑을 모르고 명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한 가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가리켜 한국백성의 민족성이라고도 한다. 한국 사람은 역사적인 민족적인 오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침울(沈鬱)을 즐기고 애수(哀愁)를 즐기고 비극(悲劇)을 즐기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민족성이요, 우리가 다년간의 남에게 억눌려 온 운명의 질곡(桎梏)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결과라면 우리는 한사바삐 이런 민족성은 뜯어 고치고 명랑한 정신건설을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외람된 말일지도 모르지만 ‘민족성의 개조’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우선 모든 것을 제쳐놓고 진정한 ‘명랑’을 가질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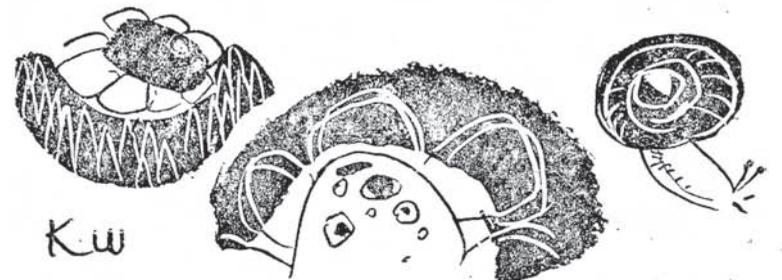
여기서 내가 말하는 ‘명랑한 정신’이란 것은 어떤 생활 속의 유머라든지 희극을 볼 때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골계매(滑稽味)라든지 언어행동에 있어서 남을 웃길 수 있는 소위 “익살맞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아니다.

진정한 ‘명랑한 정신’이란, 한 인간의 마음이 순전히 자신으로 돌아가서 텃검 불 하나 없이 잘아 앉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정신과 심리상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심, 사감(私感), 모략, 중상, 음모…… 이런 모든 타산적인 심리상태가 완전히 두뇌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백지장 같은 무모무해(無謀無害)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의 명랑한 정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제스처의 너털웃음—웃음 속에 칼날을 감춘 그런 명랑이 아니라 사심, 사욕을 떠나서 남을 바라다 볼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인간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주의 명랑함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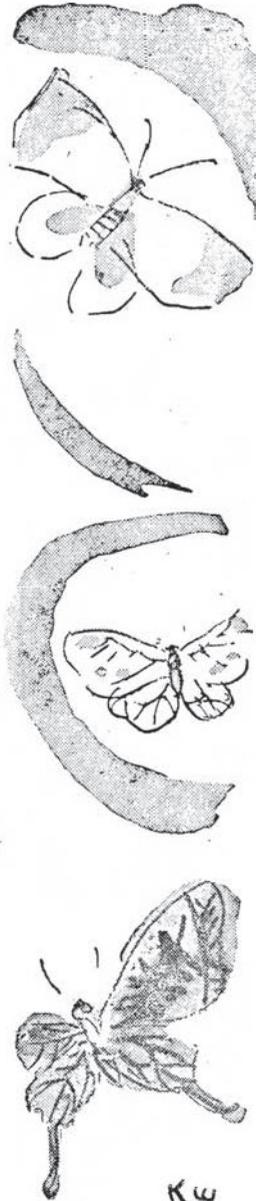
군인이건, 청년이건, 노(老)청년이건, 여성이건, 우리 민족이 각각 진정한 명랑 정신을 갖기에 노력하는데서, 사심, 사욕을 버리고 남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데서부터 우리 민족성은 인간성의 기본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주반공대회(亞洲反共大會)와 그 역사적(歷史的) 사명(使命)

김신실

소련의 세계 적화(赤化)의 야망은 동서 양 진영 간의 냉전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제2차 대전 후 아세아(亞細亞) 지역에 대한 적화 침투는 북한을 위시하여 중국본토와 북부 베트남을 침략 적화하였고 또 다시 소련은 중공을 사주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버마, 인도 등을 위협하는 일방 마카오의 무력침공을 집요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월남(越南)[베트남], 향항(香港)[홍콩] 등의 안전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지 않은가? 소련의 이 같은 가공(可憐)할 아세아 적화의 노골적 침략의 야망은 미소의교란 소련 제국주의 능글맞은 수법으로 자유진영을 농락하려하며 상반이반(相反離反)을 책모(策謀)하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밀려들어오는 적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므로 아세아 자유인민의 단결을 촉구하고 반공사상의 제후를 견고히 하여 평화와 안전을 보지하려는 데서 아세아민족반공연맹의 필연적인 탄생을 촉진하게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아세아의 안전과 평화를 희구(希求)하는 민족들은 국제공산주의와 유화(宥和)하려는 자들과 용공주의(容共主義)의 자를 배격하며 아세아에 있어서의 안전보장체를 만들어 낸 것이 연맹의 조직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연맹의 성격을 본다면 당초에는 아세아의 집단군사연합체를 구성해 보려하였으나 외부 정세(情勢)의 제반 사정을 이를 용인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대등할 아세아 자유민의 집단체로 반공 사상에 대한 강력한 정신무장이 라도 해서 진일보의 계단적 발전을 꾀해 보려고 한데 그 성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아세아반공연맹에 대한 개념적이나마 부분적인 활동과 그의 성과 등



을 구분하여 논하여 보려고 한다.

◇ 반공정신(反共精神)

소련 공산제국주의의 중국의 목적은 전 세계의 정복과 전 인류의 노예화에 있다. 공산제국주의가 자유 인민을 위협하고 있음은 논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공산제국주의야 말로 자유인민의 공적(公敵)인 동시에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攪亂者)이며 인류 파멸의 독소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방지하며 침략을 종결시키는 데에는 무력의 '힘'도 필요할 것이나 정신적인 무장이 더욱 필요함과 아울러 반공정신을 진작(振作)하여 반공운동을 전개함에 있다고 단정하고 싶다. 오늘날 공산주의의 위협이 아세아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그러하듯 반공운동 역시 아세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공정신이란 어떤 것이냐? 즉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투쟁의식을 가지고, 모순된 부정(不正)을 지적해가며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정신이 즉 반공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실시 행동화하는 것이 반공운동이라고 하겠으며 반공에 있어서는 인류, 종교, 신앙, 또는 직업 등 구별 없이 역량을 집결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균적(細菌的) 존재인 공산 침략을 방지하고 공산 치하에서 억압과 기아와 공포 속에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수억의 인민을 해방 구출하자는데 귀일되는 것이다.

◇ 연맹(聯盟)의 태동(胎動)

4282년 4월 진해(鎭海)에서 아세아의 양 거두 회담이 개막되었다. 자유중국의 장(蔣) 총통은 세계적 반공 지도자이신 이(李) 대통령 각하를 진해로 방문하고 아세아의 정세와 중국의 적화 침략 등에 대해 역사적인 거두 회담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경위는 생략하고 이 회담은 직접, 간접으로 반공기구의 산자적(産姿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조직의 기초가 되었었던 것이다. 그 후 4286년 제1차로 아세아민족반공회의가 진해에서 개막되었을 때 참가 민족대표는 8개국이었으며 각 대표는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반공운동의 추진 모체인 아세아민족반공연맹의 상설(常設)을 하는데 합의에 도달하였고 각국 대표는 아세아에 있어 자유인민의 수호에 대하여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반공운동은 정치적인 국가 배경아래 민족을 대표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자는데 뚜렷한 성격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아

세아 민족문화의 교류 등 상호 가맹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아세아의 자유보루의 성벽을 축조하자는 결의를 굳게 하였으나 유감스러운 일은 아세아의 자유진영 모든 나라가 이에 참가하여야 될 것인데 인도의 중립주의와 일본의 용공(容共) 타협주의와 또는 성격의 분별이 모호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제약한 이유는 우리의 반공운동이 민족 공생의 대의를 위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자는 자리에 애매한 태도의 중립적인 국가를 맞아 드릴 수는 없었던 까닭이다. 이 문제는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었고 금차(今次) 대회에 있어 현장 통과와 일대 암적(癌的) 존재였던 것이다.

◇ 제1차 반공대회(反共大會)

연맹 1차 대회를 1955년 9월 18일 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한 자리, 자유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류큐(琉球), 마카오, 홍콩 대표는 현장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동(同) 초안은 금차 대회에서 통과를 본 것이다.

동 현장의 초안의 골자를 추려 본다면 전문(全文) 17조로 되어 있고 그의 서문에는

“우리 아세아의 자유 애호 인민들은 민주원칙에 공헌하며 세계 각 지역의 공산 침략 위협을 긴급(緊切)히 의식함으로써 소연방 비호 하의 국제공산주의는 인류를 노예화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사악(邪惡)으로 본다. 우리는 자유 인민들이 공산제국주의와 타협 또는 공존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중략) 그러하므로 우리는 아세아가 세계자유와 평화에 대한 관건이며 우리 아세아민족들의 공동 구호(救護)를 위하여 단결할 것을 주장한다.” 선언하여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제1조에는 연맹의 직능을 명시하고 6개 항목으로 구분한 가운데 제5항에

“모든 국가의 정부에게 집단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원칙에 의거한 지역적 반공군사동맹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제4조에 가서는 각 민족 간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의 교류, 상호 경제 수요의 원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에는 가맹 자격, 제6조에는 기구, 7조에는 총회 등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데 금차 대회에서일대 암초에 걸렸던 문제의 조항은 제5조에 가맹 자격 문제이었다. 제1차 대회는 당초 중국 타이완(臺灣)으로 예정되었던 것이 필리핀

으로 변경된 이유는 중국 대표의 일본 대표 초청문제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도 이 대회의 성격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면(紙面) 관계상 상세한 경과를 논하지 못하는 유감이나, 제2차 대증의 경과를 약술하여 참고로 하고자 한다.

◇ 제2차 반공대회(反共大會)

마닐라 반공대회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기위(既爲) 신문보도를 통하여 주지의 사실로서 재론(再論)의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주요한 사실의 몇 가지를 들어 보려고 한다.

우리 대표단 중 수석대표 백(白) 박사의 연설은 이 대회의 존속의 위기를 구출하는 전기(轉機)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백 대표는 개회식상 연설에서 “이 대회는 이미 개최된 지 오래이어야 할 것이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 대회가 오늘의 개최를 보게 됨에 이에 여러 가지의 손실을 이 이상 더 거듭할 수 없으며 오직 반공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세칙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대회 장소가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변경한 이유가 중국 대표의 심중에 미련인 일본 대표 초청 의사(意思)이었으니 당초부터 현장 재론에 대한 중국 대표의 이의(異義)는 예상한 각 대표 간에는 표현기 어려운 공기가 대회 안에 떠돌고 무거운 저기압은 저속히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각 대표의 연설이 끝난 다음 회의는 의제 작성으로 들어가 비공개회의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중국 대표단은 현장 재론에 대한 이의로 현장의 채택 문제를 최종일인 12일로 연기하자는 것이었는데 표결에서 우리 대표단과 필리핀은 중국안(案)에 반대하였고 베트남은 기권, 류큐 대표만이 중국안에 찬동하여 9일 밤은 거듭되는 논전으로 성과 없는 밤을 밝히고 10일에 들어가서도 전일의 침울한 공기는 그대로 계속되어 무엇부터 토의할 것인지, 무엇부터 토의하자는 발언조차 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회는 완전히 고착상태에 함입(陷)하였고 결렬의 위기는 균박(均迫) 하였을 때 우리 대표들의 머리에 는 출발 당시 이(李)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성과 없이는 돌아오지 말라.”하신 유시(諭示)가 다시금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하였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우리 대표는 침묵의 장막을 깨트리고 열염(熱焰) 같은 기염을 토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반공투쟁방법을 타개할 수 없다면 제 나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무언중의 뿌린 간단한 연설은 만장(滿場)의 대표들의 심정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결렬 일본 측전에서 회생의 일침이 되었던 것이다.

고집을 일관하던 중국 대표도 미소로서 이의를 철회하게 되자, 침을 하였던 대회장은 일변하여 반공투쟁의 대도(大道)를 명시한 반공 현장은 중국측의 요구를 참작하여 “현장은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는 구절을 삽입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회의의 주목적이던 현장이 일사천리로 가결되자 긴장과 초조의 암운(暗雲)은 거치고 성사의 쾌감 속에 일대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진전으로 주최국인 필리핀의 의장 해루난데스 씨(氏)는 각 대표의 사교(社交) 시간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예방(禮訪) 등 계획을 발표하게 이르렀던 것인데 문제의 초점이 되었던 현장에서 구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가맹 자격에 관한 조항(제5조 4항)

“반공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가맹 신청은 총회 참가국의 만장일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는 것을 다수결로 하느냐 과반수로 하느냐가 문제이었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 통과하고 그 대신 제15조의 “본 현장의 목적과 가맹에 관한 사항의 개정은 만장일치를 요하고 기타의 규정은 총회 출석 가맹원의 4분지(分之)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본 현장의 목적과 가맹에 관한 사항의 개정은 앞으로 3년간 무조건 개정할 수 없고 3년 이후에 개정은 총회 출석의 4분지 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변경을 보게 된 것이다.

역사적인 반공 현장은 완전히 통과를 보게 되었으며 난산을 거듭하던 8장 18조로 된 반공 헌장 채택은 이것으로서 종결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는 완전히 동 회회를 리드 하였으며 6과(科) 분위(分委)에서도 우리 대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반공 대한의 앞날을 위해 다행한 사실이었음을 부기(附記)한다.

지면 관계상 다만 우리 대표들의 눈부신 활동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치 못한다.

중국 대표 구정강(谷正剛) 씨의 중국어 연설이나 류쿠 대표의 채장(蔡璋) 씨의 일본어 연설은 그다지 환영적 인상이 못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의 세련된 연설은 각 대표들을 완전히 제압한 감이 있었으며 논리 전개 정연한 논조(論調)는 각 대표에 인상 깊은 화제로 되었었다.

여기서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논한다면 6과로 1. 농업, 2. 정치와의 협조, 3. 사회, 4. 교육, 5. 노동, 6. 선전의 6과로서 전문적 분야에서 연구하였고 각 대표는 자기 나라에 있어서의 반공활동과 금후의 전망 등을 논의하였는데 본인이 참가한 교육 분위(分委)와 선전 분위에서 받은 인상은 공산세력의 준동(蠢

動)이 거개(擧皆)가 동일한 수법이었다는 것과 우리나라 군정 당시의 국내 공산세력의 준동을 연상시키느바 있었다.

6과 분위 중 우리 대표가 4개 분위의 의장을 담당하였다는 사실로 보더라도 우리 대표들의 활약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금후(今後)의 전망(展望)과 성과(成果)

이번 회의의 성과는 1. 현장의 통과, 2. 사업의 통과로 제3차 회의를 명년에 베트남에서 개최할 것과 10월에 한국에서 아세아 학생반공대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아세아 반공 여성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할 것 등을 결정한 것은 금차 회의의 수확이었으며 금후활동의 비약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세아의 반공열은 민족 상호 간의 지상(至上)의 목표로 추진될 것이며 이 운동은 나아가 세계적인 반공의 기초로 성장될 것을 굳게 믿어마지 않는 바이다. 더욱이 아세아의 반공은 세계평화의 관건이 될 것이며 이 운동은 마치 한국에 있어서의 3.1 운동과도 같이 영원히 아세아 인민의 정신 속에 깊은 뿌리가 퍼져나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더구나 아세아에 반공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동남아 일대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저속히 다행한 사실이며 민족문화 향상에도 지대한 공헌을 가져올 것으로 믿으며 금후 반공연맹의 활동이야말로 아세아 인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있어 실로 그의 사명이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에 들어가 반공운동이 자유를 애호하는 민족들의 자연발생적인 현상에서 출발한 정신무장 운동으로서 적화 침공을 방어하려는 투지와 역량의 집결을 촉구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반공에 있을 것이며 공산주의에 대하여 유화(宥和)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유화나 타협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설사 있다 해도 불붙여 놓은 폭발물에 도화선이 기냐 짧으나 하는 시간적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세아 인민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며 이 엄연한 사실은 대한의 운명인 동시에 아세아 전체 자유 인민의 지상의 과제일 것이다.

(필자(筆者) 아세아반공대회(亞細亞反共大會) 한국대표(韓國代表),
대한적십자사(大韓赤十字社) 사무총장(事務總長))

자유(自由)의 능보(稜堡) 한국(韓國)을 수호(守護)하기 위(爲)하여

공군대령(空軍大領) 장지량(張志良)

X X X

세계의 화약고의 도화선은 이미 북한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 절박한 폭발을 방지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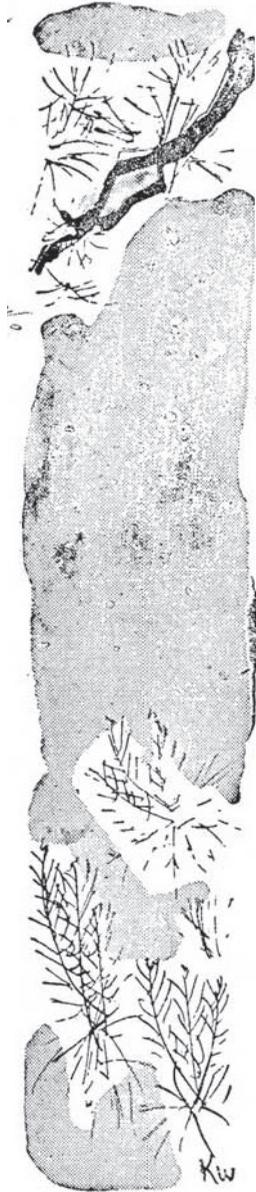
자유대한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전쟁의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대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이중(二重)의 목적—(1) 중공을 UN에 가입시키고 (2) 태평양 지역에 한 확고한 침략 기지를 점령하려는 고래(古來)로부터의 크렘린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한 공중 침략의 전쟁일 것이다. 유화주의자(宥和主義者)들은 이것을 '세계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자유 세계에 선전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의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엄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이 휴전협정을 무시할 것이라는 항의와 경고를 하고 휴전협정을 수락하였다.

우리는 크렘린과 중공이 휴전 성립 이전에 이미 그 새로운 전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협상한 것은 평화가 아니라 차기(次期) 전쟁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크렘린은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 기구를 건설하여 왔다.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도 크렘린은 항공 자재에 중점을 두고 북한을 원조하고 있었으며 이 정책은 계속되어 왔다.

중공의 UN 가입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된 최근의 UN의 조치가 하등의 논쟁도 없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흔히 소란하게 떠들어대는 공산진영에 비추어



자유세계를 경악케 하였음이 분명하다.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아세아는 이 공산 측의 묵종(默從)을 중공이 결국에는 UN에 가입하게 된다는 그들의 무언중의 자신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에게는 먼저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특히 그 '해결'에서 대부분의 자유 한국인들이 전멸된다면 그 다음에 중공은 '휴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조정자(調停者)'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별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통일은 그 자유를 수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태평양의 한 침략 기지로 만들려는 수백 년 동안에 걸친 러시아의 기도를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滿洲)와도 대(對)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현 북한 인구의 75%가 중공의 이민이며 그중 약 100만은 가장(假裝)한 중공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UN이 고의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재군비(再軍備)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중공의 현 노선은 무엇보다도 먼저 타이완(臺灣)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공산진영이 타이완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괴롭히는 동안 북한과 월남(越南)[베트남]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뿌리를 깊이 박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중공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는 한, 타이완 문제의 해결책이나 중공의 "새로운 평화의 표정"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무익(無益)한 노릇이다. 중공의 승인은 근본적으로 한국문제에서 중공점령군과 이민의 철수에서 북한에 대한 베이징(北京)의 정치적 지배의 단절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권리나 목표는 논쟁할 여지없이 명확한 것이다. 숫자상으로 보아 대한민국은 전(全) 한국 원주민의 95%를 대표하고 있다. 4,500년의 한국 역사와 전통은 한국의 평화에 대한 의욕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일도 없고 위협한 일도 없다. 단 한 번도 우리는 남의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려고 기도한 일이 없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결의에서 주저한 일이 없다. 외국에 의한 정복이나 괴뢰의 독재가 한국민(韓國民)으로 하여금 한국민을 위한 한국 이외의 다른 철학을 추종하도록 설복한 일이 없다. 우리의 전통적인 국경이 다시 설정될 때까지는 영속적(永續的)인 평화란 있을 수 없고 한국의 어느 일부분도 경제적

으로 자립할 수 없다. 우리 남북한의 결합은 역사상 근 5,000년 전부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해진 운명인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공명 정대한 선거와 진정한 통일을 약속하는 조항에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한, 그러한 선거와 통일을 결코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여하한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2,300만의 한국인은 대한민국을 믿고 있다. 200만 이내의 한국인만이 공산주의자이거나 혹은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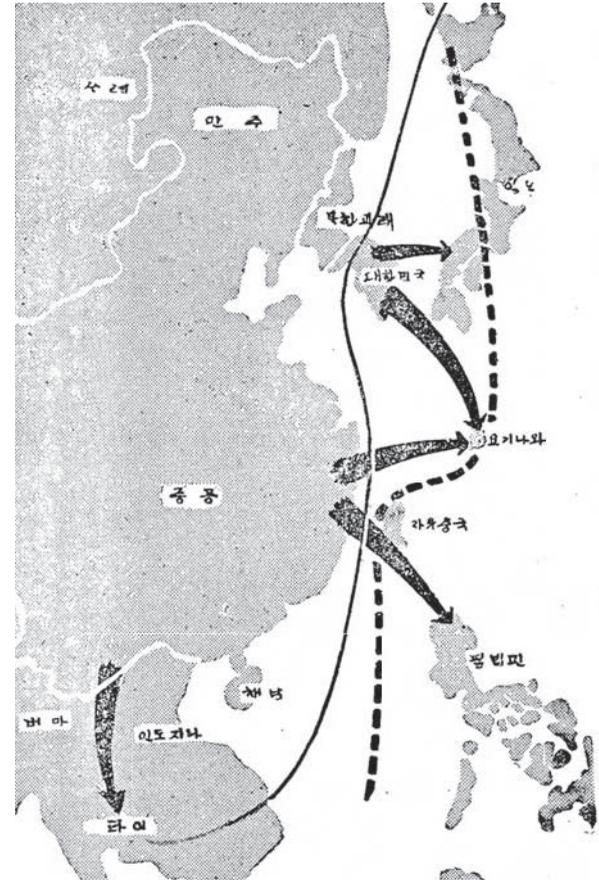
만일 한국 전토(全土)가 적화된다면 그것은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공권을 완전히 일소할 것이며 소련에게 해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상기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남부 일본, 오키나와 및 구암에 있는 미국 기지를 무력화하고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전 아세아대륙을 전략적으로 지배하게 할 것이다. 사상적으로, 그것은 전 동양에 자유의 조종(挀)을 올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관한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공산주의 선전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捏造)하고 있다. 자유민에게 있어서 외국의 침략자가 그 수도로부터 비행기로 5분 이내에 개시할 수 있는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오직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신랄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수십만의 대한민국 사람이 살해되고 다시 집을 잃게 될 것이며 자립경제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마도 단순한 마멸(磨滅)로 인해서 한국독립의 조종이 올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분규(紛糾)는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십여 년 전에 신문기자 길 R 윌슨과 로드니 길버트 양씨(兩氏)는 이미 한국의 부동항(不凍港)과 정박지(碇泊地)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의 야망을—400년 전부터의 야망을 간파한바 있다. 고래(古來)로 일본은 한국의 식량과 광산물은 물론이지만 한국을 중국대륙으로 진출할 징검돌(담석(踏石))로 노려왔다. 그런데 오늘날 항공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중공은 그 공중활동 범위를 확보하고 미국의 태평양 세력범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전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미국의 현실적인 관심은 도의(道義), 약속, 통상(通商) 혹은 협정보다도 공격을 받기 쉬운 그 방위의 진정한 잠재력에 있다. 자유 한국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태평양에 있어서의 제공(制空)의 서방 주계(周界)는 견고한 능보를 형성하며



오직 자유 한국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서부 대륙 방위는 침범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2차 대전 중 태평양 연안은 이 사실을 절실히 경험하였다.

여기에 계재(擡載)된 지도에서 가느다란 선은 오늘날의 미국의 서부 제공권(制空權)을 표시한다. 이 선은 일본과 시베리아의 중간을 통과하고 있으며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확보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의 잠수함의 활동과 시베리아 만주(滿洲)로부터의 공중 침략을 제지하고 있다. 이 선은 꾸불꾸불하게 38선을 통과하고 있다. 이 38선이 1,000평방마일의 논(답(畓))과 약간의 공업지대를 북한에 제공한 휴전 조건에 의해서 사기 당하였다는 사실에 주

목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땅은 북한이 전전(戰前)에는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땅의 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전쟁 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인 것이다. 다음에 이 선은 오키나와와 구암을 중공 본토와 분리하고 이들 기지를 막대한 희생을 요하는 대규모의 공격을 제외한 침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 선은 또한 진먼(金門), 마주(馬祖) 양도(兩島)를 방위하고 있으며 타이완을 위한 외부 능보(稜堡)로서 확보하고 있다. 이 선은 자유세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타이완해협의 지배권을 주고 있으며 중공 하이난도(海南島)로부터의 잠수함 활동을 제지하고 중공과 마래(馬來)[말레이시아], 수마트라 및 인도네시아 간의 공연한 교통을 제지하고 있다. 그 다음 이 선은 인도지나(印度支那)와 버마의 자유세계의 경계를 따라 서쪽으로 전개하여 풍부한 세일론을 보호하고 있다.

다음에 점선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날에 발생할 사실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들이 북한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위험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남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는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오키나와는 그 전략적 이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마주, 진먼 양도는 방위할 수 없는 목표가 되고 말 것이며 타이완은 무가치하게 되고 정돈(停頓)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타이완해협은 중공의 제공(制空)과 소련 잠수함의 제압(制壓) 하에 들어갈 것이며 이것은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서남아시아의 중추인 하이난도까지 완전한 해상 루트를 설치하게 할 것이다. 수만 척의 중공 정크¹⁾선(船)—그렇게 많이 있다—은 보급물자와 중공 계릴라를 싣고 즉시 타이완해협을 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 엄호와 하이난도의 잠수함기지의 보호를 받아 이들은 변하기 쉬운 천기(天氣)와 타이완 밖의 해상을 뚫고 해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남도로부터 공산군과 보급물자와 교통망은 중공 본토를 따라 동쪽으로 전환하여 수마트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도달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협하거나 또는 서쪽으로 인도지나와 버마를 향하여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는 길은 중공과의 전면적 전쟁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공권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중부 및 북부 일본에 있는 그 기지까지도 소련 정책 여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방위선은 진주만(眞珠灣) 기습 당시의 해상방위선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제1차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1) 원문은 장크 junk

그러나 다시는 미국인이 우리를 방위하도록 요청을 받는 일이 없기를 대한민국은 진심으로부터 원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아세아에서 최대는 못될지라도 최강의 지상군을 훈련시켰다.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춘 전투원 660,000명에 달하는 잘 장비된 2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밖에 준비되어 있는 예비군에 해당하는 100만의 전투경험을 가진 시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전 국민은 거의 모두 전쟁상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전(戰前)에 한국에 없었던 증공군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120만의 북한피뢰군과 동등한 병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휴전 이래 북한 공산군은 600대의 탱크로 장비되어 있는데 그 중 400대는 3-85형(型)이고 170대는 SO-76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보급을 받는다면 지상전쟁에서 우리의 지상군을 능히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산 재침(再侵)의 제1단계는 거의 완전히 공중공격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방위를 준비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레이더 정보망은 불충분하다. 북한은 41개 소의 레이더 경보소와 46개 소의 요격 지상통제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8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군사(軍事) 옵서버들은 대한민국의 조종사를 아세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불과 F-51 무스탕 〇개 비행단으로 장비되어 있을 뿐이며 우리는 다시 F-86 세이버제트 〇개 비행단을 완성 중에 있다. F-86은 分明히 MIG-15보다 우수하지만 MIG-17보다 전투능력이 더 우수하지는 못하다. 우리 공군은 모두 미 공군의 지도하에²⁾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 불과 〇〇〇명의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조종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중 〇〇〇명은 제트 훈련을 완료하였고 〇〇〇명은 그들이 조종할 제트기를 가지게 되는대로 제트 훈련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100대의 II형 제트폭격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전연 제트폭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제트조종사 양성에 광분해왔다. 북한피뢰 공군은 1,900명의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반수(半數) 이상은 소련군 사절단 밑에서 제트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다. 그중 다수는 소련에 가서 최종 훈련을 받았다. 북한피뢰 공군은 주로 한국전쟁 이후에 제작된 300대의 MIG-15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비행기를 보충할 예비기 없는데 반하여 그들의 경우에는 보충할 비행기를 만주로 받을 것이다. 현재 중공 자신의 공군은 1,200대 내지 1,500대의 MIG-15 및 MIG-17과 북한피뢰 공군의 2개

2) 원문의 '에 으로는' '에로' 불.

폭격비행단 이외에 최소한도 300대의 최신형 II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만주 간에는 교통, 보급 및 병참(兵站)이 잘 통합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만주의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궁주령(公主嶺)은 북한괴뢰 공군 제4비행사단의 IL-28 100대의 기지이며 지린(吉林)기지는 북한괴뢰 공군의 훈련기지로 되어 있다. 비행기의 수리는 소련인의 감독 하에 노련한 만주 기술자들이 최신 기계를 이용하여 행할 것이다.

전방 전투기 기지로서 북한괴뢰 공군은 북한에 있는 폭격으로 파양된 그들의 대부분의 비행장을 수리하고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중에는 극히 현대적인 것도 있으며 압록강(鴨綠江) 이남의 그들의 비행장은 도합 35개소에 달하는데 그중 15개소는 제트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북창(北昌)기지의 지하 격납고와 긴 활주로와 레이더는 훌륭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우열(優劣)의 차(差) 그 자체만 하더라도 심한 것인데 그밖에 북한 괴뢰 공군은 또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 공군의 전술부대는 한국으로부터 철수하여 비행시간 40분 내지 45분을 요하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천기(天氣)는 변화가 심하다. 즉시 비행한다는 것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흔히 적은 그들이 돌아갈 때 야군이 요격하기 곤란한 천기를 이용해서 남한을 공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괴뢰 공군 조종사들은 야간 및 전천후(全天候) 비행을 위해서 잘 훈련되어 있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들의 전방기지는 서울까지 비행시간 불과 5분밖에 요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괴뢰 공군은 남한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폭격기의 파상공격을 가하고도 미 공군이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압록강 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의 원조 없이는 충분한 방위공군력을 보유할 수 없으며 북한괴뢰 공군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이 전투력의 차이가 일소됨으로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바와 같이 자유 한국인은 그들 자신의 전투의 대부분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스탕비행단을 즉시 제트기로 전환하고 제트비행단을 3, 4개 더 증설함으로써 우리의 공중전투력을 증강하여야 할 것이다. F-100형 전투기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센놀트 장군이 압도적인 일본군에 대해서 우월한 전술과 우수한 조종사를 가지고 무엇을 달성하였는가를 기억

하고 있다. 그는 단호하고 잘 훈련된 군대가 행할 수 있는 일을 실증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울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때에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가지고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간은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세계의 화약고는 근동(近東)이나 구라파나 타이완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화약고의 도화선은 이미 북한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단 하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자유의 능보로서의 그 자신을 수호할 수 있는 수단을 대한민국에게 주는 것이다. (끝)

「플라잉」지에서 전재(轉載)

13페이지의 지도 설명
가느다란 선은 오늘날의 미국의 서부 제공권(制空權)을 표시한다. 점선은 공산군이 화살표와 같이 한반도 전역, 남부 일본의 미군기지 및 서남 아세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진출할 때 발생할 사태를 표시한다.

세계인구(世界人口) 26억(億) 해마다 4천만(千萬) 증가(增加)

유엔 당국은 1954년도의 세계인구가 26억 5천 2백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1억 3천 3백만 명의 착오 가능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구는 매년 4천만 내지 6천 6백만 명의 비율로 증가 일로는 견고 있다고 유엔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7백 9십 페이지에 달하는 유엔의 인구통계연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주(洲) 인구	
아세아주	14억 5,100만
구라파주(소련 제외)	4억 400만
미주	3억 5,700만
아프리카주	2억 1,000만
대양주	1,440만

☆ 주요국가 인구	
중공	5억 8,300만
인도	3억 7,700만
소련	2억 1,200만
미국	1억 62,00만
일본	8,800만
인도네시아	8,100만
파키스탄	8,000만

☆ 주요도시 인구	
뉴욕	1,200만
런던	830만
도쿄	630만
상하이	620만
파리	480만



공사교(空士校) 4기생(四期生) 졸업식(卒業式) 참관기(參觀記)

젊은 보라매가 날개 치는 날 그 모습 미더워라 하늘의 방패

외국에 비해서 항공의 역사가 짧고 또 미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 공군이 선진 항공국보다 앞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공군사관학교의 창설이다. 이에 비해서 항공의 최선진국가인 미국 공군사관학교는 작년에 비로소 신입생이 입교하였다.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일찍이 4281년 3월 15일 우리 공군의 요함지인 김포기지에서 창설되

었는데 이는 장래의 공군의 중요성 즉 전쟁 수행에 있어서 공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독자적으로 고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시국의 요청에 대응해야 하겠다는 데서 현 참모총장을 비롯한 몇몇 건군(建軍)간부의 선견지명으로 창설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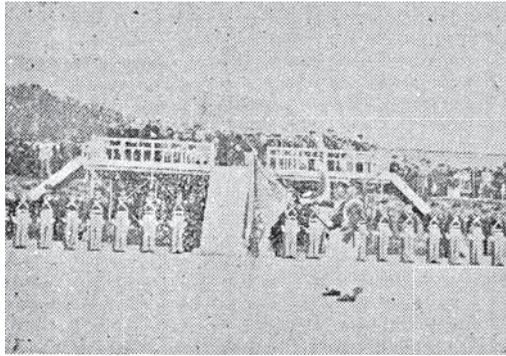
그로부터 8개 성상(星霜), 치열한 6.25 사변을 겪으면서 제1기 사관을 졸업시켜 현재는 우리 공군의 중견장교로서 조종, 정비, 통신, 기상, 행정 등 각 부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또 4기 사관의 새 출발을 보았으니 우리 공군의 더욱 굳건하고도 빛나는 장래가 약속된 셈이다.

4월 10일 상오(上午) 11시와 동일(同日) 하오(下午) 2시에 공사(空士) 및 해사(海士)의 졸업식은 남쪽의 군항 진해에서 거행된 것이다.

이날 아침 8시에 보도진(報道陣)을 버스에 태우고 여의도(汝矣島)에 도착하자 3대의 C-46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날씨는 흐렸다 개였다 하였으나 대체로 안심할 만한 날씨였고 베테랑 조종사인 김중보(金重寶), 윤자중(尹子重)의 양(兩) 소령과 장덕균(張德均) 대위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李) 민의원(民議院) 의장을 비롯한 내외 군관 귀빈을 2대의 C-46에 분승(分



〈사관생도의 분열식(分列式) 사열(査閱)〉

乘)시키고 다른 1대에 보도진을 태운 3대는 9시 20분 목적하는 진해를 향해서 여의도를 이륙하였다.

도중 추풍령(秋風嶺)을 중심으로 한 산머리에는 백설이 뒤덮고 군데군데 검은 녹색의 반점이 보이는 위를 엮은 흰 구름이 너울너울 흘러지고 있었다.

이윽고 10시 40분이 되자 진해만이 보이며 대소(大小) 무수한 회색의 군함이 오색의 테이프인지 혹은 만국기(萬國旗)를 장식하고 의젓하게 정박하고 있었다.

손바닥만 한 비행장에 성냥갑 같은 격납고가 활주로 옆에 자리 잡고 유도로(誘導路)에는 이미 몇 대의 수송기가 파킹하고 있었다.

시가(市街)를 내려다보니 만도(滿都)는 축하 일색이다.

공사교(空士校), 해사교(海士校)가 한꺼번에 내려다보이며 이미 많은 내빈이 공사교에 모였고 졸업생은 연병장에 정렬하고 있었다.

빛꽃도 이날을 축하하는 듯 군데군데 불긋불긋하게 피기 시작하였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진해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바다에 떠있는 함선박과 나란히 무덤 같은 섬이 散在한 광경은 매우 인상 깊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비행장은 근일(近日) 드물게 외래기(外來機)가 많아서 매우 혼잡을 이루고 있는 듯 기지 지휘탑과 상공의 비행기와의 연락이 빈번하였다.

진동도 없이 비행기가 착륙하자 동승한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성조지(星條紙)의 미인(美人) 기자는 “참으로 훌륭한 착륙”이라고 칭찬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리고 보니 대소(大小) 각종 비행기의 기수(機首)에는 내외 장성(將星)의 별판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기지지휘소 앞에서는 이(李) 민의원 의장이 해공군(海공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었으며 이 기지 상공에는 아직도 몇 대의 비행기가 착륙을 기다리며 순회하고 있었다.

마중 나온 버스로 공사교를 향했다. 연도(沿道) 양측에는 헌병과 경관이 경비하고 있으며 도로는 청소가 실시되었고 복장을 단정하게 차린 사람들이 자꾸만 공사교로 향해서 연(連)이었다.

교문을 들어서자 오색이 영롱한 복장을 한 각층각양의 내빈이 교내에 운집하고 있었다. 회색바지에 감색(紺色) 상의 그리고 지휘도를 대도(帶刀)한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가 정렬하고 있었으며 교정 중앙에는 백색 바지에 역시 감색 상의에 지휘도를 찬 사관생도, 중앙 전면(前面)에는 이번 졸업생이 백색 와이셔츠에 예복을 갖추고 신입 공군장교가 되어 긴장과 흥분과 기쁨에 찬 표정으로 정렬하고 있었다.

연병장의 전면(前面) 중앙 일층높이 백색의 사열대에 내외 귀빈이 착석하고



있으며 사열대 좌우에는 내의 군관, 귀빈, 학부형 그리고 많은 보도진이 개식(開式)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열대 뒤에는 서울방송국의 녹음반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열대에는 4, 5대의 마이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품과 졸업장이 졸업생을 기다리는가 하면 졸업생의 빛나는 시선이 사열대에 집중하고 있다.

흐렸다 개였다 하면서도 아지랑이가 너울너울 4월의 춘풍에 국기가 나부낀다. 갓을 쓴 할아버지, 양복을 입은 내빈 신사와 머리를 명주 수건으로 싸맨 시골 할머니에 빨간 하이힐에 루주도 곱게 컷 헤어의 초(超) 모던 양(嬢)과의 대조가 흥겨웠다.

무수한 자동차가 교착(交錯)하며 내빈은 아직도 부절(不絶)이다.

이윽고 10시 정각, 이(李) 대통령 각하 부처께서 교장 신상철(申尙澈) 준장의 안내로 내왕(來往)하시자 국기 게양대에는 무궁화의 쌍룡기(雙龍旗)가 미풍에 나부끼며 오르고 애국가의 주악(奏樂)이 주변을 제압하니 일동 기립 옷깃을 여미고 국가원수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회색 소푸트에 얽은 흑색 오버의 대통령 각하와 치마저고리에 흑색 하이힐을 신으신 동 부인, 대통령 각하께서 사열대에 오르시고 내의 귀빈과 인사를 교환하신 다음 10시 5분 이(李) 대통령 각하에 대한 경례로서 영예의 4기 사관 졸업식은 개막되었다.

시선을 잠시 사열대로 돌려보면 중앙에 이(李) 대통령 각하 내외분, 옆에 이(李) 민의원 의장, 조(曹) 외무부장관서리(外務部長官署理), 안(安) 국회국방분과위원장(國會國防分科委員長)과 동 위원들, 연합참모본부 총장 이형근(李亨根) 대장(大將), 육군참모총장 정일권(丁一權) 대장, 제1야전군 사령관 백선엽(白善燁) 대장, 공군 참모총장 김정렬(金貞烈) 중장, 해군 참모총장 정금모(鄭兢模) 중장, 해병대 사령관 김석범(金錫範) 중장, 주한 미국대리대사 스토롬 씨(氏), 미 제5공군 사령관 래미 중장 등 그야말로 나성(羅星)과 같다.

소파에서 탈모(脫帽)하신 대통령 각하의 백발은 송고의 두 자(字)에 끝이며 화색(和色)이 만연하신 존안을 배견(拜見)하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개식(開式) 선언에 이어 군목(軍牧)의 기도 “졸업하는 자들에게 강건한 신체와 고매(高邁)한 정신으로 구국의 지사(志士)가 되옵도록 축복하시고 아울러 이 자리에 왕립하옵신 대통령 각하의 염원인 생전에 통일을 보옵도록 만능하신 신의 은총을 비읍니다.”하는 명랑하고 경건한 기도소리가 장내를 엄숙하게 하였다.

기도가 끝나자 오늘의 주인공이며 아버지인 교장 신상철 준장의 축사가 있었다. 희색이 만연한 신(申) 교장은 오늘로서 그의 다년(多年)의 공로가 보답되는 것이다. 아니 그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주야로 분투한 것이다. 다소 흥분과 긴



장도 섞여 흥조된 표정이다.

군기 엄정한 가운데 자애심에 가득 찬 교장, 대(大)를 위해서 때로는 소(小)를 희생시킬 때가 있는데 특히 사관생도답지 못한 행위라든가 푸른 제복의 긍지를 저버리고 비신사적인 자, 배신자, 의리부동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학술이나 기술에 있어서 타(他)를 능가한다 할지라도 인격에 있어서 비열하거나 행동에 있어서 비겁하면 이는 벌써 사관생도로서는 낙제라 하겠다.

그는 오늘의 이 영광 특히 졸업하는 사관생도들로 하여금 신의를 지키고 의리, 인정에 살며 상화하목(上和下睦)하며 굳게 단결 융합하는 기간(基幹)장교를 육성하기에 다대(多大)한 심로(心勞)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이들의 장도(壯途)를 축복하는 공사(空士)의 아버지 신상철 준장의 언언구구(言言句句) 감격의 축사 그의 음성은 확실히 떨렸다.

“오늘 대통령 각하 내외분을 비롯하여 이(李) 민의원 의장, 그리고 여러 귀빈을 모시고 또 오늘 있기를 위하여 음양 주야로 애쓰신 학부형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의 깊은 본교 4기 사관생도의 졸업식을 거행함에 제(際)하여 학교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궁벽(窮僻)한 이곳까지 원로(遠路)를 무릅쓰고 왕립해주신 귀빈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고컨대 졸업생 제관(諸官)은 거금(距今) 4년 전인 4285년 5월 15일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려는 웅지(雄志)를 품고 본교에 입학한 이래 4개 성상(星霜)을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소정(所定)의 과정을 끝마치고 아직도 미국에서 제트기의 조종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〇〇〇명이 오늘 영광스럽게도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내빈 여러분과 더불어 무한히 기뻐하며 아울러 졸업생 일동에게 영광 있으라고 충심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사관학교 설치령(令)이 제정된 후 최초의 식을 맞이하게 되고 졸업생들에게는 이학사(理學士)의 학위를 수여하게 되니 더욱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졸업생 제군(諸君)은 지나간 4개년간의 연학(研學)을 통하여 용맹무쌍한 갈투정신과 결백하고 강인한 의지를 배양하고 여하한 곤란도 극복 타개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학업을 수료하여 오늘의 영광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졸



〈상장 수여 광경〉

3) 원문의 소(少)는 소(小)로 봄.



업이 곧 완전이요 또 전부가 아닌 이상 전도(前途)가 요원하고 아직도 닦쳐올 난관이 지난날의 몇 배나 되고 또 바야흐로 형극(荊棘)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니 제군은 결코 소성(小成)에 안일치 말고 더욱 분발하여 부디 대성(大成)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담담한 인간성과 군인으로서의 감투정신과 철석같은 의지력을 겸비하고 상호 협조 책임을 완수하며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숭고한 기풍과 신념을 형성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민족의 방패가 되어 우리들의 쌍견(雙肩)에 부하된 숙원의 남북통일 성업(聖業)을 달성하기에 충진군할 것을 거듭 부탁하는 바입니다.” 교장의 축사가 끝나자 임관(任官) 사령장(辭命狀)이 수여되고 뒤이어 전(全) 졸업생에 대하여 졸업장이 수여되었다.

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은 이(李) 대통령 각하의 악수와 간곡한 격려의 말씀을 받고 감격찬 표정으로 국가에의 분골쇄신 충성을 다할 것을 무언지중(無言之中)에 맹세하며 하단(下壇)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전(全) 졸업생 중 우등자(優等者)에 대한 상장과 상품 수여가 있었다.

먼저 대통령상에 빛나는 일등 김재윤(金在玆) 소위, 그러나 김 소위는 현재 미국에서 F-86 세이버 제트기의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예스러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그의 부친 김한수(金漢守) 씨(48세)가 감격과 흥분에 가득 차 긴장한 표정으로 등단(登壇)하여 대통령 각하로부터 상장과 금시계를 수여받고 대통령 각하의 치하의 말씀을 들으며 하단(下壇)하였다.

하단한 부친에게 소감을 묻자 “감격,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는 가문 전체의 명예이며 후손에게 길이 전해 질 명예가 되겠습니다. 그 애가 일등을 차지하여 이렇게 영광된 날을 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영광과 감격을 명심하여 그대로 조국통일을 달성하는데 신명(身命)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년간 키워온 자식에 대한 모든 고난이 오늘로서 한꺼번에 그의 부친에게 보답된 것이다. 다음 2등은 손(孫) 국방부장관의 상장과 시계가 홍재학(洪在鶴) 소위(정비)에게 수여되었고 3등 공군참모총장의 상장과 시계는 유현주(兪鉉周) 소위(통신)에게, 4등 사관학교 교장상이 온수복(溫壽福) 소위(F-51 무스탕 전투기조종사)에게 상장과 시계가 각각 수여되었다. 이날의 감격과 흥분은 이때 최고도에 달하고 전(全) 교내의 공기를 환희로 충만시켰다.

4년이라면 짧다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엄격한 훈련과 치밀한 학과교육 일사불란의 단체생활을 통한 단결심 배양, 상호협조 정신의 형성, 전우애 양양, 담담한 인간성과 결백한 인격을 도야(陶冶)해온 4년이란 참으로 고난의 길이었으며 인내의 연속이었다. 뒤이어 미 제5공군사령관 래미 중장은 다음과 같은 축사를



피력하였다.

“이(李) 대통령 각하 내외분, 이(李) 민의원 의장, 손(孫) 국방장관, 김정렬(金貞烈) 장군,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국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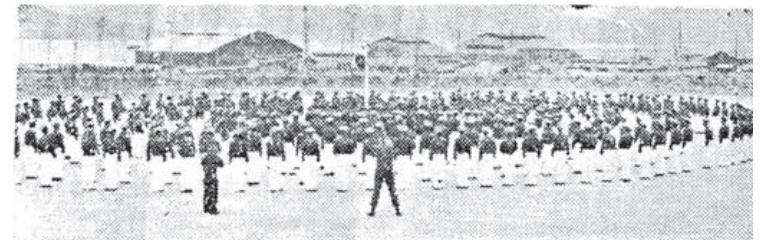
오늘 우리는 한국 공군사관학교 제4기생의 졸업을 축하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졸업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졸업은 한국 공군의 ‘역센 장교단(將校團)’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장교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여러 졸업생 개개인의 업적에 영광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이 성취시킨 영광에 대해서 자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자부할 만합니다. 본인은 여러분의 이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앞으로 한국공군의 지도자가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군의 힘은, 그 전투력은, 여러분의 통솔력과 전문적 능력에 직접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솔력은 여러분이 받은 기술적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의 전진(前進)은 공군장교의 책임에 대한 건전한 인식과 그에 할한 진지한 헌신에 기초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장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일층의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장교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바야흐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관으로서 임무를 맡은 후에는, 공군력 기술의 새로운 발전은 여러분이 이곳 사관학교에 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재래(齎來)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오직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관학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을 응용하여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時期)를 위해서 여러분을 육성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은 특질(特質)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졸업의 영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使徒) 비둘기 날리기〉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와 같은 각오로 임한다면 그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한국 공군을 위해서 좋을 것이며 한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며 우리가 다 같이 기원하는 평화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이때 10시 37분, 4개 편대의 무스탕전투기가 폭음도 경쾌하게 북방으로부터 식장 전방(前方) 상공을 통과하자 이(李) 대통령 각하와 내빈은 일제히 공중 분열 축하 비행을 사열하였다.

이(李) 대통령 각하께서 마이크 앞에 나가셨다. 오늘의 장도(壯途)를 축복하시어 대통령 각하께서는 특히 공군의 우위(優位)와 증강의 긴급성을 강조하셨다. 그 요지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가게 되어 더욱 마음 든든 한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침략의 위협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애를 써서 그것을 모두 물리쳐 왔었는데 나중에 간악(奸惡)한 일인(日人)들에게 10년 동안이나 욕된 통치를 받아오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오늘날 또 다시 그러한 침략의 위협이 날로 증가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책임이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비행기의 전쟁입니다. 우리 육군이 아무리 강하고 또 해군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공군 없이는 육군도 해군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 공군이 크게 강화되어 육군, 해군, 공군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현대전의 특색인 과학전(科學戰) 특히 항공전(航空戰)의 우위와 중요성을 지적하셨고 또 우리 공군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대통령 각하의 유시(諭示)를 끝으로 오늘의 의의 깊은 식전(式典)은 끝나고 대통령 각하에 대한 경례, 군악대의 애국가 주악, 이때 축하 비행편대는 고도 약 700피트로 식장(式場) 상공을 극적(劇的)으로 통과하여 더욱 뜻있게 식전을 장식하였다.

10시 55분 교가(校歌) 제창으로 폐식(閉式)하자 곧이어 사관생도의 분열(分列)에 들어갔다.

하늘을 지키려는 굳은 결의를 젊은 가슴에 벅차도록 지닌 사관생도의 늠름한 분열은 조국 방위의 상징 그대로였다. 분열이 끝나고 대통령 각하가 퇴장하셨다. 이윽고 재교(在敎) 사관생도로부터 졸업하는 선배에 대한 지환(指環) 증정이 있었는데 재학생은 하나하나 반지를 선배 손에 끼워주며 전도를 축복하였다.

반지 증정에 이어 평화의 사도(使徒) 비둘기 날리기가 있어 만장(滿場)한 학부



<대통령 각하 퇴장>

형의 박수갈채로서 졸업식을 전부 마쳤다.

잔잔한 물결 이는 푸른바다를 앞에 내려다보며 뒤에는 울창한 산을 배경으로 일단(一段) 높은 곳에 위치하고 삼면에는 산이 우뚝 솟아 기후는 온화하며 기온은 타지방보다 높다.

4월 중순이면 햇빛이 만발하여 이곳 사관생도들은 훈풍을 듬뿍 호흡할 수 있는 절호의 항도(港都)이다.

더구나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이곳의 풍토야말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짚어지고 나가야 할 젊은 가슴 속에 활달한 도량과 태산 같은 침착성 그리고 꽃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배양하는 데는 어느 곳보다도 적당하다.

이러한 좋은 풍토에서 심신을 연마한 보라매의 장래는 무한히 축복받고 있으며 우리 공군은 그들의 치적에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지난 2월 4일 무스탕전투기로 훈련 중 애석하게도 창공의 수호신으로 산화(散華)한 고(故) 유재옥(柳在錫) 소위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제 그의 명복을 비는 마음 더욱 간절함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가고 없는 오늘 그에 대한 인관 사령(辭令)과 졸업장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그를 추모하게 해주고 있다.

졸업생이여 힘차게 그리고 굳건히 발전 비약하시라! 그대들의 기대는 그대들 쌍견(雙肩)에 달려있으니 그대들 자신의 영광과 그대들에게 부하된 중책을 위하여 용맹 과감하게 싸우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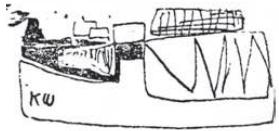
푸른 하늘은 언제나 그대들의 희망의 심볼이며 그대들의 영원한 고향이다. (끝)

설남(雪男)은 360관(貫)?

영국의 과학자들은 히말라야 산의 설남의 무게는 약 3,000봉도(封度)(약 360관)로 추산하고 있다.

탐험대가 눈(雪) 위에서 발견한 길이(장(長)) 12인치(30cm 여(餘)), 너비(폭(幅)) 6인치(15cm 여), 눈이 들어간 깊이(심(深)) 11인치(27cm 여)라 한다. 설남의 족적을 기초로 여러 각도로 계산해본 것이다. 사람이 눈(雪) 위를 걸어본 족적은 1인치(2.45cm)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구라파기행(歐羅巴紀行) (2)

서서(瑞西)[스위스]와 이태리(伊太利)

박동섭(朴東燮)

세계(世界)의 공원(公園) 서서(瑞西)의 인상(印象)

필자가 루산시(Lucern)에 도착한 것은 재작년 9월 초순인데 일기는 한국보다 더운 편이었다. 흔히 영화나 그림책에서 서서의 산봉과 호수의 풍경을 볼 때마다 동경의 감정을 억제 못하였고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 하고 거의 불가능했던 희망을 품었던 자신이 지금 서서의 한 복판에 와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서서는 4만 1천 평방키로 미터의 면적에다 인구 4백 50만 명을 담고 있는 소(小)국가이지만 알프스 산지(山地)의 고원에 마련된 이 작은 국가의 무수한 계곡의 호소(湖沼)에는 천년의 빙하의 위관(偉觀)과 더불어 춘하추동 사시절 유람(遊覽) 보양(保養)의 나그네 떨어질 날이 없는 세계의 낙원이다. 헐리웃의 여배우, 중동의 귀족, 텍사스의 석유 왕들, 세계의 황금은 1년 내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다 원래가 근면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는 고로 서서 인구 4백 50만 명 중 4백 3만 6천 명이 1불 내지 천불의 은행 예금구좌(口座)를 갖고 있으며 36만 명이 천불 이상의 예금구좌를 갖고 있다고 하니 그 국민생활의 안정도가 어느 정도인 지 짐작 될 것이다.

여기에서 20세기의 2대(大)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보호하여 전진(前塵)과 포성을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다.

Swiss라는 국명은 건국 당시 일주(一州)였던 Schwitz에서 유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古) 독일어의 '발한(發汗)'이라는 뜻으로 급사면(急斜面)의 계곡(溪谷) 용천(湧泉)이 많은데서 이와 같이 불려 졌을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서서에는 빈민굴(貧民窟)(Slum)이 없고 실업자가 전무(全無)이고 구라파에서 조직적인 사창굴(私娼窟)이 없는 곳도 서서라고 한다. 국가 전체가 계곡이라 풍부한 수력발전시설을 갖고 있어 모든 철도는 전화(電化)되어 있으므로 석탄 매연이 들어오지 않는 전기철도에다 몸을 싣고 계곡으로 호수가로 고원으로 질주하면서 차창을 통해서 보는 서서는 문자 그대로 공원이요 낙원이라 하

는 인상을 뼈저리게 받는다. 푸른 잔디, 기름진 옥토, 우거진 숲, 각양각색의 건물, 색깔 등 천연색영화를 감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만인(萬人)이 스위스를 찾아 여행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 이야긴 상 싶다.

호텔의 시설이 가장 근대화되어 있는 곳도 스위스이었다. 일례(一例)를 들어 보면 승강기가 조종사 없이 오토매틱으로 되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구라파에서는 스위스뿐이었다. 말하자면 미국 양식을 가장 많이 본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좋은 반면에 호텔 값을 위주로 하여 여행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은 아마 스위스일 것이다.

서론 비슷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이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루산시에 관한 나의 인상을 적어 보려 한다.

루산시의 호수는 스위스에 오는 여행자로 하여금 한없이 스위스적 풍취를 느끼게 해준다. 시가지를 옆으로 끼고 뻗어있는 이 호수는 어찌 광막(廣漠)한지 바다와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엄연히 바다가 아니고 사람의 네 손가락과 같은 모양으로 된 호수가 스위스 중부를 점하고 있는데 이 끝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루산시의 호수이다. 파도는 물론 없고 잔잔한 수면은 마치 투명한 수정과 같다. 이 호수에는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보트나 요트는 별로 없고 이채롭지 못하나 2인용 족탁선(足擡船)은 처음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브레이크 비슷한 것을 발로 조종하면 전진 후퇴 방향 전향이 자유로이 되는 것이고 보니 아름다운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엮어 앉히고 있는 광경이란 낭만적으로 보였다. 나는 같이 탈 여성도 없고 해서 모터보트를 한 척 빌려서 흡족하고 스위스의 호수를 즐겨 보았다. 여기에서도 여행은 혼자서는 할 것이 아닌 양 싶었다.

모르기는 한데 이 호수상에 배를 띄우고 청유(淸遊)한 자 중에는 세계의 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있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남겼을 것이다. 나는 과거에 읽은 기억 속에서 유명한 테스의 작가 토마스 하디가 정부(情婦)와 더불어 영국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이 호수에서 정을 속삭이면서도 노스타투리아에 사로잡혔는지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는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다.

루산시는 스위스 유일의 교통중심지이며 상업중심지이다. 스위스라면 시계의 대명사가 되다 시피 유명한 시계공업 국가인데 이 시계공장이 제일 많은 곳이 역시 루산시이다. 나는 여행사의 특별 주선으로 붓차라(Bucherer watch Co.)라는 시계증사의 공장을 견학하였다. 시계공장은 탄 공장과 달라서 그리 요란

스러운 모터엔진의 소음이 없는 조용한 가내(家內)공업과 같은 인상을 준다. 제작 경로의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하나 놀란 것은 우리는 시계라면 기성 제품만을 생각하였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고객의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여 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부인들이 반지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 내가 견학할 때 최후 완성공정에서 어떤 미국 부인의 주문이라고 하여 백금으로 사자형(獅子型) 시계를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물었더니 미화(美貨) 1천불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통 시계공장에서 은배(銀盃)이니 은 접시 같은 것을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가보다 우리나라가 스위스를 모방하였다는 것이 지당한 말이 아닌가 한다. 시계 값은 미국의 약 절반이다. 미국에서는 카메라나 시계에 대해서는 관세, 연방세, 주세(州稅) 등이 부과됨으로 현지 시세보다 약 배가 된다.

스위스는 산자수명(山紫水明)의 낙원(樂園)이기는 하나 역사적 고적에 있어서는 구라파에서 제일 전통 없는 국가이다. 아까 전통이 오래되고 고적이 많은 국가는 파란곡절이 많은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의 파란곡절이 고적을 만드는 것 인지도 모른다. 보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이집트, 중국 또는 인도 같은 제국(諸國)에는 고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가. 불란서에 가서도 느꼈지만 루브르나 베르사유 등 그 웅장한 규모의 고적이 현재까지 남아 후손들이 그 고적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와 같은 고적의 기원은 대체로 역사상 폭군이나 악왕(惡王)이니 하는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인지도 모른다.

스위스는 영세(永世) 국외(局外) 중립국이지만 노상(路上)에서 별로 화려하지 못한 카키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어떤 스위스인에 질문했더니 자기 보양(保養)을 위하여 스위스도 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하루는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맥주를 청하여 마시면서 보니 벽에 재작년 7월에 스위스에서 거행되었던 세계축구대회 기록이 큼직하게 첩부(貼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한국이 이속에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전적은 비록 참패이지만 한국 팀이 여기까지 왔었던 것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가 너무도 이 스코어를 응시하였음인지 한 개아손(급사)이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기에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더니 이 자 흥이 나게 당시 축구시합 정경(情景)을 설명해 준다.

왈(曰) “이번 대회에 동양 팀으로는 한국뿐이었기 때문에 관중의 흥미의 대상이 되었으며 헝가리와 터키와의 양 시합에서 한국 팀은 석패(惜敗)했으나 한국

팀의 골키퍼는 초인간적으로 공을 막아 내어 인기 독점이었다.”고 서툰 영어로 애써 설명하면서 “한국이 석패한 주인은 주력(走力)의 부족이라.”고 몸짓을 하면서 이야기 해주었다. 스위스 국민들은 축구를 좋아하며 카페에서 이 축구의 중계방송과 또는 그때그때 기록되어 첩부되는 스코어를 보고 맥주를 마시면서 자기 독특한 평(評)을 교환하는 것을 하나의 낙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미국에서는 바에서 야구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과 같은 취미이다.

루산시에서 꼭 찾아볼 곳이 2개 처(處)있다. 하나는 구라시엘 정원(Glacier Garden)이다. 여기에 가 보면 스위스의 고대풍속 기타 고적 등의 모형이 있어 참고 되는 점이 많다. 이 입구에 있는 루산의 사자(Lion of Lucerne)는 인상적인 조각이었다. 이것은 1792년의 투레리 전역(戰役)에서 전사(戰死)한 무명병사들의 명복을 위한 기념 조각이다. 둘째로 보아야 할 곳은 스타트케라(Stadtkeller)란 카페다. 여기에 밤에 가보면 스위스의 원시 복장을 한 가수들의 스위스 고전음악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긴 소뿔이 통소로 부르는 목동들의 노래 등 옛적의 스위스의 농원목장 등을 선하게 방불 시키는 애조(哀調) 띠민요 등 즐거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카페인데 어찌 유명해졌던지 미리 예약해 두었다가 가지 않으면 좌석이 없을 정도이다.

루산을 떠나 인타라켄(Interlaken)을 경유하여 짜마트(Zermatt)란 고원(高原)도시 역(驛)에 도착하니 역마차를 가진 여관 안내인들이 수십 명 아우성을 쳐대는 것이 꼭 부산역쯤에서 야간열차에서 내린 기분이다. 이 고원도시는 동계(冬季)에는 스키팬, 하절(夏節)에는 하이킹팬들이 전 세계에서 운집하여 온다. 스위스 알프스를 등산하자면 이 고원도시로 와야 한다. 이 고원도시는 여관과 등산 내지 스키용구를 파는 점포로만 된 도시였다. 알프스를 나는 등산하는 대신 특별궤도열차(Cog train)로 해발 4481m에 매타혼산(山)(Matterhorn)을 3분지(分之) 2까지 올라가 보았다. 이와 같이 높은 산봉에도 석조(石造)역이 있고 훌륭한 호텔이 있었다. 여객 안내인으로부터 등산하기 전에 내의를 더 겹쳐 입어야 하고 색안경을 준비하여야 하고 안면에서 글리세린을 발라서 강렬한 태양광선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다. 고가선(高架線) 케이블 차는 여기까지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산록(山麓)에다 유람객을 위하여 몇 백 미터 정도 가 설치되어 있어 이것도 타보았다. 산록은 여름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약 3천여 미터 등산한 이곳에는 백설이 아직 남아있고 매타혼산을 중심으로 알프스 연봉(連

峰)에는 수척(數尺)되어 보이는 백설의 위용(偉容)이 등산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천 미터 지점인 이 이상 등산은 등산전문가가 아니면 위험한 것이다. 영화에 소설에 노래에 나오는 알프스가 바로 안전(眼前)에 용립(聳立)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국제적 도시 제네바(Genava)에 대한 인상을 엮어 볼까 한다. 제네바가 국제적으로 클로즈업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연맹본부가 여기에 설치된 이래라고 본다. 이 도시 역시 호수를 앞에 끼고 있는 그림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다.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공원의 푸른 잔디 위에 분홍이니 노란 색깔 꽃으로 큰 나비 모형을 만들어 있으니 감히 짐작 될 줄 생각 된다. 그리고 어떤 데는 스위스 국기를 만든 곳도 있다. 이 도시의 명물의 하나는 호수 속에 분수가 수십 척(尺) 올라가고 있어 이채를 띄우고 있는데 밤에 여러 색깔 전등 빛에 아롱거리는 이 분수는 특별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호수가 공원에루소의 동상이 있었다. 루소의 조국은 스위스이다.

국제연맹본부 건물을 견학하였다. 수개월 전에 바로 이 건물 속에서 남북한 대표들이 마주 바라보면서 한국문제를 토의하였던 것이다. 건물은 아무 표정 없이 잠잠하였다. 이 건물 일각에는 국제연합세계보건기구(WHO)의 간판이 걸려 있었으며 이 건물 서쪽 길 건너에는 세계적십자기(旗)가 휘날리고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중심가를 산책하면서 나는 일본영화「지옥문(地獄門)」이 일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데 놀랐다. 한문(漢文) 영화 광고에는 좋은 인상을 받았으나 일본영화가 여기까지 판로 개척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질투심과 분발심이 교착(交錯)하는 것이었다. 내가 뉴욕에 있을 때 「부로드우에이」에서 일본영화「나생문(羅生門)」의 광고를 보고 똑같은 기분이 있었다.

끝으로 스위스 국민은 자연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대단히 근면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소득 중에서 소비를 절약하여 저축할 줄 아는 우수 민족이며 이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경의 표시는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다.”(He is good worker.)라고 칭찬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대단히 정직한 국민이라고 한다. 어떤 공원 수도(水道) 옆에 누가 팔목 시계를 잊어버리고 수일 후에 가 보았더니 이 시계가 여전히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계를 남이 훔쳐 가기는커녕 시계가 죽은 것을 보고 누가 태담마저 잡아주고 정확한 시각을 맞춰 놓았다고 하는 하나의 유명한 삽화(插話)가 있다.

이태리(伊太利)의 고적순례(古蹟巡禮)

세계 최장의 심프론티널(Simplon tunnel)을 경유하여 스트레사(Stresa)에서 일박하고 이태리 공업중심지인 밀라노(Milan)에 도착하였다. 밀라노에는 여행자로 하여금 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作)인 「최후의 만찬(Last Supper)」이다. 이 벽화는 제2차 대전 중 절반이 파괴되어 다시 잔류 부분에만 가화(加畫)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원화(原畫)의 색을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결작이라고 설명한다.

둘째로 밀라노에는 세계 제일의 오페라 극장 라스카라(Lascale)가 있다. 이 장내(場內)의 예술적 조형(造形) 그 무대의 광대함과 음향장치의 우수성으로 보아 세계 최고라고 불리고 있다. 이태리는 오페라의 국가이다. 전국에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이 산재(散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로마의 오페라 좌(座)(Opera House), 베니스에 라페니스(La Feniece), 제노아에 카루페리스(Carlo Felice), 푸르렌스에 콤나루 극장(Communal Theatre) 및 나폴리에 산가루로(San Carlo) 등이 있다. 이 라스카라는 항상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1월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만 공연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간 9월 중순에는 아무 공연도 없어 참으로 유감천만이었다.

셋째로 밀라노 사원이다. 과거의 이태리 종교가 얼마나 그 세력이 강했는가. 이 사원은 우리에게 역력히 설명해 준다. 건물 규모는 로마의 산파타 사원보다 작을지는 모르나 건물의 위용(偉容)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아닌가 한다. 영국의 산폴 사원, 독일의 케룬 사원 다 웅장하지만 이에 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된다. 이 사원 앞 광장에는 수백 수천마리의 비둘기들이 앉았다 날았다들 하고 있다. 사람이 가도 도망치지 않고 장사꾼이 파는 모이를 사서 뿌려주면 사람 어깨, 머리 할 것 없이 덩벼드는 것이다.

밀라노를 기차로 떠나 베니스 역에 도착한 것은 석양이 서산에 떨어질 무렵이라 수도(水都) 베니스는 더욱 아름답다기보다 성(聖)스러워 보였다. 역전이 바로 운하(運河)이다.

곤돌라(Gondola)에다 몸을 싣고 여관행이다. 이 곤돌라에는 5인 승선하게 되어 있는데 선판(船板)에다웅단(絨緞)을 깔 것이 옛적 귀족들이 생각난다. 베니스는 도로라는 것이 별로 없고 집과 집이 전부 운하로서 연락되어 있어 신문배달, 우편배달 등 가옥 현관이라는 것이 배 닿은 곳에 문비(門碑)가 붙여있다. 이 운하 쪽은 매우 좁고 교량은 중간이 높게 만들어져 있어 곤돌라가 통과하는데

불편이 없으며 집 모퉁이를 꼬부라질 때는 사공끼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나 서로 신호를 외치는 것이 대단히 흥미 있는 광경이었다. 「눈의 베니스」는 시적이고 낭만적이지만 「코의 베니스」는 상상 이외로 더러웠다. 왜냐하면 이 운하 물이 내려가는 물이 아니고 잠긴 물이기 때문에 썩어서 그 악취는 정 떨어질 정도였다.

내가 정한 호텔은 유명한 「산마르크」궁전(St. Mark's Palace)의 곁이었다. 이 태리의 공화정체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다. 의사당, 민성함(民聲函) 등 민주주의 정치가 벌써 9세기경에 이곳에서는 실시되었다고 문헌에는 설명되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재판장소도 바로 이 궁전이었을 것이다. 궁전의 각실(各室)의 벽화 및 천정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그려졌을까 의심할 정도의 걸작뿐이다. 5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회의실의 천정화는 3년에 궁(巨)하여 그려졌는데 이 천정화가 완성되자 그 고생 때문에 화가가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12세기경의 작품들인데 그 당시 어쩌면 이와 같은 색깔이라든지 그 그림 내용 등 이태리 예술의 우월성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태리에는 이러한 벽화나 천정화 외에 도처에서 모자이크의 걸작을 볼 수 있다.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을 대리석 조각에 색을 들여 이 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대리석 식탁이라든지 방바닥들에 흔히 황홀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중세기의 귀족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호화스러웠던 것이다.

이 산마르크 광장 입구에 자동시계가 있다. 이 자동시계 위에 동제(銅製) 인간이 두 사람 종(鍾)을 자동적으로 15분간에 한 번씩 치면 종소리는 운하의 물결을 타고 전시(全市)에 전파되고 자동시계의 바늘은 정확한 시각을 표시하는데 4백년래 이 시계는 시각을 표시해 내려온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나는 작년 추석 달을 베니스 강상(江上)에서 보았다. 밤에 여관의 주선으로 여러 손님들이 수척(數隻)의 곤돌라를 대절(貸切) 분승(分乘)하는 동시에 이태리인 바이올린리스트 및 아코디언리스트와 남녀가수를 초빙하여 등불을 곤돌라 앞뒤에다 달고 이태리 민요를 들으면서 추석 명월의 새빨간 달빛을 듬뿍 받아 가며 베니스 강상을 청유(淸遊)한 기억은 이번 구라파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의 하나이다.

프로렌스(Florence)는 이태리 예술의 보고이다. 프로렌스에 오는 여행자는 누구든지 먼저 산존세례당(Baptistry of St. John)을 찾는다. 단테는 이 교회를

“나의 아름다운 산존”(My beautiful Saint Jone)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 교회에 미켈란젤로가 ‘극락의 문’(door of paradise)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철문이 있는데 이 철문 위에는 구약(舊約)의 열 가지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산타마리아 사원에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조각 피에타(Pieta)가 있다. 프로렌스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도처에 많으며 미켈란젤로와 프로렌스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공로가 위대하였던 것이다.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1547년서부터 1555년에 궁(巨)하여 조각했으나 미완성인 채 서거하였으며 드디어 자기 묘지가 되고 말았다. 피에타란 성모 마리아가 크라이스트의 시체를 무릎에 껴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프로렌스는 비단 이태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예부흥 전후의 예술품의 보고이다. 파리의 루브르도 있지만 문외한인 나의 견해로서도 프로렌스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보아야 할 예술품은 한이 없어 제한된 일수에는 도저히 다 일일이 찾아 다녀볼 도리가 없다. 이 많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우피지 미술관(Uffizi Gallery)이다. 이 속에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위시(爲始)로 13세기의 지보적(至寶的) 작품들이 하루로는 볼 수 없을 만치 보관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受胎告知)(Annunciation)라든지 미켈란젤로의 성가(聖가)(Holy Family) 등의 세계적 작품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술관이다. 프로렌스의 교외(郊外)에 그리 중요한 교회는 아니지만 동양과 관계있는 산프란시 교회(Church of st. Francis)가 있다. 이 교회 속에는 이태리 선교사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중국의 묵화, 도자기, 고대 관복, 청룡인(淸龍靑龍刃), 창, 서적, 사진 등의 진열실이 있어 이채로웠다. 프로렌스와 미켈란젤로와의 관계가 얼마나 불가분인가는 미켈란젤로의 광장이 있다는 사실로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광장 중앙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다비데(David)의 모조(模造) 조각이 있으며 전시(全市)를 내려다보는 조망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풍경이다. 프로렌스와 같은 인류의 보물을 영원히 보유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 본다.

이 프로렌스는 문예부흥의 첫 무대이었던 것이다. “농부는 목우(牧牛)와 다름이 없다. 단지 농부에는 뿔이 없을 뿐이다.”란 중세 독일의 이언(俚諺)에 있는 바와 같이 무자비한 학대를 받았던 농노적 농민이 90%를 점한 거대한 봉건적 중세사회로부터 새로이 인간과 세계를 발견하고 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적 자유와 권리를 구가하는 근세사회에의 과도기가 인류의 재생을 의미하는

르네상스였던 것이다. 단테의 「신곡(神曲)」(1318년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1352년경)의 두 곡에 막이 열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의 회화에 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데」와 모제 등의 조각에 중세의 우울에서 선탈(蟬脫)하여 근대의 명량한 꽃이 피려는 호화스러운 부흥을 憧 경했던 곳이 바로 이 프로렌스가 아니었던가. 프로렌스에서 이태리 수도 로마에 가는 도중 페루지아(perugia)를 경유하여 아시시(Assisi)에서 하차하였다. 이 아시시는 이태리 민족의 최고(最古) 촌락(村落)국가로 로마 건국 865년 전에 이 촌락국가가 존재하였다고 한다. 기독교가 이 아시시에 전파된 것이 3세기경인데 당시 기독교인이 많이 선교 때문에 회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태리 최고 고적이다. 여기에 유명한 산프란시 교회(Church of St. Francis)가 있다. 괴테가 그의 로마 비가(悲歌) 속에서 “오호(嗚呼) 로마 그대는 하나의 세계로다. 사랑 없는 세계는 세계가 아닌 것과 같이 사랑 없는 로마도 로마가 아니다.”라고 송가(頌歌)한 바와 같이 로마는 하나의 세계이다. 5백여 고적은 수개월을 두고 찾아 다녀도 다 보지 못 할 것이다. 로마에 들어서는 여행자는 첫째 로마역의 근대식 건축미(建築美)에 놀란다. 스웨덴 스톡홀름서부터 이 로마까지의 구라파 종단 국제 급행열차의 종점이 바로 이 역이며 이것은 확실히 이태리의 자랑임에 틀림없다. 다음 인상적인 것은 로마는 도처에 분수가 있다. 사자(獅子)입, 해구(海狗)입 또는 여성(女性)입 등의 여러 석조조각으로부터 분수가 제일 많은 곳이 이 로마인상 싶다. 이와 같이 물을 즐겼던 지나간 로마인들은 과연 결백하고 청초(淸楚)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로마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오토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시네마스콕의 「애천(愛泉)」(Three Coins Fountain) 등 이 로마시의 분수 풍경을 가장 특징적으로 묘사한 영화들이다. “로마는 하루에 만들 수 없다.” 또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한다.”는 등 서양 이언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사고하였다는 그 자체가 고대 로마의 전성시대를 능히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래 역사의 파란곡절은 여기서 그 상세한 것을 적어볼 수 없다. 그러나 특기(特記)하고 싶은 것은 북수남진(北守南進)의 자연 지세가 이태리의 역사와 문화를 조건적으로 결정지어 왔다는 사실이다. 고(古)로마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제(諸)민족의 교통, 무역, 문화의 중심점이었으며 한때 게르만족의 침구(侵寇)를 받았으나 습곡산맥(褶曲山脈)이 종단(縱斷)하고 있는 이 반도(半島) 국가는 이동하는 대(大)민족을 포용하는 생활역

(生活域)으로서의 국토는 너무도 협소했고 남구(南歐)의 온화한 풍토는 장래의 민족을 정착시켜 문화를 약탈하여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동화되고 흡수되었던 것이다. 과거의 고로마가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이태리는 여러 민족, 여러 문화, 언어 풍습을 이 국토가 가진 자연의 성격 속에 포용하였던 것이다. 이태리 통일 이 근세까지 늦었다는 이유의 태반(太半)은 역시 이태리 국토의 형식과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활조건이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인간의 생활적 조건 — 그것은 인간을 쫓아 신전을 세우고 신전을 부수어 인간을 맞아드리는 유전(流轉) 수십 세기의 건설과 파괴를 되풀이 하여온 인류의 축도(縮圖)였다. 문예 부흥의 예술이 이곳에 탄생하였고 가톨릭 법왕령(法王領)이 이곳에 설정되었던 것이다.

로마의 고적 중에 제일 먼저 특기할 것은 유명한 콜로세움(Colosseum)이다. 이 고대 로마의 원형 대연기장(大演技場)은 서기 72년에 착공하여 80년에 준공되었다. 이 공사(工事)에는 해부류 노예들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건축은 로마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제8세기경 베나라부두 베드가 말하기를 “이 콜로세움이 존속하는 한 로마도 존속한 것이고 이 콜로세움이 허물어지는 날에는 세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 대건축을 찬송했던 것이다. 약 1900년 전 건물이지만 그 윤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귀족들의 좌석이라든지 중앙무대들의 모습이 남아있다. 2천 명을 수용했고 무대상의 연기라는 것이 굵추린 사자와 노예들과의 사투를 구경하였다는 것이다. 낮에 갔다가 감격한 나는 밤에 다시 나와 달빛 밑의 이 역사적 고적을 감상해 보았다. 파괴된 동굴 속에는 잠자리를 펴는 거지들의 움직임이 보이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토굴의 거지들이 문득 연상되었다.

다음 로마의 고적 중 유명한 것은 줄리어스 시저 광장(Forum of Julius(Czesar)과 오거스터스 광장(Forum of Augustus)의 폐허이다. 2천 년 전의 희랍(그리스)식(希臘式) 건축의 희미한 모습이 남아 연상할 수 있도록 잔류되어 있다. 초석(礎石)이라든지 몇 가래의 석조 기둥 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로마의 건축양식은 희랍식이다. 이것을 볼 때 희랍의 건축문화는 로마의 기독교의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 같이 어렵듯이 생각이 난다. 희랍문화와 기독교의 융합이 근대문명의 원동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콜로세움으로부터 콘스탄틴 문(Arch of Constantine)까지의 위대한 도로의 광경은 마치 파리의 개선문으로부터 콩골드 광장까지의 광경과 흡사한 것이 후세에 나폴레옹 황제가 로마를 모방하여 파리를 설계한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는 고적이 너무 많아서 도로계획

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도로의 폭이 좁고 음침(陰慘)한데 이 콜로세움과 콘스탄틴 문까지의 도로만은 훌륭한 대로(大路)였다. 다음 여행자가 꼭 발길을 돌릴 곳은 로마 법왕청(法王廳)의 산파다 교회와 그 광장이다. 이것은 설명할 것도 없이 전 세계 기독교의 대령도자인 법왕(pope)이 군림하고 있는 곳이다.

이 광장에는 무려 50만 명 군중이 집합된다고 하니 그 규모는 놀랄만한 것이며 우리가 영화나 잡지에서 이미 그 광경은 봐온 터이다. 이 교회의 내부 장식의 화려함은 필설(筆舌)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으며 특히 모자이크의 미(美)는 극치에 달한 감이 있고 벽 주위에는 역대 법왕의 사진이 엄숙히 걸려있는 것이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장엄성에 굴복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대역사적 건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미켈란젤로 돔(Dome of Michelangelo)이다. 미켈란젤로가 거의 70 고령 시에 이 돔을 설계했으며 그의 죽은 후에야 그 제자에 의하여 완성된 것인데 푸른 하늘의 배경과 대조되는 이 거대한 예술품은 하나의 위대한 시의 조화이며 건축미의 수(粹)라고 일컬어짐을 수긍치 않을 수 없다. 로마시 교외에 카타콤(catacomb)이란 이름 아래 세상에 알려져 온 기독교인 지하 납골실(納骨室)이 있다. 흑색 가운을 입은 목사님의 안내로 촛불을 들고 지하 수십(數十) 척(尺)으로 내려다가보니 상금(尙今) 해골이 남아 있으며 전신에 한기를 느꼈다.

로마에는 전설의 트레비 천(泉)(Fountain of Trevi)이 있다. 이것은 비단 그 물이 맑다는 데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천(泉)에다 동전 하나를 투입하면 다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이 돌아온다는 전설의 천이다. 맑은 물속에는 수백수천의 동전이 아니고 현 이태리의 닥클 화(貨)가 보인다. 전기(前記)한 영화 「에천(愛泉)」 역시 이 전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희극영화이다. 나도 이 전설에 따라 닥클 화 하나를 투입하여 미래의 행운을 빌면서 로마를 떠나 남하하였다. 나폴리는 이태리 반도 남단(南端)의 중요한 항구다. 원래 상항(商港)으로 발달해온 도시인데 현재는 미 함대의 중요 거점이 되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밀라노 다음 가는 대(大)인구 도시로 약 150만 명이니까 서울 인구에 흡사하다. 이태리의 산업중심지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부 이태리이고 남부 이태리는 농업 이외에는 별 산업의 발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태리 민요하면 누구든지 먼저 신타루치아를 생각 한다. 이 민요의 발상지가 바로 이 나폴리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곧 이곳 나폴리가 낭만적으로 연상되며 남구(南歐)의 정서를 느껴지는 것 같으나 현실의 나폴리는 구라파 최대의

슬럼 지역 다시 말하면 빈민굴이다. 듣건대 인구의 3분의(分之) 1이 거의 실업 상태라고 한다. 나폴리 역에 내리자마자 가짜 파카-51 만년필이니 라이터니 하는 장사꾼이 둘러싸고 질질 따라오면서 사라고 강요하는 꼴이 한국 역전과 똑 같으며 미국 담배를 어린 소년들이 갖고 다니면서 파는 초라한 모습도 어쩌면 한국과 같은지……일출 친밀감조차 느꼈다. 그러나 여행자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깨에 멘 사진기니 호주머니 돈지갑 등 어느 귀신도 모르게 없어지고 만다.

이태리는 제2차 대전 후 사회질서도 혼란했고 경제적 부흥도 구라파에서 제일 지지(遲遲)했을 뿐더러 과잉인구에다 식량부족으로 민생이 안전 되지 못한데서 여러 가지 사회악이 소생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이태리영화 「자전차의 도적」이니 「로마의 11시」 등 이와 같은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라파에서 공창(公娼)제도가 상금 존속되고 있는 사회가 이태리다. 이런 것이 다 우연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정직한 반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역사란 영고성쇠(榮枯盛衰)가 교체되는 것인 지라 과거의 중국은 어디로 갔고 과거의 로마제국도 어디로 갔는지?

나폴리는 포도주 명산지(名產地)이며 나폴리의 특산 요리인 지중해 생선요리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는 풍미란 이곳을 여행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나폴리에서 자동차로 약 두 시간 달리며 서양사상(西洋史上) 유명한 폼페이(Pompeii)에 到達한다. 이 도시국가 폼페이에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주민이 집단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희랍문명의 영향을 받아 현재는 폐허가 되었지만 잔존 부분의 고적을 통하여 희랍 건축양식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전 80년까지는 폼페이는 로마의 지배를 성공적으로 막아 냈었던 것이다. 그러나 드디어 기원 79년 이후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며 로마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명의 총독과 2명의 총독대리를 매년 도시의 일반투표에 의하여 선출했던 것이다. 상금 입후보자의 성명을 성벽에다 쓴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 도시는 주위가 3,200m 성벽으로 둘러싸였으며 남북으로 두 개의 주요도로가 종단하고 있고 동서로 역시 두개의 주요도로가 횡단하고 있어 결국 9개 구역으로 나뉘어졌던 것이다. 기원 62년에 지진으로 전파(全破)되다 시피 된 것을 재건하였으나 재차 원 79년 8월 24일부터 28일 사이의 베스비어스 화산의

극적인 폭발로 완전 파괴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유명한 폼페이 최후의 일이었던 것이다. 1748년부터 지하로부터 여러 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도 발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 속에 박물관이 있는데 대단히 조직적인 진열을 하고 있었다. 이 폼페이의 고적 중 여행자로 하여금 가장 흥미를 느끼게 하는 곳은 베티(Vettii) 형제가 살았다는 집이다. 실내의 화려한 장식, 회화의 풍부한 수집 및 청동과 대리석의 조각 등 그 옛날의 부유한 생활의 흔적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회화의 수집 중 춘화도(春畵圖)가 있는 방이 있어 여행자로 하여금 진기한(珍奇)한 감을 주는데 이 방에는 여자는 견학 금지로 되어 있어 더욱 흥미 있다. 형제는 이 도시에서 제일가는 부호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일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항상 절감한 사실인데 내가 좀 더 서양사와 고고학 및 예술에 관한 지식을 가졌었더라면 얼마나 공부가 되고 행복했을까 후회 막심했다.

예술은 인종, 민족, 시대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며 특히 인간생활의 의미 내용을 어떤 방향에 구하고 있는가를 시현(示顯)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라파의 예술에는 구라파의 정신을 현저히 표현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 구라파 예술의 전형은 고식 풍의 가람(伽藍)이다. 자연과 융합함이 없이 독립 완결(完結)의 건물로서 그 높이를 자랑하고 문비(門扉)로 부터 탑의 꼭대기까지 석재(石材)로서 마치 신(神)이 그러하듯이 주위의 여러 사물에 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각만을 보더라도 동양의 조각이라면 우선 신의상이나 초상에 국한되는데 이에 반하여 서양에서는 고래(古來) 조각은 '인간'의 이념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나체의 묘사가 많다. 나체의 미(美), 성숙의 미는 영육일치(靈肉一致)의 이념을 구현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일찍이 헤겔이 "예술의 최초의 본원적인 욕구는 어떤 표상(表象)과 어떤 착상(着想)이 심중에 떠올라와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노력(勞作)으로 만들어져 안전(眼前)에 놓고 보고자하는 욕구이다."라고 예술의 욕의 근본특징을 말한 적이 있다. 폼페이로부터 다시 해안선을 향하여 한 시간 정도 자동차로 달리면 노래의 어항(漁港) 소렌토(Sorrento)에 도착한다. 조그마한 어촌이지만 그 푸른 바다 멀리 나폴리 항구를 바라보고 바다 속에 카프리로(島)를 전망할 수 있는 이 어촌의 경치와 맑은 바다 물은 과연 「돌아오라 소렌토로」의 유명한 노래로 전 세계 사람의 입에 불릴 만하다. 이 어촌으로부터 발동선(發動船)으로 40분쯤 가면 카프리(Capri) 도에 도착한다. 발동선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에게 유명한 블루구로토(Blue Grotto) 동굴의 구경을 시켜준

다. 소렌토와 카프리의 풍경은 전 이태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피서 휴양지로는 이태리 최선의 해수욕장이다. 종려(棕櫚)의 우거진 잎이 척 늘어진 호텔 정원 등 낭만적인 남구의 시정(詩情)을 찾아 볼 수 있는 것만 같았다. 수일간의 휴양 후 열차로 북상하여 로마역을 경유하여 나의 이태리 마지막 여행 코스였던 피사(Pisa)로 향하였다. 피사에는 사탑(斜塔)과 갈릴레이의 탐푸를 찾아왔던 것이다. 프로렌스가 문예부흥에 있어 예술 면에서 운동의 발상지라면 피사는 과학 면에서의 발상지이었다. 근대기술은 구모(舊母)인 수공업과 신부(新父)인 자연과학의 결합에 의하여 탄생하였던 것인데 과학의 르네상스는 16세기 중엽에 시작하여 17세기에 개화하였다고 한다. 이런 과도기에 즉 1564년에 탄생한 갈릴레이는 19세 때 패자(派子)의 등시(等時)성을 발견했고 27세 때 사탑(斜塔)에서 낙체(落體) 실험을 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전반(前半) 최대의 과학 토목은 갈릴레이의 망원경의 발명이었다. 이 신예(新銳)의 과학적 무기에 의하여 오인(吾人)의 감각의 세계는 확장되었으며 이때까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천체의 비밀이 폭로되었던 것이다. 갈릴레이에 의한 목성(木星)의 위성, 달의 반점, 태양의 흑점 등의 발견은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에도 비할만한 큰 충동을 일반 사상계에 부여했던 것이다.

“나는 놀랐으며 이와 같이 위대하고 어떤 세계에서도 알지 못했던 기적을 나로 하여금 발견케 해주신 신에게 감사한다.....”고 그의 수기의 일절에 기록한 게끔 된 갈릴레이의 이 위대한 발견과 이 실증(實證) 속에 더욱더욱 확신을 얻어 코페르니쿠스 사상의 대담한 주장은 갈릴레이로 하여금 종교재판소의 심문대에 오르게 하여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E pur si muove)고 외쳤다는 비극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다. 1642년에 맹인이 된 갈릴레이는 쓸쓸한 일생을 마쳤으나 만년의 노작(勞作)의 1632년에 「천문대화(天文對話)」(두 개의 우주체계 즉 도래미와 코페르니쿠스 설에 관한 대화)와 1638년의 「역학대화(力學對話)」(기계학 및 지상운동에 관한 두 개의 신(新)과학에 관한 대화 및 수학적 증명)의 두 개의 대화에 결정(結晶)되어 후세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약 20일간의 이태리 고적의 순례를 피사로서 끝마치고 기차로 아름다운 북부 이태리 지중해안을 따라 제노아(Genoa) 항구를 경유하여 남불(南佛)의 님원니스(Nice)로 향하였다.

(필자(筆者) 서울상대강사(商大講師))



군인생활(軍人生活)과 건강(健康)

박천규(朴天圭)



건강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의 최고 이상(理想)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또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여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 그 특수한 목적을 일단 시일 내에 최고 능률적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는 우리 신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우리의 현하(現下) 사정이 또는 사위(四圍)의 정세가 군인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군인생활과 건강이라는 문제는 진실로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이 틀림없다.

입대 시에 엄중하고 정밀한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건강하고 장대한 군인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입대 후에 군인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체력을 증진 향상시키는 것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조건은 의식주(衣食住)에 상관되므로 군인생활에 있어서도 그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체력을 증진 향상시키는 데는 역시 의식주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의복 혹은 피복에 대하여 논하건대 군인생활에 있어서의 피복 선택은 보통 민간인과도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전투에 적합하고 경제적이고 간편하고 강건(強健)하며 또 생리적으로 위생적으로 합리화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의학적인 면만을 들어보면 보온이 잘되고 세탁에 적합하며 신체에 가하는 부담이 적고 유혈(流血)과 호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건강상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음식에 대하여는 더욱 일반의 관심이 많고 따라 중요성이 더욱 큰 것이다. 병식(兵食)에 대하여는 언젠가 내 의견을 잠깐 적어 본적도 있지만은

1. 영양가가 많고 가격이 저렴하며

1. 운반하기에 편하고 부피가 작으며

1. 조리(調理)에 편하고 가지 수가 많지 않게 하는 것 등을 주안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음식의 조리법이 대단히 복잡하고 실질적이 아니며 비과학적인 점 등을 개량하여 적어도 병식만은 재래식을 떠난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능률적인 메뉴와 조리법으로 개선하여 군인의 건강을 증진 향상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하루에 밥 세 끼니는 영양학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일상생활의 정서적인 면에서라고 기분 좋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그 메뉴와 조리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칼로리에 대한 문제는 많이 논의되나 이것을 여하히 하여야 충분히 섭취하고 또 소화시킬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는 자칫하면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다음 주택에 대한 문제는 이것 역시 급양(給養)에 못하지 않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루에 반 이상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주거가 비위생적이라면 그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발생률, 사망률 전염되는 비율 등이 거주하는 가옥제도와 그 구조 또는 내부의 청결 정도 상태에 의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의사는 그 나라의 인구의 사망률은 그 거주하는 방바닥의 면적에 관한다고까지 말하였다. 즉 거주하는 방의 면적이 크면 사망률이 적고 방의 면적이 적으면 사망률이 많다는 것이다. 집단생활을 수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군인생활은 그 건강이 주택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은 어떤 것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의학적 견지에서 몇 가지를 들어 본다면

- 대지(垓地)는 동남면(東南面)일 것.
- 일인당 건평 최소 7척(呎) 평방(兵舍) 이상일 것.
- 채광 및 통풍을 위한 문과 창 의 면적은 벽에 대하여 3분지(分之) 1 이상일 것.
- 실내온도는 섭씨 15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이 구비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개인위생과 환경위생 혹은 공중보건시설이 개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불소(不少)하다. 이발, 목욕, 변소 등의 청결, 정돈, 위생학적 조건의 적부(適否), 침구, 기타 장신구의 적부, 하수도 상수도의 완전한 시설, 취사장, 식당 등의 설비 내지 유지의 정도…… 등등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이상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관하여 그 상관되는 요소를 극히 개괄적으로 적어

보았거나 군인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특수한 사명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보통 아닌 어떤 일반적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군인생활은 20세나 30세를 중심으로 한 청장년의 집단생활이며 각 지방으로부터 집합되었고 또 생활수준이나 학식 정도 혹은 지식 방면이 각이한 각 분야에서 모여든 집단적인 사회생활이다. 규율적이며 통제적인 시간생활을 하는 특수성이 있다.

연령이 청장년이기 때문에 청장년기에 생기기 쉬운 질환이 주로 문제가 된다.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결핵문제와 성병 내지 성생활 문제이다. 결핵은 특히 한국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적 민족적인 큰 문제인데 이 질환은 소아기와 청년기가 제일 발생률과 사망률이 많은 것이다. 소아결핵을 지나 청년기에 들어 올 때 즉 15세로부터 20세에 이르는 사이에 발생 혹은 사망률이 많은 것이다. 군문(軍門)에 발을 밟는 청년은 대개 20전후인 이 시기가 많은 것이다.

또 결핵은 집단생활과 관계가 많다. 집단생활자 중에 한두 사람의 결핵환자가 있더라도 용이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염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고래(古來)로 일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이라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결핵의 전염관계를 잘 설명하여 주는 예일 것이다. 학교, 공장, 사무실 같은 곳에서 결핵환자와 같이 한 방에서 사무 혹은 노동을 하면 그 전염될 기회가 많아지는 것과 같이 군대생활에서도 한 사무실 혹은 같은 직장 같은 내무반에 있게 되면 그 전염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 전염 경로는 포말(泡沫) 전염으로 공기를 통하여 되기도 하고 음식물을 나누어 먹으면 그를 매개로 전염되기도 하고 혹은 직접 접촉함으로써 옮겨오기도 한다.

그 전염결핵을 가진 사람이 외관상으로 혹은 간단한 치료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때에는 문제는 간단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것이 공중보건이나 집단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외관상으로는 건강하여 보이는 보균자가 있다. 알지 못하는 동안 혹은 경하게 앓는 결핵환자가 외관상 완쾌한 듯 동담(痰)에는 결핵균이 섞여 나오는 이가 있다. 이런 사람을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외관상 건강하고 또 간단한 진단방법으로는 그 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질병이 없는 사람과 같이 취급되어 한 자리에서 일하게 되고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같은 음식을 같은 그릇에 나누어 먹게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에 병이 알지 못하게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므로 군인생활에 있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결핵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우리공군에서는 1년에 1차씩 정기 신체검사를 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필요에 따라 X선 검사, 동담 검사를 하여 이것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핵을 미연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이 필요한 것이다. 결핵의 발생은 물론 전염이지만은 그 전염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결핵환자와 같이 있더라도 신체가 건강하고 보건사상이 잘 보급되며 전염 방지에 대한 모든 주의(注意)가 잘되어 있지만 하면 그리 손쉽게 언제든지 모두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결핵 방지 혹은 예방은 평소애 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몸을 튼튼히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며 또 증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의식주의 완전한 시설과 보수 유지와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의 철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의 정도 여하에도 좌우되는 것이지만 성의와 노력 여하에 더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 보건사상의 보급과 공중위생 도덕의 선전 훈련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택, 내무반, 사무실 등의 일 상거주하는 장소를 위선 위생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할 것이며 피복 역시 그러하고 급양(給養)은 충분한 칼로리와 메뉴와 조리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장병의 영양을 잘 보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위생과 환경위생의 적절하고 충분한 시설을 함과 동시에 각자가 청결과 정돈을 힘쓰며 신체의 단련을 위하여 적절한 운동경기를 함으로써 원기(元氣)있는 개체를 보존 유지함으로써 모든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결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 전염에 대한 예방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방역주간 혹은 결핵 방지구간 등을 통하여 의무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보건사상의 선전 계몽운동을 하고 있거니와 일반 군인 각자에 있어서도 이런 기회나 혹은 서적, 영화, 강연 등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킴은 물론 집단 내지 공중생활인 군인생활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함은 바로 이것 이 결핵의 예방 혹은 결핵을 최소한도의 발생에 그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병 내지 성생활에 대하여도 청장년 시기인 만큼 군인생활에 있어서 건강문제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 성욕이 제일 왕성한 시기에 놓여있는 청장년을 장기간 성생활에서 제한되는 환경에 두어 둔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그리 좋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도 않다. 오직 금욕(禁慾)과 절제의 생활로써 도덕적인 교양을 통하여 이것을 제지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성병이란 실로 무섭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본능적인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불결한 비정상적인 성생활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군의관과 직접적인 긴밀한 연락 하에 취하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대수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또 취급되는 수치스러운 금지된 행동 속에서 발생하는 질병인 까닭에 상담하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도리어 숨기기까지 한다. 이것은 성병 만연에 큰 도움을 주며 야료에 큰 지장을 가져오므로 예방에 대한 상담은 물론 잘 못되며 성병에 감염되거나 혹 그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서슴지 말고 솔직하게 지체하지 말고 군의관에게 조용히 상의하면 미연에 방지 혹은 최단기일에 완치될 수 있는 것이니 일시의 부끄럼에 못 이겨 일생을 그르치거나 또 장구한 시일의 고통을 받는 것 보다는 그 얼마나 현명한 처사일 것인가? 다시 말하거니와 병에 대하여는 건강을 위해서는 군의관을 신임하고 솔직하게 지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절경인 것이다.

그 이외에도 군인생활에 있어서 건강과 관계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면(紙面) 관계로 다음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쓰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 이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필자(筆者) 의무감(醫務監))

거북타고 밤새운 선원(船員)

한 노르웨이의 선원이 심한 더위에 못 이겨 배로부터 물속으로 뛰어내려 상어가 그의 등을 깨물고 있는 동안 밤이 새도록 거북을 타고 있었다 한다.

사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배가 아프리카 골드 해안 근방에 왔을 때 한 젊은 선원이 그의 실(室)에서 불쑥 나와 벌거벗은 채 갑판 위를 가로질러 아무도 붙잡을 새 없이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 속으로 풍덩 뛰어 들었다. 배는 정지하고 구조선이 출동되었다. 그들은 밤새껏 그 선원을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러나 새벽에 그들은 그 선원이 물위에 뜬 거북을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거북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표면에 떠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 선원은 노르웨이의 벼제 병원에서 비로소 의식을 회복하였고 상어에게 물린 상처도 치유되었다고 한다.

원자력(原子力)과 공군(空軍)

원자력항공기(原子力航空機)에 대한 검토(檢討)

김준명(金俊明)

이동기관(移動機關)의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 함은 원자핵 energy 이용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이는 원자로(原子爐)(Reactor)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방사선 차폐의 중량(重量)이 큰 문제가 되어 고정 지점에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시설 등의 문제에 비하여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성공은 1954년 1월에 진수(進水)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잠수함인 Nautilus 호(號)이다. 미국 원자력위원회와 해군의 합동으로서 추진된 이 함선용(艦船用) 원자로의 발전은 미국 Westinghouse Corporation에 의하여 Idaho 주의 Arco 원자로실험소에서 연구한 (농축 uranium, 불균일형, (Enriched fuel heterotenous)) 잠수함용 원자로(STR)를 사용한 것이며 Nautilus는 이 원자로를 써서 Electric Boat Company에서 건조되었다. 미 해군은 이 이외에 General Electric Co. 제작의 '중속(中速) 중성자형(中性子型) 원자로'를 함선의 추진용으로서 보유하고 있다.

최초의 원자력 동력 이동기관으로 잠수함이 성공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는 항공기에 비하여 자중(自重)이 아주 크므로 차폐문제와 중량이 항공기와 같이 그다지 큰 곤란을 가져오지 않으며 잠수함에 있어서는 도리어 그가 소유하는 Ballast Tank 내의 해수(海水)가 양호한 방사선 차폐물로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1. 원자력항공기(原子力航空機)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고찰(考察)

현재 원자력항공기에 대한 연구는 미국 내에서 NEPA(Nuclear Energy for Propulsion of Aircraft)가 주체가 되어 Oak Ridge 국립연구소와 General Electric Company가 협동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항공기(原子力航空機)의 이점(利點)

원자력에 의한 추진의 이점은, 휘발유, 기타 현용 화학연료에 비하여 그 연료 사용량이 아주 적다는데 있다. 원자력 추진에 의하면 현재의 대형기로서 충분히 초음속으로 세계일주가 가능한 것이다. (도표 1)은 현용 항공기의 속도, 항속거리, 중량을 변수로 한 상호관계 도표인데 원자력항공기는 연료의 소모가 거의 무시할 정도이므로 거의 직선으로 표시된다. 이는 항공기의 중량 및 속도에 의하여 항속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표시하며 이러한 항공기의 출현이 작전상 특히 전략작전상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원자력(原子力) engine 형식(型式)의 결정(決定)

원자력 engine의 원리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하여 발생한 열이 적당한 유체(流體)에 의하여 이동되어 이 열이 jet gas의 운동, energy 또는 propeller의 회전으로 전화(轉化)된다. 열을 추진력으로 전화하는 방식으로서 원자로 형식 냉각용 유체 열 교환기, engine 계(系)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다음과 같은 4개의 engine 형식이 고려된다.

(a) Rocket 이는 수소와 같은 연소 기체(氣體)가 원자로의 열로 가열되어 배출 gas가 이 계를 투사(投射) 추진시킨다.

(b) Ram-jet 전면(前面)에서 들어온 공기가, 항공기의 속도에 의하여 압축되어 원자로로 가열된 후, 후부(後部)의 nozzle에서 분출된다.

(c) Turbo-jet 원자로로 가열된 gas로서 Turbine을 회전시켜, 이로서 흡입한 공기를 압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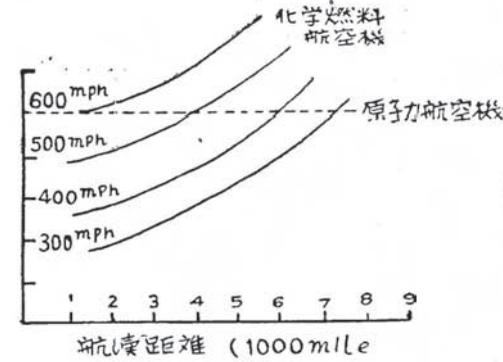
(d) Turbo-Prop 상기 Turbine이 보통 propeller를 회전시킨다.

이 중, Rocket은 보조연료가 필요하며, Ram-jet는 보조기관(격(隔)차륙용) 및 고온에 내(耐)할 수 있는 노재(爐材)의 입수 난으로, 실현 곤란하다. 결국에 있어, 원자력 engine의 형식으로는 turbo-jet 및 turbine prop의 양자로서 결정되며, turbo prop는 항공과 속도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으나, 이는 거의 무제한의 항속거리가 있으므로, 큰 장점은 되지 않는다. Turbo-jet나 Turbo-prop는, 양자가 모두, Turbine을 기초로 하므로, 이하의 논점에 관하여는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원자로(原子爐) 냉각용(冷却用) 유체(流體)의 사용방식(使用方式)

Engine 형식이 결정된 다음의 중요한 문제로서 원자로 냉각용 유체의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냉각용 유체를 「개로(開路)방식」(Open circuit)으로 하여 단 한 번만 사용하느냐 또는 「폐로(閉路)방식」(Close circuit)으로 하여 순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공기가 냉각제일 때는 제1 방식 Helium, 수은, 수기(水氣) 등 증(蒸)을 사용할 때에는 제1 방식으로 된다.

개로방식일 때는 냉각용 유체 즉 공기를 동시에 그대로 turbine 구동(驅動)용으로 쓸 수 있으나 폐로방식일 때는 냉각용 유체와 turbine 구동용 체(體)가 각각 다르므로 중간의 열 교환기의 효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도(圖) 2)는 공기를 사용한 개로방식 engine의 원리도이다. 이 방식을 사용한 원자력기관의 장점은 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아주 그 구조가 간단한데 있으며 단점으로서 원자로 내에서 고온이 되어있는 금속의 표면이 쉽사리 산화될 위험이 있는 것과 소요(所要) 열을 제거하는데 대량의 공기를 원자로에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도 3)은 폐로방식 원자력 engine의 원리도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1차 냉각제로선 가장 원자로에 적합한 것, 예로서 액체 금속인 수은 등을 사용하며, 2차 냉각제로선, turbine 구동에 최적한 것, 예컨대 공기를 열 교환기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 금속의 방사능은 turbine

까지는 이행 안하므로, turbine의 수리 및 교환은 방사선 장애에 대한 대책의 필요 없이, 간단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결점은 pump계 및 열교환기만큼, 중량이 증가되는 것과 열교환기에서 온도의 저하가 일어나는 점이다.

이러한 양 방식의 장점만을 취한 제3방식으로서, 단일 유체에 의한 폐로(閉路)방식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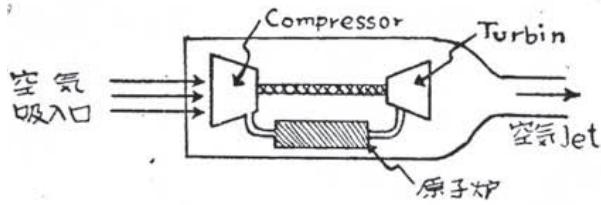
(도 4)는 이 형(型)의 원자력 engine의 원리도이다. 이 도와 같이 원자로에 고압의 수증기를 순환시켜 이로서 turbine을 구동시키는 방식이나 이 방식 역시 turbine의 방사성오염과 Jet방식에 비하여 항공기의 속도가 늦어지는 점이 결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원자로(原子爐) 설계상(設計上)의 주요문제(主要問題)

1942년 Fermie에 의하여 최초로 동작된 원자로 CP-1은 무려 크기가 6m²의 큰 형태였다. 물론 이러한 큰 용적과 중량을 가진 것을 항공기 engine의 열원으로서 적재함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후 Reactor는 발달하여 Fuel로서, 천연 uranium 대신 농축 uranium을 사용하는, 각 형식의 소형원자로가, 생산되고 있다. 원자폭탄의 자료인 이 농축 연료(Enriched fuel)는, 기체 확산공장 및 전자(電磁) 분리공장에서 U²³⁵ 형태로, 또 platinumium 생산용 원자로에서, Pu²³⁹를 생산되며, 그 가격은 \$67/g(80% 농축, 기체확산법)이나 되나, 이것이 완전히 열 energy로 변환한다면, 약 2.3×10⁴KWH (2.2×10⁸KCal)의 열량을 방출함으로 경제적 입장에서 유리하다.

이 열량은, 거진 1만 Gallon의 Gasoline이 연소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항공기용 원자로는 고농축, 균(불균)일형(型), 원자로가 될 것이며, 감속 방식으로는, 흑연형(黑鉛型)을 사용할 것이다. 항공기용원자로의 설계상의 주요점은 상기한 소형

이며, 고온과 중성자의 강력한 조사(照射) 하에서 안정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온도가 1,000~2,000°F에서 강력한 중성자에 대하여 안전한 금속재료가 가장 문제의 초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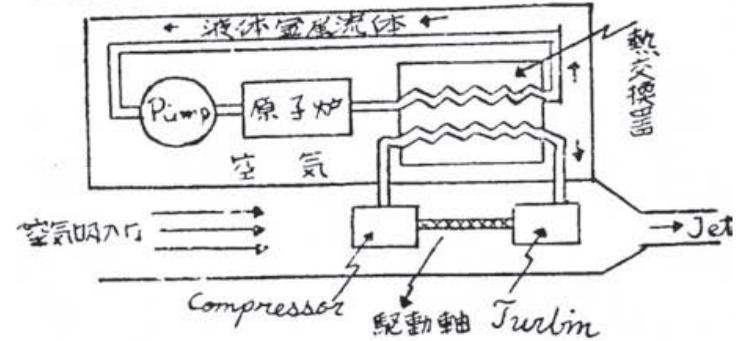
(5) 방사선 차폐문제

설계상에 또 하나의 중요문제는 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장애의 방에 있다. 이 문제는 항상 중량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원자력항공기 발전의 난점이다. 방어하여야 할 방사선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와 X선이다. 항공기의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로와 인원과의 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 거리를 양변 익에서 취하려면, 항공기 전체의 Balance가 나빠지므로, 자연히 전후가 된다. 그러므로 동체가 길어지거나, △익형(翼型)이 된다. 방사선은, 보통거리의 역자승(逆自乘)으로 감쇠(減衰)하나, 이것 만으로서는 불충분하므로, 연(鉛)과 같은 중금속에 의한 X선 차폐와, 흑연(黑鉛)이나 물 같은 중성자 감속제에, Cadomium이나 붕소와 같은 열중성자 흡수체를 배합한 중성자선 차폐의 양방을 원자로와 승무원실 간에 놓아야한다. 일변(一邊) 차폐물의 중량의 커짐에 따라 항공기를 부상시키는 때 필요한 동력도 증가하여야 하며 동력이 커지면, 중성자나 X선에 대한 차폐도 증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원자력항공기 발전상의 가장 큰 곤란이다. 보통 편리한 중량으로서, 항공기에 최초로 적재하는 Gasoline의 부하 이내의 중량을 취하면 된다.

이상 원자력항공기에 대한 정성적인 점을 들어 보았으나, 이하 이에 대한 정량적 dls 고찰을 특정 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6) B-47(Boeing stratojet)의 예

현존 대형항공기를 그대로 원자력항공기로 개조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일례로서, B-47의 개조에 대한 정량적 검토를 하여보았다. 조건으로서, 단 화학연료와 J-47 Turbo-jet engine을 원자연료와, 원자력 engine으로 대치 할뿐 속도 및 고도의 개선은 고려치 않으며 항속거리만이 증가하자 B-47(Boeing Stratojet)의 제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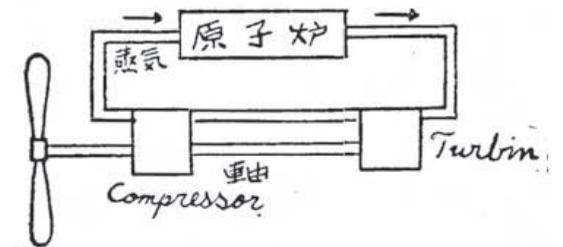
Engine = General Electrics, J-47 turbojet engine 671
 중량 = 125,000Lb. (기체) 185,000Lb(연료 및 20,000Lb의 탑재량)
 속도 = 약 600mph
 고도 = 35,000feet
 유효익면적 = 1,800feet
 항속거리 = 1,000mile

항공기 추진에는 jet를 대로 사용하기로 하면, 원자로, 차폐(遮蔽)물 배관 등에 의한 engine의 중량 증가가 문제가 되며, 이는 부력(浮力) 및 항력(抗力)의 변동을 주게 된다.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제시하면, B-47의 전체 항력(이는 추진력과 같다)은 12,800Lb가 되며, 이에 필요한 추진마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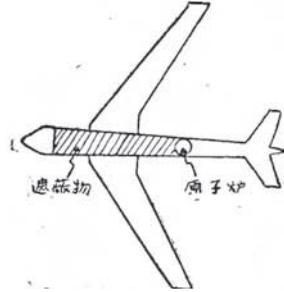
마력 = $(12,800\text{Lb} \times 600\text{mdh}) \div 375 = 8,00000$ 마력이 된다. 1마력 = 0.746KW이므로 18,000마력 = 13,400KW = 13.4MW.

실제의 원자로는, 열효율을 고려에 넣어야 하므로, 지금 전체의 효율(열효율×추진효율)을 15%로 하면, 원자로의 필요출력은 90MW, 즉 9,000KW가 된다.

다음의 문제는 탑승원 및 지상 근무원에 대하여, 강력한 방사선에 대한 방어 차폐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원자로와 탑승원은, 될 수 있는 한 떨어트려 놓는 것이 양호할 것이다. 지금 원자로를 미부(尾部)에 설치하여 조작실로부



터 50feet의 거리를 두었다하여도, 이것 만으로서는 불충분 하다. 실험 예에 의하면 단 10KW의 원자로로 공기만으로서, 완전한 차폐를 하려면, 약 1/4mile이나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연(鉛) 같은 중금속에 의한 X-선 차폐물과, Cd, 붕소 같은 중성자 흡수체가 필요하게 된다.



90MW의 원자로 내의 매초 당의 핵분열수는,
 $(90MW)(3 \times 10^{16} \text{분열수/sec-MW}) = 2.7 \times 10^{18}$
 분열수/sec이므로 이로 인하여 방출되는
 중성자수: $2.7 \times 2.5 \times 10^{18} = 6.75 \times 10^{18}/\text{sec}$
 X-선 수: $2.7 \times 5 \times 10^{18} = 3.5 \times 10^{18}/\text{sec}$

지금, X-선의 일탈도(逸脫度)를 800이라 하고 연으로서 이를 차폐한다고 계산한 결과, 연차폐(沿遮蔽)의 최소두께는 35cm(1.15feet)가 된다. 원자로를 반경 3ft의 구(球)라 하면, 이에 소요되는 차폐용 연판의 중량은 약 65ton이다.

중성자는 수층(水層)에 의하여 흡수한다 하고 일탈률을 11% 허용선속밀도를 22 개/cm²-sec로 한 계산에 의하면, 필요흡수체수층의 중량은 107.5ton이다. 그러므로 차폐물 전체의 합계중량은 172.5ton이나 되므로, 전 부하(負荷)시의 항공기의 중량 92.5ton에 비하면, 전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기를 부상시키려면, 차폐방식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방법은 (도 5)에 표시된 것과 같이 원자로 전체의 차폐를 중지 단념하고, 탑승원석 방향만을 차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그 중량은, 전체차폐의 약 1/5정도로 감소하므로, 34.5ton이 된다. 단, 항공기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양 측방과 후방은 다른 차폐물 예를 들면, 연(鉛)벽돌과 물탱크로 된 차폐용 차륜 같은 것이,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원자로 자신의 평균밀도를 125Lb/feet²이라하면, 약 7ton의 전 중량이다. 그러므로 전 중량은 항공기 자중(自重) (62.5ton + 원자로중량(7ton) + 차폐물 중량(34.5ton) = 1,041ton이 되어, 11.5ton의 중량 증가가 된다. 이 12.5ton은 약 12%의 중량 증가이므로, 근사적으로 부력 및 추진력도, 12% 증가하여야 한다. 원자로의 출력을 12% 증가시키면, 방사선의 강도도 동시에 커지므로, 차폐중량의 증가는 약 1ton 정도가 된다. 이러한 출력과, 차폐중량증가의 악순환이 현재에 있어서, 원자력 항공기 조기 출현의 최대의 난문제로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결정적인 결점이 될 수는 없다.

중성자 차폐물로서, 공명 흡수현상을 극도로 교묘히 이용한 타물질, 예컨대, Cd 나 붕소류를, 각점에서의 X-ray와 중성자의 energy 분포에 적합하도록 연(鉛)과 Sandwich 형(型)으로 만듦으로서, 더 경량한 차폐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원자로의 열효율을 증가시킴으로서, 전체 중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Data는, 주로 지상거치용인 발전용 원자로를 기준 삼은 계산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한 원자력항공기가, 처음으로 공중을 제압할 때, 공군의 전술과 전략 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하는 문제만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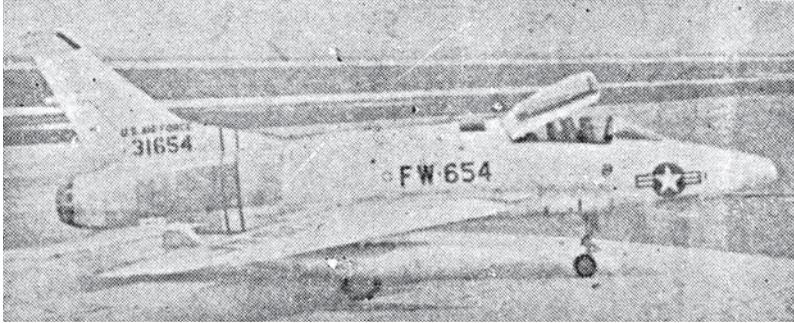
(비고, 원자력항공기에 대한 참고문헌)

Ohlinger, L. A. "Engineering Aspects of Nuclear Reactor." Nucleaics. Dec. (1949). gan. (1950). Feb. (1950). march. (1950).
 Kalitinsky A. "Atomic power and Aircraft propulsion." Soc. of Automatic Eng. Transactions, gon. (1949).
 Kalitinsky A. "Nuclear power for Aircraft." Air. Affairs. winter. (1949).
 Semi-Annual Report of AEC to Congres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50~present. (끝)

(59페이지에서 계속)

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만일 충분한 자금이 실제의 기술연구에 충당된다면 경제체제의 방법은 가까운 장래에 결실하여 저속시의 안전성과 운항비용의 경감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2. 천음속영역(遷音速領域)의 여러 가지 장애가 제거되어 가까운 장래에 초음속 전투기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3. 초음속전투기의 추력은 수직이착륙도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장치를 사용해서 단거리의 지상 활주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4. 굉장한 천재가 출현하여 초음속시의 항력을 능가하는 우수하고 완전한 새로운 날개를 설계하고 또한 굉장히 경제적인 엔진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인간탑승의 폭격기는 결국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끝)



(개조 후의 노스 아메리칸 F-100A 슈퍼세이버 초음속전투기)

앞으로의 비행기(飛行機) 항공기술(航空技術)의 신과제(新課題)

그 설계(設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지(外誌)에서

난관 허다한 설계기술

일진월보(日進月步)하는 항공계는 현재 또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절벽의 끝에 서있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전후(戰後)의 항공기술 진보는 눈부신바 있으며 특히 '빨리, 높이, 멀리'의 세 가지 점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저 세계를 놀라게 한 코메트 제트여객기의 사고가 발생한 이래, 그 설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해왔다. 가장 강조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제일이라는 것이었다.

속도의 향상을 급히 서두른 끝에 어느 경우에는 고속화에 수반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코메트기의 사고는 그것이 여객기이고 또한 많은 민간인이 그 사고의 희생이 된 관계도 있어서 여러 각도로 그 원인이 조사되었다. 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행기의 성능의 수준이 그 설계기술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설계기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몇 가지 예거하자면 선회나 급상승시에 후퇴익(後退翼)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비행기가 파괴해버린다는 것, 마하1 전후(前後) 저속시 및 고공에 있어서의 안전성불량으로 인해서 전투기의 기종의 조준이 불가능하게 되든가 혹은 이착륙에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고속시의 플러터(진동) 등이 있다. 그리고 축류(軸流)엔진의 경우, 고공에서 편요(偏搖) 비행 시나 기총발사에 있어서—발사구가 공기취입구에 가까운 경우이지만—엔진에 공급된 산소의 양이 결핍되어 연소가 중지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압축기의 블레이드가 결손한 사건도 있었다.

스피드에 대한 동경

설계기사들의 가장 큰 고심은 어떻게 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나 하는 것이다. 비행기 여행자, 공군 및 항공회사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속도에 있다.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의 출력강화가 필요하며 비행고도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속도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설계연구와 생산과의 시간적 간격이 필연적으로 불충분하게 된다.

‘음(音)의 장벽(障壁)’이 시험연구기에 의해서 돌파되는 즉시로 초음속 전투기가 출현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비행 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맞힌 박사가 음의 장벽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19세기의 일이며 이론 그 자체는 하등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은 선인(先人)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곧 또 새로운 곤란이 생기며 이와 같은 시소계임은 언제 끝일지 모를 지경이다. 비행기의 가격도 필연적으로 비싸게 되고 한두 가지의 조그마한 결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스크랩으로 하든가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보다 실제적인 자료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코메트기의 여압객실(與壓客室)이 그 좋은 예이다.

만일 원통에 의 압력까지 공기를 주입한 경우 그 금속재료에 생기는 응력(應力)

은 간단한 산술로 계산할 수 있다. 코메트기에 사용된 철판은 이 압력의 두 배에 해당하는 하중시험이 반복되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동체 전체로서의 결합작용이나 주익(主翼)과 착륙장치 등에 의한 간헐적인 하중 그 밖의 영향이 가해져서 3,000시간이라는 짧은 비행으로 피로하여 파괴해버리고 말았다고 발표되었다.

비행기를 설계할 경우에 가장 큰 주안점의 하나로서 '가장 가볍게라는 것이 강 조된다. 따라서 각 부분의 구조는 거의 최소한도까지 축소되기 때문에 만일 어느 부분에 근본적인 약점이 존재하면 피하는 그 부분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병(餘病)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마는 것이다.

소형의 모형에 의한 풍동실험결과와 해석이 진행함과 더불어 가스터빈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비행기에 대출력의 발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활기를 띤 설계자들은 현재 마하 0.95-1.05의 소위 천음속영역의 비행시험에 몰두하고 있다. 숙련된 테스트 파일럿은 신설계의 시작기를 조종하여 흔히 속도기록을 갱신하고 갈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군용기에 의해서 행해진 일은 없다.

벨X-1이나 더글라스 스카이로켓이나 아직 결정적인 해답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하물며 대량생산 전투기로서 출혈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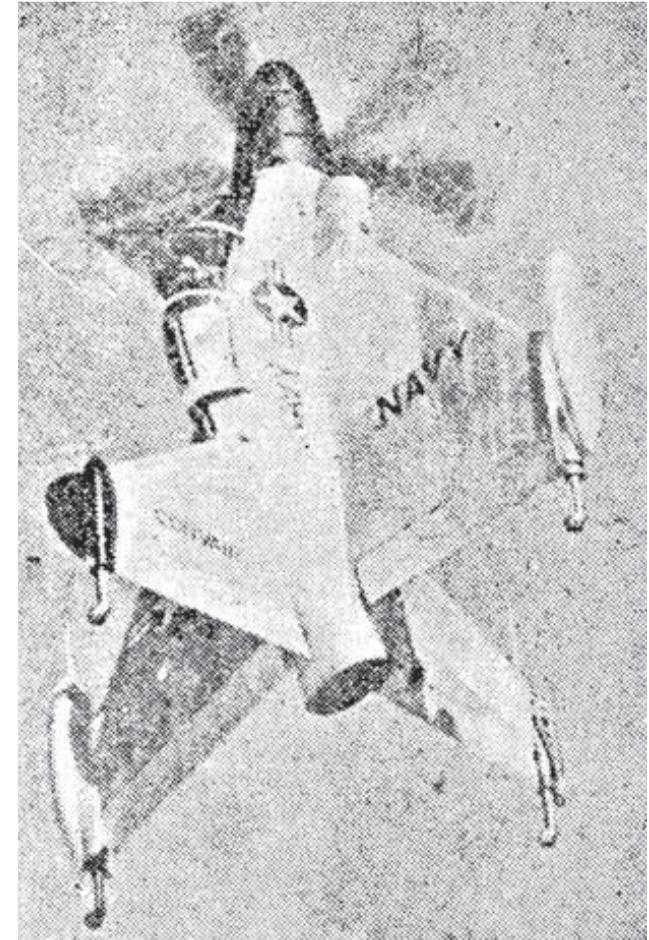
군사상의 견지에서 고속실용기에 대한 요구도 강하고 각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진보의 흔적을 회고하여 그것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정리 놓는 것도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착륙의 신방법(新方法)

미국의 록히드, 콘베어의 두 회사를 비롯해서 각 국에서도 연구 시작을 하고 있는 수직이륙기에 관해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것은 획기적인 시도이다. 오랜 활주나 3점착륙은 우리에게 낯익은 것이지만 VTO (Vertical Take-Off 즉 수직이륙)는 신시대에 대한 하나의 제안으로 생각된다.

수직이륙기는 확실히 하늘을 날고 또한 그 조종도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강력한 기술수준을 가지고도 이것을 실용화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다. 더욱이 고온가스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비행기의 중량 이상의 양력을 얻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방법이며 또 한 거창한 수단이다.

한편에서는 필사적으로 고속화에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저속화를 기



〈콘베어 XFV-1 수직상승전투기〉

도하고 있는 것은 흥미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 더욱 경제적이고 또 한 소음을 가져오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경계층제어의 방법으로서 최근 실용화되어가고 있다. 저속비행을 위해서는 날개나 플랩의 효율을 향상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을 그러한 관서어 함재기(艦載機)에 실험한 결과 실속속도를 약 35km/

hr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NACA에서의 세스나기의 실험에서는 내익(內翼)으로 흡입하고 외익으로 분출하는 식으로 행했는데 전비중량에서 이륙거리를 200m에서 약 90m로 단축하였다. 이에 비해서 JATO(제트보조이륙)만으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초 약 5.5kg의 연료를 소비하게 된다. JATO는 물론 착륙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완전한 수직이착륙은 제트양력에 의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지만 이착륙 활주거리를 150m정도, 그때의 속도를 80km/hr 정도로 하는 것은 경계층제어의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2,000m나 활주를 필요로 하는 현재의 여객기의 하착륙이 150m정도의 활주로서 가능하다면 굉장한 것이다.

공기저항의 격감

상술한 방법과는 전연 다른 것으로서 순항 시에 난류경계층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다. 층류익(層流翼)을 사용하는 이 비행시험은 장기에 걸쳐 실시되어 매우 좋은 성적을 가져왔다. 주익이나 미익의 후연에 가까운 층류에서 난류에 이동하는 부분의 경계층을 흡입하고 이것을 고속으로 분출시키면 비행기의 항력을 75% 정도 소실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소한 출력의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항속거리가 훨씬 연장되고 또한 이와 같이 층류화한 비행기의 순항고도는 극히 낮기 때문에 여객기에는 큰 이점이 되는 것이다.

공기의 흐름을 층류화한다는 것은 압축성에 대한 현재의 유일한 공격법으로서 여기에 이 방법의 중요한 의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폭격기—예를 들자면 영국의 V시리즈—에 이용되어 아음속영역에서의 순항속거리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여객기는 800-1,000km/hr의 속력으로 놀라울 만큼 안가(安價)한 운항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50% 층류화된 경우, 그 순항 시의 소요출력은 2/3으로 감소하고 더욱 이 항속거리는 40%나 증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여객기에 전술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일이며 운용 하중이나 항속거리의 증대를 목적으로 완전히 새로 설계한 경우에는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량이나 크기를 상당히 삭감할 수 있으며 그 전비중량은 보통상식의 약 2/3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착안(盾眼)과 함께 덕티드 팬 엔진 혹은 바이패스 엔진이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의 실현에도 역시 여러 가지의 기술적 곤란이 수반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현실의 노력으로 그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마하 2-3이라는 초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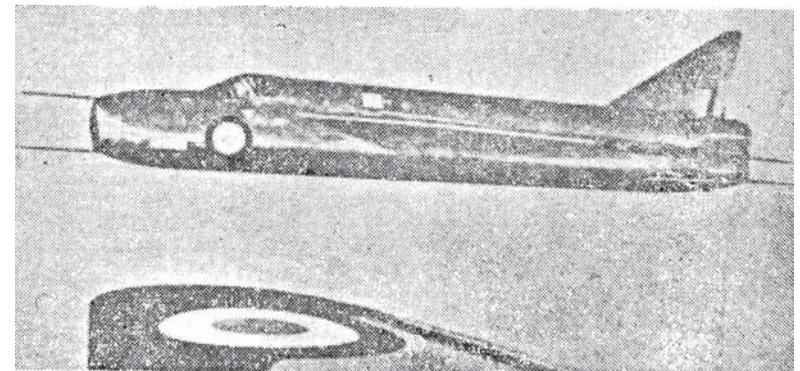
비행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속도는 800-1,000km/hr 정도에서 참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에 치중하여 이 실용화에 노력했으면 싶다.

군용기의 입장

과거에 군용기의 성능을 논할 때에는 속도, 상승성능, 운동성의 세 가지가 서로 양보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상황은 다소 다르게 되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특히 유도탄의 경우에 그러하다.

고속의 제트전투기에 있어서는 적기와 조우하더라도 옛날처럼 증천에 원을 그리며 눈부신 공중전을 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상승한다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운동성—급선회 등의 의미에서—은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익면하중이 적은 경우 고공에서 경쾌한 조종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기종의 조준을 정하고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운동성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유도탄을 사용할 때 전투기는 그 사정범위에 적기를 포착하고 다만 그 목표의 방향으로 발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기에 대한 최근의 개념은 최단시간에 탑재유도탄의 사거리 내에 적 폭격기에 접근하여 이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해졌다. 따라서 적기와와의 급속한 접촉과 지상조작요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탐색레이더가 필요한 것이다. 노스 아메리칸 F-100이나 잉글리시 엘렉츄리 P-1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각종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속도는 1,500-



〈시험전행 중인 잉글리시 엘렉츄리 P-1 초음속전투기〉

1,600km/hr정도로 판단된다.

전천후전투기나 야간요격전투기는 각종의 레이더나 맹목착륙용의 장비 등의 탑재로 몹시 무거워지기 때문에 별로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로스터 자베린과 같이 몇 시간 고공에서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체공성능을 가진 복좌의 패트롤 전투기가 필요할 것이다.

F-100 다음에 올 것

F-100 다음 단계의 전투기는 문자 그대로 초음속이며 아마 마하 2.0를 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전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급속히 상승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형의 터보 제트와 로켓의 두 가지 엔진을 탑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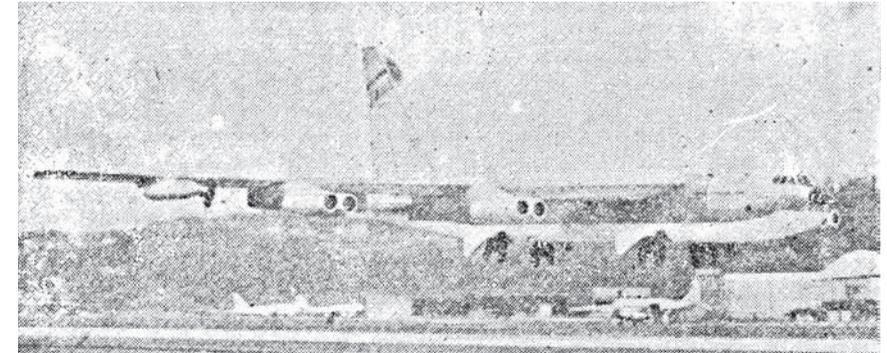
로켓 엔진은 막대한 연료를 소모하지만 상승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적이며 또한 굉장한 항력을 발생하는 음속역의 돌파에 절대 필요하다. 터보제트엔진은 순항 시 및 기지로 귀환할 때 사용된다. 이들 전투기의 추력과 중량과의 비율은 1.5:1.0에나 달할 것이며 그 출력의 일부는 플랩과 결합해서 저속시의 높은 양력을 얻는 데에도 이용될 것이다.

경계층제어는 또한 패트롤 전투기의 순항시의 연료소모를 적게 하며 그로 인해 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작은 기체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초음속의 전투속력을 내기 위해서는 로켓과 같은 부스터를 필요로 하게 된다.

폭격기는 다소 입장이 달라진다. 현재와 같은 제트폭격기는 점차로 폐물화할 것이다. 마하 1 정도의 순항속도는 전투기로서는 쉽게 공격할 수 없으며 또한 대공화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공을 날로서 이를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도탄이 일반화했을 경우에 아음속폭격기의 생명은 마지막일 것이다.

여기에서 마하 2-3의 초음속폭격기가 출현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대출력의 엔진을 필요로 하고 그 항속시간은 현재의 약 3분의1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소요연료의 양은 막대해지며 항속거리가 훨씬 짧아진다. 초음속으로 약 5,000km 비행하여 목표를 공격하고 귀환할 수 있는 인간 탑승의 폭격기를 설계한다는 것은 거의 초인적인 기술이며 이에 비해서 같은 성능을 가진 무인폭격기의 설계는 훨씬 용이한 일인 것이다.

이밖에 레이더망 하의 저공을 음속정도의 속도로 나는 소형의 날개를 단 폭격



〈이륙한 보잉 B-52 전략폭격기〉

기의 설계도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행기는 항력 및 연료소모의 감소라는 이 점은 있지만 무익에 가깝기 때문에 운동성이 제한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도는 비관적이다.

이와 같이 각국이 속도향상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사상은 물론 기술적 경제적으로도 허다한 난문제의 속출이 예상되는 바이다.

결론(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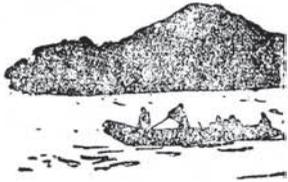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본론에 돌아가기로 한다. 앞으로의 비행기의 설계 방향은 민간기와 군용기와의 거리가 점점 멀

(51페이지로)

기상(機上)과 예보(豫報)

자연현상(自然現象)은 어디까지 예보(豫報)할 수 있나

공군중령(空軍中領) 김낙성(金洛聲)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같은 서구(西歐)에서도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드문 눈(雪)난리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스키, 스포츠까지도 금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한다. 지난겨울 영동(嶺東) 지방의 소위 30년 아래에 처음 보는 대운화(大雲禍)는 이미 백 수십 명의 인명과 재산의 희생을 강요하였고 특히 중등부 전선(戰線)의 병거에서 대진(對陣)하고 있던 백여 명의 우리 용사의 희생은 참으로 자연현상 즉 기상(氣象)현상이라는 이 방면의 연구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그 연구 결과를 경시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사람들이나 같이 생생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로 이 광대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大氣)는 지상으로부터 고도의 범위로 불과 20km 밖에 안 되지만 복잡한 다양적이며 그 환류(還流)작용이 현대의 찬연한 과학력을 거의 무색케 하고 과학의 힘으로 바로 가까운 장래에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류 앞에 아직도 신비스러운 정도로 무서운 위력(威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큰 문제를 본인이 敢히 논한다는 것은 원래 적격(適格)이 못 됨으로서 대단히 주저되는 바이다.

그러나 알고 또는 알려져 있는 한도 내에서 줄렬하고 세련되지 않은 줄거리를 외람(猥濫)하게 피력할까한다. 원래 이 문제를 말하자면 다소 기상에 대한 학문적인 것을 말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까다롭고 무미건조하여 본지(本誌)의 성격에 어울리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느낌이 있으나 이 점 독자 제위(諸位)의 아량을 비는 바이다. 그리고 이 제목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줄거리를 넣고 있는데 이것은 금일의 예보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유래되었고 또 현재 어떠한 지향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 이 기회에 말하여 돕이 좋을까 해서 개략적이나마 다음과 같이 줄거리를 잡았다.

1. 과학(科學)으로서의 기상예보(氣象豫報)의 불안전(不完全)한 발달(發達)

아마도 많은 응용과학 중에서 기상예보만큼 막대한 경비를 소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향상의 진도가 느린 과학 분야도 드물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예보에 필요한 많은 기상관측 Data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보를 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예보기술은 이와 같이 경주한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향상을 보지 못하였다. 예보기간, 예보 내용, 예보요소, 예보고

도, 예보범위 등의 다양한 예보를 좀 더 확실한 예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측 Data의 증가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왔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실시되지 않았던 특별한 형식의 예보요소가 발달하여 이들의 많은 예보요구에 충당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보의 활용범위가 대폭적으로 확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40년 동안에 맨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실시되었던 예보형식과 같이 내일 비가 온다든지 별이 난다든지 따뜻해진다든지 추어진다든지 등의 원시적인 지역 예보의 근본 형식으로서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로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거적(大去)인 예보활용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과학적인 발전을 거두지 못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히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그와 같은 무진전 상태를 가져오게 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각국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요점이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예보형식과 예보기술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그 원인을 우리들이 아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예보의 활용과 더불어 향상하여야 할 예보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폭적인 예보요구에 대한 숙련된 예보자의 대량적 필요는 1차 대전 이후 30년 지나서 2차 대전의 시초부터 점차적으로 중앙예보소(中央豫報所)의 수가 광범위에 걸쳐서 증가하고 다양적인 예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숙련된 예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그 요구는 기상대 상용비행기가 군(軍)에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미리 예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수의 예보자를 양성하는 적당한 敎育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방면의 일이 매우 무미건조하고 복잡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일의 성질상이나 취미상이나 가장 적합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확보하여 나갈 만큼 충분한 급여 대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예보업무를 실시하여 왔다. 이들은 1년 또는 2년의 훈련 후에 그 일에 성질 또는 취미가 맞건 안 맞건 종사하여 왔다. 그 중에도 예보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부적합한 경우는 이를 경험치 없는 많은 예보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보 능력이나 또는 어떤 표준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그 예보능력을 평가 입증하여 주는 진행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근래 2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몇 명의 정식 기상대 예보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들이 실시 예보한 것을 기상대 및 다른 예보자의 능력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전문적으로 예보에 종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정식 예보자로서 종사하면서도 그들의 예보 기록은 계속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되어 왔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훌륭한 예보자로서의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오랜 경험과 또 그 기술에 성질이 맞고 취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태도로서는 매우 한심스러운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기상예보의 근본적 문제는 이와 같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범위에 속하는 과학에서 속히 벗어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범위로 옮기는 문제인 것이다.

(2) 많은 예보방법과 기술, 천기해절(天氣解折)을 위한 많은 유효한 관측 Data 특

히 고층 기상관측 Data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보자들은 예보 재료로서 이 새로운 관측(Data)을 여러 가지 선도(線圖)(예보 보조자료)와 좌표법을 사용하여 각각 해당 선도를 묘화(描畵)하고 또는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선도와 좌표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되는 관측 Data가 그 상대적인 장점이 완전히 시험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모형의 천기도(天氣圖)로 묘화되고 또 최소한도의 표준모형으로 된 천기도에 정통하여 예보를 실시하는 가운데 얻은 예보 측과 기준(規準)들을 간단하고 짧은 공식으로 하는 것을 위에 말한 여러 가지 모형의 다양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결국 예보기술과 원칙에 혼동만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나치게 많은 선도와 도표들을 예보실시에 사용한 까닭이다. 현재에 있어서는 일상예보를 하는데 비록 고층기상도의 표준적인 것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작성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최소한도의 표준천기도를 전 분야 즉 지상, 상층에 걸쳐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와 같은 표준천기도를 선택하는 데는 예보 기술에 대해서나 예보자에 대해서나 다 같이 필요한 표준천기도의 상대적인 예보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실제적인 시험을 거쳐 선택하여야 한다.

(3) 본질적인 예보문제에 대한 평가부족, 근년에 있어서 근본적인 예보향상을 보지 못한 첫째 이유는 예보의 근본성질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데 있다.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경비와 노력을 어긋난 방향에 소비하였다. 최근까지도 기상예보는 대부분의 생각이 먼저 말한 여러 가지 형상(形狀)으로 묘화되는 모형에 대하여 천기해절을 위한 종합분석의 실시, 경험칙(則) 통계적 확률에 입각하며 오로지 현재의 기상현상과 그 경향을 가까운 장래에도 외삽(外插)하는 문제뿐이었다. 막대한 경비와 노력이 천기해절을 위한 종합분석에 제공되는 관측 Data의 수와 내용을 증가시키는데, 천기해절을 위한 종합분석 모형의 새로운 것을 시험하는데, 그리고 그 관측 Data를 통계적으로 또는 천기해절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소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거의 대부분은 기상학의 기본문제에 관한 아무런 계획적인 목표 없이 다만 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짝짝막막한 경험 및 천기해절을 위한 종합적인 예보칙 또는 통계적인 예보칙 등을 발견하는데 헛되어 소비되어왔다. 이와 같이 어긋나게 지향된 노력 때문에 그리고 빈약하게 만들어지고 비(非)효과적으로 이용된 지나치게 많은 예보재료 때문에도 어느 정도 예보의 향상은 저지당하여 왔다. 다음은 현재 예보기술이 어떠한 방면에 응용되고 또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해 보겠다. 예보기술에는 물리적인 원인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상상태를 제외하고 순전히 현재의 기상상태와 그 경향에 입각하는 외삽법(外插法)과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상상태와 그 경향의 진행 과정이 물리적 변화를 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물리적 예보방법 등이 있다. 또 외삽법 중에는 통계적인 것, 관측 Data를 기준으로 한 종합분석적인 것, 계수적인 것이 있으나 이들의 상세 논문은 생략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보형식에 관하여 예보기간, 내용, 확률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겠다. 대부분의 기상예보는 근본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천기도의 모형과 그 변화 추세를 그대로 장차예로 외삽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그 예보의 정확도와 증명할 수 있는 예

보내용은 예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적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기상예보는 그 예보의 특수한 목적이 요구하는 예보내용 및 정확도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다. 거기에 사용되는 예보기술은 그 형식 즉 기간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므로 예보기술의 응용과 실시한 결과를 논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보형식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정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예보를 객관적으로 완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을 못하는 것은 다양한 예보형식과 그 형식에 수반하는 예보 기술의 실시에 대한 확실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없고 또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논하는 예보기술 숙련의 모든 평가는 예보자의 단순한 추측 또는 예보기술의 숙련도를 0으로 표시 할 때 50% 확률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 예보형식들은 예보기술의 숙련도를 개략적이고 비교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실지로 장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예보기술을 사용하여 숫자적으로 입증된 예보에 입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보는 그 기간과 근본 성질에 따라서 다음 네 가지 범위로 분류할 수 있다.

(a) 예보 발표로부터 18시간의 단기예보

이 형식의 예보는 과거 25년간 서리, 적설에 대한 국부적인 상태의 예보이기는 하지만 주로 민간 및 군에서 비행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여 대부분 발달되었다. 그리고 착빙도로(着氷道路)에도 점차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단기 항로예보는 예보기간에 대해서도 또 비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상요소에 대해서는 국부적으로 상세하게 하여 한층 더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이 기상요소는 대체로 10,000 feet에서 15,000 feet 고도까지 풍향과 풍속, 대기 소란상태, 실링⁴⁾ 고도, 수평(水平) 시정(視程), 그리고 특히 빙창, 안개, 뇌우 등의 위험이 있을 때의 응결 등을 말한다. 이것은 비교적 새로운 예보형식인 까닭에 때에 따라서는 그 요소들을 전연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또 보통 외삽법은 특히 단기예보에 적당하고 이 형식의 정확한 예보를 급히 요구하는데 충당하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을 하여 왔으므로 과거 20년간에 이 형식의 예보는 그 기술적 숙련도에 있어서 위대한 향상을 하여 온 예보 분야이다.

이 형식의 예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주는 형식은 없지마는 먼저 말한 50%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예보분야의 가장 좋은 조직과 장비를 가진 예보기구 내에서 90~95% 확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확률의 수행이 기상예보의 어떤 근본적인 향상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형식의 예보를 급한 요구에 따라서 매우 단기간에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삽법이라는 예보기술을 적용하는데 급격한 노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d) 앞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의 보통 일일예보

이 형식의 예보는 보통 특수한 지역 범위 또는 예측되는 모든 기상상태가 실지로 인간생활의 활동과 복리에 영향을 줄 때면 좀 상세하게 발표된다.

이 예보는 민간 또는 군을 막론하고 항공, 농업, 항해, 공업, 상업, 교통 등 그리고

4) 원문의 씨렁은 실링. ceiling

공익사업을 포함하는 일반 대중에 대하여 또 많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대하여 신문, 라디오, 전신(電信), 전화 또는 특별 경고로 전파된다. 수많은 지점의 천기해절을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예보방법은 50년 전에 맨 처음 소개되어 가장 막대한 경비와 노력이 소비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에 와서는 거의 근본적인 향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형식의 예보이다. 이 예보의 활용범위는 매우 넓지마는 예보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아 형식은 예보와 정확도와 기술의 숙련도를 가장 능숙한 예보자가 기술을 수행할 때 12시간 내지 48시간 동안에 그 예보기간이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서 적어진다. 따라서 이 예보기술의 확률은 대체로 그 기간 중 70~90%사이를 오르내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C) 2일에서 6일 또는 7일 앞서의 장기간에 걸치는 순일(旬日) 예보

이 형식의 예보는 현재 두 가지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일일예보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예보에 관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성격을 겹쳐서 생각한 것이다. 이 첫째 역할은 보통 일일예보에 필요한 일일기상도를 가지고 하는 상세한 예보는 앞으로 2일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5일 또는 7일까지 연장시킬 수 없다. 그러나 둘째 역할은 5일 또는 7일 앞서는 동안에 있어 중간적이고 평균적인 특징 즉 기온, 강수(降水), 때로는 일조와 같은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예기되는 이상 현상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첫째 역할에 있어서 이 예보들은 먼저 말한 일일예보보다 더 앞서서 모든 사회생활의 일일계획에 소용하기 위하여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 역할에 있어서의 그 예보들은 주로, 농사, 관개, 홍수방지, 발전(發電)관계 그리고 연료(燃料)공업에도 이용되고 있다. 장기 일일변화에 대한 예보는 다년간 발표하여왔다. 그러나 장기 기상예보의 주요한 최근의 향상은 전 지구적인 대규모 기상도의 발달과 평균적인 기상상태를 예보하기 위하여 통계적 종합적 천기해절 방법의 발달에서 오게 되었다. 일일 기상현상의 연속에 관한 예보는 4일 이상은 그 숙련의 정확도가 적다. 대체로 55~50% 확률을 평가할 수 있다. 5일 이상의 일일 기상현상의 연속을 예보하는 뚜렷한 예보기술의 숙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만한 정도로 주장을 내세운 적도 없고 또 가까운 장래에도 그렇게 될 가망성은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층 더 믿을 수 있는 장기예보를 위하여 작성되는 기상도의 평균 변화 형상은 오늘날 기온에 대해서는 70~75% 사이의 확률이 있다. 그러나 강수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확률을 넘지 못한다. 기온에 비하여 강수는 예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점차로 예보하기가 곤란하다.

(b) 앞으로 1주일 이상에 걸치는 장기예보

이 형식의 예보는 보통 기압, 기온 또는 강수에 대한 평균상태, 또는 기상적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만을 가지고 간신히 변명이 성립되는 정도로 예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의 일기상현상의 진작(進作)에 의하여 예보하는 어떠한 장기예보도 정당한 근거는 없다. 기온, 강수의 장기 변화예보는 순월(旬月) 계절 동안이거

나 또는 전년 동안이거나 간에 그것들이 장기간에 걸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특히 효과적인 농업 생산계획 또는 상업경쟁에 대해서 관계, 수력발전, 홍수방지 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 군사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점이 있는 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형식의 예보는 그 확률을 평가하는데 어떤 확실하고 뚜렷한 숙련도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 그 확률은 55~60% 사이에 있다.

2. 기상예보향상(氣象豫報向上)에 대(對)한 제의(提議)

예보향상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수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하나는 현재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기환류에 대한 근본 지식의 범위 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보기술을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학적 기상학의 근본문제를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새로운 객관적인 예보기술에 의하여 진실로 과학적인 예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 후자(後者)의 지향을 목표삼아 많은 경비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천기도 모형으로부터 장래의 모형을 예상하는데 순전히 몇 가지의 통계적이고 종합분절적인 외삽법과 그리고 질적 또는 양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는 예보기술이 현재와 같이 예보에 많은 제한이 있는 확률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예보기술은 일반적인 대기환류의 근본적인 작용과 기상현상의 모형에 발달에 있어서 급격한 가속도 또는 변화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2 Energy의 근원과 전파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할 적합한 열역학적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예보기술은 기상현상의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와 같은 급격하고 빈도가 많은 가속도를 가지는 현상의 발달을 예기할 수 없다. 따라서 매우 단기간의 예보를 제외하고는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과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예보에도 부적당하다. 실로 예보연구의 근본문제는 일반적인 대기환류의 모형을 양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또 이 해석은 관측의 통계적인 논거와 종합분절적인 논거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반 대기환류 상대와 그 변화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환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연구하여야 하며 또 그 모든 연구는 확실성 있는 세계 각국의 기상관측 Data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절하며 또 통계적으로 분절함으로써 유도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장기에 걸치는 과거의 연속적인 기후의 Data로 시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계획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구보다도 더 강력한 역제기상 기구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구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행의 일을 하는 약간의 지엽적(枝葉的)인 기구가 필요하다.

(1) 즉 위에 말한바 강력한 국제기상기구의 통제와 지원 밑에 움직이는 완전한 시설, 장비, 인원을 갖춘 관측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관측소는 천기해절을 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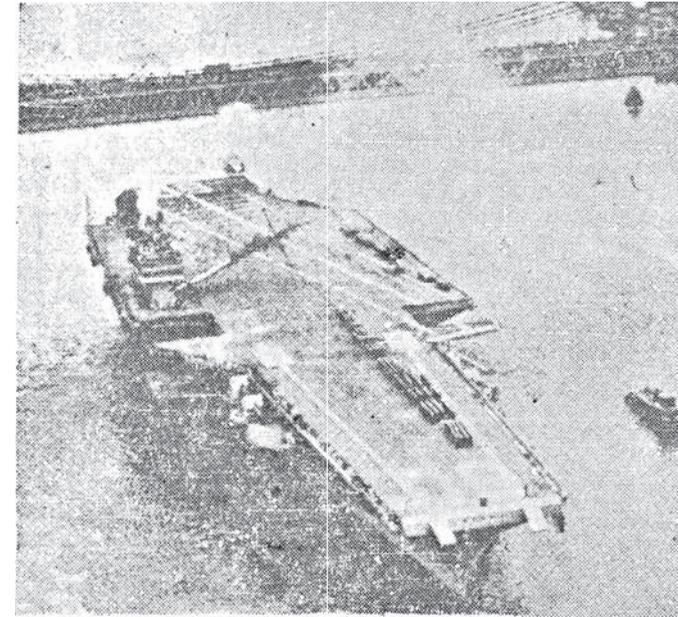
종합분절용 관측 Data를 보고하기 위하여 지구상 전반에 걸쳐서 균일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연구계획은 앞서 말한 국제중양기구에서 지도하여야 하므로 관측망의 밀도, 성질, 분포에 대한 세목(細目)이 역시 그 기구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현재 실용적인 예보요구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요구에 관하여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2) 세계적인 대규모의 종합분절을 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Data가 제공되어야 하고 또 그 분절을 하기 위하여 한층 더 효과적인 관측법과 관측기술의 발달이 요구된다. 이 관측기술의 발달과 표준도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강력한 중양기상기구가 있어야 만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관측기술의 발원(發源)에 있어서 기상예보의 근본적인 연구에 필요한 관측기술이 이미 이전에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는 관측기술의 선택 또는 표준을 훨씬 넘어서지 못할 때는 심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술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기본적 연구계획의 완전한 분야로서 그러고 그 연구계획의 필요에 따라서 유도되었을 때 새롭고 진보된 관측기술의 발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3) 하나의 국제기상연구본부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세계 각국의 지도적인 기상자들이 권위 있는 지도 밑에서 최대 유효한 관측 Data를 용이하게 수집하며 또 연구에 필요한 양을 수시로 입수할 수 있는 완전한 협조와 의견을 교환하는 상태에서 일하게 된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나 어떤 지방이나를 막론하고 그 관측재료를 기상학자들에게 최대로 공헌하며 또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예보에 관해서 유능한 모든 인재들을 집중시켜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보연구에 필요한 가장 많은 재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중심으로 운용하는 결과 그 효과의 대부분에 있어서 관측 Data의 종합분절 내지 통계적분절 면과 이론적인 면이 기본 예보연구에 완전히 적합하고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장기에 걸치는 연구계획은 기상학과 또 이 관계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뭉침으로서 하나의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만일 화학적인 기상연구 문제가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은 위에 말한바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대부분 촉진될 것이다.

우리 인류들은 자연현상의 위력을 미리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시기를 무한히 갈망하고 있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지지(遲遲)한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피해 중에서 자연현상의 폭력 앞에 여지없이 굴복 당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러한 갈망과 복리문제의 해결을 지나치게 소홀히 하여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 인류는 다른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연현상을 예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갖은 유효한 효력을 아낌없이 경주하는데 갖은 장애를 타파하도록 차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금(尙今) 아직도 여기에는 우리 인류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한국에 가까운 예만 하더라도 중공 및 북한 피뢰는 관측 Data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전투함)
미 해군의 사라토가는 세계에서 최대 최강의 전투함이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두클린에 있는 뉴욕의 해군공창(海軍工廠)부터 구레이부센드 만(灣)에 이르는 이스트 강을 서서히 진항(進航)하고 있으며 그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들은 위에 말한바와 같이 기상예보에 대한 가장 화학적인 모색을 실천하여 예보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데 우리 자신이 만든 애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응용 화학과 달라서 자연적인 난관이 너무도 많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볼 때 적을지 모르지만 지구는 실로 광범위하고 그 형상도 단순치 않은 것이다.

해륙의 차이, 형상의 기복, 이것뿐인가. 얼마든지 다른 난관이 파고들면 들수록 있을 줄 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이상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작하는 애로를 꽤히 타개하고 그 모색을 완성하여 자연현상을 미리 알 수 있는 복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의 이상적인 모색이 예보기술로서 완성된다 하더라도 1에 2를 보태면 3이 되는 이러한 예보는 당장은 바라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나 이 문제는 오로지 기상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에 지워진 숙제일 것이다. (끝)

시(詩)

심해어(深海魚)의 여행(旅行)

이진희(李鎭熙)

신호등은

파랗게 하늘에 걸렸습니다.

화성행(火星行) 초특급을 탄 여객들은

Z 엔진이 그려 놓은

고은 원색(原色)의 무늬를 탐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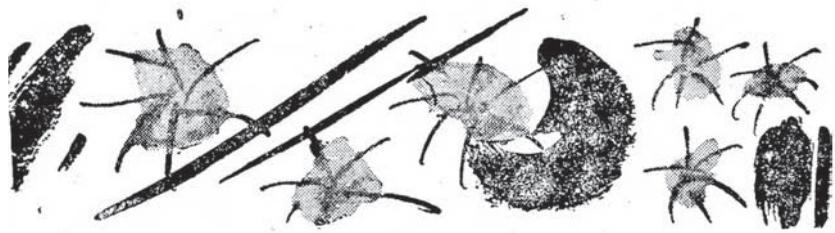
화상을 입었답니다.

많은

성층권(成層圈)의 여객들도

합창이

예의(禮儀)인줄만 알았지요.



—출발은

침묵이 좋지 않을까요.—

지뢰(地雷)와 지분(脂粉)과 에너지는

충만을 모르는

탐욕가(貪慾家)랍니다.

—전쟁은

아메바의 화려한 교향시—

보세요.

신시(塵市)의 사치(奢侈)는

저기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질 않았습니까.

이젠

완전히 여행에 지쳐버린

패류(貝類)의 족속들은

수소(水素)만을 즐겨 채식(採食)하게 되었습니다.



시(詩)

연가2제(戀歌二題)

서양(曙洋) 공중인(孔仲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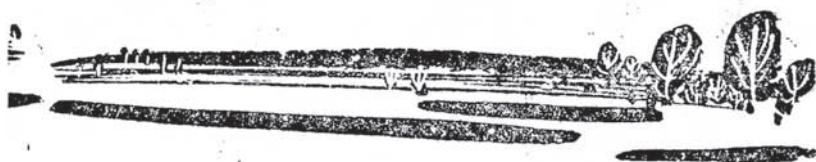
1. 동천홍(東天紅)

애인아, 새벽노을로 뛰어나와
보랏빛 웃음 짓고 오라.

우리가 하늘 달리며 채색한 못꿈이 열리듯이
애인아, 보랏빛 웃음 짓고 오라.

오색구름 나래 위에 바다는 울렁이는 너의 젓가슴!
새벽의 우람한 종(鍾) 속에
애인아, 바람처럼 재빨리 〇는 오너라.

지금은 동천홍.
그리고 너는 나의 새벽노을이다.



1. 난취(爛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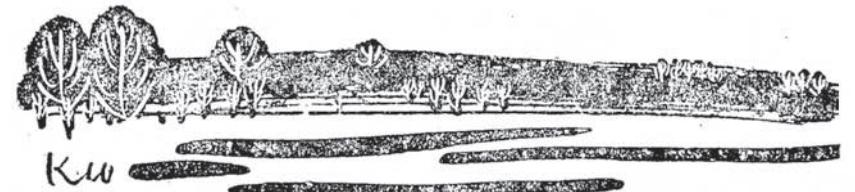
지금은 이대로 죽음만을 열망하는 애무 속에서—

만첩의 꽃구름은 불붙는 우리들 청춘의 조국.
연연(戀戀) 너와의 밀어(密語)는 달무리 부서지는
동해(東海) 은(銀)잔디
나의 아씨여, 이 순시(瞬時)를 위하여
별처럼 가야할 사랑의 기폭을 날리자.

마침내 어쩔 수 없는 희열이 스스로 열어,
사무쳐 안기울 세월의 향연(饗宴)!
나래 지친 아수라(阿修羅)처럼
궁글며, 미치며, 쓰러질 이 애욕(愛慾)의 피안(彼岸)으로……

어서 오라, 나의 '노진(露振)' 영원의 아씨여
너로 말미암아 무의 짓는 상화(想華)의 가슴 도도히,
바다에 쏟아지는 한 방울 빗줄기처럼
열렬히 나는 달려가리라.

(초기작품중(初期作品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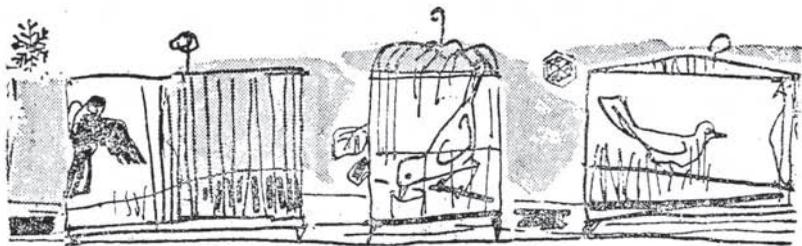
시(詩)

<아르키메데스>의 하루

이활(李活)

나에겐 나한테 부동자세(不動姿勢)를 자꾸만 강요(強要)하는
내가 있어 때로 감정의 시궁창에 빠지고 마는데 나는 그럴 때마
다 그렇게 만드는 죄수(罪人)인 나를 붙잡아 먼 벽지(僻地)에라
도 유형(流刑)해 버리려고 단단히 별렀지만 도저히 그의 행방을
랑 알 길이 없어 오늘도 난 미궁(迷宮)에 빠져서 그만 뚜껑을 닫
아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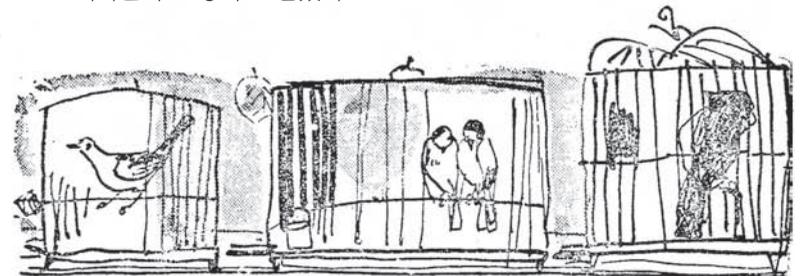
그럴 때마다 난 준비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의 나를 보내어 이
미궁의 철문을 □다리계 하여 놓고 내가 다시 나 때문인 자선사
업에 골몰하고 나면 지혜를 먹고 자라난 나의 미래파(未來派)가
작전을 만들어서 지구를 한 번 더 제조(製造)해



보면 이번엔 <켈타곤>의 군사(軍士)들이 쳐들어 와서 마구 짓밟
아 버리곤 나를 묶어 가는데 그래도 또 나를 지배할 나머지의
내가 내가 상연(上演)하는 작품 속에 나서는 데 어찌된 셈인지 이
시의 방정식은 도무지 분해(分解)될 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난 <팡세>의 병정(兵丁)들을 거느리고 바다 건너 불어
오는 바람들의 우표(郵票)를 모아가지고 내 궁전(宮殿)에 돌아
와 문무백관(文武百官)이 임석(臨席)한 자리에서 관병식(觀兵式)
을 베풀었더니 나의 유년(幼年) 시절(時節)의 가장 친근(親近)했
던 지구(知舊)인 봄이 날아와서 꽃을 내 얼굴에 꽂아 놓곤 하루
종일 웃어대고만 있다.

함부로 웃고만 있는 이 수상한 꽃을 내 얼굴에서 치워줄 손이
없느냐? 고 내가 이 우스꽝스런 시대극(時代劇) 속에서 고래고
래 소리 질러 보았으나 대답은 없고 해서 주위를 살피었는데 그
대 아하 나의 손과 나의 발들이 이번엔 저이들끼리 약속해갖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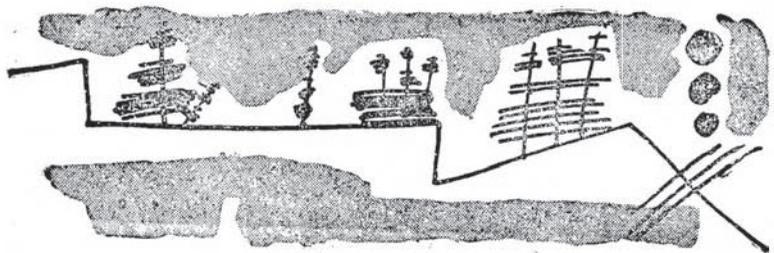
시(詩)

천지무획(天地無劃)

박재삼(朴在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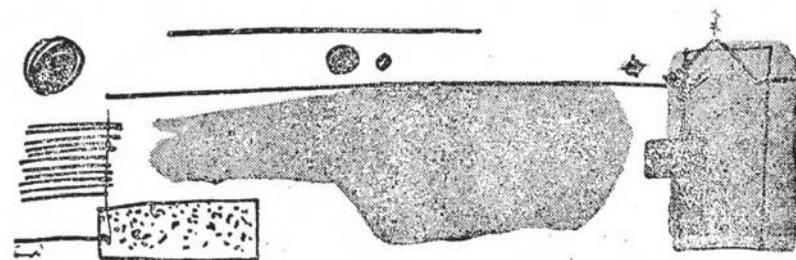
나를 하염없이 눈물 나게 하는, 풀잎 축트는 것, 햇병아리 뜰
에 노는 것, 아지랑이 하늘 오르는 그런 것들은, □리만치라도
저승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이들을
눈물 나게 사랑하는 나를 문득 저승에 보내버리기야 하라.

그렇다면 이 연연(連延)한 상관(相關)은 어느 훗날, 가사(假使)
일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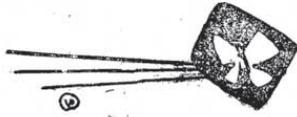


도(滔滔)한 강물의, 눈물겨운 햇빛에 반짝이는 사실이 되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얼마동안은 내 뼈 녹은 목숨 한 조각이, 얼마
동안은 이들의 변모(變貌)한 목숨 한 조각이, 반짝인다 하여
도 좋다. 혹은, 나와 이들이 다 함께 반짝인다 하여도 좋다.

그리하여 머언 먼 훗날엔, 그러한 반짝이는 사실을 훨씬 넘어
선 높은 하늘의, 아닌 말로 땅 기운 아득한 그런데서, 나와 이들
의 기막힌 신분이, 또는 변모가 용하게 함께 되어 이루어진, 구
름으로 흐른다 하여도 좋을 일이 아닌가.



「유네스코」의 이념(理念)과 그 사업(事業)



장내원

1. 세계(世界)의 새 희망(希望)
2. 유네스코 활동(活動)의 개황(概況)
3. 유네스코 기술원조(技術援助)의 대상(對象)
4. 유네스코 기술원조(技術援助)의 실황(實況)
5. 국제문화교류활동(國際文化交流活動)
6. 새 역사(歷史)의 서곡(序曲)

1. 세계(世界)의 새 희망(希望)

이 세상에서 무지와 빈곤과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항구 평화세계를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건설하려는 이상(異常)한 국제기구가 있는 줄을 아십니까?

메마른 사막에 비를 내리서 옥토를 만들고 열대의 습지대를 개척하여 풍부한 식량을 생산하려고 사막과 정글과 싸우는 국제과학활동이 바로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戰災)국가에 학교를 재건하여 주고 진재(震災)국가에 기술원조단을 보내주고 후진국가에 교육사절단을 보내 주어서 그들의 물심양면의 생활재건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자기나라의 일처럼 애써주는 20세기의 신화(神話)와도 같은 국제실화(國際實話)가 '세계의 새 희망'이 되고 있다는 명량한 화제를 공군장병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이 기이(奇異)한 국제단체의 이념과 사업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유네스코'라고 하는데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의 약칭입니다. 유엔은 12개 전문기구 중 최대 기관으로써 세계7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정부기구인데 그 세계본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전쟁이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비(防備)도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네스코 헌장(憲章) 전문(前文) 중에서—

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그 직원총수는 3천여 명으로 유엔본부보다 좀 더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면(紙面) 관계로 유네스코의 기본사업을 골자만 소개한 후에 특히 후진국가 개발 면에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원조의 실태와 국제문화교류에 경이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문화활동 중 가장 명량한 뉴스가 풍부한 유네스코 예술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2. 유네스코 활동(活動)의 개황(概況)

◇ 교육활동 ◇

유네스코의 교육활동은 교육보급운동, 교육개선운동, 국제이해운동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육보급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네스코의 기초교육사업이라고도 하며 새 생활교육운동이라고 하는 Fundamental Education programme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의 계몽운동인데 여기서는 문자나 숫자만의 단순한 문맹퇴치운동이 아니고 건전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생활을 여하히 할 것인가. 요족(饑足)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農家)경제는 여하히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농촌의 문화향상은 여하히 할 것이며 생활(生活)은 여하히 할 것인가.

특히 농촌의 협동생활의식의 양양과 실천을 여하히 실천할 것인가. 결국 지상에 가장 무지와 병고(病苦)와 불행이 많은 농촌의 비극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이상촌(理想村)을 건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이상촌 건설 지도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직접 이상촌 건설에 혼신의 정열을倾注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특이한 교맹(敎育)활동의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15개 대학생으로 조직된 유네스코 학생건설대의 빛나는 업적이 바로 이 활동의 부(副)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교육개선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이 국가적 편견과 고집을 초월하여 오로지 세계적 수준과 시야 위에서 교육이념, 교과교재, 교수방법 등을 활발히 교환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교육전문가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육조사사찰단을 파견하기로 하며 매년 국제교육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이념은 그 교육활동 면에 있어서도 초연(超然)한 입장에서 세계의 낙오된 국가의 교육수준을 조속히 향상시키며 문맹을 조속히 구제하여 인류가 다 함께 문명의 복지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 숭고한 이상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교육활동은 일방으로 최고 지성의 계발에 노력하는 동

시에 타방으로 대중의 무지(無知)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 이것은 불행의 원천이며 평화의 적이라고 유네스코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地上)의 무지와 빈곤을 없애고 참된 복지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 유네스코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 과학활동 ◇

유네스코의 과학활동은 과학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학의 대중화운동, 과학교육의 국제협동 등의 국제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대한 특색은 유네스코 기술원조활동입니다.

국제과학협력활동을 위하여 유네스코는 연액(年額) 91만 불의 예산으로 중동지구 유네스코 건조지대연구소, 남미아마존 하(河) 습지대연구소, 남아시아 과학협조처, 동아시아 과학협조처 등을 設置하여 놓고 전 세계의 과학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대중화운동으로는 국제과학순회전시회, 통속과학도서출판장려, 과학강연회, 과학연구단체의 원조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기(世紀)의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문제도 유엔본부로부터 원자력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부문은 유네스코의 전임 사항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자력문제가 등장한다는 것도 상식문제로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네스코 기술원조문제는 그 중대성에 비춰서 별항(別項)으로 설명하겠지만 요컨대 유네스코 과학활동의 근본이념은 과학을 무기로 하는 빈곤극복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깊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유네스코는 대소고소(大所高所)에서 전 세계를 초연히 살핀 후 과학기술이 부족함으로써 풍부한 천연자원을 개발치 못하고 빈곤 속에서 해매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진하여 과학,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어디까지든지 '한 민족, 한 국가, 한 문화의 생존' 발전만을 위한 '작은 세계관'의 역사였지만 유네스코가 지향할 새 역사는 어디까지든지 인류 전체 운명의 타개를 염원하면서 전진하는 하나의 새로운 이념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章)에 논급(論及)할 유네스코 기술원조는 여사(如斯)한 의미에서 인류의 새 사관(史觀)에 입각한 하나의 꽃이요 열매요 소망인 것입니다.

◇ 문화활동 ◇

유네스코 문화활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목하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 간의 문화교류, 인류의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보호, 도서관, 박물관의 원조, 문화인의 저작권 옹호, 각국 중요문화작품의 국제간의 보급, 절판 문헌과 잡지의 복제 반포(頒布), 명작미술품의 복제보급, 레코드음악 국제목록의 작성 배부, 각국 민속음악의 녹음, 국제음악제의 개최, 동서양 고전 명저의 번역 소개 등 귀중한 사업계획입니다.

요컨대 유네스코의 문화활동도 첫째로는 세계적 문화수준운동입니다. 즉 고도의 문화가 넘치고 남는 지역으로부터 문화의 기근(饑饉)지대와 문화 사막지대로 자연스럽게 문화의 교류작용을 촉진하여 인류 전체의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유네스코는 지상의 하나인 문화를 결코 한 민족, 한 국가의 전속(專屬)문화라고 보지 않고 인류의 공동문화로서 인류 전체를 행복케 하여야 할 하나의 세계문화라는 문화이념을 전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아세아대회 문화부문 제1호 결의안 같은 것은 이런 이념 실천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즉 (1) 아세아의 고전을 구라파어와 아세아어로 번역할 것. 그리고 구라파의 고전을 아세아어로 번역할 것. (2) 아인아 각국의 미술작품을 복제할 것과 아세아지역의 고급의 미술적 작품을 복제할 것과 아세아지역의 고급 미술전람회를 개최할 것. (3) 동서양의 지도적문화인의 인물 교환을 장려하여 각종 문화단체의 상호 교환도 실시할 것. (4) 문화영화와 문화레코드 제작 분배하되 아세아 지역 내의 각종 문화형태에 대하여 공정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특기사항까지 부기(附記)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아세아문화 자체의 새로운 정리가 되는 동시에 동서문화교류상 극히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 낡은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기천(幾千)년간, 인류가 꿈에도 실현치 못하던 기십(幾十)개국의 지역문화를 집단적으로 그도 평화적으로 교류시키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새 문화사(文化史) 창조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고 유네스코의 새 세계관의 매력이 또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이념은 분명히 새 세계의 햇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3. 유네스코 기술원조(技術援助)의 대상(對象)

지구상에 무지와 빈곤이 있는 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5) 원문의 생생(生生)은 생존(生存)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임.

신념입니다. 참담한 전화(戰禍)로부터 인류와 그 문화적 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눈뜬장님들과 험벗고 굶주린 인간들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숭고한 이상을 달성키 위하여 동원되는 전문가들의 단체로 유네스코 기술원조단이라고 부릅니다. 몇 해 전에 유네스코에서 그 기술원조의 대상국가를 찾기 위하여 땅위에서 가장 불행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놀랄만한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대상인 53개국을 1, 2, 3류로 분류하여 설명하여 보면

제1류에 속하는 인간은 전 세계인구의 5분지(分之) 1인데 매년당 연 수입이 불과 이백 불 정도로 천명에 1명 정도의 의사(醫師)가 있으며 제2류에 속하는 인간은 세계인구의 6분의 1인데 매년당 연수(年收)가 이백 불 이하이며 제3류에 속하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무려 3분의 2로써 매년당 연수(年收)가 물경(勿驚)! 백 불도 못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랍니다. 그리고 의사는 6천명에 1명도 되나 마나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류에 속하는 나라를 소위 후진국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문맹비율이 평균 78%로부터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아동 천명에 교원 2명도 못되는 참담한 숫자로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같은 참상을 결코 그 약소국 자신의 불행으로만 생각지 않고 인류 공동의 불행으로 규정하고 국제협동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 세계 후진지역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유네스코 기술원조의 실황을 소개하겠습니다.

4. 유네스코 기술원조(技術援助)의 실황(實況)

1950년 이래 아세아지역은 전 세계 피(被)원조국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로 한국전쟁이 치열하던 그때에 우리들은 6.25의 사선(死線)을 방황하고 있었지만 아세아의 허다한 약소국가들은 유네스코로 기술원조를 속도 도입하여 단시일간에 그 면목(面目)을 일신한 나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파사(波斯) 경제개발 7개년계획을 원조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과학고문단을 파견하였으며 세일론 도(島)에서는 유네스코 지질학자들이 도 내 지하자원 개발에 활약하였으며 레바논에는 유네스코 과학연구소와 유네스코 교육연구소까지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유네스코 생활교육본부와 교원양성소까지 후원하였으며 특히 유명한 것은 파키스탄에 특파된 유네스코 과학사절단입니다. 유네스코는 아세아 최초의 지구물리화학연구소까지 창립한 후 소위 건조 지대 문제를 연구하면서 사막과 과학진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적 지

질학자, 기상학자, 자기학자(磁氣學者)까지 모여서 유네스코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면(紙面) 사정으로 여기서는 인도(印度) 기술원조의 실화만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도의 기술원조 ◇

유네스코의 기술원조는 농업경제의 인도를 공업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책 상반(相反)의 나라 인도는 철저한 비극의 나라였습니다. 천명에 30명이란 세계 1등인 인구사망률의 나라 인도! 그도 전(全) 사망률의 25%를 차지하는 영아(嬰兒)지옥의 나라 인도! 연수(年收) 40불의 농민지옥의 나라 인도! 였습니다.

과거 몇 천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인도의 경제적 난(難)문제는 간디 옹(翁)의 홈스펀과 수공업 정도로는 도저히 해결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새 지도자들은 정부기구를 개편하여 신규로(과학성(科學省))을 설치하는 동시에 유엔과 유네스코 기술원조도입에 의한 과학과 경제재건위 혁신정책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요원 10개년계획을 세우면서 인도의 기초적공업화에 착 안하였습니다. 다시 전국적인 지방태세를 확립키 위하여 11개 所의 국립과학연구소를 일거에 창설하고 이과계통의 학교를 14개나 확장한 외에 동서남북 4지구에는 특수기술대학까지 증설하면서 과학인도 건설에의 돌격태세를 완비하였다고 합니다.

인도가 유네스코로부터 기술원조 승낙의 조인을 받은 것이 1950년 11월 12일이니 지금부터 만 5개년이 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이 기술원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엘프렛트) 교수를 선발대로 출발시킨 후 3대(隊)의 기술원조단을 정식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제1단은 국립물리화학연구소를 담당할 3명의 국제적 물리학자로 편성하였는데 절대0도(零度)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중점 테마라고 합니다. 이 절대0도란 섭씨 영하 273도인데 액체공기, 액체헬륨, 액체수소 장치를 사용하여 이 절대0도 상태에서 연구하는 극히 중요한 과학부문에 유네스코는 과학전문가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연구시설까지 제공하였다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는 도저히 알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2단은 국립화학연구소의 완성을 담당할 일행으로 4명의 유네스코 과학자로 조직되었으며 전국 10개 所의 국립과학연구소의 완성도 그들의 임무로 되었

다고 합니다.

제3단은 국립공과대학지도를 책임 맡은 유네스코과학지도자 3명인데 그들은 지구물리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등의 전문가들로서 인도 공과대학의 혁신적 설계를 담당하는 동시에 과학적 연구조사방법도 지도하였답니다.

제4단은 가장 현대적 특수성이 농후한 기술원조인데 소위 유네스코 과학문헌본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도에서 매년 출판하는 1만 2천 이상의 과학 논문초록, 색인, 목록까지 첨부하여 그 정기간행을 담당하는 항구적 사업으로 유네스코 과거기술진은 물론 인도 전국의 과학자들과 세계학계에도 귀중한 참고문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유네스코의 과학기술의 원조를 도입하여 그 빈국(貧國)의 비극 전제는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지만 국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여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득한 옛날은 고사하고라도 1세기나 반세기 전까지라도 이 같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활동을 그 어느 역사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유네스코의 숭고한 이념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기술원조를 운행에 발휘되는 이 커다란 정신이야말로 인류의 새로운 자각이며 역사의 새로운 전진이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5. 국제문화교류활동(國際文化交流活動)

지상의 무지가 빈곤을 극복하고 구원(久遠)한 평화세계를 우선 인간의 마음 속에 건설하려는 유네스코가 문화활동을 중요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이 타민족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국가와 타국가 간의 야릇한 텐션을 조화 또는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예술문화가 기여하는 그 공로는 참으로 위대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네스코는 이 예술부문의 문화활동을 극히 중대시하고 있습니다.

예술! 이것은 표현과 전의(傳意)의 최고형식이며 예술적 창작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할 뿐 아니라 시대의 간격을 비약하여 세계의 만인(萬人)이 내적 세계를 서로서도 동감 공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덕수궁(德壽宮)에서 공전(空前)의 성황을 이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전시회도 유네스코가 세계각지를 순회 중인 150개의 전시활동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중국명화만으로 편성하는 총천연색 미술작품 전시준비로 완성에 가까워 가

고 있다고 하여 그 중에는 서력(西曆) 기원전 백 6년대의 진기한 고화(古畵)까지 등장시킬 것이라고 하며 금후에도 각국 명화를 계속적으로 취재 편성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서양의 희귀한 천연색미술작품도 발행하였는데 1954년까지는 이집트, 인도 호주 등 특수지역 미술품을 완성하였고 1956년까지는 아직 세계에 소개되지 않은 동양미술품만으로 천연색미술 앨범을 제작하기 위하여 6천 불의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식하고 있던 우리 반만년 문화가 세계로 진출할 문호가 바로 여기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영화 면에 있어서도 유네스코는 국제미술영화협회와 암스테르담 국제미술영화배급본부와의 긴밀(緊密)⁶⁾한 협력으로 각종 미술품을 천연색영화로 보급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다시 시각(視覺)으로부터 청각(聽覺) 미술로 전진하여 세계 각국 민요와 현대음악을 레코드로 제작하여 가지고 세계 각국 박물관, 도서관, 대학, 방송국 및 음악단체에 실비로 공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유네스코는 2만여 매(枚)에 공하는 세계 레코드음악 총색인을 작성하였고 특히 동양지역의 중국, 필리핀, 타일랜드, 버마, 세일론 각국 음악과 특히 인도 고전음악목록까지 완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또 한편 우대(尤大)한 구입예산으로 세계 각국의 우수한 예술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천연색 복제미술품 1천 점, 각국 민요 레코드 1천 매, 각국 미술영화 30권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베니스 국제예술가협회 결의를 존중하여 각국 신인(新人)의 예술적 활동을 특히 장려하는 청신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 새 세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유네스코는 각국 신인들의 미술작품을 원색(原色)으로 복제할 뿐 아니라 음악작품까지 녹음하여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동시에 각국 신인 음악가들을 각국 방송국에 소개하여 특별계약을 맺도록 하면서 작품 발표의 기회를 국제적으로 많이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신선한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신인 작곡가, 미술가, 문화인들의 국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여비 기타 연구비 조(條)로 프란츠와 펠로우쉽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데는 그 국제성

6) 원문의 긴기(緊奇)은 긴밀(緊密)로 봄.

과 진보성을 형용한 용어를 발견하기에 곤란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각국 순회전시를 필(畢)한 천연색미술작품, 천연색미술영화, 각국 민요앨범 등을 희망하는 각국에 분양하여 항구적 예술박물관을 완성토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고색창연(古色蒼然)한 고궁(古宮)속에서 골동품과 고물상을 연상케 하는 시대는 바야흐로 과거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원색과 생생한 육성의 실감을 시각, 청각, 촉각으로 만끽할 수 있는 새 시대는 유네스코의 힘으로 일보일보 박도(迫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기 약동하는 이 종합예술박물관의 모습은 새 역사의 서곡으로써 인류의 면전에 등장할 것입니다.

6. 새 역사(歷史)의 서곡(序曲)

필자는 이상과 같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교육, 과학, 문화의 실제 활동 면을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무지, 빈곤, 불안을 불행의 원천인 동시에 평화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3대 불행의 원천을 제거하려고 교육, 과학, 문화의 영역에서 국제협동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일국(一國) 내에 있어서도 일방에만 고도의 문화생활이 있고 타방에는 저급한 문명지옥이 있는 것을 인류의 불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일방에만 고도로 발달된 부유한 국가가 있고 타방에는 극도로 비참한 빈곤지옥이 있는 것을 역사의 치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만민은 다 같이 교육, 과학, 문화의 혜택을 향수할 생래적(生來的) 인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삶의 보장을 받을 천부와 인권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하나의 불꽃같은 역사적 신념으로 발로되는 것이 유네스코의 숭고한 사업이 아닐까요.

유네스코의 이념과 사업! 이는 고원(高遠)한 이상적이면서도 철저한 현실적입니다.

광범한 국제적이면서도 착실한 국가적입니다. 이 같은 시간과 공간속에 인류의 참된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유네스코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인류의 지성적, 도덕적, 역사적 자각과 단결을 국제협동의 방법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유네스코의 근본이념입니다.

유네스코는 어둠속의 인류사를 밝히는 하나의 네오 르네상스이며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새 역사의 횃불이라고 신념 합니다.

(필자(筆者) UNESCO 간사(幹事))

케인즈 경제학(經濟學)과 경제정책(經濟政策)

이면석(李冕錫)



1. 케인즈 이론(理論)의 중점(重點)

불황의 경제학으로 알려진 J M 케인즈의 이론은 실업상태를 초극(超克)하여 어떻게 하면 완전고용에 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고전학파(古典學派) 경제학이 실업문제를 자연조화(自然調和)의 경제순환로(循環路)에서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아 별로 심각한 관심을 갖지 않는데 반하여 케인즈는 실업이 만성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 자리 잡고 그것 때문에 모든 재난적 혼미상태를 낳는다는 점을 중요시하여 어떻게 하면 이 실업문제를 해명하여 현실의 경제로 하여금 불황 없는 영구한 번영태세로 놓느냐는 것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 케인즈는 실업상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의 일반이론에서는 실업을 총수요의 부정에서 오는 고용량의 감소에서 귀결되는 것으로 보고 이 총수요의 부족을 곧 사회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양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다."고 흔히들 말할 때에는 그것은 사회의 투자지출 즉 산업이 부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중 소비시장에 있어서 구매력이 부족하여 결국 소비재 산업을 위축시켜 그 결과로 비(非)취업 노동인구가 발생하게 되는 상태를 일으켰다고는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케인즈가 그저 실업문제를 좀 더 고전학파와는 달리 소득순환 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줄 뿐 왜 이러한 실업상태가 만성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경제기구 면은 아직 알 수 없다. 케인즈는 이 점에 관하여 우선소비 함수의 정상화 내지 체감이라는 개념을 구사하여 손쉽게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가고 있다. 즉 그는 총수요를 소득 분석적인 고려에서 투자수요의 두 면으로 나누되 장기간에 걸쳐 볼 때에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정비례하여 소비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하면 소비의 일부분이 상대적으로 커가는 비율로 저축이 되어 갈뿐 아니라 투자수요 역시 소득의 증가와는 무관인 기술적인 요소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저축성향

과 기술의 경제외적 조건이 장구한 시일을 경과하는 가운데 사회의 실질수요(유효수요)가 저락되어 그 때문에 고용을 증진하여야 할 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하고 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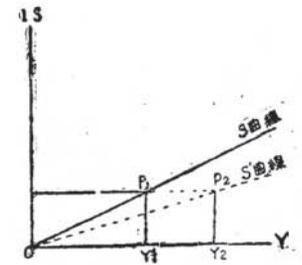
물론 케인즈는 이 실업상태를 낳는 총수요의 부족 그 자체만을 심각하게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총수요의 부족 때문에 승수(乘數)효과적으로 차기(次期)의 국민소득이 줄어가는 현상을 통찰하여 더욱 안타까운 사려(思慮)를 베풀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이 케인즈 경제학의 여액(餘額)이라 할 경제성장의 문제로서 오늘날 케인즈학파의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정책적(政策的)인 제고려(諸考慮)

그럼 총수요를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 소득의 계속적인 증가를 약속해야 할 구체적인 현실의 경제요소들은 어떠한 관련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앞서 시사한바 소비함수는 오랜 역사적인 추세에서 보면 체감되어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것을 자극하여 소득의 승수효과적인 증가를 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케인즈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투자수요 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인(誘引)인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이기 하든가 투자 저인(阻因)인 이자율을 싸게 하여 소득증가를 보장하기에는 현실적인 많은 애로에 부딪칠 염려가 있다. 제1로 이자율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자본축적이 충분히 있는 후라야만 진정한 효과를 얻을 일이지 만약에 그 사회의 축적자본이 근소한데다가 금리가 싸진댔자 그러한 일은 무의미할 뿐더러 자본축적의 절대액(絕對額)이 적은 사회에서 보면 오히려 순서가 바뀌는 일에 틀림없다. 또 비록 자본축적의 절대액이 많은 나라에서도 이자율을 낮춰 자본의 차용자 즉 투자가를 고무하려면 거기에는 자본의 한계효율이 어느 정도 흡족할 만큼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지론인 것이다.

이리하여 소득증가를 제래(齊來)하기 위한 투자수요 및 고용증대의 방법도 최종적으로 위정가(爲政家)의 염두에 오는 것이 자본의 한계효율의 보장인데 불행하게도 현대의 경제사회가 이 한계효율을 계속 보장하리라는 객관적 안정기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개(箇箇) 국가의 투자가로 하여금 그가 투하하는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이는 중대요인인 세계 상품시장의 국제분업이 지양되어가는 방향에서 차차 협소하여 가는 관계로 투자의 기회가 줄고 그 때문에 저축성향이 높아가고 있다는 증좌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시(圖示)로 표현하면 현대의 저축성향은 S곡선(점선)으로

가지 않고 그 구배(勾配)가 한 층 높은 S곡선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득증가(경제성장)의 추세는 Y2로 오지 못하고 Y1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저축성향이 이처럼 높기만 하여가고 자본의 한계효율을 보장할 시장의 확대방향이 왜곡되어 가는 것일까? 우선 전자(前者)에 대하여는 그 이유의 으뜸가는 것이 사회적 대내(對內) 대외(對外)의 불안 때문에 인간의 취약성이 장래에 비축하는 성향을 낳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후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국민주의나 기껏해야 집단안정보장의 틀 안에서 정치적 이해가 같은 국가끼리 교역을 하게 되어 종전보다 투자기회가 국제적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생산기술수준의 향상이 각국(各國) 제(製)의 동종 제품이 국내의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자연 시장에서 수요자의 지위를 강하게 하고 제품공급자로 말하면 생산비를 희생으로 하여서도 자금의 회전에 급급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특출한 소비기호를 창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기술에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찰치 않는 한 기업의 생산투자는 위축을 불면(不免)할 것이 당연하며 거기에 따라 고용이 줄고 대중 구매력화(化) 할 노임(勞賃) 지출이 줄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가지(加之)하여 케인즈가 명기한 것은 마샬(Marshall)유(流)의 사회의 신뢰(Confidence) 여부에 따라 기대수익이 줄고 그것이 직접자본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면을 이론화한 점인데 세칭(世稱) 심리파라고 하는 케인즈의 이러한 태도가 특히 국내외에 대한 장기투자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은 현 자본주의 단계의 시장심리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인 못할 것이다.

케인즈가 증권투자가의 사혹(思惑)(speculation)이 불건전한 탓으로 붕괴하게 되었다고 본 1929년의 세계적 대공황이나 최근에 미국 아 대통령의 심장환(心臟患)으로 급락하게 된 뉴욕 주식시세의 일시적 동향 등은 이 좋은 설례(設例)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깝게 우리 국내의 예만 보더라도 특종, 특가가 휴전이라든가 신학기라든가 혹은 선거관계를 이례(異例)히 움직이고 있는 사실 등은 케인즈적 정책안(眼)에서 볼 때에는 결국은 용의주도하게 대책을 세운다면 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이기는 하되 투자수요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에 따라

고용의 기회에 철요(凸凹)를 주고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이렇듯 케인즈의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독립변수—이자율, 소비성향 및 자본의 한계효율 기타 등은 소위 전략적인 요소로서 항시 총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의 소설(所說)은 이러한 조정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 결코 급진적인 선택을 띠는 일이 없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공공정책의 이념이 영합(迎合)하는 범위 내에서의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3. 그의 이론(理論)이 시사(示唆)하는 것

케인즈파의 젊은 거道人 크라인(L. Klein)은 일찍이 그의 명저 「케인즈 혁명」이라는 책자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요지(要之) 마르크스가 분석한 것은 자본주의체제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인데 반하여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자본주의체제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케인즈는 자본주의를 변호하고 그 존속을 희구(希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국가는 일부 이자정책 및 조세체계 기타를 통하여 소비성향을 올리는데 지도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갈파(喝破)하게 된 것인데 일례(一例)로 이자정책에서는 경기의 부진이나 급험기(急險期)에 처하여 은행이 금리를 올려 투자코스트를 높이느니 보다 그때에는 오히려 이자를 싸게 하여 투자활동을 계속케 하되 소비성향을 올리기 위한 광고나 기호의 전환에 정부가 손수 협력하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케인즈는 서슴지 않고 누진세를 폐기하여 기업가들의 투자욕과 소비성향을 늘리는 시책을 써야할 것을 권하는 동시에 독점적인 요소인 특허제도를 개방하든가 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직접 법인세 및 영업세의 감약(減約)을 통하여 기업의 계속 활동과 보다 자유스러운 활동분위기를 조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권력지상주의적인 국가제도에서는 개인적 자유와 능률을 희생하여 가면서까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일반이 생활의 다방면을 비호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며…… 경제력의 자유 자재한 활

용만이 우리의 생활 제요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믿는 바이다.

케인즈의 이러한 신념이 그 후의 세계경제가 걸어온 역사적 과정에서 자기 폭로적으로 실증되고 있음은 만인(萬人)이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실증에도 불구하고 케인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업의 대량적 만성적인 존재를 정치 도구화하여 유흥적인 선동과 사유재산의 인정 내지 사회화를 통하여 얻은 많은 독재주의정권이 가져온 일국(一國)의 경제적 성장은 과연 정상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것인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안전은 얼마나 보장되었으며 실업문제는 과연 청산(다소라도)을 보았던 것인가?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가 그네들 독재주의 정권의 온존(溫存)을 의한 대규모의 군인 징발과 무기제조 산업에의 대량 취업이라는 연막(煙幕) 속에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한 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식자(識者)들 간에 늘 구설거리로 되어있는 후진국과 소비 장려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대중소비의 남비(濫費)적 성격을 엄계(嚴戒)하는 의미에서 케인즈의 소설(所說)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면 일리가 없는 바는 아니나 실로 케인즈가 말하는 소비성향의 증대 운운은 자본축적이 과대하게 있고 여건으로서 미(未)고용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즉 그렇지 못한 우리의 처지에서는 과도히 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바이다. 일례로 케인즈의 만년작(晩年作)인 전비조달론(戰費調達論)에서는 금차(今次) 대전 중의 영국의 전비(戰費)를 비인프레적인 방법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과잉소비 구매력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국민 저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영국 자신 방대한 산업자원을 갖고 있고 자본축적 부분이 많아서⁷⁾ 전비조달 자체에 별 지장이 없었더라면 케인즈가 직접 이러한 절욕(節慾)주의적인 인프레 대책을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케인즈가 미국의 소비성향이 전시(戰時) 중에도 계속 건전한 수준에 있게 된 것을 경제적 실력에서 오는 특혜현상이라고 선망(羨望)의 눈으로 보게 된 소이도 이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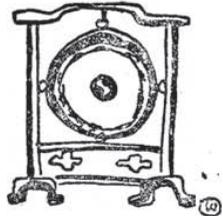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계속 소비 구매력 중에서 남비에 통하는 부분은 국민 각자의 판단으로 이것을 절약하여 저축으로 돌리든지 더 좋은 생산적 투자 기회를 따라 주식이나 합자(合資)활동에 집중(集注)토록 행정적인 지도를 불석(不措)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이것이 케인즈의 소설과 동떨어진 시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_____ (필자(筆者) 경제평론인(經濟評論人))

⁷⁾ 원문의 ‘감어서는’ ‘많아서’로 봄.

부통령(副統領)과 그 지위(地位)

한태연(韓泰淵)



1.

5.15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반대 되는 정당에서 당선하게 되자 부통령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새삼스레 모든 국민의 주의를 끌었다. 물론 부통령도 대통령과 같이 자유당 측에서 나왔다면 별문제일 것이지만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치적 지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것은 부통령이 정치적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운영에 큰 관계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당 정치를 원칙으로 하는 근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정당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이번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은 현상은 좀처럼 그 예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번과 같은 예는 우리나라의 정당제가 아직까지 완비되지 못하고, 또한 헌법을 비롯한 법률의 규정이 이러한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그 주장을 달리하는 반대의 정당에서 나온 것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까닭에, 우리는 다만 현실은 현실대로 시인하고 오직 이러한 사실이 금후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2.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통령의 지위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이미 각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하여 부통령의 자위가 어떠한 것이 밝혀진 바이지만 요컨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부통령의 지위는 대체로 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소속케 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무와, 또한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를 대리하며, 대통령이 궐위할 경우에 대통령이 되는 권한을 그 권한으로 한다.

모든 바이스(Vice)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부통령도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고 대통령이 궐위가 될 경우에는 그 자리를 계승하는 것을 그 제도의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헌법 제 52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라고 하는 규정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이며, 헌법 제 55조 제 3항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이다. 다만 부통령이 대통령을 계승하게 한 것은 제 2차 개헌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서, 그 전에는 부통령에게 대통령을 계승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여 둔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의 독자적 권한을 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그 첫째는 부통령의 참의원의장의 겸임이다. 헌법 제 36조 제 2항에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 둘째는 부통령이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이다. 헌법 제 47조 제 2항에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審計院長), 법관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탄핵재판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46조). 그 셋째는 부통령이 헌법위원회 의원의 위원이 되는 경우이다. 헌법 제 81조 제 3항에 '헌법 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헌법위원회란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여 그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소이다. 다만 이러한 헌법 재판은 미 국이나 일본에 있어서와 같이 연방재판소나 최고 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근대각국은 제1차 대전 이후의 오스트리아 헌법의 전례를 따라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와 같은 별개의 기관에게 담당케 하는 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3.

그러나 부통령에게 소속된 그 독자적인 권한도 정부라는 것을 표준하여 볼 때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협조적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신문지상에 발표된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부통령의 독자적 권한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립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나,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부통령의 지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부통령뿐만 아니라 무릇 어떠한 국가 기관도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기관은 없다.

그러나 권한의 독자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 기관이 다른 기관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은 서지 않는다.

군수에게는 군수의 권한이 따로 있고, 도지사에게는 도지사의 권한이 따로 있지만, 군수나 도지사는 각각 도지사나 내무부 장관 및 기타 관계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하 복종 관계를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 조직을 통하여 본 극단의 경우이긴 하지만, 부통령의 독자적 권한의 성격에 이해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통령의 독자적 권한은 어떠한 의미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협조하는 역할을 하는가.

첫째로 부통령의 참의원의장의 겸임권을 돌아보기로 하자. 우리 헌법에 있어서 부통령에게 참의원 의장을 겸임하게 한 것은 미국 헌법의 그것을 본받은 까닭이었다. 미국 헌법에 있어서는 그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인하여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고, 또한 정부의 각료가 국회에 출석할 권한도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억울하게 된 정부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를 꾸며 냈다.

즉 그 하나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며, 다른 하나는 부통령의 상원 의장의 겸임이다. 그것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함께 국회의 입법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부통령의 참의원 의장 겸임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함께 정부의 입장에서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부통령의 탄핵 재판소 재판장의 겸임이나, 헌법 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같은 것도 그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재판의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게 하자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온다면 결국 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측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이롭게 하자는 협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음을 엿볼 수가 있다.

4.

그러나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협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부통령의 지위도 이변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야당 측에서 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부통령은 그 독자적 권한의 가지를 통하여 오히려 정부를 견제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바 없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부통령제의 그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 극히 우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으나, 어쨌든 야당 측에서 당선된 부통령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독자적 권한으로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첫째로 부통령은 참의원 의장의 자리를 이용하여 입법부의 입장에서 정부의 시책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둘째로 부통령은 탄핵재판소 재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를 이용하여 정부와 여당 측에게 대하여 비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물론 부통령이 그 권한을 이러한 방향으로 행사한다면, 부통령제를 둔 헌법의 근본목적은 무시되는 동시에 또한 통일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성격이 파탄될 수 있는 비극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오게 된 오늘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국회의 신문을 통하여 그 예상이 논평된 바이지만, 요컨대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왔다는 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부통령 및 그가 소속된 야당의 지도자들과 협의하는 동시에 부통령도 또한 그가 소속된 정당의 입장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협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법대교수(法大教授))

실존주의문학(實存主義文學)과 사상(思想)

손우성(孫宇聲)

실존문학은 한 사상의 위에 세워진 것을 표방하는 문학이며 이 사상을 설명하려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두 사조의 교류를 먼저 보아야만 할 것이다. 헤브라이적 초월사상과 희랍적 합리사상은 인류 사색방식의 2대(大) 근간이 되어 그 교착(交錯)으로 잡다한 사상이 이루어진다. 전자(前者)는 직관에 의하며 후자는 추리에 의한 다. 동양적 사상은 직관에 기울어지고 추리의 박약함에서 모호하며 독단이 많음을 어찌할 수 없으며 역시 초월사상의 유(類)에 속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그 성질이 육체를 물질을 초월한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그 자체의 존재까지 초월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여기에 초월적 사상이 있다고 볼 것이다. 사람의 욕심이 한정이 없는 것은 바로 이 현상의 한 뚜렷한 예이다. 희랍정신은 인간의 지성에 만폭(滿幅)의 신임을 가지고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태도로 사색방식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을 가져서 정신과학 면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면에 있어서 현대의 문명을 이루는 기초를 닦아 놓았으나 인간 사고력의 궁극에는 항상 해명하지 못하는 장벽에 부딪혔으며 관념을 실제로 간주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궁극에 가서 부딪치는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인간의 지성은 참을 수 없는 비애와 절망의 운명에 놓여 있다. 제논이 말한바 유명한 아킬레우스의 화살은 쏘아도 날지 않는다. 합리주의적 사색은 동(動)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합리주의의 세상은 부동(不動)의 죽음의 세상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은 있다. 생명은 있다. 이 불가해의 난문(難問)을 풀기에는 합리적 추리를 초월하여야 한다. 이 합리성을 초월한 경지는 신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 통한다. 우리는 현대 문명이 순전히 합리적 사색으로 건설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색 생활이 질식을 면하여 숨을 쉬기 위해서는 합리성에서의 초월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단지 헤브라이적 사상뿐 아니라 태고(太古)적부터 모든 인종에게 여러 방식으로 행하여져 온 것이다.

실존사상의 원연(淵源)을 현대 실존 철학자들 보다 먼저 베르그송을 지나 파스칼, 아우구스티누스 등 에 찾아보는 것도 무리 아닌 일이며 그 보다도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 사색과 병행하여 실존적으로 사색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현대의 실존주의 문학 속에 나타나는 사상이 결과에 있어서 상식적인 건전한 자유 판단에 부합되는 것을 보고 되려 어이없는 감을 느끼게 된다. 실존주의는 결국 합리적 사색과 아울러 초월적 사고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통일된 사상체계를 세웠다고 하기보다도 각인각색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대체로 세 가지 계통을 세워 볼 수 있다. 하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로서 키르케고르⁸⁾, 야스퍼스를 거쳐서 가브리엘, 마르셀에 이르는 것이며 하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로서 후설⁹⁾의 현상학에서 발전하여 실존철학의 체계를 세운 하이데거의 철학을 계승한 사르트르의 사상이고 또 하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갈려져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실존주의를 부연(敷衍)하는 메를로퐁티 일파(一派)의 사상이다. 세상에 주로 선전되는 실존문학이

라 함은 사르트르, 카뮈, 씨도느 드 보보마르 등의 경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철학에서 문학에서 투신하여온 사르트르의 작가적 역량에 그의 선전술이 주효(奏效)하여 현대는 실존주의 시대라고 까지 불리게 되었으나 사실은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실존사상은 역사의 산물이다. 신앙심의 초월사상이 실존사상에 통한다고 하나 사실은 과거의 종교철학은 신앙의 독단위에 합리적 추리로 세워놓은 사색체계에 불과하며 인간은 합리성을 떠나서 사색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 결말이 불탄서혁명의 폭발로 터지게 되자 굴레를 벗어 자유분방하게 벗어나는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감성의 지각(知覺)하는 제한된 현상을 넘어서 무한과 절대의 경지를 갈망하게 되었으며 그 불가능을 욕구한 결과의 환멸에서 한 번 현상세계를 객관(客觀)하여 정신생활을 무시하는 비굴에 빠졌다가 다시금 인생을 무시하며 그 본성이 초월에 있는 심령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관념철학의 목표인 실재의 탐구로 직통하는 길을 찾아보았으며 또 그것을 찾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19세기 전부와 20세기 초두(初頭)에 이르는 문학사조의 골자였다.

이것이 낭만주의, 현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그 공통된 성격을 찾아보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무시하고 합리주의적 사색으로 초(超)합리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기도에 일관하여 있었다. 그것은 인간성을 순화(純化)하려다가 결과에 있어서 인간성을 이탈한 문학이었다. 인간이 다시 인간성을 동경하여 돌아서게 될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절망에서 출발하였다. 객관세계 속에 사는 인간을 합리적으로 고찰할 때에 인간성에 아무런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에 대하여 구토증이 났으며 인간을 하직(下直)하려는 자살에의 유혹에 이끌리었다. 자살은 자기를 살해함이다. 타인을 살해하는 죄악에 대비하여 볼 때에 자살이란 진실로 터무니없는 기도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맹렬한 반발이 일어난다. 인간은 객관적 고찰의 대상이 아니라 먼저 살아있는 생명의 주체이었다. 다시금 객관적 진리의 밖에 주관적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마도 유신론적 실존주의에 강조되며 거기서는 합리적 추리를 벗어던지고 직관에서 오는 오성(悟性)이 연맥(連脈) 없는 우발(偶發)의 사상으로 용출(湧出)하여 나오며 신의 계시는 중매(中媒)와 추리를 거치지 않고 인간 심령에 도달한다. 이 방면의 실존사상은 지성의 추리가 아니라 생명에서 직접 올라오는 맛의 말이다. 조리(條理)의 모순은 무시 또는 초월되며 그 연맥 없는 모순적 사상의 오득(悟得)속에 내재하는 합리성이 예감된다. 신의 승인은 인간성에 대한 체념에서 우주섭리의 귀의를 의미하나 실존사상에서는 신과 일체이며 그리고 분신인 인간성을 상상하고 싶다. 이렇게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가장 불완전하고 모순에 찬 인간성속에 신의 완벽이 배어있어 절대자와 분리될 수 없는 인간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논리적 조리를 무시할 뿐이지 사색방식은 생명을 가진 인간

8) Sören Kierkegaard

9) 원문의 후사말은 후설. Edmund Husserl

이 사는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리어 더 복잡하고 치밀한 추리를 사용함에서 그 사색형식은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종래의 관념철학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는 오제(奧底)에 실재가 있으며 이 실재로부터 모든 현상이 파생하여 나올 것임을 상상함에 반하여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선언한다. 현상(phenomena)이라는 어의(語義)는 '나타나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이니 먼저 사람의 감각(感官)이 지각하는 성능은 본시(本是) 불확실한 것이라는 불신을 선제하며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사물은 나타나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내면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있게 하는 실재와 그 본질이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 본질이 있어서 거기서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고찰이며 지금까지의 합리주의적 사색이 하여온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철학은 이 모든 현상의 본질과 실존을 구명(究明)하기에 실패하였다. 실존사상은 이 기도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현상의 밖에 실재는 없다. 인간이 지각(知覺)하여 의식한 현상의 총화(總和)가 실재라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실존사상은 인생을 먼저 긍정하고 나선 것이다. 인생의 의의와 가치를 구명하고 나서 이것을 肯定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합리주의적 사색의 결론이 인간성에 의미를 차지 못하고 인간에 구도를 느끼며 자살까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간에는 합리를 넘어서 상호 간의 호의와 연락 등 인간성이라는 보편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존하는 사실이다. 관념의 포학(暴虐)에 대한 반역(叛逆)이 실존주의의 주요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관념은 사고력이 사물을 파악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은 내용도 껍데기도 없는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구토」의 유명한 식물원의 장(章)에서 나무의 실존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나무를 나무라는 개념으로 깨닫는다. 그러나 실지의 나무는 개념의 나무와는 전연 무관계로 저기 원피와 내용이 차서 실존한다. 저기 있는 것이 진짜요. 사람이 나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나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이 감각(感官)으로 지각하고 직접 의식하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자기 책임으로 사색을 추진하는 것이 실존주의의 근본 태도라고 볼 것이다. 사람은 사색하는 동물이다. 사색이 관념을 지어서 지식이라는 형태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상전(相傳)되며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서 사람을 지배한다. 사람이 만든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관념이 그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지배한다. 종교, 신앙, 전통, 등등의 형식으로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굴레를 만들기에만 바빴다. 실존사상은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출발하는 것이다.

“신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 짓을 해도 좋다.”고 도스토옙스키는 말하였다. 이 심각한 고백은 인간이 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주의 섭리가 있어서 인간성은 그 섭리와 일체(一體)임을 깨닫는 말이다. 신앙심, 진리 탐구의 갈망, 의리, 도덕, 등 이성이 설명치 못하는 초합리의 이치가 있음을 몸에 느끼는 말이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여기서 순진하게 신의 존재를 체득(體得)한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는 그 반대로 먼저 반발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도 못하고 시인도 않는다. 있어도 없어도 무방한 존재이면 구태여 그 존재를 세워서 그 지배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 존재의 시인은 과거에 있어서 백해무익(百害無益)하였다고 본다. 신이 없다고 보니 인간은 고독하였다. 모든 비호에서 유기당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유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에 튀어나오자 자유의 선고를 받은 것이다. 자유는 그에게는 권리가 아니요 자기에 관한 전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중하(重荷)이다.

여기서 사르트르 일파의 실존주의가 철학적 현실주의로 불리는 그 태도를 알아 볼 수 있다.

사물의 존재하는 이치의 근원을 캐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현실을 시인하며 자기가 조리(條理)를 찾아서 자기가 처할 자리를 닦아가는 것이다. 그는 의타적인 의뢰성을 거부하며 신의 섭리를 인간의 책임으로 개아(個我)가 세워가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인간성에 대한 실험적(先驗的)인 신임이 있음을 실존주의자는 자백하지 않으나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을 믿으나 과거의 인간을 믿지 아니하고 미래에 사는 현재의 인간을 믿는다.

합리사상은 지성(知性)의 소산(所産)이다. 이 합리사상이 해명치 못하는 지성의 한계너머를 포용(抱擁)하려는 유신론적 실존사상이 이 지성의 한계 내에서 발견되는 많은 기호(상징(象徴))속에 지성의 증명하지 못하는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느낌은 감성의 영역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정열 즉 감성의 힘을 믿지 않는 점에서 역시 지성의 힘을 신임하는 것이고 다만 합리주의가 불가능을 참구하며 관념을 실재시키는 우(愚)를 버리고 현실에 입각하여 인생을 설명하여 나가며 그 방법은 합리주의적 추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근원을 찾지 않고 기호(상징)의 지배를 거부하고 실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세사(勢事)를 설명하며 인간성의 질서를 찾는다.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세상에 튀어나왔다. 기호(상징 즉 신) 구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발명하여 간다. 과거의 굴레에 얽매어 살아갈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다. 실존주의는 미래에 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얽매어 살아가기를 거부한다.

절대적 현재라는 선(線)은 무(無)에 동일(同一)하니 인간은 순간순간 자기를 지어나가는 처녀의 미래에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유기당한 천애(天涯)의 고아다. 누가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택하여 나간다. 선택은 즉 자유의 권리다.

선택은 다른 것을 두고 하나를 택한다는 말이다. 그 하나에 다른 것보다 더 가치를 발견하였다고 볼 것이나 실존주의는 가치를 의심한다.

가치에는 추상적 규범이 없고 주관적 감정이 많이 혼입되며 한 번 가치 있다고 생각된 일은 그 때문에 행할 생각이 나고 그렇다고 행하여 놓았으니 거기 가치를 주는 식으로 가치 감정에는 악순환이 있다. 가치는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여 놓은 일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선행의 가치 관념을 거부하는 실존사상에서는 행동의 시발(始發)이 감정에 있을 우려도 없지 않으나 여기는 항상 다음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제약을 주는 것

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결정론적 사상은 실존주의의 대기(大忌)하는 바이며 행동의 결정에는 우발적인 선택의 자유를 용인한다. 사람은 자유로 선택한다. 선택한 바에 대해서는 책이 온다. 아무도 나를 지도하여 줄 자는 없다. 사람은 불안에 놓인다. 사람에게에는 절대적 보장이 없다. 무슨 목표를 정해놓는다고 그것이 성취되리라고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가치는 현재의 행동에 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말하는 절망이다. 좌익적 자유주의를 갖는 경향에서는 마르크시즘에 근접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아주 성질이 달라진다. 마르크시스트는 인간성의 목표를 정하여 놓고 타인의 행동에 기대하며 내 행동을 결정한다. 그 결과는 타인이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위에 보편인간성을 세워서 개인을 그것에 율(律)한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유형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호의에 기대하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행한다.

그렇다고 실존주의는 일이 되어 갈대로 되겠지 하는 식의 방치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며 비실존인 까닭이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리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나는 내 책임으로 내 일을 한다.

실존주의는 행동 이외에 현실을 보지 않으며 인간은 자기 기도(企圖)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인간에게는 완수(完遂)는 있을 수 없다. 완수는 고정(固定)이며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부단(不斷)의 기도(企圖)(전투(前投))가 인간이다. 사람을 그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말할 것이 아니다. 실행하여 놓은 것이 그 인간의 전부이며 할 수 있고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책임을 인간에 두지 않고 하여놓은 행위에 둔다. 비굴한 자는 그가 비굴한 행위를 하였으니 비굴자이지 그 인간자신을 비굴한(卑屈漢)으로 보지 않는다. 실행주의는 인간자체에 영웅, 비굴한 선인(善人),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이것을 결정한다. 행동이 없으면 그 인간은 실존하지 않는다. 실존주의는 주관철학이다. 인간이 없으면 세상이고 없다. 진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타인이 있음을 의식하여 다시 나를 의식한 것이다.

내가 실존하는 것과 똑 같이 타인은 실존하며 내가 자유로움과 마찬가지로 타인은 자유다. 여기서 나의 주관은 타인의 주관에 연결되며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나와 타인, 세상에의 연대(連帶)가 생긴다.

인간 조건이라는 말이 묘사 많이 사용된다. 우리는 인간 각자에서 인간의 본성이 될 한 보편적인 본질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건의 인간적인 보편성은 실존한다. 조건이라는 말에도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조건을 들어서 보면 인간은 시대에 따라 지역, 종족에 따라서 종교, 제도, 전통, 인습(因襲) 등 다른 조건의 환경이 발견되나 그런 것은 가변(可變)의 조건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세상 속에 있어서 거기서 노동하고 타인들의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죽어가야 하는 필연성이다. 사람은 자유로이 그의 실존 속에서 여러 한계들에 관련하여 자기들 결정하여야 한다.

이 여러 한계를 물리치거나 넘어가거나 부정하거나 적응하기 위하여 사람은 기도

(전투(前投))한다. 그것은 타인에 관련되어 세상 속에 사는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 일은 사람에게 이해된다. 이 의미에서 사람의 모든 기도(전투)는 보편성을 가진다. 나는 나를 택함으로써 보편성을 구성한다.

나는 모든 다른 사람의 전투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구성한다. 개인의 선택은 절대이다. 그러나 이 절대는 각 시대의 상대성을 말소(抹消)하지 않는다. 실존주의가 의도하는 바는 자유 계련(系聯)의 절대적 성격과의 연락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 자유 계련으로 각인(各人)은 한 인간성의 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한다. 자유로이 있다는 것, 전투로서 있다는 것, 자기 본질을 택하는 실존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서 있다는 것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

선택은 주관이며 동시에 객관을 내포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 내 멋대로 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선택이 가능한 것, 또 불가능한 것이 있다. 내가 택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한 선택이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광상(狂想)과 변덕스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지드의 무상 행위(無償行爲)와 실존주의의 선택행위가 동일하지 않음은 뒷말로써 충분히 알 수 있다. 인간은 조직된 상황 속에 있으며 그 곳에 그는 자신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는 선택으로 자기를 전 인류에 관련시킨다. 실존주의는 그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선악 관념과 도덕에 연락되나 기성의 전통의 선(善), 도덕을 우선 거부하며 자기의 선, 도덕을 택한다. 무(無)비판으로 전통을 받아들임은 악을 선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은 성실을 결한 행동이다. 실존주의자는 불성실을 택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 성실한 까닭이다.

이상 주로 사르트르의 사상을 초출(抄出)하여본 바이나 그 특색은 먼저 자기 인생관을 파악하여 놓고 이 사상을 문학에 적용하는 태도이다. 전대(前代)의 작가들이 인간성을 초월하려던 망상을 솔직하게 저버리고 실존주의자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파악하는 자유인간으로서 최대한도로 개성을 살리는 중에 보편 인간성에의 합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것은 실존주의에는 기대란 없다. 자기가(옳다고 정한 바를) 택하여 행하여갈 뿐이다. 생명은 즉 행동이라고 보는데 실존문학은 행동문학에 속한다. 그리고 철두철미 인간성이 문제되는 점에서 실존주의는 현대의 보편적 사조인 휴머니즘에 속하며 궤변에 가까운 논법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진보적 행동사상(사르트르)과 온건한 자유주의(카뮈)의 상식적 판단권(判斷圈) 내에 속하며 하나 주목할 일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초월적 초합리(超合理) 이상(理想)이 넘쳐흐르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관념철학의 태도는 버렸으나 현실에 입각한 합리주의적 인생 해석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필자(筆者) 성균관대학교수(成均館大學教授))

★ 버어제스와 맥클린을 탈주(脫走)시킨 사나이는 누구?

영국간첩사건(英國間諜事件)에 드러난 제3의 사나이

☆☆☆

과연 헤롤드 필비는 두 영국인 스파이로 하여금 소련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내통을 하였는가?

이 문제는 영국의회에서 논란되어 왔으며 이 불가사의한 인물에 관하여 더욱 많은 내용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

필비는 영국 첩보원이었다. 그의 임무는 버어제스와 맥클린과 같은 스파이를 감시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버어제스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가이 버어제스〉—누구의 내통으로 그는 탈출하게 되었는가?

☆☆☆

두 영국 외교관 도날드 맥클린 및 가이 버어제스의 괴이한 간첩사건을 둘러싼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현재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다.

1951년 5월 25일, 영국 수사대에 앞서 소련의 비밀공작대가 맥클린과 버어제스를 철의 장막 안으로 데려간 이후 한 중대한 의문이 영국 국회의원들을 흥분케 하였다. 어떻게 맥클린과 버어제스는 언제 도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내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현재 영국 국회의원들은 전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그들은, 영국의 가장 신임하는 첩보권의 하나였던 헤롤드 필비가 두 스파이를 도망치게 해준 제3의 사나이가 아니었던가를 질문하고 있다.

필비와 절친한 친구였던 버어제스는 최초의 경보에 접하고 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의 공산측 접촉인물에게 알림으로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두 영국 외교관이 사실상 영국에서 도망친 것은 1951년 5월 25일, 금요일 밤이었다. 버어제스는 미리 내통을 받고 소련 스파이와 연락하여 며칠 동안 바쁘게 도망할 준비를 하였다. 탈출에 앞서 수요일에 그는 영국 사우드햄프턴과 프랑스, 세인트 말로 간을 운항하는 기선의 표 두 장을 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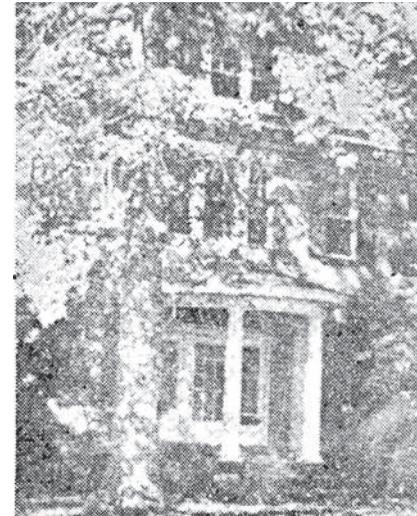
그 표를 살 때 버어제스는 그와 함께 여행할 동행의 이름을 밀러 씨라고 기입하였는데 그 동행은 맥클린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날 금요일에 버어제스는 오후의 한 때를 자동차를 빌려 타는데 보냈다. 장거리전화에서 그는 맥클린을 만나는 것과 그 둘이 프랑스에 도착한 후에 소련스파이들과 접촉하는데 대한 최후지시를 받았다. 수수께끼에 싸인 내통으로 수수께끼의 탈출이 이제 막 시작되려하고 있었다.

소련스파이들은 만일 수사망이 버어제스에 뻗혀 있다면 맥클린도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영국 외무성 미국 관계과장으로 있던 맥클린은 버어제스보다 더욱 중요하고 유능한 인물로 공산 측에서는 보고 있었다. 확고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그 두 사람이 체포된다면 소련 스파이망의 많은 내용을 폭로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시를 받은 후 버어제스는 교외에 있는 맥클린의 집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그는 로날드 스타일스라는 가명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정원을 거닐면서 맥클린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다. 맥클린은 집으로 돌아가 그의 처에게, 갑자기 불일이 생겨서 떠나야 하겠다고 말하고 서류가방을 들고 버어제스와 함께 자동차로 떠났다.



〈네브라스카가 4100번지에 있는 집—이 집에서 그 젊은 외교관은 '제3의 사나이'와 함께 살았다〉

이 두 사람은 기선(汽船)이 세인트 말로에 들어온 조공 후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은 모스크바로 가서 소련의 선전술책과 정책에 관한 효과적인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해롤드 필비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전 육군장교이며 영국의회 노동당 의원 법률가 다커스 립튼 중령은 필비가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립튼 중령은 노동, 보수 양 행정부에 대하여 버어제스와 맥클린의 도피사건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누차 요구해왔던 것이다.

최근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립튼 중령은 동 사건의 공식기록에 처음으로 필비의 이름을 가져오고 앤토니 이든 수상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심스러운 해롤드 필비의 제3자로서의 활동을 덮어줄 작정이냐”고 물었다.

이든 수상은 이 질문에 대하여, 외교관 간첩사건에 연유하는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한 의회의 토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참석하겠다고만 약속하였을 뿐이다.

영국정부에 있어서의 필비의 비밀임무는 오늘날 비로소 밝혀지고 있다.

맥클린과 버어제스가 돌연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때, 해롤드 필비의 정식 직책은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 제1서기관이었다. 그러나 가이 버어제스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에게 그는 킴이라는 사교적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킴 필비의 진정한 임무는 영국 첩보활동의 가장 비밀에 속하는 기관인 MI-6의 워싱턴 지부 총책임자였다. 그는 영국대사관의 방첩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 임무의 큰 부분은, 영국인과 외국 스파이, —즉 영국의 세 원자 과학자와 접촉한 공산 스파이들과 같은—와의 접촉을 감시하는 일이었다.

해롤드 필비는 1949년에 워싱턴으로 부임하여 10월 10일에 취임하였다. 당시 버어제스나 맥클린은 워싱턴에 있지 않았다. 맥클린은 1948년에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카이로 주재 영국대사관의 고문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버어제스는 필비가 부임한 10개월 후에 도착하였다.

맥클린과 버어제스는 필비가 반드시 탐색하여야만 할 종류의 인물이었다. 그 두 사람은 캄브릿지 대학 재학 중에 이미 공산스파이로서 각각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해 동안에 걸쳐 그들은 제각기,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구 및 극동의 연합국에 관계되는 비밀문서를 훔쳐냈다. 그들은 그러한 문서를 밤에 꺼내다가 소련 스파이들에게 주어 밤새 사진을 찍게 한 다음 그 이튿날에 서류함에 도로 넣어놓곤 한 것 같다.

맥클린은 워싱턴을 떠났으나 곧 필비는 가이 버어제스와 가까이 하게 되었다.

버어제스는 1950년 8월에 워싱턴으로 부임하여 대사관 2등 서기관의 직책에



〈해롤드 필비 제3의 사나이? 1937년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그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있었다〉

있었다. 필비의 가족은 영국 대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네브라스카가 4100번지에 있는 큰 3층 건물의 셋집에 살고 있었다. 버어제스는 그 집에 방 하나를 빌려 들고 있었다. 영국의 첩보원과 괴상한 젊은 외교관 사이에는 우정이 싹텄다.

그러나 버어제스는 워싱턴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몇 차례나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취재를 받고 미국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그의 업무는 대사관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1951년 4월에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5월 4일에 런던에 도착하였다. 그 3주일 후에 그와 맥클린은 철

의 장막 안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 전에 버어제스는 자기의 과거가 조사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던 것이다.

버어제스와 맥클린의 탈출은 그들이 자취를 감춘 후 13일 동안이나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필비는 귀국명령을 받고 1951년 6월 11일 워싱턴을 출발하였다.

해롤드 필비는 영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사직하였다. 영국정부 소식통에서는, 그의 사직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직 대신에 은퇴를 원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은퇴가 허용되지 않은데 대한 보수로서 5,000파운드—14,000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필비는 몇해 동안 영국의 첩보원으로 활약하였다. 언제부터 그가 영국의 첩보원이 되었는가는 자세치 않다. 20세때 그는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승리한 내란 중에 런던의 타임스지 특파원으로서 스페인에서 활약하고 제2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는 영국원정군에 종군하였다.

전쟁이 시작된 조금 후에 필비는 충분히 자격 있는 첩보원이 되었다. 런던의 일부 소식통에서는 그가 특파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미 첩보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쟁 중의 그의 공적으로 그는 영제국훈장을 받았다.

그 후에는 더욱 큰 임무를 띄우게 되었다. 1946년에 필비는 첩보원으로서의 그의 활동을 감추기 위하여 외교관의 관직을 받고 안카라 주재 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 대리로서 터키에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다루기 힘든 일을 맡았다. 안카라는 소련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스파이들이 들끓고 있었다. 당시 터키와 그 밖의 서방세계 각국에서는 소련이 접경하는 터키영토를 요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카라에 이어서 필비는 워싱턴으로 파견되었다. 미국 수도에서 그는 가이 버어제스의 친구가 되었다. 버어제스는 소련 스파이였으며 어디서인지 내통을 받고 도널드 맥클린과 함께 소련으로 도망하였던 것이다.

현재 영국의회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해롤드 필비가 혹시 친구를 단순히 파면에서 구하는 줄로만 생각하고 버어제스에게 내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다.

(US, 뉴스 & 월드 리포트지에서) (끝)

칸 영화제(映畫祭) 최우수작(最優秀作) 「모차르트」

칸 영화제에 참석한 관중들은 당지전문가들에 의하여 금년에 공개된 음악영화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된 오스트리아의 천연색 영화 「모차르트」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동 영화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명작 「진혼곡」을 열광적으로 작곡하던 모차르트 생애의 마지막 1년을 묘사하고 있다. 모차르트 역에는 오스카 베르네르¹⁰⁾이며 모차르트와 사랑을 속삭이던 원의 가수 안니 곱트리브¹¹⁾ 역에는 요한나 맛츠¹²⁾가 출연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적인 연기를 보여 주었다.

동 영화의 각본 및 제작자는 칼 할틀¹³⁾ 씨로 그는 또한 다른 모차르트의 전기(傳記)영화인 「신의 사랑을 받은 자」도 제작하였다.

10) Oskar Werner

11) Annie Gottlieb

12) Johanna Matz

13) Karl Hartl

다시 제트조종사(操縱士)에게

서울방송국 아나운서 강영숙(姜暎淑)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되는군요! 이젠 해가 바뀌고 만물이 잠을 깨고 두 활개를 마음껏 펴고, 이 봄의 대기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새 계절이 되었지요. 그간(其間) 용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서신 한 장 없애지 않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할 것을 원래 편지사연에 소질이 없는 저이므로 지금까지 망설였답니다. 지금도 벌써 초안을 몇 번 잡았는지 솔직히 고백하오리다.

용사 여러분!

봄의 미풍을 타고 저 푸른 창공을 나는 기분! 얼마나 상쾌하십니까. 지상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이렇게 좋을 때……! 저는 지금까지 비행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 기분은 다 알고 있지요. 작년에 그리고 지금 비행사 여러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까닭에……!

헌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인지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온 제트기 여자 조종사를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해서 모집합니다. 이것만 듣는다면야 단연 응시하련만……

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대략하시겠지요 언제쯤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爲先) 기계과를 전공해야 되겠지요! 그 수많은 스위치, 또 계기(計器)! 이것은 알아야 되겠지요. 지도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러나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어린 꿈! 이것은 꿈에 지나지 않겠지요. 이렇게 용사 여러분에 글월을 올리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허나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저 푸르고 높고 무한한 창공에 웅장한 폭음이 들리고 은빛 찬연한 제트기가 날고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자량 공군 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동요를 아시던가요!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지

저 하늘 보이는

저 하늘 보이는

흰 구름까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심정이 쌓이고 쌓였겠지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그 노래 소리, 저는 아득히 바라보이는 저 흰 구름 속을 날아갑니다.

흰 구름 속을 지나면 비행기의 창이 비에 젖은 듯이 물방울이 흘러내린다고요! 참 신기하군요! 여러분은 그까짓 것 뭐 신기해하시지는 않겠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합격만 된다면 신기한 것은 한 번 뿐이지만! 합격이 언제나 될는지 이것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럼 용사 여러분 다시 봐올 때까지 몸조심하시고 건투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창공(蒼空) 스무고개 행각기(行脚記)

폭음(爆音) 속에서 노래가 흐르고
안하(眼下)는 한 폭(幅)의 아름다운 지도(地圖)

천정희(千貞姬)



3월 29일 서울방송국의 요청으로 스무고개의 대구(大邱) 기지 원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다소 불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멀리—
대구나 비행기로—
아니 이 보다 여자의 몸이라 더욱 그러했었는지도 모릅니

다만…….

일행 중의 어떤 분은 제발 비가 오지 말았으면 하고 마치 어린 시절의 동심처럼 마음을 졸이며 크게 기대한 분도 있었지만…….

방송국에서 공군버스로 여의도비행장에 나갈 때까지도 별로 커다란 흥취도 기대도 갖지 못한 채 그저 무심히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여의도공항에 도착한지 근 2시간 정오가 되어도 기다리는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아 지루하고 초조하였습니다.

그러자 11시 반에 비행기가 대구기지를 이륙하였으니 이곳에는 12시 반에 도착 하리라는 소식과 대구 지방의 기상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기 비행기가 온다 하기에 하늘을 바라보니 은빛 비행기는 동쪽에서 활주로를 향해 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행기를 가까이 본 것은 처음이며 또 제가 이것을 탄다는 것을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즐거워지며 몸시도 좋았으나 반면 공포심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체(胴體)에는 태극(太極)의 표식도 선명하고 기수(機首)에는 ROK Air Force 라는 글씨가 뚜렷한 이 비행기를 보니 왜 그런지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적어도 미국 표식을 그린 비행기를 볼 때와는 다른 감회였습니다. 이런 비행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조종사가 조종한다는 것이 무척 기뻐합니다. 외국에 가봐야 진정 조국이 고맙고 그리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의 상기(想起)되었습니다.

언제 집지(接地)한 줄도 모르게 깨끗이 착륙한 비행기는 고래 같은 거체(巨體)를

이끌고 우리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오늘 특별기의 조종사가 윤자중(尹子重) 소령이라는 소개를 받고 보니 싱글벙글 미소에 가득한 미남자였습니다. 또 자신이 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공군에 있는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음장치가 없기 때문에 폭음이 요란하고 또 기분이 이상할 것이다.” 비행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호명에 따라 새 번째로 제가 냉큼 올라타고 과연 기분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일행과 함께 낙하산을 짊어졌습니다.

낙하산이라곤 생전 말만 들었을 뿐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접혀있으며 또 어떻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이 그저 승무원이 일일이 친절하게 일러주고 매 주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이란 펍 가벼운 줄 알고 있는데 짊어지고 보니 생각과는 달리 몹시도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생후 최초의 처녀비행이고 보니 저의 마음은 몹시도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야전용 침대 같은 좌석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조종사의 주의사항을 들으며 또 불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하여 꼭 지켜 주셔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의사항은 사고 시의 비상탈출법부터 낙하산 강하법, 이착륙 시의 금연, 용변 문제, 구토 시의 봉투 사용, 그리고 기타 기분이 불편할 때는 서슴지 말고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편리를 도모해 주겠다는 데에 이르기까지 아주 친절한 주의 말이 있습니다.

하오(下午) 1시 37분 비행기는 시동하여 프로펠러가 점점 고속도로 돌기 시작하더니 2시 정각에 드디어 이륙하였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상승할 때의 으쓱하는 기분보다 약간 강한 기분이 들자마자 비행기는 지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아니 고도가 높아지며 비행기는 유유히 기지상공을 반(半) 선회한 다음 기수를 일로(一路) 동쪽으로 잡고 웅장한 폭음과 함께 점점 고도를 취하였습니다.

고운 구름 흰 구름이 기체에 달듯 말듯 자꾸만 뒤로 뒤로 또 다른 구름이 스쳐가는가 하면 보안 안개 속을 헤치는 듯 마치 선녀가 구름타고 승천하는 옛날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달콤한 공상(空想)에 젖었다가도 갑자기 오는 에어포켓에 공상은 깨어지고 속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얼마동안 비행하는 동안에 약간 자신이 생기기에 저는 짊어졌던 낙하산을 풀어놓고 조종실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승무원이 리시버를 주기에 귀에

걸고 있으니 멀미가 덜어졌습니다. 신경질이 날 정도로 복잡한 기계장치, 무수한 스위치, 계기(計器) 등에 놀랐습니다.

고도 7천 피트에 180마일의 속도로 비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증기 같은 흰 구름이 좌우로 자꾸만 흘러져 갑니다.

과학의 발달은 발달에서 구름이 떠도는 것을 저에게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운 문명의 혜택이겠습니까?

그러나 멀미증과 공포심에 미리 겁을 먹은 저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오래 감상할 수 없었으며 또 그것이 저를 몹시도 안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이 되자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며 다시 낙하산을 짊어지라는 말에 급시(今時)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죽거나 된 것 같은 불안에 기분이 아주 아팠습니다.

정확하게 한시간만에 목적지인 동촌(東村)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의도기지와는 달리 구멍이 뚫린 철판이 깔려있으며 이름 모르는 날씬한 비행기가 즐비하게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정렬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것이 사변 중 혁혁한 전공을 세운 무스탕전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일행이 타고 온 것과 같은 비행기가 많이 열을 지어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작전처장 윤응렬(尹應烈) 대령님, 그리고 정훈관 서상순(徐商純) 소령이 우리들을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식당에 안내되어 부단장 신유협(申悠俠) 대령님을 비롯하여 다른 분들과 인사를 교환한 다음 조종사 윤자중 소령님을 모시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었고 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그리고 조종사에 대해서 아니 공군에 대해서…….

조종사를 가까이 대하고 친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꼈으며 또 그 기쁨을 그 날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에 오는 피곤을 풀 사이도 없이 준비된 기지극장에서 부단장님과 작전처장님을 박사(博士)로 모시고 스무고개를 끝 마쳤을 때는 피로가 극도에 달했으며 귀로(歸路)를 생각하니 아득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느긋느긋한 기분을 이겨내나 하는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하룻밤 여장(旅裝)을 대구에서 풀고 그 다음날 아침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윤(尹) 소령님이 아니라 저와 동행했던 이경희(李京姬) 박사의 학교 선배언니의 부군(夫君)인 김중보(金重寶) 소령이 조종하게 되었습니다. 펍 젠틀한 분이었습니다.

어수선하게 기상(機上)에 올라 중간좌석에 앉고 보니 어제와는 달리 자신이 생겼습니다.

낙하산을 풀어놓고 뒷좌석 창 앞에 앉아서 그야말로 지상(地上) 최대의 경치를 마음껏 내려다보며 공상에 젖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태산(泰山)도 집도 무엇이든 어린애의 소꿉장난감 같이 작게 보이는 지상을 열심히 내려다보며 문득 지난날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어린 아동들에게 배워주던 「우리 공군아저씨」의 노래가 폭음 속에서 시름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대한의 아저씨는 공군아저씨 우리의 희망의 꽃 대한의 공군 우리의 희망의 꽃 대한의 공군

저는 언제나 이 노래만 부르면 어릴 때의 동심으로 환원(還元)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안 나는 지상의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군데군데 성냥갑을 늘어놓은 것 같은 마을과 도시, 깨끗이 소제된 높고 낮은 산과 산, 여기 저기 전란으로 인하여 탄흔(彈痕)이 군데군데 좀먹은 듯이 산봉우리에 남아있어 흰빛이 핏빛으로 변해 보였습니다.

꼬불꼬불 실배암처럼 그려진 도로는 가고 또 가고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있어 마치 아름다운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하(眼下)는 그야말로 한 폭의 회화였습니다. 대전(大田)상공을 통과할 때는 그 저 감개무량하였습니다. 대전은 저의 마음의 고향, 제2의 고향이기 때문……

올 때는 기상이 좋아 에어포켓도 없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상쾌한 기분에 잠겨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공군 용사 여러분, 부디 자중 자애 하셔서 큰 공 세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필자(筆者) 스무고개 명예박사(名譽博士))

아나운서의 처녀비행

김인숙(金仁淑)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는 것은 나의 오래전부터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꿈은 라이트형제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나는 새를 보고, 자기들도 창공을 훨훨 날고 싶다는 소원보다도 더 강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비행기의 발전이

란 정말 눈부신 바 있어 어제 만들어진 비행기가 오늘에는 이미 낡은 것으로 취급되고 오늘 최신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내일이면 또 낡은 비행기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 □□ 그 낡은 틀에 속하는 비행기나마 한번 타보지 못했다는 나 자신의 열등감이 나의 가슴을 마구 조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러한 꿈은 6·25전란을 통해서 비행기가 갖는 위력을 직접 보고 또한 매년 '공군의 날'하늘에서 연출되는 비행기의 각가지 재롱을 볼 때마다 더욱 커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애타게 그려오던 나의 꿈이 실현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3월 29일 서울방송국의 스무고개와 노래자랑 공개 녹음방송반이 공군 제5비행단의 초청을 받은 까닭에서입니다.

☆ 날아가버린 불안

앞서 말한 것이나 또 지금부터 내가 말하려는 말들이 줄곧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살다시피 하는 공군 용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릇이겠습니까? 고작 프로펠러식 수송기를 한번 타 보고 웬 말이 그렇게 많으나? 고고소를 금지 못하는 용사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비행단까지 비행하기로 된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 잡혔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발 일을 하루 앞둔 28일에는 아침부터 봄비가 흡사 장맛비처럼 줄기차게 퍼부어 나를 좌불안석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때같이 비가 알뜰게 생각되던 때도 없을 상 싶으리만큼 빗소리는 나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다음날은 '흐렸다 개었다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창밖에 빗소리가 요란하고 보니 막상 일기예보 같은 것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심술궂은 봄비를 타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나의 머리에는 어린이시절 운동화나 원족날 비가 내리지 않기를 남몰래 빌던 때의 일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번쩍 눈을 떠보니 창 밖에는 아침햇살이 눈부실 지경입니다. "만세!" 소리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위험하다"고 사뭇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 말씀도 귀담아 들리지 않았고 나는 아침밥도 드는 등 마는 등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나의 모양은 누가 보든지 꼭 원족 가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어린이로밖에는 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 9시 정각 우리 서울방송국에는 방송반 일행 22명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늦장부리기로 유명하던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지각생은 없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어서 비행기의 매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의 심정과 똑같은

동조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안과 초조함도 컸습니다. 목적지상공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 기류가 좋지 않다는 점으로 우리를 신고 갈 비행기가 아직도 대구에서 날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행장에서 기다리기 무려 2시간 12시가 좀 지나서야 쌍발수송기가 날개를 흔들며 우리눈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만을 보아온 나로서는 땅에 내려앉은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크게만 보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C-46이라는 것도 안내장교의 설명으로 들었고 우리가 타고 갈 이 비행기의 조종사는 비 오는 날이나. 밤에 계량기만으로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그리카드의 소지자인 윤자중(尹子重)소령임이라는 말을 듣고 일기에 대한 불안감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일행 22명중 불과 대어섯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 처음 타보는 비행기인지라 대부분의 사람이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 대자연의 신비

지상에서는 그렇게도 잘 떠들고 잘 웃던 씨도 비행기에 올라와서 낙하산을 메고 사용법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얼굴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뚱뚱하기로 이름난 C 씨 L 씨 두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뚱뚱한 몸에 낙하산을 메고 있는 광경도 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발동이 걸리고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귀를 때리는 가운데 한시정각 비행기는 활주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10초를 달렸을까? 몸이 붕 뜨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때 앞에 앉아있던 K 씨가 손으로 '떴다'는 시늉을 해보입니다. 열린 밑을 내려다보니 땅위의 집들이 자꾸 멀리보이기 시작합니다. 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벨트가 매고 있었으나 벨트가 소용없을 정도로 경쾌한 이륙을 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고도를 높이면서 서울시 주변을 반 바퀴 선회했습니다. 지상에서 볼 때는 대궐 같은 집들도 하늘에서 굽어보니 별수 없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시가지를 내려다보니 저런 곳에 살았구나 하는 환멸을 느낄 정도입니다.

비행기가 경부본선을 따라 남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눈 밑으로 철도가 두 줄기 나란히 선을 긋고 있으며 그 위로 장난감 같은 기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기어가고 있습니다. 일행은 모두 창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마구 흔들려서 구토증이 나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비행기는 기차보다도 더 동요하지 않고 뺏속도 별로 거북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H씨 혼자만이 얼굴이 셋노랑게 좌석에 비스듬히 누워있을 뿐 일행

은 모두 상상했습니다. 애당초 품었던 불안감이 깨끗이 없어지고 옆의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긴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잘 알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럭저럭 30분을 비행했을까? 대전 상공을 지나면서부터 이름 높은 추풍령(秋風嶺)에 접어든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밑으로의 시야는 두터운 구름장으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꼭 들판에 숨눈이 덮인 것과 같은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란 땅위에서 쉽사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밑에서는 지금쯤 비가 온다고 비설거지에 요란스러울 테지만 구름위의 세계는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반사되어 신선경을 방불케 합니다. 말로만 들어오고 써오던 '대자연의 신비'란 이런데 쓰는 말인가 싶습니다.

안내장교 윤 준위님의 안내로 조종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기비행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두 사람 모두 군입 하나 열지 않고 묵묵히 지도와 백종에 달하는 듯한 수많은 계량기만을 들여다보고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앉아있는 앞은 물론 천장 뒤 할 것 없이 모두 스위치 투성이고 메타 투성이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은 그 기계의 가짓수도 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적지 상공에 이르렀으니 벨트를 매라는 신호가 있습니다만 구름 속에서는 어디가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자 일행의 얼굴이 일제히 긴장하고 낙하산을 매는 사람 사용법을 확인하는 사람으로 비행기 속은 다시 불안감이 넘쳐흐렸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었습니다만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잘못 알고 비행기 사고로만 여겨 낙하산을 거꾸로 미는 등 이때의 일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의 화제에 오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의 일이 웃음을 참기에 얼마나 애먹었겠는지 얼굴이 붉어질 지경입니다.

☆ 용사의 요람지

얇은 구름을 헤치고 비행장에 내리니 금시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해서 조종사 식당에서 공중 근무자만이 먹는다는 특별점심을 먹었습니다. 불과 한 시간의 비행에 피로와 공복을 느낀 우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밥 한상을 거뜬히 먹어 치웠는데 이러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공군용사는 그 얼마나 피로를 느끼고 공복을 느낄 것인지?

공군용사들의 수고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다음날 아침 부단장 신유량(申攸良)대령님과 작전처장 윤응렬(尹應烈)대령님의 안내로 비행장 시설을 보고 특히 무스탕전투기의 활약상을 이야기 듣고 나서는 공군용사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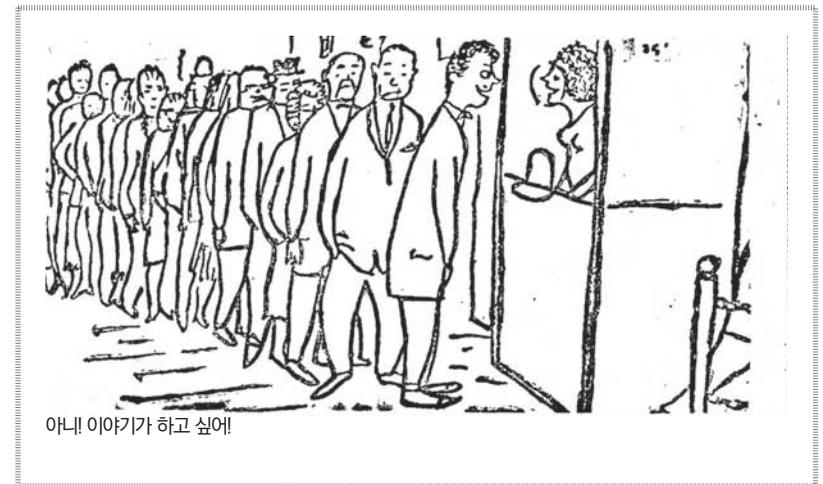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깨닫는 듯했으며 지상에서 비행기를 정비하는 정비사의 노고에는 적지 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마련해 가지고간 프로그가 그들 용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지 생각할 만큼 그들의 수고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적의 침공으로부터 막아주는 용사들— 그러면서도 별반 군소리 없고 겹혀 속에서 묵묵히 일을 다하고 있는 공군용사들의 인상은 이번에 나의 뇌리에 또렷또렷하게 아로새겨졌습니다.

—노블하고 젠틀하게—

서울에서 XX기까지의 왕복비행 2시간—비록 짧은 비행이었으나 이것은 영원히 나의 추억의 앨범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서울방송국 아나운서)



아니 이야기가 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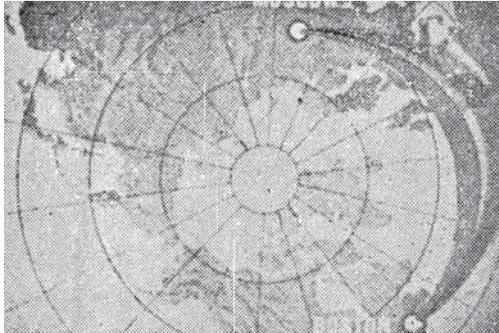
특집(特集)

미소(美蘇) 공군(空軍)과 군사기지(軍事基地)

얼음과 적막(寂寞)에 싸인

북극권(北極圈)의 미소(美蘇) 군사기지(軍事基地)

외지(外誌)에서



제2차 대전 종결을 계기로 하여 안개와 얼음에 싸인 북극권은 미소(美蘇) 양국의 차디찬 싸움터로서 차차 긴박의 도(度)를 가(加)하여 왔다. 1854년 11월 15일 스칸디나비아항공회사(SAS)는 북구(北歐)와 美대륙

서해안을 연결하는 운항을 개시했는데 이 공로(空路)는 북극을 일직선으로 비행하여 장기간 단혀있던 원대한 거리와 냉한의 벽(壁)을 돌파하여 미 대륙에 이르는 북방 근접 공로를 신설한 것이며 금후 스칸디나비아항공의 DC-6B 는 공막(空漠)한 북극 하늘을 감시할 각 레이더국(局) 요원의 응급배치를 정기적으로 행할 것이다.

과거 2개년에 걸쳐 알래스카군(軍) 사령관 올드 장군 휘하와 정찰기는 북극 양(北極洋)상에서 이동하는 T3도(島)라 불리는 완서(緩徐)한 섬의 변화를 계속 해서 정찰해 왔는데 1954년 3월에 C-54형 3대와 C-47형 1대가 이 섬 상공에 비래(飛來)하여 그 중 C-47은 빙상(氷上)에 착륙, 3명의 인원과 야용 용구(用具)를 부리고 캠프 시설을 개시했다. 그 후 2개월 정도 지난 5월 5일 뜻밖에도 소련의 이류신-12형 폭격기가 이 이동빙도(移動氷島)의 상공에 날아와 적지 않게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사건이 발발한 때는 소위 T3라 불리는 이 이동빙도는 북극으로부터 약 640리 떨어진 해상에 있었다. 이 섬의 주위는 약 16~23.2리(리)

의 타원형으로서 북위 30도, 서경 150도의 점을 중심으로 하여 타원형의 궤적을 그리면서 표류를 계속하고 궤적의 타원은 동북단(東北端)에서는 북극에 접근하고 남서단에서는 알래스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T3도(島)의 궤적 연도(沿道)와 거의 평행하게 152리 이내의 거리를 보지하면서 PN3, PN4라 불리는 이동빙도 캐프가 북극양(北極洋)의 미국 측 양상(洋上)에 부동(浮動)하고 있는데, 이 PN3, PN4 양 이동수도는 소련 파견대가 점령하고 있다.

얼음과 적요(寂寥)의 공막(空漠)한 미소 국경의 양측에서는 기상학적 대기학적 그리고 이온학적 조사가 행하여지며 전문가는 지구자기(地球磁氣), 우주선(宇宙線), 대기의 이온화 또한 오존 함유량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미소 양국의 당사자는 각 세력범위의 중간에 존재하는 이들 섬의 점거의 사실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도를 살펴보면 T3도는 B-47폭격기로서 모스크[모스크바]까지 5시간, PN3, PN4 양도는 뱃트로이트로부터 5~7시간 걸리는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덴마크로부터 빌린 그린란드의 서안 쥘레기지로부터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까지가 약 7,200, 옴스크, 스탈린스크, 이루트그까지의 거리는 거의 같은 약 8,000리이다. 이와 반대로 북극양의 소련 측 후렌스 요세후 도로부터 5대호(大湖) 지방까지는 불과 8,800리 정도, 현재의 항공기의 성능을 빌린다면 7시간이면 충분하다.

미소 양 진영의 전술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극권의 부동빙도(浮動氷島)를 보급기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4발(發) 폭격기는 원거리목표의 공격에 필요한 연료보급을 받을 수 있고 공격기가 피스톤엔진 또는 터보프롭기(機)일 경우에는 왕복 모두 부빙도(浮氷島)에서 연료보급을 받게 되고 여하한 원거리목표에라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단계에 있어서는 고속과 장대(長大)한 항속력의 성능을 겸한 항공기의 설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극동에 착륙하여 연료보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속력, 항속거리 어느 것이든 희생시킬 필요는 자연히 없어지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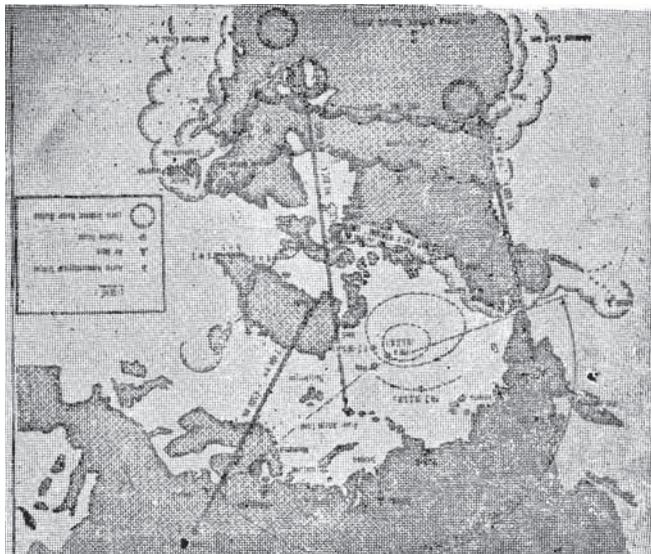
소련은 그 영토의 25%가 북극권에 놓여있는 유리한 지리적 상세(狀勢)에 있고 수백만이나 되는 국민은 북양해안(北洋海岸) 심지어는 북양(北洋)속에서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이 그 광대한 국토의 동서(東西)를 연결시킬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복선화 되어있고 북양안의 자원개발 시설 건립에 착수한지 이미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 1920년에는 재빠르게도 레닌의 북극연구협회를 설립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미 군용기가 처음으로 차륜을 스키로 대치하여 북극에 비행기를 띄운 것이 1943년이였다. 확실히 미국은 가상적국(假想敵國) 소련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뒤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 무렵 T3 빙도는 북극 가까이 이동해 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측(美側)이 필사의 노력을 주입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26년 4월 15일 소련 정부는 북극과 북극양의 소련령(領)으로 소속되는 범위의 경계를 선언했는데 그에 의하면 서쪽은 고라반도의 북으로, 동쪽은 베링그해협 중양까지와 북극으로부터 북위 62도의 선까지 환연하면 소련의 북양안으로부터 1,920리 앞쪽까지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도 소련령이라고 내세웠던 것이다. 또한 이 구역을 1936년 이후부터는 북극양 항공국(航路局)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던 것이다.

러시아가 현재의 소비에트연방 공산주의국으로 되기 이전에는 러시아령 북극 지구는 단지 탐험장(探險場)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하 약 195m까지 동결하고 북쪽은 대부동(大浮動) 빙괴(氷塊)로 덮이고 남쪽은 황막한 툰드라 지대(地帶) 또한 남방으로 내려오면 대삼림(大森林) 지대로 되어있어 이 지방은 아직도 미



〈북극권에 있어서 미측 방위상태〉

지(未知)에 속하며 약 100평방km에 한사람의 주민의 생존 필수 조건도 구비치 못하고 있었다.

소련 이외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오란드, 스웨덴, 헝가리(북동 항로는 1879년 스웨덴이 발견했다) 등의 탐험대가 섬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해양탐험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계통 있는 연구 및 탐험을 시작한 것은 1950년이나 된 후의 일이다. 1929년이 되어서는 1873년에 발견한 후란쓰요세후 도(島)를 합병시키고 1934년에는 그 섬에 비행기지가 건설되었던 것이다.

1923년부터 1938년에 걸쳐서 리야코후 도와 우란게루 도의 노뵤야첼리아, 세월나첼리아에 영구적 기지가 건설되었고 그 외로 15년간에 70개소의 극지(極地)기지가 급조되고 그 후 그 수는 500을 넘도록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기지의 건설과 때를 같이 하여 항만이 신설되고 북극 항공망이 개설된 후로는 소련제 다고나 기(機)가 이러한 새로운 부락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북극권에 있어서 발달한 이러한 부락의 예를 든다면 무루만스 촌을 꼽을 수 있다. 1915년에는 보잘 것 없던 노동자의 캠프에 지나지 못한 이 촌락은 지금은 30만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다. 약 480리 정도 파묻혀 있고, 멀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북극의 촌락으로서 전형적인 것이며 사상적 추방자나 정치적 수인(囚人)들이 있어서 노동원(源)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부락이다.

신구(新舊) 양 세계를 비교하여 영국의 북극전문가 E 암스트롱 씨는 소련 진영은 캐나다보다도 훨씬 진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그것은 소련은 캐나다보다 더 오랜 기간 근기(根氣) 있게 그 계획의 구체화에 노력한 탓이며 그 반면 캐나다는 인구가 적고 노동력도 소련과 같이 뜻대로 구할 수 없었던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술면에 있어서도 또한 소련이 우위하다고 했는데 그 일례를 들어보면 영구동토(永久凍土)상에서의 건축, 철도의 부설, 유전의 채굴 등이다. 캐나다에도 북양 항로가 있는데 그것은 북대서양으로부터 하도순 항만에 보리를 운반하고 있으며 이 항로의 성질은 까라해(海)를 통하는 소련의 목재 운반 항로와 비슷하나 소련 항로 쪽이 약간 우세하다고 한다.

1937년의 북극탐험의 영웅 J 빠빠닝 장군은 1945년 12월 모 신문지상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37년 Chukotsk 해에서 빙괴에 파묻혔던 재류스 킨 일행의 구출 원조 비행은 비상한 모험이라고 생각되었으나 그 후 지가료후, 구로모후 등이 ANT-25기를 타고 북극을 넘어 미국으로 날아갔다. 매년 수십 척이나 되는 소련 선박은 북극양을 동으로 서로 항행하고 있으며 극지를 중형으로 소련의 항공로망이 펼쳐서 비행기는 12~15시간만으로 5,100~6,400리 멀

리 빙상을 날게 되어 극지비행은 이젠 상습화되었으니 하등 영웅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의 북극은 확대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빙양 연안에 줄을 그어 민간공항, 항법(航法) 및 기상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고 상시 안개 속에 잠겨있는 우란계루 도를 제외하더라도 후란쓰요세후의 70여 이상의 섬들, 거대한 노보야젼리아 도, 베넷트와 노보야시아빌의 섬들이 북극 경유 비행의 최초의 비약대(飛躍臺)를 등장시켰다고 상상되고 있다. 또한 북방으로 올라가면 북부 스팅벨젠 제도(諸島)가 있으나……이 섬은 노르웨이 영토지만 소련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을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그린란드의 북단에 있는 미 공군의 기상기지 아라드까지 비행시간으로는 불과 4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 끝으로 미국 측 북극권 내에 PN3과 PN4 양 부동(浮動)기지가 있으며 이 양쪽 섬 위에서는 소련파견대원이 상시 간시(看視)의 눈초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현재까지는 약 150의 비행장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이 조직적인 소련의 북극에의 진출에 대항하여 서구(西歐) 진영은 과연 어떠한 비책(秘策)을 들고 나왔을까? 제 2차 대전으로 하여금 북극 지구의 중대성이 한층 명확해짐에 따라 1941년 미국과 덴마크는 그린란드 도의 방위 방법에 대해서 협정하였고 동시에 기상관측소 설치문제에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지금까지 어느 때든지 세계의 분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던 이 거대한 섬은 급작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로 등장된 것이다. 그 후 10년이 경과



(북극권 내의 미소 양국의 중요 도시 및 중요 기지와 거리의 표시와 방어 상황)

한 1951년 미, 덴마크 협정은 더 한층 강화되어 그린란드에는 미, 덴마크 양국 전문가들이 가세한 수많은 탐험대에 의하여 차차로 방위체제가 정정(整正)되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때 Bernt Balchen 대령이 미 공군을 각성시켜 장비를 내한식(耐寒式)으로 개비(改備)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완성하였고 또한 극지훈련학교를 설립하여 요원을 극지생활에 익숙시킬 훈련이 개시되었던 것이다.

제2차 대전 중 미소 양국의 공동기지의 일환이었던 알라스카는 지금은 미국의 대소(對蘇) 전진 방위 기점으로 되어있어 소련 최동단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소련 최동단에는 물론 소련이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해서 안카레지에는 현재 1개 보병사단이 주재하고 노무, 고테야크, 포인트, 바로 간의 방위를 1개 항공사단이 전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DEW 방위선의 동단(東端)에는 다수의 기상관측소가 건설되고 예산 약 3억 불을 주입하여 주레기지의 방위 강화를 도모, 기타 BW1, BW8 등의 기지를 설치하는 외에 2개의 전천후(全天候) 전투기대와 레이더 탐지초소를 배치하는 등의 신중한 방위체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북부 캐나다에는 약 3,000리에 걸쳐서 레이더도 없거나 비행장도 없는 즉 하늘과 지상의 방위조직이 결핍되어 있어 조급히 방비를 충족시켜야 할 곳이 남아있다.

극지 개발방위 50년 계획을 캐나다 정부가 입안했는데 그중 미국, 캐나다 협정에 의하면 북위 70도선을 따라서 레이더 연쇄선(連鎖線)이 알라스카로부터 그린란드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소위 DEW(Distant Early Warning)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수년의 세월과 약 10억 불로 계산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방위선 완성까지에는 동력의 공급법, 한기와 풍랑에 대한 방위를 여하히 할 것인가(이에 대해서는 푸라스직크의 원형지붕을 레이더 안테나에다 씌우는 실험이 행하여지고 있다). 요원을 극지생활에 익숙시키는 등의 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DEW선의 배후에는 약 북위 55도선에 따라서 달리고 있는 중부 캐나다 선(線)이 있으며 이 선의 일부는 이미 활약하고 있으나 이들 레이더선의 경보거리는 너무나 짧다. 또한 그 후방에는 제3의 레이더선, 소위 파인류리 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선은 미국, 캐나다 양국이 공동감시하고 있으며 미 본토 내의 추요(樞要) 치명부에는 각개 소에 따라서 레이더 감시소가 있어서 주, 야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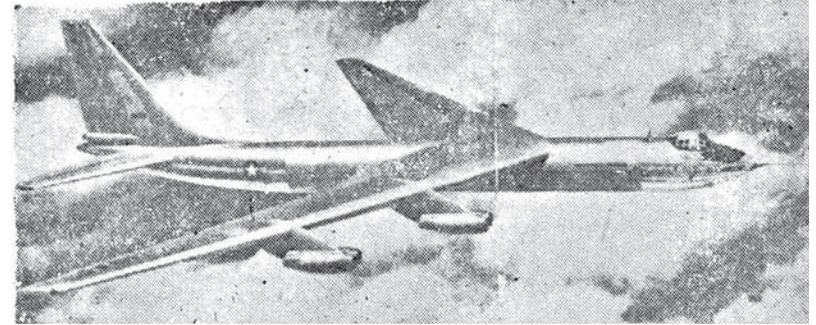
이와 같이 극지로부터 미 본토 사이에는 4개의 전기(電氣)적 방벽이 있는데

최북단의 레이더와 시카고시는 약 4,800리 떨어져 있어서 경보는 최소한 3, 4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발신하게 된다. 태평양, 대서양 안에는 미리 레이더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육지 레이더의 유효거리가 너무나 짧아서 이로 하여금 양상(洋上)에는 300리 이상이나 진출한 레이더 전진초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상의 육지, 해상 레이더망 이외로 6톤의 전파병기를 적재한 슈퍼 콘스태레이션 특수 레이더 피켓트 기(機)(WV-2)가 수백 리 때에 따라서는 수천 리나 양상으로 나와 하늘의 감시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적성(敵性) 극지와 미측 방위 지역에 있어서 적의 공격을 탐지하며 아방의 요격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협력을 얻어 극지에 이르기까지의 구역에 걸쳐서 방비태세를 차차로 강화시키고 4개의 전기적 방위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방위 담당의 넓이는 약 4,800평방km인데 즉 이것은 약 2천 3백 4만 평방km의 토지를 고도 5만 여에 걸쳐 방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3억 6천 8백 64만 입방km를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미 본토 방위공군 및 캐나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2천 대의 요격기는 각 1기당 11,520평방km의 지방, 184,320입방km의 공간의 방위를 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넓이에는 또한 150개 소 이상의 레이더 감시초, 약 100개 소의 나이크형 GM의 진지, 수천의 35촌(吋) 구경의 고각포(高角砲), 수백의 레이더관제의 스카이스파 포(砲)로 하여금 증강될 예정이다. 저공 돌파를 기도하는 적기(敵機)에 대해서는 약 40만의 의용대원이 감시에 임할 것이다. 총계 70만의 요원과 수십억 불의 건설자금과 연간 30억 불이나 되는 유지비가 소모될 것이지만 이 거대한 비용 중의 75%는 극지의 전략지역 개발에 사용될 것이다.

이상의 모든 방위계통을 완성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세월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펜타곤이 이러한 거대한 계획을 입안했다는 점으로 보아 그들은 (130페이지에)



(B-60)

미(美) 전략공군(戰略空軍)은 왜 존재(存在)하는가?

평화(平和)는 능동적(能動的)으로 유지(維持)되어야 한다

미 전략공군 사령관 커티스 E. 리메이

나는 만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전쟁을 회피할 가능성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1.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진실한 위협은 세계적인 원자전쟁이다.
2. 세계적 원자전쟁을 방지하는 길은 자신 있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3. 세계적 원자전쟁에서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길은 올바른 양의 올바른 종류의 장비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군사비를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던 추수감사절 전야에 한 중대한 뉴스가 원자력위원회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소련이 그 원자무기 계획에 착수한 이래 최대의 원자폭발을 시험하였다는 것이다. 동 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스트라우스 씨는 그 폭발력이 메가톤 단위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2차 대전 중 미국과 영국이 투항한 폭탄의 총 폭발력은 TNT 290만 톤이었다. 이것은 3메가톤에 미달하는 것이다. 3년 동안에 100만대 이상의 폭격기가

투하한 것이 3메가톤 미만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단 한발의 폭발이 메가톤 단위라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낡은 원칙에 의거한 전쟁을 하도록 조직된 군사기구에 주력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의 세계적인 공군력은 대소를 막론하고 여하한 전쟁이든 이를 미리 방지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투상태에서, 가장 조그마한 TNT 폭탄에서부터 가장 큰 원자무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중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력인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공중무기를 지구상 어느 지점에 대해서든지 정확하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천성 있는 감시와 군비관리안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국가의 생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전국적인 파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거리 핵무기공군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침략했을 경우에 그러한 군사력은, 오직 충분한 방위공군력을 배경으로 하는 중형 및 장거리 폭격기의 우세한 공군력에 의해서만 견제 혹은 분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우세한 공군력을 형성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미 공군의 3대 전투부대 즉 대륙방공군(CONADC), 전술공군(TAC) 및 전략공군(SAC)의 임무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방공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륙방공군이 조직되었다. 공군이 주이지만 그 속에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육·해군부대도 포함되어 있다. 그 사령부는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원거리 레이더 경보망과 감시소를 운영하고, 정체불명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 요격전투기를 출격시키고 필요할 때에는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다.

다른 두 부대는 공격부대이다. 그들은 침략군에 대해서 파괴적 공격을 가하도록 되어있다. 그 중의 하나는 버지니아 주 랭글리 공군기지에 그 사령부를 두고 있는 전술공군(TAC)이다. 이 TAC는 단거리 및 중거리 폭격의 임무를 띠고 있다. 그것은 고도의 신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행장, 부대집결지, 보급물자집적소, 수송·통신망을 공격함으로써 전선의 적군을 고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아 지상군을 위해서 공중수송과 대지엄호를 행한다. 이와 같은 임무를 위해서 TAC는 핵무기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공격부대는 전략공군(SAC)이다. SAC는 전쟁의 원동력이 되는 적 공업지대는 물론, 연료공급지, 무기저장소, 비행장, 폭격기 및 전투기 등, 적 공군력의 근원을 격파하는 초장거리폭격 임무를 띠고 전투작전은 어떤 전쟁이든 이를 가장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계속하려는 적의 전의와 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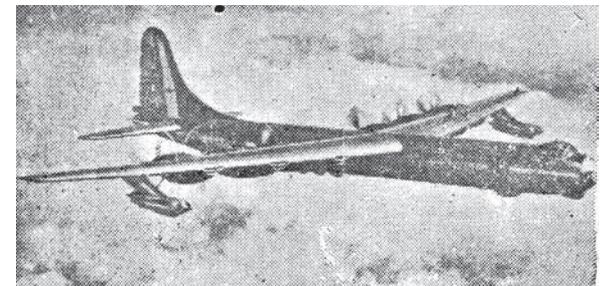
이상 나는 SAC를 다른 전투부대와와의 관계에서 설명하였는데 이제 그 존재의 의와 그 현재의 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SAC는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대두로 인해서 존재한다. 제2차 대전 후의 우리의 급속한 군사동원해제는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 군사력의 진공상태를 야기하였다. 이 진공 상태를 뚫고 여전히 동원되어 있는 공산세력이 침투해왔다. 이 진공상태는 처음에 메꾸어지고 다음에 공산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쇄되었다. 이러한 공산침략은 끝일 줄을 몰랐고 그리하여 1946년에, 만일 싸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의 원자공중전쟁이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AC가 창설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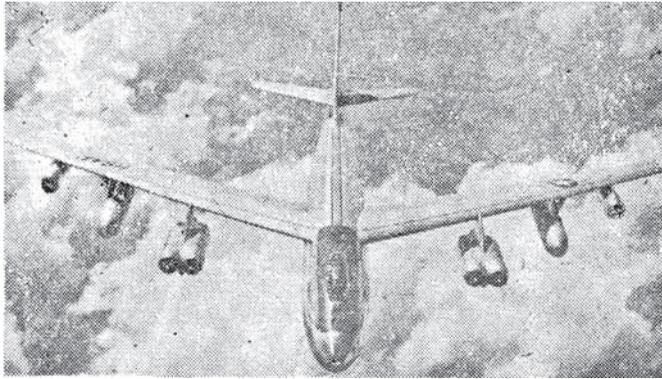
전쟁의 근본적 변화

SAC의 현재의 힘은 전 세계적인 공격력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핵무기의 발달이 가져온 전쟁의 근본적 변화와 그리고 장거리 제트폭격기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국의 전의와 전쟁능력을 능히 분쇄할 수 있는 핵무기로 무장된 항공기의 힘인 것이다.

미 국회에 의해서 승인된 미공군력은 도합 137개 비행단이다. 그 중 54개 비행단은 SAC에 할당되어 있다. 이들 비행단은 우리의 작전이 필요로 하는 신속



〈B-36〉



(B-47)

성과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는 폭격기, 정찰기, 전략전투기, 공중급유기 및 수송기로 장비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B-47 스트레이트제트는 시속 600마일 급의 후퇴익 중형폭격기이다. 그 탑승원은 세 사람이며 그 항속거리는 공중급유를 실시하기 때문에 오직 탑승원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견디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한도는 이렇다고 명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그 한계를 결정하는데 격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B-47은 21,000마일 이상의 거리를 47시간 30분 동안에 날고 있는데 이 거리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세계를 일주하는 거리이다. 이것은 전략적 폭격작전이 필요로 할 비행거리보다 훨씬 긴 거리인데, 왜냐하면 모든 군사목표까지의 왕복거리는 이 거리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투 시에 이들 폭격기는 가능하면 귀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를 사용할 것이다.

현재는 SAC에 배치되고 있는 신형제트중폭은 B-52이다. 이것은 8발의, 시속 600마일급 후퇴익폭격기이다. 그 항속거리는 공중급유를 하지 않고 6,000마일을 날 수 있으며 물론 공중에서 급유할 수도 있다. B-52의 상승한도는 50,000피트 이상이며 이륙시의 전비 중량은 350,000파운드에 달한다. 이 비행기는 마침내 B-36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B-36은 제2차 대전 후에 그 스스로를 충분히 정당화한 비행기이며 아직도 전략공군의 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전용 폭격기이며 그에 부여된 폭격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B-36은 공중급유를 하지 않고 대륙과 대륙사이를 날 수 있는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기지를 출발하여 적의 목표를 공격하고 다시 우군기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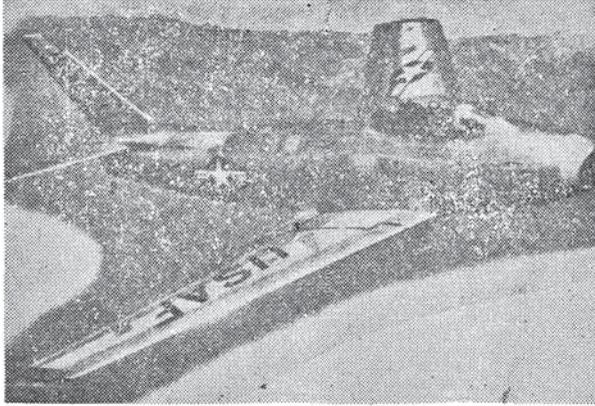
이와 같은 B-36, B-47 및 B-52의 세 가지 폭격기는 F-84F 전략전투기와 함께 현재까지 미국의 기술과 공업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생산한 가장 훌륭한 항공기인 것이다. 그들은 다른 어느 나라와 같은 종류의 군용기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하며 나는 그러한 비행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미국공군의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군사력은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나 항상 인간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물론 무인장거리폭격기와 무인기의 시대가 도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이 완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그러한 임무에 여전히 가장 재간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근 200,000명에 달하는 SAC장병들을 움직이고 있는 동기는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거의 SAC장병 전원에게 공통적인 특질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증강을 도아 왔고 또한 끊임없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이 자유세계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오는 만족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영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지상의 것으로 생각하고는 군의 전통상 가장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다.

SAC을 오늘날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강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인원과 항공기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과, 그들에게 실전이 필요로 할 그 두 배의 전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인 훈련은 우리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오늘날의 고도로 복잡화한 공중장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수백시간의 공부를 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례를 들어, B-47의 탑승원 세 사람은 사실상 제2차 대전 시에 B-29의 탑승원 11명이 행한 일과 같은 양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훈련은, 보다 더 광범위하고 보다 더 기술적이어야 하며 각자에 대한 요구는 더욱 크다. 각자는 비단 자기 일에 고도로 숙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흔히 다른 일을 위해서도 훈련을 받는 것이다.



<F-86>

성패는 몇 분의 차이

SAC이 창설된 이래 우리는 전쟁이 언제 돌발할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일해 왔다.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몇 시간—심지어는 몇 분—의 차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작전에는 언제나 긴급성이 따른다. 만일 그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주일이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곧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SAC의 전투원들이 얼마나 훌륭히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는 세 가지 문제에 문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문답은 나의 결론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그것을 기술하려 한다.

첫째로 국내와 해외에 있는 기지에서 출격할 SAC의 전투원들은 과연 확실히 그들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하고 'Yes'이다. 천체항법만으로도 우리의 탑승원들은 지구상의 어느 지점 상공이든 15마일 이내까지 날 수 있고 그 곳에서 레이더 방법으로 정확히 목표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로 목표상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과연 그 목표를 분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도 역시 무조건하고 'Yes'이다. 신중히 계획된 폭격훈련으로 이들 탑승원 각자는 그 능력을 수백 번에 걸쳐 실증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도시가 아니라 흔히 군사목표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모퉁이라는 것을 나는 지적

하고 싶다. 레이더와 라디오로 우리는 탑승원이 얼마나 정확히 폭격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목표를 분쇄한 다음에 그들은 과연 귀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도 역시 'Yes'이다. 제2차 대전 중 우리는 적의 집중공격을 받기 쉬운 폭격기의 대편대를 가지고도 우리의 손실은 2% 이내였다. 수백 대의 제트폭격기를 가지고 소규모의 편대나 혹은 단기 침투로 가장 적당한 조건의 전술을 쓰면 여전히 우리 폭격기에 승산이 있는 것이다.

이상은 현재의 SAC의 힘을 길러온 일부 요소이다. 우리는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군사력이 가상적국에 대해서 시위하는 힘은, 적이 감히 그 공격을 무릅쓰고서 까지 전쟁을 도발하지는 않으리만치 큰 것이다. 만일 침략이 자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공군을 평화의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어느 나라의 전략공군보다도 더 현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그 보험료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딴 곳에서도 이와 흡사한 군사력이 건설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관해서 공군장관 켈스 씨는 최근 워싱턴에서 항공작가협회의 모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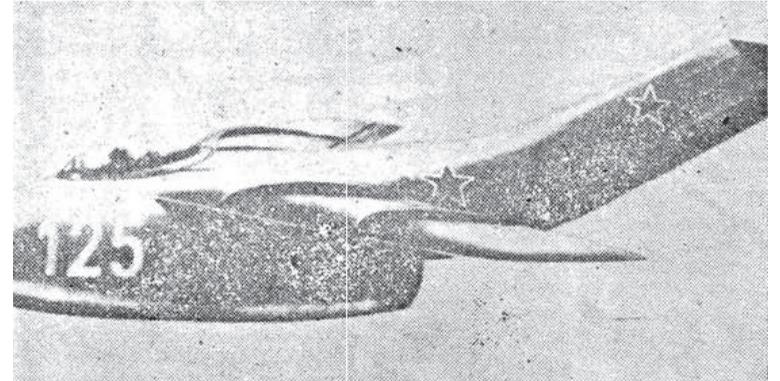
'평화에는 길은 요원하고 험난하며 한편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상 영속적인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장 믿음직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결정적인 공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 하에서 침략자는 만일 그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에는 그를 분쇄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침략자가 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한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우리는 호전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명능력과 공업력을 우리자신과 남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치기를 원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을 연약한 것으로 오해를 했으며 그 결과 한 세대에 우리는 두 번이나 세계대전에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평화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현재, 먼 장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수호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핵무기의 분열물질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에넬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로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무익함은 누구보다도 공군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평화사용안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히 원하고 있는 것은 공군인이라는 것도 나는 확인할 수 있다. 내 자신만 하더라도 나는 항구적인 평화가 장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이었다. (끝)



〈MIG-19〉

소련 제트전투기(戰鬪機)는 여하(如何)히 발달(發達)했는가

미카엘 구라빗치

1942년 12월의 어느 날 밤 소련 항공기설계자 아렉산더 야코뷔레후는 크렘린의 스탈린사무소로 호출되었다. 스탈린은 자기 기상(机上) 앞에 놓여있는 한 줌의 신문을 탁 치면서 말문을 열었다.

“자네는 프로펠러 없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겠나?”

“.....?”

“베리아의 부하가 나에게 독일과 영국과 미국은 그러한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나는 6개월 이내에 소련에서도 그러한 비행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싶네.”

소련 공군 내에서 새어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후 3개월 지난 어느 날 YAK 제트전투기가 Kimry 실험비행장에서 활주했다고 한다. 야코뷔레후는 열역학의 최 권위인 안드레이 고스테이코후와 협력하여 비밀리에 제트전투기의 설계를 완성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므로 시작(試作) 전투기 제작에는 불과 90일로서 충분했던 것이라 하며 이 이야기는 아마도 만들어낸 트윗크일 것이고 낙천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 최초의 모양 없는 목제(木製)의 YAK 제트전투기가 불과 수년 내에 오늘날의 소련방 방호에 자리 잡고 있는 1만 5천 대의 전투기 전력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의 스뱃포초원 지대를 무대로 활약했고 황막한 코사크의 전

통을 받은 소비에트공산주의 연방 국방의 제일선에 방위자라고 자임하고 있는 적색(赤色) 공군전투기부대 조종사는 엄중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거쳐서 선발된 최량의 붉은 독수리이며 자가선전 그대로 소연방의 초인(超人)의 칭호를 받기에는 그리 손색이 없을 정도의 정예들이 모여 있다 함은 과언은 아니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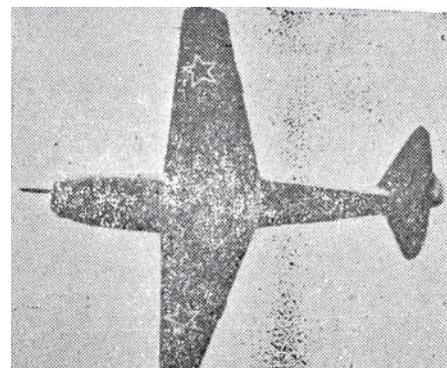
그들 소련의 최량의 붉은 독수리들이 상시 열망하였던 전투기는 “미국제 전투기에 비하여 비행조종 기법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좀 더 기동성이 있고 더한 고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를 요망한다.”

이 적색 공군 정예조종사들의 요망에 응하여 미코양, 구라빋지, 야크뵤래후 등의 최상급 소련 항공기술자들이 노력한 결과 태어난 것이 YAK-15, MIG-9 각 제트전투기이며 YAK-15는 1944년에 완성하였고 MIG-8은 1946년 그들의 항공일에 그 모습을 처음 공개하였던 것이다.

이들 YAK-15, MIG-9 양 전투기는 같은 시대의 미영(美英) 양국의 전투기에 비하여 하등의 손색이 없었다. 이 MIG-8로부터 발달한 것이 예의 굽직한 동체의 특징에다 미익(美翼)을 가진 MIG-15이며 이 비행기의 출현은 한국전선과 기타 외지에서도 유명했던 것이다.

★ MIG-15

그러나 이 MIG-15의 설계구상에 관해서는 종래의 소련식을 벗어난 외형으로부터 판단하여 훗케우루후 190의 설계자로 유명했던 독일 항공설계진의 제1인자인 크루트 뎡크에게 그 기초설계를 의촉(依頼)했으리라는 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의 하나로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초기에 있어서는 영국의 로투스 로이스닌 기관을 탑재한 것이 발단이며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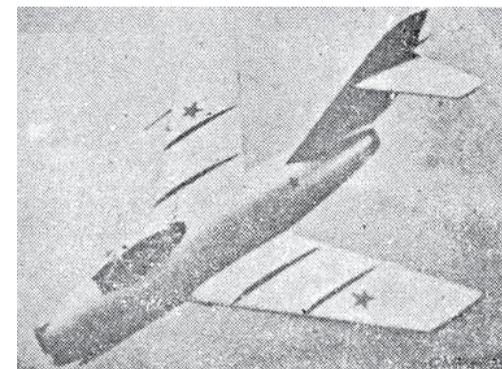


〈MIG-9〉

은 단지 일례에 불과하지만 이외로도 소련인의 독창력과 기술적 창조력이 결핍하고 있는 사실은 이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MIG-15는 이와 같이 혼혈아의 비행기로서 탄생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 중의 하나였고 전투 성능이 우수함은 물론이고 각 부분은 견고하게 되어있었으며 그 제작과 사용은 간단했다.

MIG-15는 이러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었음으로 숙련공과 기술자의 흥년으로 고민하던 소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존재였고 지상정비원들의 작업시간도 줄어들게 되어 그 우수한 성능은 조종사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다.



〈MIG-15〉

★ MIG-15 개량형(改良型)

MIG-15가 한국전선에서 F-86, F-84, F9F 등의 미국 제트전투기를 상대로 하여 공중전을 연출하고 또는 B-29폭격기를 습격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 한국의 공중전에 있어서 소련이 빠져리게 받은 교훈은 국련군(國聯軍) 폭격기가 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천후 상황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프이었던 MIG-15가 때때로 출격(出擊)¹⁴ 불가능으로 된다는 한심스러운 일이 생겼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소련 측의 비애는 대단하였던 모양이다. 즉시 개수에 착수하게 된 것은 물론이며 최초로 손이 간곳이 레이더장치의 추가와 공기 취입구(取入口)의 변경이었다. 이렇게 된 기체는 개수되어 전천후 전투기로서 등장하였으나 그 결과 기체 중량이 증가하여 조종 특성에 다소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완성된 MIG-15-bis에 제1급 파일럿들이 시험비행을 해보고 전부 놀란 표정을 얼굴에 지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개량해야 하겠다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었다.

★MIG-17

그들은 의견을 종합하여 전반적 설계의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위가 있어서 비로소 태어난 것이 미국의 M-100에 필적할 수 있다는 MiG-17인 것이다. 공기 취입구는 한층 개조되어 특히 주간 전투기형의 기수(機首)의 요부(凹部)는 F-85과 꼭 같게 되었다. 신(新) MIG-17은 주간형 및 전천후형보다 주익의 후퇴각은 더욱 예리해졌고 익현(翼弦)은 연장되어 그 결과 한계 마하 수는 증대해지고 따라서 속도가 증가했으나 동시에 관(關) 전체의 중량이 증가한 탓

14) 원문의 출중(出重)은 출격(出擊) 또는 출동(出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으로 주의 면적이 넓어졌다.

기타 MIG-17은 짧은 아푸다바나가 붙은 새로운 원심식 터보를 장비하여 속도의 상승을 높이고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MIG-17의 어떤 것은 종합추력 약 6,795kg의 아푸다바나가 달려있는 축류(軸流)터 보가 탑재된 것도 있다고 한다.

MIG-17은 1954년 5월, '붉은 광장'에서 최초로 그 자태를 나타냈는데(한편 다른 소식에 의하면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53년 8월 23일의 적군(赤軍) 항공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 MIG-15-bis기로 추측된다) 주간형은 이미 제1선에 취역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MIG-17은 지금도 계속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구형화한 MIG-15는 소련방 외측 방위진을 형성하는 위성 제국으로 이송되고 있다.

★ MIG-17 개조실험전투기(改造實驗戰鬥機)

또한 이 MIG-17을 동북 지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스키를 단 개조실험전투기의 존재가 보고되어 있지만 이 스키는 대체적으로 큰 편이며 비행 중에는 복부에 집어넣지만 완전히 다칠 수는 없다고 한다.

이 비행기에는 착륙거리를 단축하기 위하여 고체연료 사용의 로켓이 장비되어 있어 착륙할 때는 제트를 전방(前方)으로 분출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

★ MIG-19

소련 최초의 제트전투기 MIG-9를 기본으로 하고 MIG-15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서 재설계하였으며 동체는 원형(原型)의 MIG-9 보다 길어졌고 주의 후퇴각은 늘어서 50도 정도로 되고 미익(尾翼)도 그와 동일하다. 주의에는 좌우 양익에 각각 경계층판이 깔려있고 익단 연료탱크 그리고 진동 방지의 바란스가 달려있다. 수직안정판은 첫 눈으로 보아 미그라고 분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기수(機首)는 MIG-17보다 짧고 17과 같이 레이더 장치가 있는 거와 없는 것의 2종류가 있다. MIG-19는 소련 국방의 중간 방위 지대에 방위예비기로서 17의 보조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소련(蘇聯)의 델타익(翼) 전투기

라멘스코이에 비행실험기지에서는 최근 하루에 평균 15기의 실험기가 심사를 받기 위하여 비행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쌍렬타익(삼각익) 기(機)일 것이다. 이 기는 터보제트 1기(基)를 장비하고 주의 편릉형(偏菱形)의 평면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상승률에 있어서는 경이적인 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이륙후 기체는 70도 이상의 급각도로 상승한다. 착륙 자세는 종래에 델타익기 정도로 기수를 올린 자세는 아니지만 이것은 아마도 그 특수한 주의 평면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코양은 54년 봄에 모스크바에서 행하여진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본 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델타기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 같다.

전기(前記)한 델타익기 외로 라멘스코이에와 Kimry 비행실험기지에서 실험 중인 특수한 형태의 기종 중 북극의 부동(不動)기지 및 시베리아의 각 하구(河口)에서 사용키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라보지킨 수상전투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는 초원, 설원, 빙원지(氷原地) 등에 착륙이 가능하고 분리식 이륙장치로서 이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외로 소련의 델타익기의 발달에 관해서는 현재 판명되고 있는 것은 2기종밖에는 없으나 양기 모두 제라뷔스키이의 설계라고 추측되며 2기종 모두 전천후 전투기 부류에 속한다. 그 중의 한 기종은 영국의 구로스터 자베린에 유사하며 정지(靜止) 추력 6,795kg의 터보제트 1기(基)를 장비하고 있다고 하며 양 기종 모두 초음속기라고 생각되며 주의 후퇴각은 60도 이상이라고 한다.

★ 소련(蘇聯)의 로켓전투기(戰鬥機)

소련에서는 개전(開戰)을 예상하여 그때는 상대국의 공군이 3만 3천~5만 9천 피트의 고도에서 공격이 취하여지리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 가정 하에 YAK-21이라고 불리는 경량 로켓요격전투기가 완성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비행기의 주입설계자는 아랙산더 야코뷔레후이다. 당초의 소문에 의하면 그가 릿핏슈 교수의 설계를 도용한 것이며 이미 독일에 있던 Me-163 로켓기(機)를 재설계한 것으로 정보가 전하여 졌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YAK-21이 로켓의 동체 단면(斷面)은 타원형이고 동체 후미는 테파로 되어있으며 상하 2단(段)의 제트배기구가 열려져 있다. 좌석의 천개(天蓋)는 예전의 독일 제트기 하인켈 He-178에 대단히 유사하게 되어있고 동체 후부(後部)의 선과 거의 똑바로 이어져있다. 그리고 천개(天蓋)는 동체의 양측 중심선 밑까지 충분히 넓혀져 있고 기수는 짧으므로 시계(視界)는 양호하다. 주의는 대단히 넓고 평면형은 구형(矩形)으로서 중의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주의부근(主翼附根)에는 후이렛트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평 미익은 역시 주익과 같이 단구로 되어 있으며 동체의 바로 위에 달려있는 수직 안정판(安定板)의 중간으로부터 약간 하부에 위치한다. 강착장치는 삼륜식이고 동체에 내장되며 주차륜의 간격은 협소하나 지상할 주는 극히 용이한 모양이다. 동력은 독일의 HWKR II/211 엔진의 개량형(추력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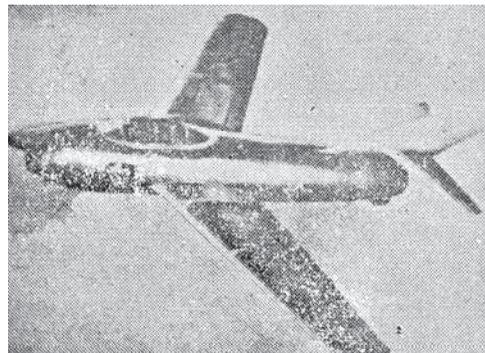
2,700kg) 2기를 상하로 장비하고 이륙할주거리는 대단히 짧고 60도의 각도로 상승하며 상승률은 최초에는 1분간에 약 1만 5천 피트이지만 2만 피트 이상이 되면 1분간에 약 4만 피트 정도의 초음속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이륙 직후 상승 중 비행기로부터 어떠한 물체가 낙하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이륙할주거리를 단축하거나 기체 내부의 연료를 보존하기 위한 보조 부스터인 것 같다. 기타 상공에서 탑재연료를 절약 할 목적으로 순항용 노즈루가 장비되어 있고 이 노즈루에 의해 공격 전(前)의 비행기를 저속 순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몇 개 중대 정도가 YAK-21를 장비하고 있는지 판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스크[모스크바], 우라지오스톡크, 레닌그라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미 한정생산에 들어가고 있다는 정보도 전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YAK-21은 적어도 초기의 실험단계의 시기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YAK-21에 장비되어 있는 로켓의 정비는 그리 손이 가지 않게 되어있으나 화약식 로켓기는 작전상 다소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 HWKR II/211형 로켓엔진은 연료로서 게로신 또는 제트연료를 사용하여 산화제(酸化劑)¹⁵⁾로서는 액체산소를 사용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게로신은 높은 배기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행성능은 양호하지만 연료실의 냉각이 불충분하여 그로 하여금 엔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있다. 이 결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워타 메타놀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워타 메타놀 혼합물에 의해서 연료실의 수명은 늘었으나 이 연료의 덕분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말할 것도 없이 소련 공군의 제일선의 85%는 터보제트기로서 점유되고 있으며 그 위에 로켓전투기용으로 충분한 연료보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가솔린, 제트연료 그 외로 워타 메타놀 혼합물을 각지에 산재하는 비행장에 대량으로 저장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MIG-15F)

★ 소련(蘇聯)의 시작요령 (試作要領)

소련의 신형기 시작(試作) 방법은 미, 영국 등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과는

15) 원문의 산화제(酸化劑)는 산화제(酸化劑)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함.

다소 다른 독자적인 것인데 그것은 공장 측과 공군 측 테스트 파일럿에 의한 원형기 테스트는 시험의 불과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시작기(試作機)가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한정생산이라는 한정된 기체가 제작되어 그 새로운 비행기가 제일선 부대에 배속(配屬)¹⁶⁾된 후 대규모적인 실용시험이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다.

제일선의 실시부대에 배속된 신기(新機)는 중대의 신(新)장비기로서 할당되고 각 중대 정규의 일상 임무수행에 사용되어 그 성능보고는 공장으로 송부되는 것이다. 공장으로부터는 관계 기술자들이 때때로 실시부대까지 출장하여 신기를 사용해 본 파일럿들과 여러 가지 결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점을 수정한다. 이와 동시에 정비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종 설계의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어느 기간 실시 부대에서 사용하여 여러 가지 개수(改修)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정식 기(機)로서의 성능이 보고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 실험기의 자체(姿體)가 사라지는 예도 있다. 적색(赤色) 군 당국의 요구는 완고할 정도로 엄격하고 파일럿의 기체에 대한 취급상의 편(便), 불편, 화력 등은 제외하더라도 신(新) 시작(試作)전투기 대량생산이 용이할 것 즉 소수의 주요부분으로서 성립되고 작업이 간단해야 하며 장비품이 적을 것, 기타 최근에 와서는 주익, 미부, 동체, 엔진, 강착장치 등 의 주요 부(部)의 교환이 간단하여 미숙련자라도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작전상의 요구가 부과되어 그 테스트에 패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작문제에 관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엔진이다. 제트엔진은 한층 복잡해져서 단일 원심식(遠心式)은 그 성능에 한도가 있고 이에 비해서 축통식(軸統式)은 그 이상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데 분해(分解), 수입(手入)의 부분품 부족이 정비작업상의 큰 두통거리로 되어있는 모양이다.

★ 소련(蘇聯)의 방공요령(防空要領)

소련의 방위조직은 다음의 3개 지대(地帶)로서 되어있다.

제1은 위성 제국(諸國)을 포함한 외측 지대인데 이 지대에는 레이더 경계망과 지상 감시소가 있어 구형화한 MIG-15가 배치되어 있다. 현유 신에 제1선기는 이들 배후에 있고 이 외측 지대의 방위력의 보강을 기도하여 낡은 YAK-15를 개조한 것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YAK-23 비행기라고¹⁷⁾ 알려져 있으며 엔진, 무장 모두 강화되어 익단(翼端)에는 연료탱크를 장비하고 익장(翼長), 전장(全長)이 다 같이 약

16) 원문의 산속(酸屬)은 배속(配屬)의 조판 오기로 보임.

17) 원문의 '비행기는 이라고'는 '비행기라고'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임.

30 피트 정도다.

제2의 방위 지대는 소련방 자체의 주변인데 이곳에는 MIG-17의 부대가 전개되어 있고 이 지대에서는 MIG-17의 각 중대는 적(赤)공군의 2대 에이스로 하여금 제2차 대전 중 창시된 전법을 준수하면서 행동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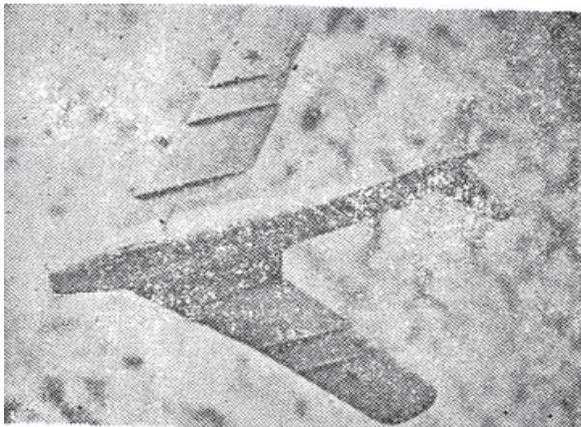
이상 2개의 방위 지대 외로 주요 전략목표 방어의 전투기 방어 지대가 설정되어 있다.

★ 대전투기(對戰鬪機) 공격법(攻撃法)

이 중심 방어 지구에 있어서는 소련은 독일이 채용했던 전법을 재생시켜 이를 훈련에는 제트 2기의 고속 경폭격기가 사용되며 비행진로의 후방에 향하여 로켓의 측방 일제사격의 훈련을 맹렬히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폭격기편대의 유효사정권 외에서 상대방의 편대와 평행하게 비행하고 측방에다 공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은 제일차 대전 중에 이 전법을 써서 다소 성공하였는데 독일의 로켓은 유도식이지만 목표 탐색식도 아니고 적 폭격기에 접근하여 발사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소련의 것은 예전의 독일의 그것 보다는 진보했다고 하며 그 로켓으로는 탑승원에 의해 목표로 유도할 수도 있고 또는 수감(受感)장치에 의하여 적 폭격기에 명중할 수 있도록 그의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한다.

★ 진공용(進攻用) 전투기(戰鬪機) 모자기(母子機)



<MIG-17>

소련의 장거리폭격기 호위의 최초의 계획은 1949년에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B-29를 모방하여 TU-4의 주익 아래다 MIG-15 2대를 매달았는데 모기(母機) TU-4는 단독으로 이륙하고 2대의 전투기는 이를 따라서 이륙, 공중에서

모기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후 이 모자비행기의 구상은 4년간 중단되고 있었으나 1953년 봄에 TU-4 실험기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는 한대의 특별소형전투기를 보았다는 보고가 입수되었다. 이 소형전투기는 이전의 독일의 로켓 추진기ME-163에 약간 유사하고 축류식(軸流式) 터보제트 1기(基)를 장비(裝備)¹⁸⁾하고 있으며 주익의 후퇴각은 약 40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하나의 시작 호위전투기가 공중연료보급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는 미국의 맥트넬 F-12에 유사하고 그의 계통은 불명하지만 2기의 축류 터보제트를 장비하고 있으며 초음속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본 기의 치수는 TU-4기로부터 추찰(推察)하여 익장 약 45피트, 전장 약 59 피트 정도일 것이다. 주익과 미익 모두 각각 약 50도의 후퇴각을 하고 있으며 좌석, 천개의 길이로 이루어 보아 승원 2명의 탑승도 한 것 같다. 이 시작기(機)는 이전에 한 번 비행한 것은 확인되어 있지만, 그 후의 시험결과는 의견 불명하다. 스웨덴으로부터의 신임할 만한 정보에 의하면 본기 외로 경량전투기가 출현한 탓으로 그 후의 개량 발달은 중지되었다는 것이다. 모기(母機)의 제트폭격기는 별로 문제될 점은 없었지만 적지 상공에 있어서 이 중량전투기에 대한 연료보급의 시간이 문제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소련 공군 당국에서는 이 중량 호위전투기의 계획을 중지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IR FORCE 지(誌))

(114페이지에서 계속)

가까운 장래에는 초초음속으로 우주권(宇宙圈)을 뚫고 날라 올 IBM(대륙간 GM)의 위협은 존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편 기체설계자 측이 금후 10년 현재의 속력 그리고 그 보다 더한 고속의 대형 유인(有人)폭격기의 설계를 진행시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 10년간의 말기에는 대기 중의 산소를 사용할 터보제트 또는 램제트엔진 장비의 IBM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탄 두를 장비하고 한숨에 지구의 반분(半分)을 나는 항속력을 가지고 공격목표를 탐색하면서 비상할 수 있는 V2형 GM(로켓엔진)가 출현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 될 것이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이 레이더 대(帶)는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INTERVIA REVIEW OF WORLD AVIATION

18) 원문의 제비(製備)는 장비(裝備)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주요한



“너희가 내가 만든 신(神)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느고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네가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중에 있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구절은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바 없을 것인가. 이 대화는 구약 다니엘 서(書) 3장에 있는 이야기에 나온다.

바빌론 왕 네브가드네살이 황금으로 신상(神像)을 만들고 만조백관에게 그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하였다.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뽑히어 고관이 된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드느고는 황금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다.

왕이 대노하여 셋을 불리다가 절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리라고 위협하였다.

이때에, 세 사람은 저와 같이 대답할 것이다.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느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하느님께서 구원해주시지 아니 하드래도, 불무불에 타 죽을 지언정 우리는 황금상 앞에 절할 수 없노라”하는 장엄무쌍(壯嚴無雙)한 선언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옳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다. 만일에, 옳은 일을 하드래도 아무 보람이 없다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다니엘 서의 이야기는 상례적인 해피엔딩(흥부전식 결속)으로 끝난다. 세 신하는 풀무 불에 던져졌고, 천사가 내려와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옷소매가 늘지도 않은 채로 살아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불에 타서 죽었더라면 어찌할 것인가.

그리 아니 하시더라도 황금상에게 절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부르짖은 그들의 신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윤리관에 있어서, 인생관에 있어서, 하나의 절대적인 위치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공취팔취적인 공리적 윤리관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서 정의를 지키는 그 자체가 절대가치를 가졌다는 그런 경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고리의 다리」라는 소설을 보면, 폭격 임무를 맡은 비행사가 세 개의 다리를 완전 파괴하려고 재삼 공격하다가 적의 고사포에 희생되는 심리를 설명하여 애국심도 아니요, 임무원수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의 완강한 전투욕밖에 없다고 했다.

명예나 훈장이나 승진이나 생의 애착이나 아무 것도 없는 투지만이 그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기적적인 구원의 손도 뻗히지 않았고 필요 이상의 모험을 했다는데 대한 상찬(賞讚)의 값음도 없었다.

값음을 바라지 않는 행동— 그것은 윤리를 초월하고 있다.

나무는 자라난다. 왜, 거기는 왜가 없다.

자라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것은 본능이다.

불에 쌓인 애기를 보고 어머니는 불더미에 뛰어든다. 애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삼자의 해석이다. 뛰어드는 어머니의 행위는 본능이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장엄한 의지의 경지는 본능의 세계와 통하는 듯하다.

무윤리적인 본능의 세계와 초윤리적인 의지의 세계는 서로 통하여있다. 생활하는 철학, 행동하는 철학, 예술하는 철학, 학문하는 철학, 목적론을 초월한 생활태도가 가장 높은 윤리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살기 위해서는 타협해야 한다. 적당히 해두어야 한다는 흐릿분한 세태 속에서 오직 바르기 위해서 바르겠다는 생활태도를 가져보고 싶다.

은혜를 갚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는 보화(寶貨) 여부를 열지 말고 그냥 평범한 박씨였더라면 더욱 좋았으리라.

윤리세계에 인과응보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있다고 해서 옳게 견고 없다고 해서 마구 행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바른 길을 택하는 것, 여기 참된 생의 길을 찾고 싶다.

(필자(筆者) 새벽사장(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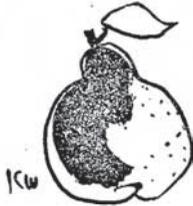


★ 수필(隨筆)

동양적(東洋的) 광감(曠感)

신록(新綠)과 달에 기(寄)하여

김동리(金東里)



요즘처럼 꽃이 피고 잎이 돋을 무렵이면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행복이 솟는다. 꽃은 꽃대로 아름다우려니와 저 신록의 미관(美觀)이란 더욱 황홀한 것이다. 꽃의 미감(美感)은 보다 더 시각적(視覺的)인 것이나 신록은 그대로 혈관에 오는 듯하다. 그러기에 그것은 술과 같이 사람을 흔들여 놓는 것이다.

1년을 두고도 이 무렵 같이 사람 들이 모두 거리로 쏘아져 나올 때는 없다. 그들은 모두 꿀벌 떼처럼 신록에 취하여 넉넉거리는 것이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상냥하게, 씩씩하게, 호의적인 얼굴로 웃으며, 말하며,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며 걸어오는가. 이 무렵의 창경원이나 덕수궁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친척이나 이웃사람들 같다. 하늘에는 환한 햇빛이 번쩍거리고, 옷깃으로는, 신록 그 자체의 숨결을 마시는 듯한, 부드럽고 신선한 바람이 스며든다. 그렇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꽃이나, 혈관으로 느끼는 신록에 비하여 살갗으로 스치고 콧구멍으로 들이키는 이 바람을 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이 바람이 없다면 꽃과 잎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나? 그것은 모두 죽은 거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이따금 부담이 될 때가 많다. 춘수(春愁)니 춘곤(春困)이니 하는 말은 좀 더 꽃 필 무렵을 두고 이르는 말 같지만, 신록은 꽃보다 훨씬 더 사람을 흔들여 주는 듯한다. 아주 성록(盛綠)(녹음(綠陰))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신록은 꽃보다 더 애수와 한탄을 곁들이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극적이며, 강렬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 있다고 생각한대도, 이승의 것으로 제일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 화창한 햇빛 아래 얼마나 파란 나뭇잎들이 돌아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내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경우라도, 2천 5백 년 전의 노자(老子)가 산관(散關) 혹은 함곡관(函谷關)밖으로 나섰을 때, 거기 얼마나 파란 나뭇잎들이 어우러져 있었을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신나는 광경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도 그림고, 찬란하고, 신기하고, 즐겁고, 황홀한 신록이 왜 나에게 애수와 한탄을 자아내게 하는가?

달밤은 신록같이 행복스럽지는 않으나 역시 그림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애수와 한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 좋은 것들은 왜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황홀하고

끔찍한 행복은 왜 항상 슬픔과 한숨을 곁들이게 하는가?

동양시의 특징적인 주제는 광감(曠感)(광회(曠懷))에 있다. 달이나 신록에서 느껴지는 애수와 한탄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행보다도 대륙적인 행복감에 기인하는 것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은 불교에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광감, 또는 광회는 일반 동양인이 느낄 수 있는바, 불교인의 제행무상에 해당하는 감정이요 사상이다. 광회도 일종의 무상감이기는 하나 제행무상과 같이 준엄하고 격렬하고 철저한 무상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박하며 대륙적이고 낙천적이다. 산천은 여구(如舊)한데 인사(人事)는 간 곳 없다하는 정도, 자연과 대비하여 느껴지는 인사의 무상을 말하는 정도다.

최호(崔顥)의 「등황학루(登黃鶴樓)」나 이백(李白)의 「등금릉봉화대(登金陵鳳凰台)」는 다 같이 만인의 애송(愛誦)되고 있는 명시지만, 처음은 모두 자연풍경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다가, 결국(結局)은 꼭 같이,

일모향관하처시(日暮鄉關何處是)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
(황학루의 끝절)
총위부운능폐일(總爲浮雲能蔽日) 장안불견사인수(長安不見使人愁)
(봉황대의 끝절)

‘사인수(使人愁)’라는 수(愁)로 맺어져 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광 앞에 서니 다 같이 애수에 잠기게 된 것이다(여기에 는 물론 황학루, 봉황대에 대한 두 시인의 다른 일화도 있으나 차운(次韻)에 준하기 위하여 함부로 합치시킨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백의 「파주문월(把酒問月)」을 보면 더욱 격렬하다. 이백은 우리나라에서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하는 동요가 있으리만치 달을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그냥 달에 대한 찬미가 아니고 거의 전부가 뉘드러요 푸념이다.

청천유월래기시(青天有月來幾時) 아금정배일문지(我今停杯一問之)
(중략)
금인불견고시월(今人不見古時月) 금월증경조고인(今月曾經照古人)
고인금인약류수(古人今人若流水)¹⁹⁾ 공간명월개여차(共看明月皆如此)
유원당가대주시(惟願當歌對酒時) 월광장조금준리(月光長照金樽裏)

이것은 그의 「파주문월」의 처음과 후반부다. 청천에 있는 달과 지상에 있는 사람

19) 원문의 일부는 오기로 보임.

과의 대비에서 빛어지는 녀뚜리요 푸념이다. “오늘의 사람은 옛날의 달을 못 보았는데, 오늘의 달은 일찍이 옛 사람을 비추었다.”는, 즉, 달은 만고에 같은 달이건만 달을 쳐다보는 사람은 무상하다는 광감에서 빛어지는 한탄인 것이다. 이것을 「의고(擬古), (그 9)에 가서는 천지일역여(天地一逆旅) 동비만고진(同悲萬古塵)이라 하며 좀 더 철학적인 표현을 주고 있다. 여기서도 천지와 인사를 통틀어서 동비만고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천지는 일역여로 두고 여인(與人) 관계에 있어서만 동비만고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제행무상에 비하여 수단미급(數段未及)하며 소박한 경지일는지 모르나 그 만치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심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억포(憶抱)와 광감을 가장 절실하게 일으키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신록 무렵과 달밤이 아닐까.

요즘 내가 신록의 즐거움에 취하여 목이 부해지는 듯한 것도 역시 이러한 광희의 일종이 아닌가 한다.

(필자(筆者) 작가(作家))



유명세(有名稅)

정비석(鄭飛石)



대단이 외람된 이야기지만 나는 20여 년간 소설을 써 오는 관계로 돈도 권세도 없으면서 이름만은 누구 부럽지 않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가 생각한다. 오늘 날까지 신문에 연재해온 장론역설(長論力說)만도 15, 6篇은 되리라고 짐작하는데 하루에 5만부씩 발간하는 신문에 200회짜리 장편소설을 한 편만 실리더라도 나의 이름은 무려 일천만이나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점이다. 그 이상의 발간 부수를 가진 신문일 경우에는 내 이름도 그 만치 더 널리 광고되는 셈인데, 그렇게 널리 광고되는 신문 소설을 15, 6편이나 써 온데다가, 그 외에도 각종 인쇄물에 단편수필 등을 무수히 써왔으므로 모르기는 모르되 나의 이름이 활자화된 신문잡지의 장수를 따지면 아마 수십억 장을 초과하리라. 게다가 그 많은 소설들이 대개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으니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가 신문을 읽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비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상대방에서 환영을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간에 매일 매일 수만 장의 선전피라를 뿌려대고 있는 셈이므로 신문잡지의 독자는 억지로나마 이름만이라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나 개인에 한한 일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매명(賣名)을 위해서는 소설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나는 내가 유명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유명하면 유명하니만치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어서 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한두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하는 생각에서 이 붓을 들었을 뿐이다.

모든 유명한 것 중에서 우리 문사(文士)들처럼 실속 없는 유명은 없지 않을까 한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로는 일인(一因)의 재근(宰根)을 능가할 경우라도 그 권세에 있어서는 십자가로에서 좌상우상하는 교통순경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경영력에 있어서는 3등 주택 일가(住宅一街)의 구멍가게 주인이 오히려 부러울 정도이니 우리 문사들의 유명이란 문자 그대로 허망한 유명이 아닌가 한다.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투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세모(歲暮)가 되면 감투에 따르는 세찬(歲饜)이라도 생길 것이요, 도장 찍는 농간만 잘 부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탁(一擲) 천금의 기회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 문사들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연말에 명태 한 썰미라도 갖다 줄 사람이 없다. 그 대신에 크리스마스가 오거나 연말이 닥치거나 남에게 선사품을 보내야 할 걱정도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세찬을 받아먹지 못하는 비애와 적막을 제하고도 크게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글을 써서 돈이 생기면 쌀을 팔아먹고, 그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옷을 지어 입으니,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정재(淨財)로 생활을 꾸려가는 뜻에서는 우리 문사들을 따를 사람이 없으리라. 진실로 부양천지(俯仰天地)하여 추호도 부끄러울 바 없다는 말이다.

그렇듯 안심주의의 생활을 경영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은 면할 길이 없다.

유명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외(料外)의 득을 볼 때도 없지 않다. 아무리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도 이름만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초면 인사(人士)한테도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받게 되는 점 같은 것은 아무래도 유명한 덕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결코 적지는 않다. 이제 거기 대한 적은 실례를 한 가지 말해 보기로 하자

9.28 수복 직후, 일선에 종군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모 부대의 정훈부를 찾아가서 나는 소설 쓰는 정모(鄭某)라고 자기소개를 하였더니 그 부대의 군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정비석 씨는 그 동안 우리 부대에 종군을 하시다가 수일 전에 서울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나를 매우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아서, 나는 크게 면구했던 일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사칭하고 후대(厚待)를 받다가 돌아간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진짜라도 진가를 가릴 방법이 없어서 매우 난처하였다.

그런 경우는 비밀비재하다. 대구 피난 중에는 어떤 친구가 모 출판사로 외국 소설을 번역한 원고를 들고 가서 이것은 정(鄭) 아무개와 공동 번역을 한 것인데 출판을 아니 하겠느냐고 하는 바람에, 그 출판사에서는 나와 면식이 없으면서도 나만 믿고 출판계약금으로 구폐(舊幣) 30만원을 지불한 일도 있었다. 사기라는 것이 정로(稔露)된 뒤에 원고를 검토해보니 번역이 엉망이어 출판을 포기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나는 죄 없이 출판 주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1.4 후퇴 후에는 피난민이라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피난민 쌀 배급을 나는 유명하기 때문에 한 톨도 얻어먹지 못한 일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아홉 식구를 거느리고 모 여관 2층 다다미방을 한 칸 얻어서 절반쯤 굶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피난민 쌀 배급이 수속절차가 하도 복잡하기에 그것을 아예 단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반장 노릇하는 노부인이 보기에 우리 집 살림살이가 하도 딱했던지 하루는 자기가 쌀 배급을 타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손수 수속절차를 갖추어 가지고와서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노부인의 친절이 고마울 뿐만 아니라, 쌀 배급을 준다면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겠으므로 두 말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런지 이를 후에 노부인은 다시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동회(洞會) 사무실로 이 댁 배급 쌀 신청서를 가지고 갔었는데 동회 직원이 이 댁 주인양반의 이름을 보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 양반은 유명한 소설가로 돈을 얼마나 잘 벌기에 이런 사람에게까지 쌀 배급을 준단 말이요. 배급 쌀이 아무리 많기로 이런 사람에게 줄 수 없으니 어서 돌아가시오!”하고 도장을 찍어 주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오직 고소(苦笑)를 할 뿐이었다. 이 모양으로 때로는 유명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손실과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대로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곤란했던 것은 6.25 사변 중의 적치(敵治) 90일간이었다. 공산괴뢰가 서울에 침입하자 나는 맨 먼저 문패를 떼어버렸다. 문패를 떼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데는 딱 질색이었다. 더구나 여기저기서 소위 교양강좌가 있을 때마다 반동 소설가의 성명을 열거(列記)하는 중에는 나의 이름도 반드시 한몫 끼인다는 소문에는 남모르는 공포와 전회(戰慄)를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 천우신조(天佑神助)로 무사하게 우견(遇見)은 했지만, 그 당시에 는 정말이지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는 예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명인 사람으로 보면 유명도 부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유명에는 거기 따르는 득실도 언제나 상반한다. 다시 말하면 유명하면 유명한대로 세법에도 없는 유형무형의 세금이 따라다닌다는 말이다. 나는 그것은 유명세라고 부르고 싶다.

(필자(筆者) 작가(作家))

생사(生死) 모두 무서운 것

박운대(朴運大)



나는 나다. 나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외로운 놈이다. 극히 못났고 모자라는 놈이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원수 같은 일이다. 그래도 살아가는 모양이고 살아있으니 따분하기 한량없다.

자는 시간만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내 생명은 계속되고 있으니 그 시간동안만은 행복하게도 고맙다. 깨어있는 동안 괴롭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아무것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인 모양이다. 자문자답한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모르겠다. 모르겠기 때문에 따분하고 골치아픈 일이다. 애당초 나는 왜 알고자 하는 동물이었던고?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비벼 뜨고 밥이나 먹으면 학교로 가던 시절이 그림다. 대학생이랍시고 뿔이던 공부해 보려던 때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또 한 그림다. 알만한 여성, 예쁜 여성을 보면 가슴이 뛰고 기쁜 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제는 예쁜 이성을 보아도 감동도 별 흥미도 없다. 인간적인 이해와 존경심을 가져보려는 욕망을 못 가지니 고깃덩이가 고깃덩이를 보는 격이다. 얼어 죽은 봉어는 같은 내 눈이 그의 얼굴 화장과 옷차림을 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저 사람을 알고 싶고 친구를 가지고 싶다. 이해(利害) 없는 너와 내가 되고 싶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믿음만한 우상(偶像)이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이면 아무 것이나 척척 준다. 그런데 나는 왜 이리 가진 것이 없을까? 그래서인지 달라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병인가.

살아 있다는 것이 무섭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섭다. 오죽 따분하면 매일처럼 술이나 마시려만 술이 취하면 더욱 무섭다. 깨어나기 때문에 무섭다. 내가 뭐라고 했고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니 무서운 것이다. 할 일이 없어서 술을 마신다. 피로해서 술을 마신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술을 마신다. 그 놈은 내 정신을 마취시키는데 있어서 정직하기 때문에 마시는 것이다. 아마도 취하지 않으면 안마시게 될 것이다. 술은 살아있는 인생의 도피처다. 죽은 나그네의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나라는 놈을 망각의 세계로 몰아 넣어주니 감사한 놈이다. 그 놈은 또한 술장사라는 인간들에게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라에 세금도 바치니 여간한 자선가가 아니다. 그런 자선가이면서도 나에게 공포감을 주니 이게 또 무슨 모순된 일이고 불친절한 일이나 말이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이 무서운 증(症)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취한다. 취

한 술이 깨나면 또 무서움이 다가서니 어떡하라는 말인가 앞길이 새까맣다. 정말 광명이 없는 것 같다.

X X

알만한 거리에 있던 박(朴) 시인이 죽었다. 자그마한 나의 일 때문에 그의 관 앞에 가서 잠시간의 이별 인사도 못했다. 내 마음 괴로운 일이다.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그 벗들은 간 친구를 슬퍼하는 글을 써주었다. 신문에 보고 읽으니 고마운 일이다.

입버릇처럼 뇌까렸지만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소설가 김(金) 씨는 부산 피난 때 늘 하는 말이“당장 죽고 싶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거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 것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손구락질을 받을 것이니 죽을 수 없다.”고 내 자신이 그러니 그저 동감 동정일 수밖에 없다.

이력저력 하니 사는 것 죽는 것이 모두 무섭다. 괴로운 일이다. 어쩌면 좋은는지 모를 일이다. 비행기는 왜 하늘을 날고 원자탄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인간은 언제부터 그렇게 악질(惡執) 같았는지 모르겠다.

무섭기는 하고 모르겠으니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6척 미만의 소구(小龜), 작은 머리는 황망칠 치려야 안전한 피처(避處)를 구하지는 못한다.

X X

마음으로 다소 존경하는 친구다. 할 말도 없이 마주 앉았으니 답답한 모양. 그는 “약주니 하러 갑시다.”, “이제부터 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쓸쓸히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은 찬바람이 불었다. 외투가 아닌 스프링을 입은 그는 건강한 몸매에 알맞지 않게 추위에 떠는 듯 손에는 조그만 보자기를 들고 뛰다 시피 걸어가는 모습을 전차길에서 발견했다. 불려서 차나 한 잔 같이 할까 하다가 참았다.

그의 발걸음에서 목적의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따분하지 않고 할일이 있어서 잡념이 없이 그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다방에 끌고 들어가서 처리 못 할 분위기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다. 우연히 만나서 약주나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의 심정을 말해 줄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와 같이 술자리를 꾸밀 생각을 갖지 않는다. 나는 아직 그를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 에 다소의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를 잘 알게 된다면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다소의 존경심이라는 보패도 또 잃어 버려야 할 것이니 나는 그것이 싫은 것이다. 사람이란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없는 것이 탈이다.

옛말이다. 나의 결혼을 서러워하는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너는 결혼을 하면 애정이 생길 것이니 우정은 없어질 것이 아니냐는 소박한 술회(述懷)를 하였다. 결혼 2,

3개월 후 나는 애정이 무엇인지 모르니 나의 벗은 아직 책이라는 편지를 써 보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우정을 구하는 심정은 지금도 다름이 없나 보다.

이것은 죽도 살도 못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수평선인지도 모르겠다. 진리를 모르겠기에 진리라 는 것을 믿어보았다. 속았는지는 모르나 아직 그렇다고만 생각하니 관념화하고 말았다.

하늘에 나는 새는 심오지도 길우지도 않으면서 마음 편히 살고 있으며 내일 난롯불에 들어갈 운명에 있는 야변(野邊)의 백합화(百合花)도 친진난만 한데 나만 오로지 공포에 사는 까닭을 모른다. 춘하추동이 바뀌는 것을 육체의 피부로만 감각하니 얼마나 불행한 생활자인지 모르겠다. 일이 없어서 따분하면서도 가까운 덕수궁에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다.

기껏 하는 짓이래야 술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면 도장(圖章) 새기는 사람과 같이 원고지의 네모난 칸을 메꾸는 것뿐이다. 벗 있어 책을 빌려주었으니 1년이 넘어서도 아직 읽지 못하고 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그지없게 기구(祈求)된다. 루소의 「참회록」을 쓰는 심경은 아닐 것이건만 만성화한 술의 소치인지 의지력이란 거의 없다 시피 약하다. 영화에 나오는 테리라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삼손은 아니건만 “의지의 힘을 주소서.”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필경 이것도 살아있기 때문의 자기 발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모르고 무서우면서도 살아야 하니 사람 된 것이 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술이 덜 취한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기도 하다. 이럴 때면 모두 다 있어 버리고 창경원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정도의 것이라도 실천만 된다면 현재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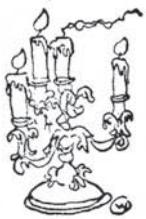
(필자(筆者) 한국일보논설위원(韓國日報論說委員))

로버츠 씨(氏)

(Mister Roberts)

W B 영화(映畫)

시네마스코프



원작은 1946년 에 발표된 고(故) 토마스 헤겐²⁰⁾의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으로서 브로드웨이의 히트 무대극도 된 동명소설의 영화화. 제행(製行)은 무대와 마찬가지로 리랜드 헤이워드²¹⁾가 담당. 프랑크 뉴전트²¹⁾(아일랜드의 연풍(戀風))와 조슈아 로건²²⁾(무대극을 헤겐과 합작이 공동각색, 존 프드²³⁾(웨스트포인트)가 감독을 담당하였는데 완성 직전에 죠 포드가 와병(臥病)하 자 일부를 마빈 로이²⁴⁾(애수(哀愁))가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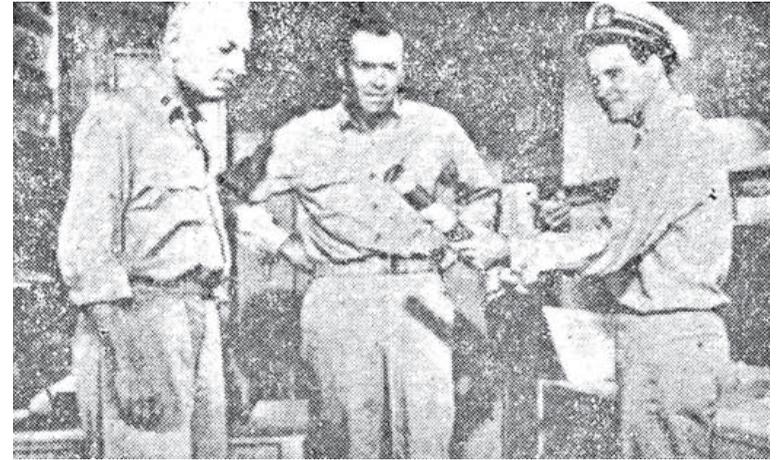
촬영은 윈톤 호취²⁵⁾(아일랜드의 연풍(戀風))작곡, 지휘는 프탄쓰 왁스맨²⁶⁾이 담당하였다. 주연의 로버츠 씨에는 '아파트의 요새' 이래 오랜 만에 영화에 출연한 헨리 폰다²⁷⁾인데 그는 무대에서 이 배역을 1,600회 출연하였다. 공연자는 제임스 카그니²⁸⁾, 윌리엄 파우엘²⁹⁾, 재크 레몬³⁰⁾으로 벅시 파머³¹⁾, 워드 본드³²⁾, 필립 케리³³⁾, 해리 케리³⁴⁾ 2세(이상 웨스트 포인트) 등 낯익은 존 프드 감독 일족이 조연하는 시네마스코프 1955년도 작품.

스토리

세계 제2차 대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화물 수송선의 리라크터트 호(號)의 승무원들은 전투에 참가할 기회도 없이 맥없이 지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승무원의 인덕(人德)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해군 중위인 미스터 로버츠(헨리 폰다)는 전투부대의 전속 원서를 몇 번이나 제출하였는데 함장(제임스 카그니)는 우수한 그를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 원서에 사인하지 않는다. 이 함장은 까닭 없이 골질을 하고 떠들어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승무원이 모두가 싫어하는 치약, 화장지를 가장 많이 수송하였다는 공적으로 상사로부터 포상으로 받은 야자수(椰子樹)를 지독히 아끼고 있었다. 군의관(윌리엄 파우엘)은 이미 노경(老境)의 도통한 인물인데 그는 로버츠 씨의 좋은 이해자다.

팔버 소위(잭크 레몬)는 겁보이기는 하지만 요망(要望)이 좋고, 게다가 여자를 좋아한다. 혈기왕성한 수병들은 해안의 간호부 숙소의 목욕실을 쌍안경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며 떠들썩

- 20) Thomas Heggen
- 21) Frank S. Nugent
- 22) Joshua Logan
- 23) John Ford
- 24) Mervyn Le Roy
- 25) Winton C. Hoch
- 26) Franz Waxman
- 27) Henry Fonda
- 28) James Cagney
- 29) William Powell
- 30) Jack Lemmon
- 31) Betsy Palmer
- 32) Ward Bond
- 33) Philip Carey
- 34) Harry Carey



하게 기뻐한다.

팔버 소위는 구실을 만들어서 섬에 상륙하여 미인인 안 지라드 간호 중위(벅시 파머)와 사귀고 그 여자를 배에 초대하였는데 그 여자가 또 대단한 여자라 동료 간호부를 많이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팔버 소위의 달콤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간다.

이윽고 배는 남해의 어떤 경치 좋은 항구에 입항하였다. 그러나 함장은 대망의 상륙허가를 취소하였다.

분격한 로버츠 중위가 담판하자 함장은 금후 전속 원서를 제출하지 말고 함장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면 상륙을 허가하겠다고 말하였다. 수병들을 상륙시키고 싶은 로버츠 씨는 부득이 그 교환 조건을 수락한다. 덕분에 승무원들은 상륙하자 한꺼번에 기분을 내 고 대(大) 난투 주(酒) 소동을 일으켜 헌병의 신세를 지면서 배에 끌려오고 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대단한 힐책(詰責)을 받고 노발대발하였다.

배는 다시 항해하는데 수병들은 태도가 달라진 로버츠 중위를 경원(敬遠)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얼마 후 구라파전의 종전 희보(喜報)가 전해진다. 팔버 소위는 폭죽 제조에 여념이 없다. 세탁실에서 폭죽을 시험하다가 대폭발을 일으켜 함 내에 비누 거품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함장의 횡포에 못 이겨 참을 수 없게 된 로버츠 중위는 함장이 아끼던 야자수를 바다에 처넣고 겨우 기분을 돌린다. 수병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함장은 로버츠 중위에게 야단을 치다가 화가 치져 발작을 일으킨다.

이 소동이 있은 후 수병들은 로버츠 중위가 자기들을 상륙시키기 위하여 희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감격한다.

수일 후 승무원들은 위필(僞筆)대회를 열어 함장의 사인을 위조하여 로버츠 중위의 전속 원서를 인사국에 직송한다.

그 결과 로버츠 중위는 오키나와(沖繩) 전선의 구축함에 전속된다. 일등은 송별 기념 선물로서 야자수를 모방한 황동의 훈장을 만들어서 증정하였다.

여전히 지투하고 따분한 그날그날이 계속되고 있는 리랙턴트 호에 로버츠 중위 최초의 편지가 왔는데 동시에 그가 일본 특공기의 공격을 받고 전사하였다는 통지가 왔다. 겁쟁이의 팔버 소위는 아연 분기하여 두 번째의 야자수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대단한 표정으로 함장실에 꾸념을 하러 간다.

(끝)

신작영화소개(新作映畫紹介)

해저 2만리(海底二萬哩)

20,000 Leagues under the sea

월트 디즈니 영화(映畫)

시네마스코프



「사막은 살아있다」 월트디즈니가 제작한 시네마스코프(총천연색의 공상과학영화로 1954년도 작품.

19세기 후반의 불란서의 공상과학소설가인 쥘 베르네³⁵⁾의 원작을 알펠튼³⁶⁾이 각색하고 리처드 후라이셔³⁷⁾가

독하였다.

촬영은 후란쯔 푸레이너³⁸⁾, 해저 촬영은 릴 개바리, 작곡은 포올스미스³⁹⁾가 담당하였다.

주연은 「유리씨즈」의 키크 다글라스⁴⁰⁾, 「스타 탄생」의 제임스 메이슨⁴¹⁾, 포올루카스⁴²⁾, 피터로레⁴³⁾이며 로버트 J 윌크⁴⁴⁾, 카알튼 영⁴⁵⁾, 테드 쿠퍼⁴⁶⁾ 등이 조연한다.

1866년부터 3년간 세계각지의 바다에서 선박이 정체불명의 괴물로부터 습격을 받고 침몰하였다. 그 정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조사함 '린컨'호의 파견을 결정하고 불란서의 해양학자 아로낙스 박사(포올 루카스), 그 조수에 콩세유(피터 로레), 캐나다인 어채(魚探)의 명수 네드 랜드(키크 다글라스)의 3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났다. 이 귀항을 결심한 그날 밤 해중(海中)으로부터 출현한 괴물과 충돌하여 순식간에 침몰하였다. 승무원 중에서 박사 콩세유, 네드만이 살아서 해상을 표류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거대한 잠수함에 구조되었다. 이 잠수함이 바로 괴물의 정체인데 함장의 이름은 네모(제임스 메이슨), 함명(艦名)을 노틸러스라고 하였다.

함내는 호화롭고 조화(調和)있게 장식되어 있으며 최신식으로 발달한 과학에 의하여 운항되는데 1개월 이상이나 계속해서 잠

40) Kirk Douglas

41) James M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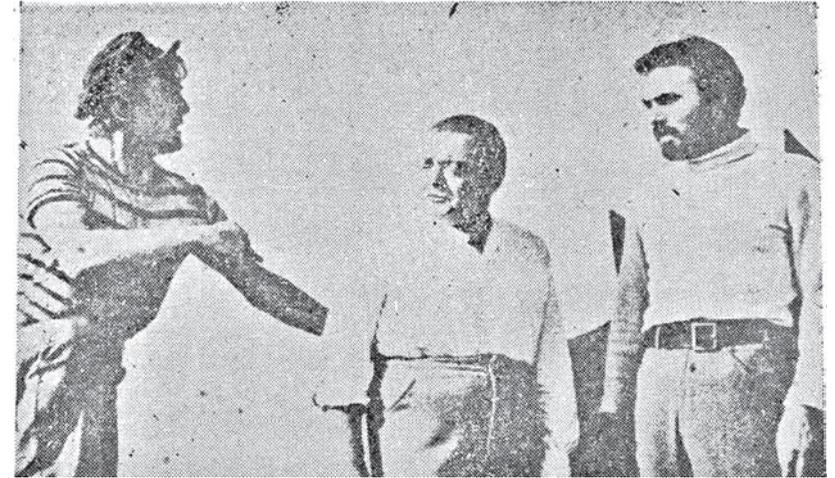
42) Paul Lukas

43) Peter Lorre

44) Robert J. Wilke

45) Carleton Young

46) Ted Cooper



태평양 상을 조사하기 3개월, 목적하는 괴물은 발견하지 못한 채 함장

수하며 여하한 수압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은 1년이 경과되어도 동력원의 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박사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잠수함은 부상(浮上)하고 네모는 박사를 어떤 섬에 안내하였다.

그곳에는 많은 수인(四人)이 흑사당하고 있었다. 네모는 일찍이 정치범으로서 그 섬에 수용되었었는데 동료와 함께 탈출하여 비밀의 섬 발케니아에서 잠수함을 건조한 것이다.

그날 밤 섬을 향해서 오는 화학수송선을 격침한 노틸러스 호는 발케니아로 향했는데 탈출의 기회를 엿보던 네드가 비밀리에 병(瓶)에 든 문서를 표류시킨 것이 연합대에 발견되어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노틸러스 호가 좌초하자 포격을 당하여 침몰하고 게다가 거대한 오적어(烏賊魚)에 말렸다. 위기를 모면하고 발케니아도(島)에 도착한 네모는 박사 이하 3인을 보트에 태워서 탈출시키고 잠수함과 공장을 일거에 폭발시켰다.

충천하는 버섯형의 폭연(爆煙)을 바라보는 박사는 말하기를 저 동력이 인류의 평화에 공헌한다라고 말한 네모의 말을 상기하는 것이었다.

어느 예술가(藝術家)의 생활삽화(生活挿話)

에토르 베를리오즈 작곡(作曲)
환상교향곡(幻想交響曲) 작품(作品) 14번(番)

개설(概說)

이 환상교향곡은 소위 고전 형식을 엄밀하게 지킨 교향곡이 아니다. 베를리오즈가 말하는 고정관념(idea fixe)이 주제로서 역할 하였다는 점에 교향곡 중 에 넣는다 해도 무방하며 그와 동시에 이것은 아무래도 표제음악(program music)이라 하겠다.

표제음악이란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를리오즈가 창시자라는 설이 일반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의 회상록에 조랄드네발 번역으로 된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것을 잠시도 놓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그 생애 중에서 특기할만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해서 「파우스트의 겁벌(劫罰)」이라는 작품을 썼으며 이것은 「파우스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셰익스피어 극 여배우 헨리 에트 스미스슨과 사랑이 원만히 결실되지 않는데 고민하며 환상을 지니었고 이것이 환상교향곡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때의 나의 고통이란 소홀히 얘기 할 수는 없다. 후벼 파내는 듯한 가슴의 아픔, 두려운 고독, 공허한 세상, 열음같이 싸늘한 피가 혈관을 흐르는 듯한 고민, 살기도 싫었으며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다.”

이것이 그의 회상록의 한 구절이지만 중국에는 스미스슨 양과 결혼을 했다.

이 교향곡을 창작하는데 「파우스트」의 영향을 받은 것은 「푸록크 산」과 「왈풀기스의 밤」의 장면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고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히 처리했는가 하면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제3악장 아다지오는 2, 3주일 이상을 애를 쓰면서 몇 번이나 붓을 던졌다가 다시 들어서 완성시켰고 「형장의 행진」은 하룻밤에 써버렸다고 한다.

아돌포 주리안(Adolphe Julien)의 「에크돌 베를리오즈의 생애와 작품」이라는 저서에 재래의 관점과는 달리한테 베를리오즈에게 불리했다.

베를리오즈는 스미스슨 양이 파리에 없는 동안 다른 미인에게 마음이 끌려 첫 교향곡 최후의 2악장을 첫사랑에 대한 복수로 썼으니 이 첫사랑이 정신적인

무엇을 여배우에게 느끼지 못한 만큼 이 사랑의 가치는 없었다. 그는 복수하겠다는 욕망이 있었기에 주요 주제 즉 두 가지의 인정관념(因定觀念)을 잡치고 말았다. 그 표제의 초안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랑에 광란하는 지옥적 악마의 묘사를 아편 빠는 데에 이루어지는 두려운 환상으로 표현할 정도 충분한 타협적이었다고 하지만 이 복수의 동기를 멀리하려는 고심을 엿보게 한다.

제2표제는 그의 후기작품을 서정적인 독백극 레디오 혹은 생의 부활과 이 교향곡과 결부시켰고 예정되어 있는 음악회를 위해 짰다. 이 표제에 의해 그를 다시 존경하게 된 영국 여배우를 획득하려고 충분히 효과를 냈다. 이 표제에 의해 5악장 전부를 ‘아편 빠는 예술가의 꿈’과 ‘광란의 상(像)’을 묘파(描破)했다. 제1초안에는 최후의 2악장만을 아편 빠는 데서 일어나는 환상으로 되어 있으나 제2에도 이와 같이 변경시켰다.

이상이 주리만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이것이 표제의 제1초안과 제2초안과 상위(相違)되어 있는 것으로 결론되었지만 베를리오즈에게는 불리했다. 먼저 표제의 초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1832년에 출판된 악보엔 다음과 같은 표제가 기재되어 있다.

“사랑에 미치고 인생에 염증이 나 젊은 예술가는 아편을 판다. 독약의 분량은 죽음에 도달하기에는 약하고 깊은 잠에 취해 꿈을 맺는 결과뿐이다. 그 중에 예술가의 사랑 얘기가 재현되고 환상적인 공포의 결말로 이끌어 간다.”

제1악장=꿈, 정열(Reveries passions) 이것은 끝없는 사랑의 시기와 연인과의 회합이 묘사되어 있고 표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최초의 불안한 심리상태의 젊은 예술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명하니 동경, 고민, 즐거운 흥분을 생각한다. 이것은 연인을 만나기 전에 그의 감정이다. 돌연 마음속에 타기 시작한 열렬한 사랑, 거의 미칠 것 같은 마음의 변뇌, 질투의 불길, 다시 연소되는 연정, 그리고 종교적인 위안을 상기(想起)한다.”

도입부=라르고 4분의 4박자 C단조(短調).

이것은 연인의 출현에 따른 예술가의 심경을 그리고 최초의 2소절에서 과도한 압박된 감정이 묘사되어 있다. 표제의 우울과 암흑의 동경은 바이올린의 긴 리듬으로 시작된다. 제8소절 즉 악구(樂句)의 끝맺음에 있어 화현(和弦)이 괴로운 감정의 최정점을 나타낸다. 도입부는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2부는 마치 표제의 ‘특별한 이유 없는 흥분’에 대조된다.

이것은 먼저 제1바이올린이 나오고 점차로 다른 악기가 나온다. 12소절 째에 또 한 번 먼저 리듬이 역시 제1바이올린으로 시작된다. 제3부는 쾌활을 어느 정

도 찾아내게 한다. 사랑하는 음악가의 정신은 좀 더 밝아지나 이것은 장조(長調)로서 알게 되며 뒤이어 흐른 이 다른 리듬으로 나오고 바이올린은 약음기(弱音器)를 떼며 즐겁고 원기왕성한 진행에 합친다.

주부(主部)=알레그로 아지타아트 에이파쇼나타 C 장조 8소절의 서주(序奏)에 풀플과 바이올린이 유니손으로 연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주제를 연주한다. 슈만은 그 가운데에서 냉정한 영국 여성을 표현했다고 하였다.

교향곡의 모든 악장을 통해 이것은 단편적인 반주로서 유도 동기를 나타냈지만 베를리오즈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악장 내용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높은 의의를 지닌 예술적인 처리이다. 이것은 베토벤이래 교향곡의 역사가 흥미한 본질적인 진보이고 이러한 종류의 악곡 장래가 열려지는 출발점이었다.

제2악장

월츠, 알테그르 논 으롭포. 8분의 3박자 A장조 무담회(舞踏會)(Vn bal) 표제는 “변화한 제전(祭典) 중에 열린 무담회에서 그는 다시 연인을 찾아낸다.”로 되어 있다. 이 악장은 외면적으로는 엄숙하지만 내면적인 온화한 시, 극(劇)적 생명을 지닌 우수성이 있다. 슬퍼하는 트레모로의 짧은 서주(序奏)에 음악은 독일풍의 월츠로 되며 이것은 제1바이올린에 의해 돌체로 연주되는 리듬을 여기서도 고정관념은 아름답고 군중 가운데서 연인과의 회합을 나타내고 있다.

제3악장=아다지오 8분의 6박자 F장조 들판의 정경(Scene aux champ). 이 악장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어느 여름 저녁, 들에서 교대로 양치는 노래를 부르는 두 목동을 예술가는 묻는다. 이 목동의 이중주.

이 장면에 고요히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속삭임, 최근 밝아진 희망이 그 마음에 무한의 안정을 주어 그 생각에 가엾은 색채를 부여한다. 여기서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난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를 버린다면…… 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서감(序感)이 들어 그 마음에 안긴다. 한 목동이 다시 피리를 분다. 다른 목동이 호응을 못한다. 일몰 먼 곳의 천동(天動), 고독 정적 음악은 목동의 노래 부르는 데서 잉그리쉬 호른과 오보와의 대화로서 시작되며 전(全) 관현악이 전원적 리듬으로 가해지며 극적 악구(樂句)로 나타난다. 이것은 의혹과 희망과의 사이에 동요되는 마음의 언사이다.

이 악장은 기분의 묘사와의 독특한 혼합을 나타낸다. 베를리오즈는 정신상

태의 극적인 표현과 외계의 풍경의 직관적인 시적 재현을 결부시키는 기술을 납득하고 있다. 이 악장은 그 최중에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을 다분히 연상시키며 그 주요 주제는 풀플과 제1바이올린으로 가장 약하게 연주되어 퍽 가요적인 감상을 준다.

제4악장=형장의 행진(Marche auspplice) 알레그로 논 트롭포 G단조, 4분의 4박자. 이 악장의 표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젊은 예술가는 꿈을 군다. 그는 연인을 죽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 나간다. 이 행렬에는 어느 때는 어둡고 거지러운 행진곡, 또는 빛나고 변화한 행진곡으로도 된다. 거지러운 발작이 계속되며 곧 음산한 규칙적인 걸음이 된다. 드디어 새로운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사(死)의 타격을 때려 부셔 최후의 사랑의 추상(追想)이 일순(一瞬) 나타난다.”

이 악장을 가지고 젊은 예술가의 아편의 꿈은 모험적인 전기가 된다. 이 전기에 의해 베를리오즈는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프랑스 낭만파의 신봉자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시적인 의도에 대하여 음악이란 두렵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한 목적은 관현악법 수단의 빈약으로는 도달할 수는 없다. 곡은 약음기를 붙인 호른의 짧은 리듬이 바이올린의 6연음부, 첼로, 베이스의 피치캣트로 반주되며 피이닛시모로 시작된다. 점차로 강해지며 전 관현악의 강한 연주, 급(給) 두개의 피치캣트 큰북과 탄파니의 트레모로가 다시 연인의 생각이 떠오른다. 최강의 첼로와 베이스와의 유니손으로 나타난다. 일시 끊기었던 탄파니의 트레모로는 한 번 울리고 행진곡의 리듬이 관(管)으로 연주되며 주제의 반주 가운데에 군중의 고향성, 슬픈 주요 주제는 다시 나온다. 전 관현악에 의해 최강으로 끝난다.

제5악장=악마의 축일(祝日) 밤의 꿈(Songe d'une nuit du Sabbat)의 중심은 최후의 악마의 론도이다. 이것은 전회(全回)의 3분지(分之) 1가량 진행되어 시작된다. 표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젊은 예술가는 무서운 유령과 마법사 등 각양각색의 형태를 한 괴물이 섞여 마녀의 춤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 괴물은 그의 매장하는데 입회하고 있다. 감상(怯常)한 소리, 탄식, 너털웃음, 멀리서 부르짖는 소리, 이것 등에 다른 부르짖음이 호응한다. 가냘픈 리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마녀들 춤의 격에 맞춰져 있다. 그 도착에 즐거운 감정이 미소를 보낸다. 그들은 지옥에 무례한 회합에 가담한다. 죽음의 부르짖은 ‘노여움의 날’, 광시(狂詩), 마녀의 원무, 론도와 ‘노여움의 날’은 동시에 연주된다.

중심이 되는 악마의 론도는 알폴기수의 밤 마녀의 잔치를 묘사한 것이다.

그 외에 모두 속도가 변한 짧은 악구이다. 최초의 랄렛트는 현(弦)의 트레모로, 저음의 6연부, 튜인파니로 시작되며 표제 중에 짐상한 소리에 호응한다. 그 중에 닭 울음소리 흉내가 특히 눈에 뜨인다.

여기서 계속되는 알테그로는 8소절로 크라니넬의 최약음에 의해 고정관념이 연주된다. 이것은 짧지만 튜파니와 큰북과의 트레모로의 반주에 의해 악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광란하는 알레그로가 계속된다.

이것은 표제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로테스크한 무곡(舞曲)의 리듬으로 응한다. 고정관념은 좋지 않게 변하며 크라니넬이 나온다. 정경은 돌연 변화를 일으키며 저음(파골첼로 현 베이스)의 엄숙한 실서조(室絃調)로 움직인다. 계속해서 노여움의 날이 파골과 두 개의 튜바가 연주된다.

이것에 벨이 첨가되어 악마의 론도는 최강으로 연주되는 전 관현악의 1개의 4분음부에 계적되어 첼로와 현 베이스만 이 짧은 리듬을 연주하는데서 시작된다. 이 악장은 하나의 주제위에 만들어지는 '후가'이다. 이것은 최초 제2바이올린으로 연주되며 계적해 제1로 옮겨지고 점차 관현전악(管絃全樂)으로 퍼진다. 이것은 중간 악장에 의해 잠시 중단되지만 다시 '노여움의 날'의 리듬이 악마의 론드와 합쳐진다. 얼마 있다가 현의 콜레노(활의 등을 현으로 치는 주법(奏法))에 의해 독특한 효과를 내며 계적해 관(管)이 스타카토를 연주하며 최강으로서 곡이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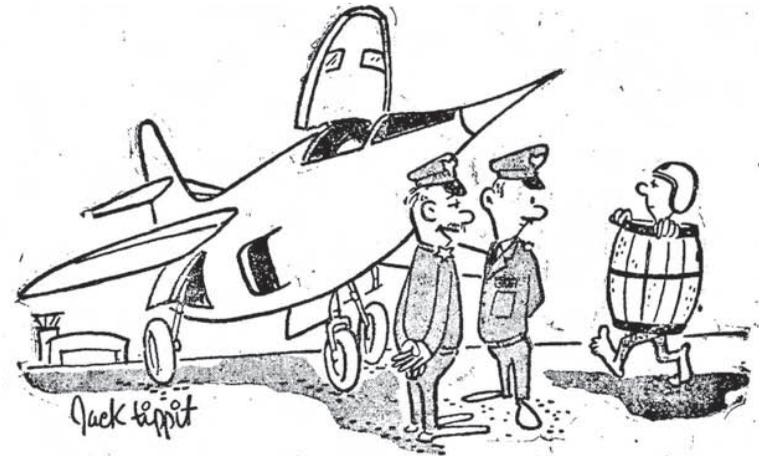
(필자(筆者) 국민음악연구회회장(國民音樂研究會會長))

☆ 원고모집(原稿募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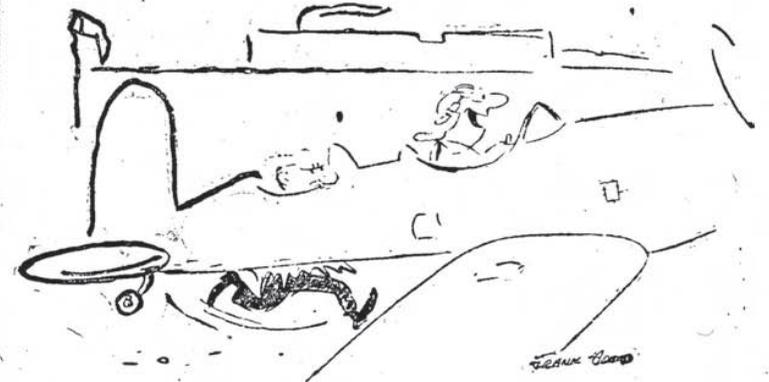
장병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모집하오니 매월 15일까지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1. 논문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1. 소설 " 60매 이내
- 1. 수필 " 20매 이내
- 1. 콩뜨 " 20매 이내
- 1. 번역물(翻譯物) " (출처 명기(出處明記)) 40매 이내
- 1. 시 2편 이내

제출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정훈과 「코메트」 편집실



속도기록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과잉중량은 없애기로 했지!



이 비행기는 낚았을망정 이륙은 빠리한다네!

깍연(喫煙)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는 사라질 것인가? 다시 늘어가고 있다
궐연(捲煙)의 궐연은 다시 늘어가고 있다.

1952년 처음 6개월 동안: 2,100억 개

1953년 처음 6개월 동안: 2,110억 개

1954년 처음 6개월 동안: 2,010억 개

1955년 처음 6개월 동안: 2,070억 개

필터팁, 킹사이즈 담배가 유행(流行)되고 있는 이유(理由)

올해에 미국에서 판매된 권연의 5분의 1은 흡구(吸口)에 여과물(濾過物)을 넣은 필터팁 담배였다. 이것은 권연이 암이나 심장병을 가져온다는 그 말썽 많은 보고에 뒤이어 일어난 변화이다.

미국의 애연가들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다시 전과 같이 많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담배를 피우게 될 것 같다.

X X X

미국의 권연애호가들은 다시 연기를 내뿜기 시작하였다.

1954년, 권연을 피우면 폐암과 심장병에 걸린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논의된 후부터 저락하여온 판매고는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 금년에 애연가들은 작년보다 6억 갑이나 더 권연을 피우고 있다.

필터팁이 달린 담배는 점차로 유행되고 있으며 필터가 달리지 않은 긴 담배도 계속하여 늘어가고 있다. 필터가 달리지 않은 표준 사이즈의 담배만이 줄어들고 있다.

연초제조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초업계의 고용률이 절정에 달하고 있고 고도로 번창하고 있는 것은 담배의 판매가 늘어가는 덕택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증가도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1952년과 1953년 초기의 권연소비량은 아직도 기록을 견지하고 있지만 1955년의 4,140억 개의 권연은 그 기록에 접근하고 있다. 미 농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권연의 궐연은 1956년에도 계속하여 꾸준히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1954년에 근 5% 감소되었던 판매고의 저락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어온 권

연 궐연의 한 변동이 있다. 1920년대 말기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동안에 궐연의 흡연은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이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궐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미국암연구회의 후원을 받은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러한 연구의 하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도 애연가 사이에 폐암과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보고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권연이 병을 발생한다는 증거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애연가들은 조심을 하고 있다.

실지로 조사한 미국 인구조사국에서는 과거 1년 6개월 동안에 150만 명의 미국인이 담배를 끊었고 3천8백만명이 여전히 권연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담배로 옮겨가고 있다.

큰 변동은 필터팁이 달린 담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연초제조업에 대한 뉴욕의 한 고문인 해리 M. 우튼 씨는 금년에 판매된 권연의 5분의 1은 필터팁 담배라고 말하고 있다. 작년에는 10분의 1밖에 안 되었고 1953년에는 불과 30분의 1이었던 것이다.

보통 권연보다 10분의 6인치 더 긴 킹사이즈는 약간 길다는 이유로 역시 필터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킹 사이즈 담배의 판매는 3년 동안에 근 3배로 증가하였다. 연초제조업계의 대변인들은 킹사이즈를 피우기 시작한 많은 애연가들은 전보다 그들이 피우는 담배의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총판매고는 약간 감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애연가의 절반은 필터팁과 킹사이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은 5분의 4의 애연가가 보통 사이즈를 피우고 있던 3년 전에 비하여 큰 변화인 것이다.

연초산업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미국 농무성 당국에서는 권연 궐연대 의학적 보고와의 충돌은 이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초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판매고가 저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

외지(外誌)에서

인간(人間)의 신체(身體)는 발달(發達)한다

훈련(訓練)으로 음악(音樂)·체육(體育)에
경이적(驚異的) 업적(業績)

인간의 신체는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과학소설가는 필연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반증하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영국의 유명한 신문 「데일리 밀러」지(紙)는 이 문제를 사설로 취급해서 “인간은 강해졌다.”라고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어 다음에 그 요지를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X X X

어느 과학소설 작가의 지론에 의하면 미래의 인간은 머리통만 크고 몸뚱이는 작은 기묘한 동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두뇌는 발달하지만 신체는 왜소해진다는 것이다. 걷는 것, 일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기계로 해치우는 시대가 되면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족이 자연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은 일견(一見) 사리에 맞는 예언이라고도 보겠다. 그런데 실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대는 여러 가지로 경이적인 기적의 시대나 인간의 신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없다. 흡사히 인류가 창조되어 나왔을 때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제야 해결을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새로운 형(型)의 음성(音聲)

우리들은 가수인 제니이 존슨이 4옥타브 반—저음부의 5선보(五線譜) 아래 F에서 고음 5선보 상의 제2C까지—의 성역(聲域)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음과 같은 생각에 도달하였다.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나의 음성은 새로운 타입의 음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까지 전연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보통사람의 성역은 2옥타브에서 2옥타브 반 정도인 것이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새로 출현한 영국의 여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한 발성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의 베이스(Bass)의 최저음에서부터 여성의 소프라노(soprano)의 고음까지 부를 수 있는 결과는 오직 훈련의 결과인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재료가 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까지 불가능이라고 도외시하여 왔던 것들이 다시금 인체에 요구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 같은 요구는 점차로 충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위치만 조금 틀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애를 써가며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제니이 존슨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체육계(體育界)의 기적(奇蹟)

이번에는 음악에서 체육으로 눈을 돌려 보기로 하자! 이때까지는 1리를 4분 이내로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영국의 유명한 장거리 선수 로자아 바니스타아가 재작년에 3분 59초 4의 기록을 수립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그런데 다시 호주(濠洲)의 존 란디 선수는 작년 6월에 3분 58초 0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이것을 깨트렸다.—그리고 인간은 음속(1초에 331.5m) 이상의 속도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원(不遠) 보통여객기도 음속 이상의 속도로 하늘을 날을 시대가 올 것이다.

또 이때까지는 기관총의 방아쇠만 당기고 있으면 된다고 하면 군인들의 체위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제2차 대전은 가장 기계화된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건장한 군인들이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체의 적응성이 승리를 거두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였기 때문이다. 격렬한 훈련은 처음에 극히 우수한 소수의 군인들에게만 과(課)해 져었는데 드디어 일반화하여 이것을 받지 않는 군인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일반 대중도 준엄한 시련에 견디어 왔다.

영국이 폭격을 당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것처럼 신경을 상하지 않았었다는 증거로서 자살률이 놀랄 만큼 저하한 예도 있다.

옛날 영웅호걸들의 지략이나 술수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어린 학동들도 문 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따위가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러니 미구(未久)⁴⁷⁾에 있어서도 토로이의 헤렌 같은 여자도 모름지기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을 상 싶다.

- 아니 아름다운 환상은 어느 정도 그대로 추상하는 것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올지도 모른다.

- 현대여성은 확실히 미인이 많다.

그리고 또한 무구(武具)로 판단할 때 중세기의 기사들은 왜소하였음이 틀림 없다. 그것뿐 아니라 모르면 몰라도 2대(代) 전의 놀라운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나 체육가로 오늘날 볼 때 그다지 훌륭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47) 원문의 美口는 未久의 오기로 보임.



정비사좌담회(整備士座談會)

일시: 1956년 2월 9일 15:00~16:30
장소: 제1훈련비행단 정훈관실

〈참석자〉

공군대령 이(李)규석 (제1정비보급 전대장)
공군중령 정(鄭)한두 (제1정비보급 부전대장)
공군중위 이(李)원의 (제1정비보급 부대정비대 시간점검 대장)
공군중위 김(金)전철 (제1정비보급 야전정비대대 정비관리 및 검사실장)
공군중위 김(金)영수 (제1정비보급 야전정비대대 제작대장)
공군이상 김(金)용문 (제1정비보급 정비사)
공군일중 평(平)무경 (제1정비보급 정비사)
공군일중 김(金)삼주 (제1정비보급 정비사)
공군일중 이(李)수백 (제1정비보급 정비사)
공군일중 박(朴)병선 (제1정비보급 정비사)
공군이중 이(李)홍로 (제1정비보급 정비사)
사회: 정훈관 공군대위 김기점(金基漸)

인사의 말

근무에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전대장, 부전대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의 하나로서 여러분을 모시고 그야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은 용사로서 노고의 길을 걸어오셨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곧 이 나라를 위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싸워왔다는

송고한 정신임을 받들어서 널리 여러분의 노고를 우리 공군장병에게 알리는 동시에 일반국민에게도 알림으로써 한층 더 우리 앞날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전대장, 부전대장님 이하 여러 정비장교님 그리고 일선정비에 임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좌담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 먼저 기간에 있어서 직접 정비사를 데리고 주야로 애쓰시는 전대장, 부전대장님께서 자기 부하에 대한 어떠한 심경이 있으실 터인데 그 심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대장: 그저 고맙습니다. 이런 정비사 좌담회란 제가 여러 해 이 기지에 있었지만 이번이 처음이고 보니 사랑하는 나의 부하인 기름투성이 정비사들에 대한 그 애처로운 것을 씻어주는 것만 같고 또한 우리 정비사가 더욱 더 일 잘할 것만 같아 기쁩니다. 할 말도 많건만……. 우리 부전대장님 말해보십시오.

부전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정비사를 잘 알아주시는 정훈관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부전대장이라는 직책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전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비, 보급, 수송,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인적, 물적인 것을 총집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정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비장교나 정비회사관의 계급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고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 충실한 근무를 해야 하며 물론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의와 기술이 결합해서만이 우리의 정비사들의 임무가 완수될 것이며 또한 우리 전대의 임무가 완수될 것을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술능력을 알고 있어야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하는 이면에는 어떠한 애로가 있는데 그 애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될 뿐입니다. 특히 남보다도 특이한 기술을 갖고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하들에 대해서 그 마음은 항상 충성되고 자기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정신의 발로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은 그네들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부전대장님께서 아주 정이 두터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신 김 중위님에게 한마디 물었는데 김 중위님은 직접 정비사를 데리고 일하고 계시지요?

김 중위: 네!

사회: 정비사를 데리고 직접 공장에서 기름투성이 옷을 입고 해머를 두들기면서 일할



때의 그때 심경은 어떠하신지요?

김(건철) 중위: 제 자신이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에는 전부가 기술자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첫째 자칫 잘못해서 기술적으로 실패가 있다던가 기술부 내에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선배들이 많아서 서로 물어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모를 때에는 언제나 서슴지 않고 물어볼 때가 있으므로 자신만만히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정비사는 솔직담백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진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비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솔직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숨김없이 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략 느낍니다.

사회: 그럼 그야말로 솔직한 일꾼이 곧 정비사이겠군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거기 김 상사 말해주면 좋겠는데 김 상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김 상사: 과거에는 정비를 하다가 지금은 인사행정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과거에 정비를 하던 때와 현재 인사행정을 보고 있는 때와 특이한 점을 말씀해주면 좋겠는데.

김 상사: 제가 과거에 정비사라는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비사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아웃라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라면 쉽게 말해서 아주 심한 노작의 대상이 될 만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때 정비사의 일상 노동력으로 보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에너지 소모로 보아서 노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사에게는 좀 더 인위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누구보다도 고통이 많다는 것을 살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다음은 평 중사! 직접 정비하고 있지요? 정비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면 좋겠는데요.

평 중사: 저는 부대에 배속되어 가지고 정비만 3년 했습니다. 정비사의 생활은 어떤 취미를 갖고 일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같이 기상하여 아침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얘기에 가서 얘기에 덮여 있는 커버를 벗겨주면서 “잠 잘 잤느냐?”, “어디 다친 데가 없느냐?”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시운전을 합니다. 이때 얘기의 컨디션이 나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침 식사 기분도 나지 않고 ‘그 비행기는 어디가 나쁜가?’ 이런 생각뿐이고 골머리를 앓다가 얘기의 고장을 탐구해 가지고 얘기가 OK 될 때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맛볼 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매일같이 저는 여기에 취미를 붙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선정비사의 실감이 나는데요!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다음 또 누가…….

이(홍로) 중사: 잘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비사 외의 전 장병에게 이것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병들에게 “정비사가 무엇 하는 사람이나”하고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비행장에 나가서 보로나 들고 비행기를 닦는 사람 정도로 밖에 답이 없을 겁니다. 이것을 정훈관님께서만 사

람들에게 대해서 저희를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

라인 근무에서 제가 제일 쾌감을 느낄 때는 무더운 여름날 새벽 일찍 먼동이 트기 전에 비행기에 올라가서 시운전을 할 때 그 시원하고 기분 좋은 것은 사실 정비사로서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요.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폭소)

사회: 하, 하, 좋은 얘기! 사실 이 중사 말대로 실제 해보아야만 그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터인데 그러나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중사, 정비사 생활을 하면서 여가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옷을 세탁한다든가 즉 무엇을 하는지요?

이(홍로) 중사: 시간이 있을 때면 기름강아지 옷빨기가 일수입니다. ‘이것 어디 났나 사내놀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성)

그 외 시간이 있을 때면 독서도 하고 친지들에게 편지도 씁니다. 좀 말이 다르지마는 상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옷이나 신발, 세탁비누 이런 것 좀 더 내주시면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곤란하겠지만, 또 하나 제가 현재 정비계통의 점검을 맡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과거 기술학교에서 조교생활을 1년 반 해왔고 점검계통을 가르쳐 왔기에 여기 오면 자신만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기 와 보니깐 기술학교에서 일 할 때와 차이는 전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남보다 좀 난 것 같았지만…… 정비교육은 철저히 하려면 직접 자기가 실제로 정비를 담당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인 만큼 테스트플라이 비행기가 뜰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 비행기가 내려와서 조종사로부터 OK라는 사인을 받을 때 제일 마음이 놓이고 다 끝나고 식당에 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다과가 들어오다)

사회: 이거 안 됐습니다. 우리 정훈관실 살림살이가 원래 부족해서…… 자 드시면서 합시다. (다과를 들면서)

이 중위: 정훈관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가끔 부탁드립니다.

(소성)

사회: 그러면 이 중위님 전번 신태양사 기자가 왔을 때도 애 많이 쓰셨는데 이 자리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정비사와 조종사와의 사이를 좀 말해주시면…….

이 중위: 글썽요.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정비사는 조종사의 모체라고 할까요. 계급을 떠나서 어머니 격이지요. 말하자면 자기가 조종사로 하여금 이상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정비사가 아들의 비행 사고 없도록 하는 그런 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지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종사하고 정비사의 관계가 이런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속임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정비사는 그들에 대해서 속임이 없어야 될 것이고 마음 가운데 정직하여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비가 그런 치밀한 작업을 하는데 자기

가 귀찮기 때문에 눈을 감는다거나 거짓이 있다면 공중에 올라가서 큰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많지요. 첫째 솔직담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 정비사나 조종사는 솔직담백해야 될 것이 제일의 모토이겠군요. 그럼 간혹 일을 하는 가운데 조종사로부터 기분 나쁜 일을 당한다든가 불쾌감을 느낄 때는 없는지요?

이 중위: 네! 없습니다. 간혹 있다면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조종사들은 자연 신경이 날카로워서 비행기에 약간 컨디션이 나쁘면 신경질도 나겠지요. 무리도 아닙니다.

사회: 미워서 그런 것보다도 신경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랑이 넘치면 부부 간에도 간혹 싸움이 있는 법이니까요.

(소성)

지금까지 정비사의 고생, 애로에 대해서 말만을 많이 했는데 다음은 정비사로서 자랑할 만한 점도 많이 있을 터인데 거기 김 중사 얘기해보지요.

김(삼주) 중사: 저는 4년간을 한결같이 일선 정비만 해왔습니다. 자타가 말하다시피 산돼지 기름강아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장병들과 같이 기상해 본격적이고 저녁에도 일찍 돌아와서 밥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에 정비하러 라인에 나갈 때면 하늘에 별이 있고 하루 일을 마치고 내무반에 돌아올 때도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사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이 한가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니면 공군이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될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물론 '공군에 있어서 조종사가 앞서지만 만일 정비사가 없으면 그 비행기는 뜨지 못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나 일반사회에서는 정비사면 추저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정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고심 끝에 고치고 나면 그 기쁨과 자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비행기를 고칠 줄 안다.' 생각할 때에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매일 기름을 만지고 습성이 되어서 몸차림이나 행동이 거뜨하지 못해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사귀려 들지 않는 게 아주 골칩니다.

(소성)

사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처녀들이나 여학생들이 따르지 않는데서 오히려 정비사라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수백) 중사: 저는 외출 나가면 여자가 너무 따라서 걱정인데

(소성)

전대장: 그저 이렇습니다. 주책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우리 정비사들이지요. 참으로 거짓이란 모릅니다.

사회: 김 중위님 잡수시는데 안됐습니다.

(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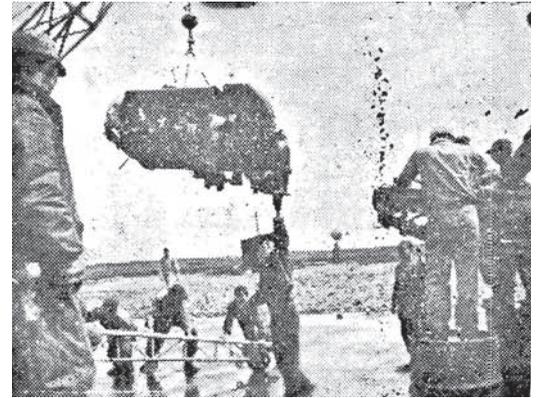
몸을 돌봐 잡수야지요. (소성)

김 중위님 결혼하셨지요?

김(영수) 중위: 네! 했습니다.

사회: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의 정비 생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김(영수) 중위: 결혼 전에는 마음이 수시로 동요하지요. '딴 데로 전속이나 해볼까?', '근무처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데 막 결혼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마음이 침착해진다고 할까요. 직장을 이리저리 움직이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 노는 날에도 그전에는 술이나 먹고



(T-6 엔진 취부(取付))

그러던 것이 상례였지만 결혼 후에는 자연 마음이 침착해지고 생활에도 가족이 먹고 살아야겠기에 절약하게 되고 노는 날에 핑 사냥이나 이런 데로 취미를 돌리게 됩니다.

사회: 그러면 정비사들이 문명의 이기인 비행기를 만지는 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인데 특히 보건시설이 요할텐데요.

김(영수) 중위: 보건에 대한 대책이 극히 필요합니다. 각 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3~4년 되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폐가 나빠지는 것이 제일 애로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특수한 정비사의 보건상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빈약한 실정이지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사회: 시간도 여지간히 간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후배들에게 또는 여러 장병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박 중사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박 중사: 저는 통신학교를 나와 가지고 일선통신반에서 근무하는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정비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존재가 없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정비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침 다른 정비사들과 같이 일찍 기상해서 정비사와 같이 비행기 후방좌석에 들어가서 라디오 체크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괜찮지만, 비행기가 한두 대가 아니고 인원은 적고 만약 라디오에 고장이 있으면 몇 사람이 모두 그리 달려듭니다. 요행이 잘 되면 문제없지만…… 워낙 요구 대수(臺數)가 많기 때문에 참 벅합니다. 배선계통에 고장이 있거나 하면 정말 땀 뻘뻘입니다. 말할 것은 많이 있는데 통신정비란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널리 인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상당히 애로가 많겠지요.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중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이나마 우리는 우리 공군의 50% 이상은 정비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제가 직접 정비에 종사해보고 사회에 나가서도 보았고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진에 부족하다는 점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이상 없이 우리가 비행 임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 과거의 통계상으로 볼 때에 정비사고라는 것은 적었고 미국인들에 비해서 정비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정비사고라는 것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기술수준이라는 것이 자칭이나마 우수하다고 할까 하이레벨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중위: 정비사는 솔직해야 되고 면밀해야 되겠지만 특히 근면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언행록에서 보았지만 5분간의 노고를 아끼지 마라!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비행기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은 이 계통과 순서를 밟아서 고쳐야 되는데 5분간의 노고를 아끼기 위해서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약식으로 고치는데 그것은 즉 계통에서 오는 것인데 곧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비사는 그 외에 다 같이 저 사람은 4년 종사했고 이 사람은 2년 종사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2년 종사한 사람이 4년 종사한 사람보다도 더 나은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비해 볼 때에는 한 사람은 확실히 적극적이고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적극적인 사람은 남이 못 고치는 것을 내가 한 번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대합니다. 항상 스스로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정비사관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을 참고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 전대장, 부전대장님 끝으로 무슨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부전대장: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가 군인으로서 마땅히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있고 가진 병력과 장비로써 가진 비행기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어 한껏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비사가 남모르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비행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최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이며 차차로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기술을 요하는 정비운영을 원만히 유지해 나가려면 역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장비란 것이 사회와 연결을 맺어지는 가운데에 원만한 운영이었을 것이고 우리의 기술자의 가치도 자연히 알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외국의 원조인 비행기 및 기체로써 우리 태극비행기가 날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으로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차차 우리 손으로 생산하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꾸준히 임무를 다하는 데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피와 땀 어린 근무를 하시는 숨은 용사인 여러 정비사들과 이 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쁨을 금할 바 없으며 끝으로 전대장, 부전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정비사들의 앞날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좌담회를 끝맺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

군인(軍人)을 위한 윤리(倫理) (3)

김기석(金基錫)

(필자(筆者) 철학자(哲學者) 사대교수(師大教授))

겨레의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겨레는 동방의 고족(古族)으로서 유대(悠大) 반만년 연면(連綿)한 한 줄기 줄을 그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동안에 우리 겨레는 많은 고난과 고된 시련에 만났다.

그러나 이것을 뚫고 이것을 제치고 바위틈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휘휘(揮揮)히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한족(漢族)이 나라를 세우던 아득한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은 이미 그들에게 우리의 예교(禮敎)를 전했고 그들로부터 문물을 받아드려 다시 이것을 튼튼히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는데 미쳐 동방의 문교(文教)여기에 의하여 그 빛과 생명을 받았다. 서(西)에서 한토(漢土) 서로 갈리어 물고 찢는 싸움터가 되었고 동(東)에서 왜(倭), 동서를 가리지 못하는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 우리 겨레는 꾸준히 덕(德)을 심고 의(義)를 세워 이것으로써 자기와 남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이 덕을 심고 의를 세우기는 국조(國祖), 몸소 이것을 베풀었고 부여, 이것을 이어받았고 삼국이 다투어 일어나 이것을 가꾸었다. 우리 겨레의 이 높은 이상이 허물어지는 바깥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혹독질한 때부터 인 것이니 고구려의 넘어감이 자세히는 겨레의 용마름보가 꺾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일어났던 동방의 족류(族類)들은 한 가지도로 쓸어져 없어졌고 지금은 구라파의 쓸쓸한 바람이 갠지스 강과 황하강[양자강] 언덕을 휩쓸고 있다. 인도(印度)는 어디 갔고 한족(漢族)은 어디 갔고 몽고(蒙古)와 청(淸)은 어디 간 것이나.

하늘이 태평양 동녘 기슭에 우리 겨레 한민족(韓民族)을 4천년, 5천년 동안 고요하게 간직해온 것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겨레의 동맥이 끊길락 끊길락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니와 이때마다 용하게 새로운 형세가 트이고 겨레의 의가 보존되어 굽지는 못 할망정 끊이지 않는 줄을 그어 오늘에 이른 것이니 우리들은 이제 하늘이 오랫동안 우리 겨레를 보호한 멀고 깊은 뜻에 돌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겨레의 선인들은 아득한 옛날 송화강(松花江)과 장백산 사이에 족류로서의 터전을 잡고 겨레의 우렁찬 역사를 엮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서기(西紀) 전(前) 3백 년경 처음 겪은 흥망이 이른바 진개역(秦開役)이었으니 이 진개역이란 것이 남을 믿고 그것을 자기 품안에 거두었다가 도리어 화단을 만난 첫 번 전란이었다. 이 진개역에 뒤이어 위만(衛滿)의 복새질과 한사군역(漢四郡役)이 연달아 마침내 민족의 고토(故土)를 빼앗기고 겨레의 기상이 쪼그라들게 되었다. 이 빼앗

김을 찾고 쪼그라짐을 펴려고 한 것이 고구려의 떨침이었다. 고구려. 씩씩히 싸웠고 기운차게 내어 뺐은 고구려. 이 고구려는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겨레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회복하는 깨끗한 독립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이 겨레의 광복을 위해서 싸웠다. 고구려 정신, 고구려 사람들의 기상은 한마디로 씩씩함이라고 부를 수 있거니와 고구려의 씩씩함은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씩씩함이고 남을 누르고 남을 삼키기 위한 거셈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씩씩함이 진(秦)이나 몽원(蒙元)의 침략, 구주열강(歐洲列強)의 제국주의와 같지 않음이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고구려, 그만 넘어간 것이다. 고구려의 넘어감은 로마의 넘어감과 같지 않다. 로마의 넘어감은 넘어가야 할 자가 넘어간 것이다. 고구려의 넘어감은 단순히 고구려의 넘어감이 아니고 겨레의 정신, 겨레의 독립이 언어감이니 고구려의 넘어감이 동양사(東洋史)에 있어서 하나의 슬픔이요 통(痛)한 것인 것이 이 때문이다. 고구려가 독립정신의 상징이었다고 하면 고구려의 패망은 다름 아닌 독립정신의 패망이었던 것이다. 고구려 패망과 함께 한민족의 역사는 기울어졌고 한민족이 기울어지면서 동양의 역사는 통째로 뒤집히고 흔들리어 동방의 정교(政敎), 이 때문에 병들기 시작했으니 오늘의 동양의 애달픈 운명은 이미 이 고구려 패망에서 그 씨를 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일어나 이 고구려의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어 받아 이것을 회복하고 또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겨레의 할 일은 겨레의 독립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민족자결의 정권'이니 '민족의 존영(尊榮)'이니 '민족의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라는 것 같은 말들이 모두 이 정신을 들어낸 것이다. 겨레의 5천년 사(史)의 일관한 이상이 이 겨레의 독립을 튼튼하게 하는 한 가지 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조(國祖), 나라를 연 우렁찬 모습과 삼국이 다투어 일어난 씩씩한 기상과 고려와 이조(李朝)를 통하여 맥맥(脈脈)히 흘러내린 물줄기, 모두 하나인 겨레의 높은 원(願)을 들어낸 것이니 아름답고 튼튼한 겨레의 나라를 세워서 동양사에 이바지 하려고 한 것이 겨레의 일관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겨레의 이 고귀한 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겨레가 자기를 튼튼히 세우려고 한 것은 남을 누르고 남의 위에 자기를 뽐내려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겨레가 의에 있어서 거듭나고 이 거듭난 새로운 겨레로 하여금 남을 이끌고 남을 일으켜 함께 더불어 의(義)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 우리 겨레의 소원이다. 독립선언서에

“오늘 우리 겨레의 독립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바른 길에 돌아가게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나아가 동양평화를 주요한 일부로 삼는 세계평화에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

우리 겨레의 할 일은 자기를 바로 세우고 남을 돕고 일으켜서 전체의 의(義)를 들어

내는 일이다. 국조, 나라를 연 우렁찬 이상 여기에 있었고 부여와 고구려 이것을 이어 받은 씩씩함도 여기에 있었고 동양사의 정언(定言) 명령인 3.1의 의도 여기에 있었다. 또 독립과 협동과 도의, 질서에 있어서의 독립이 겨레의 독립, 문화에 있어서의 독립이 민족문화인 것이니 겨레의 독립을 튼튼하게 하고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쌓아 올려 남의 겨레를 존중하고 남의 문화와 어울려서 하나인 의(義)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리 겨레의 의요 또 책무인 것이다.

역사는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을 헤매었다. 혹은 황하, 혹은 갠지스 강, 혹은 에게 해, 혹은 지중해, 이 모양으로 역사는 문명을 띄엄띄엄 세워 보기도 했고 그 돌아가는 말판을 돌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오래 헤맨 끝에 역사는 다시 동양에 돌아왔다. 새로운 역사의 터전으로서의 동양. 이 동양 지금 누구의 동양일까. 동양사는 인도와 한국과 그리고 근세 일본이란 떨어진 원(圓) 몇 개를 그리고 그만 희미해졌다. 서양사는 희랍(希臘)과 로마와 구라파란 연달은 곡선을 그려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의 서양은 구라파로 대표되고 오늘의 구라파는 공리주의(功利主義), 향락주의(享樂主義)로 대표된다. 우선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재미를 보고, 사나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빛나는 무기다. 털 한 가락을 뽑아 온 천하가 이롭게 되어도 내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의 구라파의 자세하는 구라파 문명의 혼이요 또 그 병인 것이다.

서양사에 있어서 에게 해에 바뀐 것이 지중해였다. 그리고 지중해에 바뀐 것이 대서양이었다. 오늘의 서양과 동양은 한가지로 이 대서양 시대에 놀리고 있다. 그런데 대서양 시대란 것이 다름 아닌 침략주의, 강권주의(強權主義) 시대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자는 이 침략주의 강권주의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라고 단정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역사는 커다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젖히는 신호다. 역사는 낡은 대서양 시대로부터 시원스러운 태평양 시대에 돌아온 것이다. 대서양 시대를 이끈 원리가 이(利)였다고 하면 태평양 시대를 이끄는 원리는 이 아닌 의(義)인 것이니 한민족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 의, 가꾸어진 새로운 동양사의 우렁찬 논리가 있는 것이다.

태평양과 의와 한민족과, 이 셋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의 한편 구석에 떨어져 있는 은심(隱深)한 지역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사의 한 복판에 빛나게 솟아올랐고 김포(金浦)공항과 수원(水原)공항은 런던비행장이나 파리비행장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눈부신 촉각(觸覺)이 되었다.

3천만 하나가 깊이 양심과 진리에 돌아가 새로운 역사를 조심스럽게 또 우렁차게 엮을 때가 돌아온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博士)의 회상(回想)

사후(死後) 1주년(一週年) 을 맞이하여

외지(外誌)에서

<천재(天才)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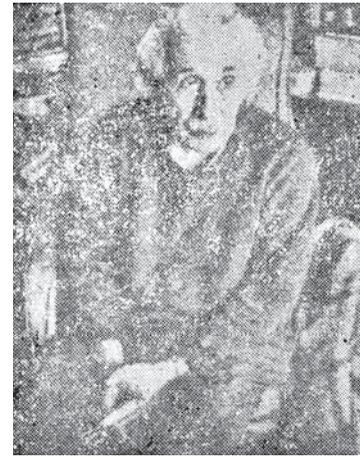


22년이란 오랜 세월을 두고 거의 빠지는 날이 없이 매일 아침 아무렇게나 입은 허술한 양복바지에 메리야스로 짠 푸른 색깔의 모자를 쓰고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 시 머서 가(街) 112번지의 조그마한 저택 현관을 나와 시내 일각에 있는 고등 물리학연구소의 연구실로 들어가는 그림자와 같이 남의 눈에

별로 뜨이지 않게 몸집이 작고 조용한 한 늙은이의 모습이 있었다. 얼핏 보기에 이 조마마한 늙은이는 집을 돌보는 수비가 아니면 나이 많은 원정(園丁)으로 생각되기에 알맞은 그러한 모양이었다. ‘파잎’의 담배 연기를 조용히 날리면서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기는 그는 남이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입을 여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허술한 모습이었지만 멋대로 흐트러진 백발과 늙은이답지 않게 맑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의 수척(瘦瘠)한 웃음기 없는 얼굴을 다시금 바라다보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흔히 볼 수 없는 종류의 특이한 광채가 돌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광채는 바로 인류의 과학적인 확신에 대하여 다시금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쌓고 역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주의 물질적 신비에 관하여 깊이 탐구의 발길을 들여 놓은 세기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만이 지닐 수 있었던 고매(高邁)한 예지(叡智)와 해박한 상상의 천재를 엿보여 주는 상징의 빛깔이 없던 것이다.

그러나 1955년 4월에 들어서부터 아인슈타인 교수의 그림자는 그의 애착이 깊은 연구소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담낭염의 숙병(宿病)은 마침내 그를 병상으로 이끌고야 만 것이었다. 위대한 천재의 생명을 이어오던 혈액의 순환은 그의 동맥 속에서 차츰 식어 들어가고 있었다. 밤 열두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그는 병석에 누운 이래 처음으로 독일어로 몇 마디의 말을 했으나 밤을 지키고 그를 돌보는 간호부의 귀에는 낯선 말이었던 까닭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현대가 낳은 세계 최대의 과학자의 임종의 말은 끝내 아깝게도 세인에 알려지지 못하고 말았다. 4월 18일 오전 한 시 15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향년 76세를 일기로 잠자는 가운데서 고요히 그 숨을 거두었다.

그의 과학의 천재가 모든 국경과 민족의 구별을 기월(起越)하여 넓은 존경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그의 죽음을 아끼는 애수의 뜻과 양(洋)의 동서와 사상적 대립의 좌우를 기월하여 세계 도처에서 표명되었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20세기의 인류의 지식을 넓히는 데 그 보다도 더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은 없었다.”는 말로서 그의 천재를 다시금 찬양했으며 소련의 공산당기관지인 프라다지도 그를 “자연과학



의 위대한 변형자(變形者)”라는 찬사로서 논설을 취급하였다. 또한 이스타 엘라 수상의 온 세계는 유례가 없던 천재를 상실했다는 말로써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인류(人類)에의 공헌(貢獻)>

이밖에도 수많은 찬사가 이루어졌지만 진실한 이해의 여하를 고사하더라도 사람마다 한 마디의 의의(疑意)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아인슈타인 박사의 천재를 높이 평가하는 전 세계의 찬양의 감정을 형언하기에는 오히려 표현의 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반면에 있어 정작 인류의 지식에 대한 그의 위대한 공

헌이란 과연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불과 얼마 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한 개의 인간이란 점으로 볼 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문자 그대로 수줍고 어리석다고 불만치 순진한 차라리 어린애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한편 과학적인 사상가의 입장에서는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코페르니쿠스, 뉴턴 등의 인류 최대의 과학자들을 상대로 당당히 일보(一步)의 손색도 안 보이는 발자취를 대담하게 밟아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의 인간과 업적을 새삼스럽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사용한 유일한 기구란 오직 한 자루의 연필과 한 권의 잠금장뿐이었으며 그의 실험실이란 언제나 모자 속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두뇌 이외에는 없었지만 그는 망원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세계보다도 더 넓고 현미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심원한 세계의 신비를 시찰할 수가 있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보통 인간이 아무리 도달해 보려고 애써도 달할 수 없는 인간의 가시(可視)세계와 불가시세계가 교차하는 접경의 영역을 홀로 넘나들면서 그 시찰과 분석의 소견을 일일이 범인(凡人)세계의 언어로써 풀이해 준 것이었다. 그는 여태껏 인류가 오랜 세월을 두고 철학자의 정리나 형이상학적인 신념에 입각하여 인구를 해오던 명제—즉 육인이 가히 살필 수 없이 작은 전자(電子)의 미시(微視)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곧 역 조(兆)의 성운(星雲)이 교착(交錯)하는 대우주의 거시(巨視)세계의 현상도 똑같은 모양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동일한 법칙일 것이라는 명제를 구체적인 수학의 논리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입장에 최대의 접근을 한 것이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허술한 잠금장에 연필로 그려진 숫자와 기호는 실로 인간 지식의 장벽을 뚫고 우주의 자연화학적 기본 법칙을 새로이 규정하는 놀라운 정리의 기록과 증명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세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는 있는 텔레비전의 기적은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가 성취한 큰 업적의 결과에서 부스러져 나온 한 단편적인 소산에 불과한 것이다. 원자의 핵분열과 수소의 융해작용이 초래한 경이(驚異)의 파괴력을 지니고 충전하는 벡스트로양의 원자운동은 그가 원하지 않고 이루어진 그의 천재의 기념적인 상징적이며 또한 인류로 하여금 벽천동지(霹天動地)의 위대한 힘을 선(善)으로 사용함으로써 인류 행복을 한량없이 증진시킬 수 있는 기념을 준 것도 그가 남긴 유산의 하나인 것이다.

<천재(天才)의 성격(性格)>

아인슈타인 박사로 하여금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케 한 힘은 박사 자신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마치 사랑을 하고 있는 젊은이의 정열과 같이 어찌할 수 없이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적인 힘”에서 유래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탁월한 재간으로 자연과학의 지적 능력을 자재로 발휘할 수 있는 ‘거인’이었지만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실생활에 처하고 있는 한 개의 인간으로서 그는 천진하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진담박(純真談朴)한 중심(重心)의 소유자였다.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당면한 그의 태도는 어찌할 바를 잘 모르는 어린 양과 같은 면이 많았으며 곧 잘 남의 수에 넘기가 일수였다. 이러한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로서 그는 판매원의 권유에 못 이겨 이층밖에 안 되는 저택에 엘리베이터를 사서 달기로 승낙을 한 일이 있었다. 이층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필요 하느냐고 물은 말에 그는 “내 집에 한 대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인데……보니 사람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하고 웃으면서 승낙한 까닭을 말했다고 한다. 박사는 특히 농담을 좋아했고 또한 쉽사리 웃기를 잘했다. 무엇보다도 인정의 존귀함을 마음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대인관계에 있어 마음에 흡족한 정을 느끼면서 접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것은 1949년에 그가 쓴 다음과 같은 수기(手記)를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인 정의(正義)에 대한 끝을 수 없는 관심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조금도 원해보고 싶지 않은 나의 태도와 항상 대비를 보이면서 마음속의 거리를 두어왔다. 나는 내 고국에 속해본 일도 없거니와 내 가문에 속해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서도 심공(心空)을 기우려 애투이 속해 본 일이 없었다.”

<요람(搖籃)>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안은 바바리아에 살고 있었으며 그의 부친은 그곳에서 전기(電氣) 기구(器具)의 매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1879년 울트에서 출생을 보았다. 소년 시절의 그는 가끔 자작(自作)으로 노래를 지어 자기 방에서 부르기도 하는 특이한 재질도 가지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몹시 수줍어하고 남에게 뒤지는 편이었으므로 그 부모는 그의 두뇌가 보통수준에 달하는지 어떤지를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열두 살 때에 그는 처음으로 유크리트의 「기하학」 책 한 권을 얻어 본 일이 있었다. “이 책은 나에게 사람은 오직 사고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안정과 순수의 역(域)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해주었다.”고 그 후로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는 당시를 회고해 말한 일이 있었다. 열세 살 때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숙한 면도 있었지만 그가 추리히의 공예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입학시험을 치르고서야 가능했던 것이다.

이 공예학교를 졸업한 다음 아인슈타인은 스위스에 자리를 잡고 세르비아 출신의 수학을 전공으로 한 밀레보마라크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게 된 그는 스위스 특허국에 검사관이라는 직분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에 매인 몸으로서도 여가를 타서 공부를 계속하던 그는 그의 노력이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는 만사를 제치고 연구에 골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무시간 중에도 그는 자기의 사색의 결과를 언제나 종이에 적어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이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소풍 나온 어린아이의 유모차의 바위가 노상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려놓은 구루마 자국에서도 일련의 수학기호를 발견하고 사색에 잠길 때가 있었다.

20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과학적 착상은 이와 같이 노상에 그려진 우연한 자취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지나가던 먼지 위에 그려진 구루마의 자취였지만 젊은 아인슈타인의 눈에 머물게 되므로 말미암아 현대 자연과학의 모든 가설과 공리(公理)를 근본에서부터 다시금 평가를 가하게 되는 중대한 수학적인 촉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물리학상의 혁명을 결과로 초래하는 위대한 원칙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러한 연구의 결실을 약기(略記)한 다섯 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였다. 이 5편 중에서 가장 짧고 제일 뒤에 작성된 논문(「어떤 물체의 관성은 그 물체가 지닌 에너기의 용량에 의존하는가?」는 바로 오늘날 원자력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한 수학적인 근원을 이루는 것이었다.

<상대성원리(相對性原理)>

2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 을 두고 근대 과학에 있어 뉴턴의 물체 운동의 법칙은 움직일 수 없는 철칙으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었다. 학동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풀이된 말에 의하면 뉴턴의 법칙은 기체의 작용에서 열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현상을 빠짐없이 해명할 수 있는 기본원리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이르러 더욱 정밀한 기구(器具)가 출현을 보게 되자 특히 광학의 분야를 비롯하여 물리학적 현상이 운동에는 점차로 해석치 못한 점이 들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즉 뉴턴의 법칙에는 그릇된 곳이 있어 그 적용이 보편적으로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말하는 엄연한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뉴턴 물리학에 의존(依準)하여 과학자들은 에펠이

라는 물질의 존재를 가정하고 광파가 공간을 통하여 옮겨가는 데는 에테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는 곧 에테르라는 것은 실제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케 된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영구불변의 기준으로 생각하던 뉴턴 원칙에 입각한 그를 재래(在來)의 관념과 그를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부정할 수 없는 실험의 결과의 두 가지 사실을 목전에 두고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그 후로 근 20년 동안을 과학자들은 기준이 없는 허공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때 이러한 과학상의 허공을 메운 것이 아인슈타인의 연구이었다.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의 첫 음절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표현으로서 인간의 형언을 절망할 만큼 과감하고 요약된 등식(等式)으로 우주의 신비에 대한 보다 큰 해명의 빛을 던졌다. 이 간명 등식이란 바로 $E=mc^2$ 의 원리로서 어떤 물질의 매와(每瓦)의 질량(m)은 그 자체 내에 매초동안 □단위에 의한 광속도의 자승(自乘)에 해당하는 에르그 단위의 에네르기(E)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공□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항상 그치지 않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 세상에는 시간과 공□을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척도의 존재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가지가지의 증명을 연달아 내세웠다. 그는 철길을 달리는 기차나 또는 천체를 이루고 연한(然限)이 넓은 하늘을 돌고 있는 전(全) 성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체의 축진되는 속도는 그 물체에 변화를 줄뿐만 아니라 그 물체를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의 척도 그 자체에 대하여서도 변도(變度)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결론은 “질량이란 오직 에네르기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있었던 것이다.

<출세(出世)>

스위스 특허국의 무명 서기(書記)는 이와 같은 그의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로서 일조(一朝)에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서로 다투어 가면서 그의 강의를 퍼려고 한 결과 아인슈타인은 1912년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카이질 윌헬름 대학에 교수직을 맡아보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1915년 그의 연구의 체계를 넓혀 상실성원리(相實性原理)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의 새로운 우주 해석의 최초의 실질적인 증거는 1919년 일식 관측의 결과가 전부터 그가 주장해오던 일광은 고체물질의 주변에 있어 굴절된다는 사실을 증명케 됨으로서 비로소 인정을 보게 되었으며 1921년에는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 영국의 버트랜드 러셀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평했다.

“그의 상대성이론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지식이 이론 최대의 종합적인 성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바로 2천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쌓아올린 인간의 수학과 물리학적 효력에 대한 결론을 이루는 것이다. 피타고라스에서 리만에 이르는 순수기하학, 갈릴레오와 뉴턴의 역학과 천문학, 화라디, 막스웰 및 후계자들의 연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전자(電磁)이론학—모든 종류의 인지(人知)의 이론과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가운데서 필요 적절한 응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론이라는 것이 실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학자의 수는 오직 열손가락으로 꼽아볼 정도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연 과학에 관계가 없는 인사들은 다만 이를 소수의 과학자에 따라 그들의 말을 신봉하면서 왈가왈부를 할 뿐이었다. $E=mc^2$ 의 공식은 1온스의 모래나 수소나 우라늄 등의 물질이 그 자체가운데 TNT 화약 87만 5천 톤의 폭발력에 해당하는 무서운 에네르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수식이라는 것이 세간에 증명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는 40년이라는 오랜 시일을 거쳐야만 했다. 즉 히로시마(廣島)에 대한 원자 폭탄의 투하로써 그는 자신의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에피소드>

와이말 공화국 치하에서 사는 동안 독일에 있어 아인슈타인 박사의 생활은 극히 행복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백 세대가 되는 빈곤한 가족들을 돌보아 주면서 때로 보트를 즐기기도 하고 종종 바이올린 연주에 골몰하기도 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그는 당국의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내(終乃)는 국의 추방의 박해까지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으며 연구소 속에 들어앉아서 종생(終生) 외계와의 접촉을 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직장의 마련을 받고 1933년 프린스턴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에 존재를 감추고 학문에 대한 정진(精進)만을 즐기려고 했지만 세상은 뜻하지 않는 그의 존재를 전설적인 거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나의 생활이란 아무런 사람의 관심도 끌 수 없이 무미 단순한 것”이라고 그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밀려들어온 탐방 기자들에게 자기의 생활태도를 설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이 수줍은 교수를 격렬한 존경과 열로써 천재라는 칭호를 가지고 하나의 우상으로 모실려고 했고 이러한 사실에 당면하여 아인슈타인 박사는 오직 경악과 당황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미국인들은 그의 일거일동을 경애의 뜻과 오히려 매혹한 관심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박사의 금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그는 천5백 불짜리 수표를 책 설피로 한 채 사용하다가 그 책을 그대로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 일상생활에 대한 방심한 태도(그는 잠옷 바람으로 대서양 항로의 여객선 응접실로 걸어 들어간 일이 있었다) 등에 대한 박사 자신의 여러 가지 일화와 두 번째 부인인 엘사 여사가 공식의 연회석상에서 식탁에 놓인 난초를 썰러드로 잘못 생각을 하고 먹은 일이 있다는 사실 등 박사의 사생활에 관한 에피소드의 보도와 소문은 미국인들에게 금할 수 없는 매력을 주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대중적인 선전이라든가 이에 관련된 여론 활동 등을 몹시 싫어했지만 때로 이와 같은 방법의 활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년에

이르러서는 깨닫게 되어 가끔 상아탑의 창문을 열고 국제관계의 인권문제에 관한 진정(陳情)이라든가 국내문제에 대한 의견의 표시 등 세계적인 사태에 손가락을 찌러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다.

<양심(良心)>

정치적인 견해로 본다면 아인슈타인 박사는 확실히 평화론자를 겸한 유대민족주의자의 한 사람이었다(그는 1952년 이스라엘 대통령의 직을 맡아 달라는 청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치스 독일에 의하여 유대인 동포가 무참히 학살당하는 현실을 눈앞에 본 그는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대의 파괴 도구의 제작을 마음먹었다. 1939년의 어떤 날 아인슈타인 박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나치스의 과학자들은 불원간 우라늄에서 큰 파괴력을 발휘하게 하는 원자핵의 연쇄반응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처의 행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회답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최초의 원자탄 제조안인 '맨해튼 계획'의 수립 동기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자폭탄은 마침내 세상에 그 형태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히로시마의 원자탄 투하의 보도를 들었을 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는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세계는 아직 원자의 파괴력을 가지기에는 시기가 일렀다고 말했던 것이다.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으로 발전을 보게 되고 원자무기의 경쟁이 차츰 그 도를 가하게 되자 그는 원자무기의 사용을 반대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하여서는 거의 거절을 하는 일이 없이 발기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면 응낙을 했다. 그는 해가 지남에 따라 차츰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은퇴하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연로한 그의 견해가 정치적으로는 현실에서 승이(乘離)된 이상주의에 치우쳐 버리고 만 것이었지만 그의 과학적인 상상력의 두뇌만은 아직껏 독보의 위치를 결코 남에게 양보치 않을 정도로 명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공간과 시간, 물질과 대 네르기, 중력과 관성 등 그는 이미 수많은 개념에 대하여 통일적인 연구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두 가지의 가장 위대한 우주의 힘을 이루고 있는 중력과 전자력에 관한 해명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의 해명을 기하고져 여생의 전력(專力)을 기우렸다.

<천재(天才)의 결론(結論)>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우주는 일정한 질서에 따라 항시 통합된 상태로서 그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력과 전자력도 역시 근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대다수의 현대과학자들에 의하여서 지지되고 있었으며 그 자신이 지대한 발전을 보게 한 폴란크의 유명한 양자(量子)론자 즉 물리학적 우주현상은 어떤 규칙적인 작인(作因)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미소한 분자(양자)

로 구성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소수파의 의견에 가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창조의 신이 이 우주를 영위함에 있어 도박을 하듯이 우발적인 뜻으로써 하지는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인슈타인 박사는 주장을 했다. 그는 「통일장(統一場)의 이론」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독특한 해명의 신학설을 세우고 중력의 힘이 미치는 범위와 자장(磁場)의 범위를 통일함으로써 모든 우주 운동을 오직 한 갈래의 단일법칙에 의하여 해명을 지어 보기를 원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자기는 틀림없이 '최후의 진리'를 목전에 파악케 되었다는 느낌을 느껴본 일도 있었지만 결국 만년에 이르러서는 아직 실증을 보여줄 만한 증거의 발견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여야한 경우에도 학설에 최(巔)의 시련을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실험적인 증거의 발견이었지만 아인슈타인 박사는 마침내 이 이론에 대한 시련을 겪어내지는 못하고 만 것이었다.

만일 그가 해명의 길을 찾고자 효력을 한 이 이론의 비밀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가 일상 적어둔 잡기장의 산만함 기록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며 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과 시간의 소비가 필요해 야만 가능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그의 최후의 노력은 이 종도로 생애의 어느 때 보다도 고적한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까닭이다. 영혼의 불멸을 자기는 용납할 수는 없다는 말을 가끔 한 일이 있었지만 아인슈타인 박사는 영혼의 신비한 세계의 한계까지를 왕래하면서 자신도 말했던 것과 같이 그는 여러 번을 두고 '신(神)에 대한 접근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우주에 대한 숭고한 신앙심이야말로 인간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 크고 고귀한 힘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의 신앙은 인간의 미약한 심혼(心魂)을 가지고서도 인식할 수 있는 작은 부분적인 존재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한 초대(超大)한 신의 존재에 대하여 겸허한 숭배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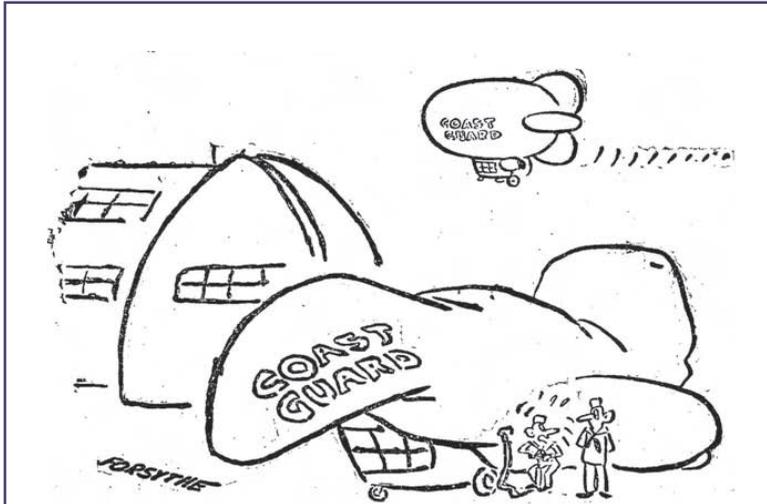
(외지(外誌)에서)

중공(中共)의 인구증가율(人口增加率)

미국의 국세(國勢)조사국의 와타이와인 씨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매년의 인구증가율은 구주(歐洲)는 1,000명에 대하여 27명인데 중공은 40~47명이란 고(高)증가율이라 한다.

결국 매년 2%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1953년의 중공의 인구조사통계(총수) 5억 8천 2백 60만 명을 기초로 한 계산인데 남녀의 인구 구성은 여자 100에 대하여 남자 107.6이란 것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점이다.



다음에 핑크가 나거든 자네가 좀 해봐!



번외(番外)의 연기(演技)



<세계명작소설해설(世界名作小說解説)>

마농 레스코

앙투안 프랑수아 프레보 작(作)

마농레스코의 주인공 슈발리에 데 그리외(Chevalier Des Grieux)는 명문에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수재로서 이름이 높았고 또 인간의 악덕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강렬한 증오감을 품고 있으며 온순하고 침착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머리털과 깨끗한 용모를 갖춘 17세의 청년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우수한 성적으로 아미앵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일이면 양친의 슬하로 돌아가려하는 바로 그날 밤에 시작된다. 길 떠날 차비를 하고 행장을 수습해놓은 그가 친구인 지베루류와 거리를 산보하다가 어떤 여관 문 앞을 지나쳤을 때 거기에는 마침 아라스로부터 도착한 역마차가 한 대 있었다.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이 단순한 호기심으로서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던 데 그리외의 눈에는 기막히게 젊고 꽃송이같이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이 비치었다.

여기 대해서 그 자신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성에 대한 일을 생각해 본 일도 없었고 여자란 것을 유심히 쳐다 본 일조차 없던 내가, 또 현명하고 침착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오던 내가, 단번에 이것저것을 생각해 볼 사이도 없이 흥탈(興奪)해서 용솟음치는 정열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만큼—그 만치나 이 여성은 아름답게 보였다. 극도로 수줍어하는 성격이면서도 또 아주 쉽사리 자신에 대한 절제심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나의 약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단지 한 번 바라다 본 데서부터 비상한 걱정적으로 용솟음쳐 오르는 사랑의 정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마농 레스코에서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작자 아베 프레보(Antoine François Prévost)의 다른 작품 가운데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랑의 동기란 것은 데 그리외의 연애를 이해하는 데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마농과의 연애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죄악이라는 의식을 느끼면서도 한 번 이 여인의 아름다운 웃음과 눈물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자신을 억제할 만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숙명적이며 저주받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데 그리외가 이상한 충동을 느끼며 이 기막히게 아름다운 소녀의 곁으로 가서 역마차의 창에 기대서며 사정을 알아보자니 부모님네들의 명령을 어길 도리가 없어서 마음에도 없는 여승이 되려고 아미앵까지 끌려온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이는 자기보다 한두 살 젊어보였고 그 이름을 마농 레스코라고 하였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당장에 맺어졌다. 그래서 데 그리외는 그의 친구인 지베루주를 속이고 이튿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침실을 몰래 빠져나와서 마농과 더불어 파리로 도피행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꿈과 같이 달콤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젊고 아름다운 한 쌍의 연인들은 파리에서 화려한 가구(家具)로 장식된 셋방을 얻어가지고 3주간 동안이나 꿀과 같이 달고 단 향락의 절정에서 애정생활을 즐기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다. 마농이라는 여인은 단지 인생이 향락을 한다는 것을 알 뿐이요 그 외의 일은 아무 것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치스런 생활만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이것을 지탱할만한 돈이 점점 떨어져가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마농은 옆집에 사는 어떤 사세관(司稅官)— 돈을 물 쓰듯 뿌리는 B라는 사나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나이와 관계를 맺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으며 결국에는 이 B 사나이가 눈에 가시 같은 데 그리외를 마농의 옆에서 쫓

아버리기 위해서 그의 부친에게 통지를 하게 되니 데 그리외는 어쩔 수 없이 부친의 집으로 끌려가게 된다.

마농의 부정(不貞)과 배신.

이것을 알게 된 데 그리외는 낙망(落望) 속에서 번민하고 비분을 참지 못하여 어쩔 줄 모르고 슬퍼 하면서도 마농에 대한 애정을 단념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마농이 미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농을 유혹해낸 B라는 사나이를 찢러 죽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당장에 파리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는 것이었다.

하나 부친의 감독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또 혼자서 두근두근 여러 가지로 반성해 보자니 침착한 마음을 회복할 수도 있었고 거기다가 친구 지베루주까지 찾아와서 우정에 넘치는 간곡한 말로써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종교생활로 들어가기를 권고하는 까닭에 마농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단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파리로 다시 나와서 상 스쿨피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데 그리외는 공부에 있어서 큰 성공을 하였다. 마음을 단단히 잡고 결심질도 하는 법이 없이 공부에만 열심으로 몰두한 결과 1년이 지난 어느 날 비로소 노루분누 설교단에 나설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되었다. 그는 만민의 열광적인 찬사를 받으며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B라는 사나이에게 얽매어 자유를 잃고 살고 있던 마농은 데 그리외의 설교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듣고 싶어서 관중 속에 섞여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옛날의 사랑하던 사람의 모습을 다시 발견한 이 여인은 불길같이 다시 타오르는 연모의 정념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또 다시 신학교로 데 그리외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었다. 더군다나 예전에 보아온 것보다도 더한층 아름답고 귀엽게 자라난 놀라운 모습이었다. 이 여인은 열여덟 살이었다. 그 깨끗하고 탐스럽고 귀여운 품은 말로써 표현키조차 어려웠다. 이 세상에서는 또다시 볼 수 없을 만큼 보드랍고 깔끔하고 귀엽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그것은 사랑 그 전부의 모습이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나에게 매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데 그리외의 갈아 앉았던 종교적인 심리상태는 또다시 견잡을 수 없이 허물어져 버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예전보다도 더 맹렬하고 더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데 그리외는 신학교를 탈출해 버리고 마농과 더불어 파리 사이요라는 곳에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마농이 B라는 사나이를 구슬러서 수중에 들어오는 돈과 보석을 가지고 또다시 흥탈과 향락과 도취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마농은 끝끝내 건조하고 쓸쓸한 겨울의 전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파리에도 또 따로 집 한 채를 얻어놓게 된다.

이러한 생활 속으로 마농의 오라비 되는 망나니(무뢰한(無賴漢))도 같이 섞이게 된다.

마농은 비범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다. 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여인처럼 담박(淡泊)할 수 있는 여성도 드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부자유를 느낀다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한 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었다.

이 여인에게 없지 못할 것은 생활에 있어서의 쾌락과 향락과 유희였다. 따라서 극도의 오악에 빠질 수 있는 호화스러운 금전의 낭비(濫費)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 여인의 취미에 맞는 노름노리가 매일 즐겁게 되풀이되어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쉽사리 만족을 느껴가며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단지 쾌락에만 정신없이 도취해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 여인의 기분이나 마음속을 신용할 수가 없었다.

이 여인은 나를 몹시 사랑해 주었고 또 이 여인이 언제나 즐겁게 이것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사랑의 즐거움을 충분히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에 나이였으나 어쨌든 이 여인의 사랑이란 것이 언제나 참기 어려운 어떤 불안 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은 나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얼마 안 되는 대단히 많은 재산이란 것에 비교한다면 이 여인은 전 지구를 제쳐놓고 나라는 사나이를 택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에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변함없는 마음과 한결같은 진실 이외에는 나에게 아무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경우에는 이 여인이 누구든지 또 다른 B와 같은 새로운 사나이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버리고 달아날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1절은 이 작품의 주인공 데 그리외의 솔직하고 비통한 고백으로서 마농이라는 한 여인의 성격을 가장 똑똑히 간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마농이 완전히 그의 애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여인

의 쾌락과 향락의 욕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동안뿐이었다.

이것 때문에 데 그리외는 마농의 환심을 사고 마농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나이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가지가지의 배덕(背德)행위를 한없이 계속해 나아가는 동안에 한 걸음 두 걸음 타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돈에 쪼들리게 되면 친우인 지베주류 켄을 속이는 것은 예사이고 마농의 오라비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의 풍채와 교양을 미끼로 삼고 교묘하게 상류 사회의 방탕아들의 틈에 휩쓸려 들어서 술을 마시고 망나니짓을 부리고 사기와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느라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래도 견디기가 어려우면 마농의 미모를 이용하여 이 여인과 합의하에 돈 많은 호색가들을 나꾸어 들여서 미인계까지 쓰게 되도록 타락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결국에는 GM이라는 돈 많은 노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데 그리외 자신은 상라사루에 있는 감옥으로 마농은 오피다루 감화원(感化院)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파옥(破獄)을 하고 마농을 구해내 가지고 또다시 애욕생활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이 궁박(窮迫)해지면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여 마침내 마농은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 신대륙에서 마농은 형언키조차 어려운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만다.

불란서 문학작품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명작 마농 레스코의 작가 앙투안 프랑수아 프레보(Antoine François Prévost)는 1697년 4월에 북부 불란서의 소읍 에당(Hesdin)에 태어났다.

처음에는 동리(洞里)에 있는 에스이다 파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1713년 9월에는 파리에 있는 같은 파 신부에게 가서 견습승(見習僧)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 1715년에는 라푸레슈(La Plech)의 앙리 4세 학교로 가서 철학 강의를 듣고 있었으나 채 1년도 못되어서 그는 철학도 종교도 다 집어던지고 군문(軍門)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쟁도 없었고 거기 따라서 승진해볼 기회나 희망도 없었고 또 병영 속의 생활이 지독하게 엄격해서 그는 3년 후에 또다시 라푸레슈의 에스이다 파 교사(敎士)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에스이다 파 교사의 편에서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친구와 더불어 화란(和蘭)으로 떠나고 말았다.

화란에 있어서 그는 상당히 방종된 생활을 한 모양으로 프레보는 두 여성과 여기서 결혼했으나 둘 다 버리고 불란서로 돌아 왔다고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이 시절에 있어서 처음으로 운문(韻文)과 산문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군문에 들어갔다. 계급도 순조롭게 승진이 되고 생활도 전보다는 즐겁고 운택하게 되었으나 그는 웬 일인지 여기서 또 뛰쳐나와서 이번에는 에스이다 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베네딕트 교단(敎團)의 상 반도류 승원(僧院)이란 곳에 몸을 숨겨 버리고 말았다. 그는 승원에서 1728년 10월까지 즉 7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두고 속세를 등지고 산 셈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이곳저곳 승원으로 전전히 돌아다니며 설교에 힘쓰고 있었는데 특히 에부루 지방 같은 데서는 그의 설교가 굉장한 인기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에부루 지방에 체류한지 1년 만에 그는 또다시 파리로 물러오게 되어서 상 제 루망 데 푸레 승원에서 당시 편찬 중이던 「불란서 교회사(敎會史)」의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문필을 만지기를 즐기는 그에게 이런 일은 결코 재미없는 일도 아니었으나 이때 벌써 그에게는 1728년부터 쓰기 시작했던 「귀인(貴人)의 수기(手記)(Mémoires et Aventures d'un Homme de Qualité)」라는 소설이 있어서 그는 이것을 하루바삐 탈고하고 싶어서 어디든지 규율이 엄격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교단에 적을 두고서 이 원고를 계속해서 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로마법황에게 임전(任轉)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자 법황도 이것을 허락하게 되었으나 그는 이 승낙의 친서가 도착하기 전에 종법(宗法)에 반기를 들고 상제루망 데 푸레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체포명령을 받아야 하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도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영국에 체재(滯在)했던 것은 1728년 11월부터 30년 가을까지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동안에 영국에 있어서의 그의 업적에 관해서는 어떤 영국 귀족의 아들의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는 것밖에 거의 아무것도 정확한 것이 전해져있지 않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무슨 까닭인지 두 번째 화란으로 건너갔다.

그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의 친구 되는 수많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을

받아가면서 자신해서 영국을 떠나서 다시 화란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20년 동안을 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 당시의 화란은 서적의 출판이 비상이 성황을 이루고 있어서 불란서의 책들도 여기서 많이 출판되고 있는 형편인지라 그는 열심히 저술에 몰두하여 일곱 권이나 되는 귀인의 수기를 완성하였으니 「슈발리에 데 그리외와 마농 레스코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 제7권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1731년 봄에 암스텔담에서 발행된 것이다.

여기 있는 동안에 그는 젊고 어여쁜 신교도의 여성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그의 재지(才智)를 사랑하는 나머지 이 여성을 곤궁으로부터 구해준 까닭으로 이 여성은 이에 감격하여 그에게 구혼을 하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프레보는 종문의 서약을 생각하고 또 만일 이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영원히 고국에 돌아갈 것이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이 여성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이 여성은 끝끝내 단념을 못하고 1733년 1월 그가 많은 부채를 남기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뒤를 따라서 영국까지 쫓아온 것이다.

프레보의 두 번째 영국 체재 중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가 채권자에게 부대낌 속에서 괴롭게 지냈느니 혹은 많은 은인들에게 배신행동을 했느니, 또는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투옥을 당했느니…… 여러 가지 향기(香氣)롭지 못한 이야기뿐인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다.

단지 그의 영국 생활 속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그가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변호와 반박」(Le pour et le Vontre)이라는 정기간행물을 출판한 것인데 그는 이 개인 잡지를 과학, 문학, 예술의 해설과 엄정한 비평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그것은 1733년으로부터 40년까지 20권, 296호나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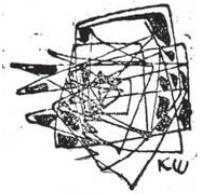
마침내 프레보는 추방의 생활에 지쳤다. 그는 또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였다. 그리하여 고국에 있는 유력한 친구들의 주선으로 1734년 봄에 간신히 파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파리로 돌아와서도 프레보는 친구인 신문기자의 필화사건(筆禍事件)에 관련되어 일시 피신생활을 하다가 1754년 이후에는 어떤 수도원장의 직위를 얻어 생활도 안정될 수 있어서 당시 파리의 교외이던 샤흐이요, 그 다음에는 풍광이 명미(明媚)하기로 유명한 산치 부근에 조그마한 집을 잡고 종교상의 저술에 몰두하면서 조용한 만년을 보내고 1763년 11월 25일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아베 프레보는 이와 같이 불란서 작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파란이 중첩(重疊)한 생애를 보았다. (끝)

적색(赤色)과 흑색(黑色)

스탕달 작(作)



볼란서 푸랑슈 콘테 지방의 소도리(小都里)는 붉은 지붕 흰 벽의 아담한 가옥들이 산기슭 비스듬한 곳에 드문드문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도읍이었다.

이 도시의 제재직공(製材職工)인 노레드의 막내아들로서 태어난 주리앙은 몸맵시 있는 미소년이었으며 두뇌가 뛰어 나게 명석(明皙)하였다.

주리앙은 그 지방 노사제(老司祭)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나전어(羅甸語)라 탄음을 배우는 한편 또 그가 사숙(私塾)하고 있는 노군의(老軍醫)에게 받은 3, 40권의 책을 고이고이 간직하며 언제나 그것 탐독(耽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나 형들은 그를 게으름뱅이로 취급하여 냉대하는 것이었다.

베리에르의 읍장(邑長) 레나르 씨—그는 그다지 총명한 편은 못되나 돈에 관해서는 절대로 어수룩하지 않은 사나이인데 그런데 이 읍내에서는 점잖은 축에 들어 있어 가장 귀족적 인물이라는 평가지 받고 있었다.

마음씨가 고운 레나르 부인은 지방 명문의 가정에서 자라난 만큼 세고(世苦)를 모르는 선량하고 순직한 여성이었다. 주리앙은 처음에는 부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부인을 유혹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그의 순정에 감화되어 나중에는 충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레나르 부인이 지금까지 남편을 비판하거나 싫게 생각하거나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내외의 금슬(琴瑟)은 오히려 좋은 편으로서 어린아이들을 허술히 하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의 주부로선 부족한 것을 모르는 생활을 해온 것이었다.

부인은 주리앙의 고상한 품격에 호의를 가지게 되어 그에게 신선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 비장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인물이라고 느끼고 있는 남편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고결한 정신과 따뜻한 인간성을 그에게서 발견하고 감동하는 것이었다.

유혹인 줄도 모르고 차츰차츰 연정을 품게 된 부인은 주리앙과의 사랑이 심각해질 수를 그는 다른 고민을 가슴 한 구석에 품게 된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 때문에 몸부림치며 고민하면서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된 사랑의 이상한 매력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인의 하녀 에리자는 이 젊은 가정교사를 사모하게 되어 그것을 노사제에게 고백한다. 사제는 주리앙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에리자와의 결혼을 권하는 것이었으나 그는 첫마디에 이것을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에리자의 반감을 사게 된다.

부인과 주리앙의 관계를 어렵듯이 알고 있던 에리자는 어느 날 이 읍의 빈민수용소장 발노 씨를 찾아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고해바친다.

발노 씨는 이 읍내에서 자산가 축에 드는 사람이기는 하나 품성이 야비하고 염치를 모르는 인간이어서 6년 전부터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면서 레나르 부인의 뒤를 따라다니었는데 번번이 망신만하고 돌아섰든 사나이이었다.

에리자가 발노 씨를 방문하던 날 저녁 레나르 씨는 익명의 편지 한 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부인의 적절치 않은 입기응변으로 그 당장의 위기는 간신히 면할 수 있었으나 전후(前後)의 사정으로 보아서 주리앙을 이 이상 집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부인은 남편에게 권하여 학자금을 내게 한 다음 주리앙을 푸잔송 신학교고 떠나보낸다.

신학교로 가서 처음에는 그는 자신의 재지(才智)와 자존심 때문에 주위의 박해를 받고 고민하였지만 그는 차차 교장인 피라르 신부의 눈에 들게 되어 파리의 돈 라 모르 후작의 비서로 추천된다.

파리로 가게 된 그는 1년 만에 레나르 부인을 만나서 작별의 인사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향의 정차장 베니에르에서 기차를 내린다.

그는 이리저리 시간을 보내며 밤이 깊기를 기다리다가 레나르 부인의 침실 문을 두드린다.

한편으로 부인은 주리앙과 헤어진 뒤로는 지금까지의 죄과를 뉘우치고 종교에 마음을 돌려 정절을 맹세하고 있었던 차인데 지금 이렇게 뜻하지 않은 재회를 하여 또다시 주리앙의 격한 애정에 부닥치고 나서는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정열의 노수(虜囚)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다음날 하루 종일 주리앙을 방속에 감춰두었으나 레나르 씨에게 들리게 되고 주리앙은 간신히 봉변을 면하고 파리로 떠나게 되었다.

대귀족 도 라 모르 후작 집에 살게 된 주리앙은 시골때기라고 해서 여러 번 놀림감도 되었으나 그러는 중에 그의 재능이 후작의 눈에 띄게 되어 그 후부터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후작의 영양(令嬢) 마칠드는 성품이 교만하여 귀족자제들 중에 많은 숭배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마칠드는 내심으로는 그들 유약(柔弱)한 숭배자들을 멸시하고 있었다. 그는 영웅시대의 고귀한 귀족정신을 남몰래 동경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리앙은 교만한 마칠드에게 반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를 정복할 것을 결의하는데 마침 그의 반세속적인 거친 기상이 마칠드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게 되어 마침내 그는 뜻을 이루고 만다.

임신한 마칠드는 반대하는 부친을 설복하여 그에게 결혼을 승낙시킨다.

이것으로서 주리앙의 야심이 결실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때마침 후작의 조회편지(照會便紙)에 대한 답장으로 레나르 부인으로부터 주리앙을 중상하는 편지가 배달되어 과거의 사실이 폭로된다.

이 편지는 자기 자신의 죄과를 회오(悔悟)한 레나르 부인의 사제가 구술하는 대로 본의 아닌 말을 적은 것이었는데 주리앙은 레나르 부인이 정말 자기를 배반한 것이라 생각하고 곧 베리에르로 들어가서 때마침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 레나르 부인을 성당 안에서 등 뒤로부터 저격하였다.

다행히도 레나르 부인은 치명상은 입지 않았으나 주리앙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마칠드는 유력자들을 움직여 주리앙을 구출하려고 동분서주하였지만 주리앙은 그러한 구명운동을 거절하고 또다시 주리앙에게 대해서 충심으로 애정을 고백하는 레나르 부인의 말로써 두 사람 사이의 오해도 풀려 행복한 마음으로 단두대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주리앙 소렐은 작자 스탕달(Stendhal 본명 Marie-Henri Beyle, 1786~1842) 자신이 평생 지니고 있던 이상과 꿈을 구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주리앙은 자신의 정열이 명령하는 대로 상식적인 도덕 같은 것은 무시하고 대담한 모험적 행동을 감행하여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 작품의 참다운 가치는 이러한 인간의 정력에 원천인 정열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주리앙은 여러 가지 술책을 쓰기도 하여 얼른 보기에는 위선자 같기도 하나 그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야심이나 허영이나 타산을 넘어서 이미 타인의 포핼(褒貶)같은 것은 돌아볼 여지조차 없는 순수한 사랑에서 참다운 행복을 발견하자는 것이었다.

마칠드의 구명(救命)운동을 거절하고 레나르 부인의 순애(純愛)에 만족하면서 죽어 버린다는 결말에 바로 작자가 추구하려는 주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주리앙은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정신, 즉 권위라든가 모범 같은 것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당치도 많은 악벽(惡癖)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분은 미천한 평민 출신이면서도 정신상에 있어서는 귀족의 딸인 마칠드보다도 한층 더 귀족적인 것이다. 이 귀족적인 정신의 아름다움이 얼핏 보면 비도덕적이라 할 수도 있는 그의 패륜 행위조차도 정화하여 독자에게 공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리앙 소렐은 '늦게 태어난 자코바 당원'이라고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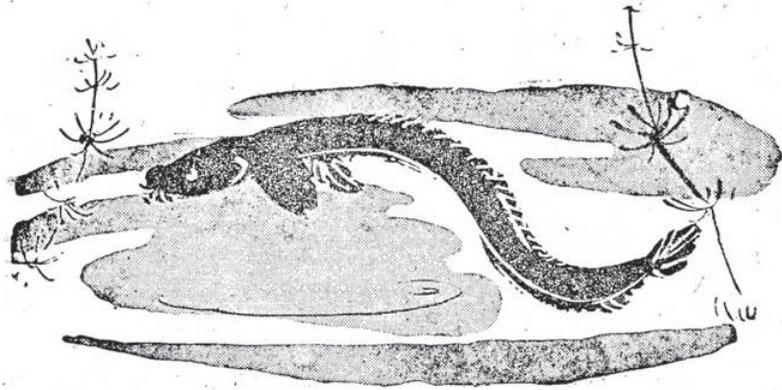
확실히 그는 불란서 대혁명과 그 뒤를 이은 나폴레옹 영웅시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1830년경의 불란서 사회는 평범한 부르주아가 지배하게 되어 인간다운 위대한 정열이나 영웅정신은 땅에 떨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주리앙의 반항심과 야심은 다만 연애에만 그 안타까움을 쏟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1830년대기」라는 작품의 부제와 같이 당시의 사회 환경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일종의 사회소설로서도 선구적인 작품이 되어있다.

적색과 흑색(Le Rouge et Le Noir)이라는 제목의 적색을 영웅을 흑색을 승복(僧服)을 의미하고 있으며 재산도 가명(家名)도 없는 평민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현실을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작자의 연애심리 분석의 날카로움은 불란서 심리소설의 한 개의 도표(道標)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발표 당시에는 낭만주의의 풍조가 풍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석하고 이지적인 문체로 씌어진 이 작품은 그 내용이 너무나 재미롭고 대담하다는 조건 있어 일반 세인에게는 용이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가 1864년 테느의 격독(激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진가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1830년에 처음으로 책으로 간행되었다. (끝)



〈소설(小說)〉

실화(實話)

달란 토마스
최승묵(崔升默) 역(譯)

소개—Dylan Thomas는 39세를 일기로 1953년에 죽었다. 현대 시인으로서의 그의 위치는 실로 눈부신바 있다. 한편 그는 산문작가로서도 이름이 높다. 여기 번역한 실화—The True Story—는 그의 사후 1955년에 출판된 소설“Adventures in the Skin-trade and Other Stories”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의 산문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Dog”, “Quite Early One Morning”.

이층의 노파는 마르타가 겨우 물정이 들었을 때부터 내내 죽는 병을 앓아 왔습니다. 마르타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둘이서 다 죽어가는 이 병인한테 싱싱한 과실을 사들고 왔을 그 무렵부터 이 노파는 마치 초로 만들어 놓은 사람 모양 꼴꼴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었습니다. 이제 마르타는 자라서 몸이 익었습니다. 앞치마와 사라사 천의 프록크를 입고 술이 드문 머리를 뒤흘죽지에 조여 맨 각시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는 해가 돋자 일어나서 불을 피우고 눈이 새빨간 고양이를 집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차 한 주전자를 끓여서 움막집 뒤꼍에 붙은 노파의 침실로 올라갑니다

다. 몸을 굽히고 노파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눈은 멀었으나 한 번도 감은 적이 없는 눈입니다. 마르타는 아침마다 이 움푹 팬 눈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손으로 눈자위 위를 쓰담아 내려줍니다. 노파가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마저 도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덟시예요. 지금 여덟시예요 하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러면 먼 두 눈알이 넉넉히 웃음을 지어보이고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의 손이 이불 아래로 내밀어 나옵니다. 마르타는 그녀의 포동포동한 손으로 그 마른 손을 잡아서 잔 가까이 갖다 대어줍니다. 잔속이 비면 마르타는 다시 다 따라주고 주전자마저 비면 그녀 침대로부터 이불을 베껴 내립니다. 잠옷을 입고 길게 뻗어 누운 노파의 살결 빛이 간신히 남아 붙은 머리카락처럼 희부연 합니다. 마르타는 이불을 매만져 바르고 노파가 원하는 대로 잠시 시중을 들고 나서 주전자를 들고 나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뜯일 하는 소년과 함께 아침밥을 먹습니다. 마르타는 뒷문을 열고 멀리서 삼질을 하고 있는 소년을 바라다보고 여덟시 반이야 하고 외칩니다. 소년의 생김새는 험상궂었습니다.

눈알은 고양이 눈알보다도 더 붉고, 머리에 뚫은 두 개 틈바구니로 마르타의 도독한 가슴그늘을 노상 노리고 내다보듯 했습니다. 마르타는 음식을 그의 앞에다 놓고 손을 불 가까이 쪼이면서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그가 마저 먹고 일어설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나한테 뭐해 받을 일은 없어? 하고. 그녀는 한 번도 그래하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소년은 강자를 캐러 밭에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달걀을 해러 갑니다. 때로 트랙의 텃밭 속에서 열매 딸 것이라도 있으면 그녀는 오정까지 그를 도웁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쌓이는 빠알간 장과열매를 볼 때마다 노파의 요 아래 깔린 돈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닭을 잡을 때면 그녀는 소년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닭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 소년은 칼로 목을 자르고는 피 묻은 칼을 소매에다 닦았습니다. 마르타는 닭을 붙들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피 기운을 손에 느끼고는 닭이 머리도 없이 트랙 길을 달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씻으러 갑니다.

봄도 이른 봄이었습니다. 카르타는 스무 살이 되었고 노파는 여전히 손을 뻗어 잔을 더듬고, 잠옷 아래에 덮인 노파의 가슴은 여전히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게 꼼짝하지 않았고, 요 아래에는 여전히 돈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여간 많지 않았습니다. 첫째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입을 검은 옷과 꽃이 달린 모자도. 그러나 그녀는 한 푼도 가진 돈이 없

었습니다. 소년이 달걀과 채소들을 시장으로 끌고 나가는 날에는 그네는 노파가 주는 6전짜리 한 푼을 쥐어 보내고, 그리고 소년이 돌아올 때 손수건에 뽀뽀 뽀뽀한 돈을 그대로 노파의 손에다 쥐어 주었습니다. 마르타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위해서 일했고 소년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만 그네는 이층 방에서 잤는데, 그는 빈 광속에 짊을 깔고 잤습니다.

어느 맑은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네는 트락 밖으로 걸어 나가서 머릿속의 생각을 가라앉히고자 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 조각 떠있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두 개의 손이 해외 머리통을 바짝 잡으러 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날 수만 있다면 하고 그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 수만 있다면 하고 그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 수만 있다면 저기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가서는 노파의 목을 물어뜯어 버릴 텐데. 그러나 찬바람이 불어와서는 그네의 생각을 씻어 버렸습니다.

그네는 자기가 보통 계집애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네는 겨울이면 밤마다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짊 속에서 꿈나라를 헤매고 노파는 캄캄한 방 속에 혼자 누웠을 동안에 그네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도 읽었고, 사람의 말을 지껄이는 뱀의 이야기도 읽어서 알고, 산꼭대기에 서서 요정들과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도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트락 끝에는 잡초 밭을 질러놓은 울이 섰었고 울결에 조그마한 독이 있었습니다. 그네는 그 독 속에 개를 파묻었습니다. 닭을 잡는다고 핑계해서는 개를 죽였던 것입니다. 독에 세운 십자가에는 '안민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만 십자가 뒤에 적힌 죽은 날짜는 지나간 날짜가 아니라 장차 올 날짜로 되어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파를 여기서 파묻어야지. 개무덤에 바짝 다가서 거름더미 아래다 묻으면 누가 알라고. 그리고 그네는 자기 손을 가렵게 두들기면서 움막 뒷문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두 개의 손이 해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움막에 들어선 그네는 노파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 속에 감자를 잘게 썰어 넣습니다. 그네가 칼질하는 소리만 들릴 뿐 바람도 차고 그네의 심장마저 봉지로 싸버린 듯 잠잠했습니다. 움막 속은 모든 것이 꼼짝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네는 제 손이 무릎 위에서 죽은 듯이 힘이 빠져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기마저 굴뚝에서 하늘로 피어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웬 세상에 그

네의 심장 소리만이 데깁데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숨져버린 듯한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네는 소년이 이제 곧 시장으로부터 돌아오리라고 짐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죽어버린 듯이 늘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은듯한 그 순간에 그네는 소년의 손이 빗장을 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은 부엌으로 들어와서 감자를 씻고 있는 마르타를 보더니 손수건에 쓴 것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형짚에 쌓인 돈 소리를 듣자 그네는 소년을 쳐다보더니 생긋 웃어보였습니다. 소년은 그네의 웃는 얼굴을 이 때 처음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네는 소년 앞에다 식사를 갖다놓고 불가에 비스듬히 앉았습니다. 마르타가 몸을 굽혔을 때 소년은 그네의 머리카락 속에 꽃힌 클로버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네 손톱 뒤에 묻은 축축한 트락의 흙도 보았습니다. 마르타는 닭을 잡거나 텃밭 속에서 열매를 따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해서 움막 바깥으로 나가는 법이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이층에 저녁 갖다 주었어? 하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네는 대꾸를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소년은 식탁을 일어서더니 물었습니다. 나한테 뭐 해 받을 일은 없어? 하고 수천 번을 두고 매양 문듯이 그렇게. 그래— 마르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네가 그래 하고 대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그렇게 상냥하게 구는 것을 아직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마르타의 젓가슴의 도둑한 그늘이 전에 없이 짙고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흐느적거리면서 부엌을 가로질러 그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네는 손을 어깨 위로 올리더니 프록크의 걸방을 어깨로부터 벗겨 내렸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록크가 미끄러져 내리자 발가벗은 젓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그네는 소년의 손을 잡아서 자기 젓가슴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테야? 하면서 그네는 요 아래 깔린 돈을 생각했습니다.

소년을 바짝 끌어안으면서 그네는 프록크를 마룻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마침내는 속치마까지 벗어 내렸습니다. 내가 시키는 걸 해주겠지? 하고 그네는 말했습니다.

잠시 후 마르타는 소년의 팔을 빠져 나와서 미끄러지듯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이층으로 오르는 뒷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등을 문에

기대고 그네는 소년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어—그네의 말이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손가락으로 마르타의 몸을 때만지려 했으나 그네는 소년의 손가락을 꼭 쥐고는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싱긋 웃어 보이며 니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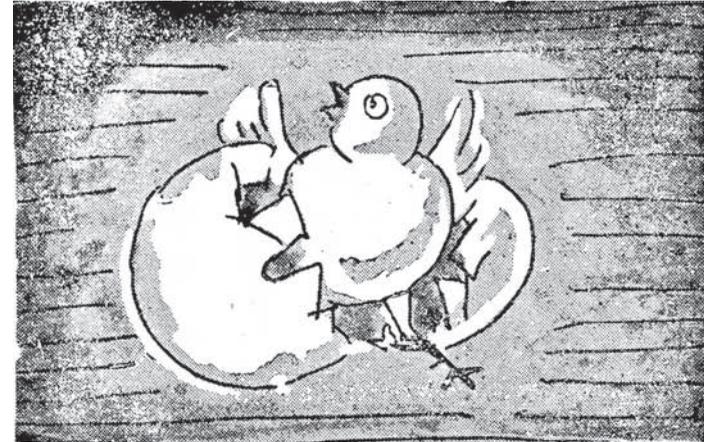
그러자 마르타는 문을 열고 그를 이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어 하고 그네는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네는 금이 난 물주전자와 반쯤 열린 창문과 벽에 걸친 성서를 물끄러미 보다가 노파 귀에다 입을 대고 한시예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의 그 앞 못 보는 두 눈이 웃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타는 노파의 목가에다 손가락들을 갖다 대었습니다. 지금 한시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르타는 노파의 머리를 벽에다 대고 두들겼습니다. 살며시 세 번도 채 두들기기 전에 벌써 노파의 머리는 달걀껍질처럼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소년이 외쳤습니다. 마르타는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침대 자락에 피 묻은 손을 닦고 있는 발가벗은 여자와, 벽에 동그랗고 새빨강게 묻은 피를 본 소년은 그만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하고 마르타가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마르타의 차악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자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더니 아래로 뛰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 마르타도 이제는 날아야지 하고 그네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마구리 방에서 바람 속으로 날아가 버려야지. 마르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창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날아가고 있는 거야! 하고 그네는 외치고 있었습다.

그러나 마르타는 날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다. (끝)



<실화소설(實話小說)>

미공군독립(美空軍獨立)의 비화(秘話)

진주만기습(眞珠灣奇襲)을 예언(豫言)한 비리이 미첼의 투쟁실기(鬪爭實記)

임학선(林學善)

맑게 갠 푸른 하늘. 상하(常夏)의 나라에 알맞은 꽃향기 풍기는 산들바람. 평일의 소란스런 소리도 오늘따라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일요일 시민들도 군인들도 한가로운 기분으로 안식일을 즐기며 항구에 정박한 전함도 순양함도 흠수선(吃水線)까지 깊이 잠겨 육중한 강철의 거체를 따뜻한 햇볕 속에 가지런히 그리고 조용히 잠자고 있다. 그럴 듯이 평화롭고 조용한 일요일이었다.

그러나 이때 돌연 저 먼 구름 끝에서 모기소리와도 같은 가느다란 웅 웅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샌가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귀를 기우릴 사이도 없이 그것은 별안간 폭음으로 변하여 항구 상공에 다가들고 있었다. 굼주린 모기떼 같이 날라드는 비행기 떼였다. 은빛 날개에는 붉고 둥그런 일본제국주의의 표식이 그려져 있었다.

아연히 떠들어댔 때엔 이미 때 늦은 것이었다. 한대, 또 한대 바람을 갈라내는 듯 날카로운 음향과 함께 급강하한 일본의 비행기는 차례차례로 정박 중에 있는 미국 태평양함대의 머리 위에 습래하고 있었다.

하늘을 찌르는 수주(水柱). 직격탄으로 해서 타오르는 전함. 거무튀튀한 기름

을 해면에 내흘리며 기우러지는 유조선—. 집요하게 달려드는 일본기의 폭음과 이를 영격(迎擊)하는 고사포탄의 폭발성—. 조용하던 일요일의 항구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아비규환의 날로 변했다.

1941년 11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에 의하여 미국은 태평양함대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전함 네바다, 애리조나, 웨스트버지니아, 테네시, 메릴랜드, 오크라호마, 카리포루니아의 7척과 특무함 베스타드, 유조선 네오쇼를 잃어버렸는데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고하는 이 비극은 동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비리미첼 이야기의 결말이기도 하였다.

진주만에 있어서의 비극은 미국 국민에게 비상한 충격을 주어 흑자는 일본의 비열함에 분노하고 흑자는 해군의 무능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군사평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전함이 항공 병력에 의하여 격침당한 일은 전고(前古)에 없었던 일이다. 진주만항에서 침몰한 전함은 알을 낳은 오리와 같다. 그러한 전함에 군사적 의의를 중요시하는 대함(大艦)주의는 이미 과거지사가 되고 말았으며 장내는 항공 병력이 승리의 기반이 될 것이라……”

팽배하게 일어난 세론에 미군당국은 새삼스럽게 항공 병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그 이후 전략의 중심을 대형 폭격기 및 항공모함으로 전환시키고 이에 의하여 태평양에 있어서의 전투를 유리하게 끌고 나갔으나 만약 이보다 20년 이전에 “비행기에 의하여 전함을 격침할 수 있다”고 제창한 육군장교 비리미첼의 말을 받아들여 이를 추진하였던들 혹은 진주만의 비극도 일어나지 않고 대일본 전쟁도 보다 단시일 내에 거두었음은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제1차 대전에서 비행기란 것이 근군이 작전의 보조로써 쓰이기 시작하던 때에 있어서는 철사로 이은 나무대기에 매어 달린 두 날개와 ‘적은 상자가 대양을 제압하는 ‘강철의 여왕’에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도 하였다.

“해군이야말로 국방의 백본이다”

군부도 국민도 수세기간 이를 믿어왔으며 당당한 해군의 위풍은 미합중국의 위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 적은 파리 같은 물건이 바다에 떠 있는 큰 성을 침몰시킨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느냐”

해군은 물론 미첼의 상관인 육군의 장성급들도 이를 일소에 불일 뿐이었다. 아니 장관급들뿐 아니라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방금 입학한 신진기예의 젊

은 사람들까지도 이 의견의 특이함에 말을 못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이 육군에서도 해군에서도 돌보려 하지도 않음을 안 미첼은 이러한 문제를 개척하고자 신문 또는 잡지에 의하여 직접 국민에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국민 간에 소연한 경이의 소리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미국이 자랑으로 삼아오던 합중국함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전함은 고색창연한 폐물과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에게 있어선 근심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미첼이라는 군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 이 소리는 드디어 국회에 상정되어 1931년 연방의회는 “미첼의 의견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실지로 테스트 시키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침 그때 1918년의 강화조약에 의하여 독일의 군비는 해체되고 ‘카이젤의 자랑’이라 구가되던 구 독일해군의 전함 오스트프리스랜드가 미국에 인도되었다. 국제법에 의하면 이 거함은 3년 이내에 해체하게 되어있으므로 미 해군당국은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연방의회로부터 해군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윌리엄 미첼의 비행기에 의한 전함 격침 테스트로 오스트프리스랜드를 사용하라”

이 보도가 전해진 날 밤 워싱턴의 해군사관구락부에서는 소성이 퍼졌다. 장교들은 한사람 빠짐없이 잔을 들어 미 해군의 장래를 축하하며 기뻐하였다. 오스트프리스랜드가 격침된다?…… 그런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이야기다. 그 전함은 지난 유틀랜드 대전에서 용맹을 떨치는 대영제국 해군의 거포로부터 18발의 직격명중탄을 맞고 다시 1발의 어뢰에 직면하고서도 자력으로 적의 추적을 면한 불사신의 전함이 아니냐. 그 선복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함 내는 완전 방수벽으로 85구획으로 분할되어 있어 한두 군데 정도 파괴되어도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해군의 비행기 타는 작자들이 울상을 하고 있을 것일세……”

노제독들은 기분 좋다는 듯이 서로 웃고 있었다.

테스트는 육해군 공동감독아래에 3일간에 걸쳐 행해지기로 되었으나 직접지휘는 해군 측에 맡겨졌다.

그러나 만일의 효과를 두려워하였음인지 해군이 발표한 실시규정은 미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불안을 가질 만큼 가혹한 것이었다.

그 규정에 의하면 폭격참가기는 6대 이내로 하며 투하폭탄의 크기도 제한받

았으며 그의 투하고도는 불가능을 연상케 할 정도의 고도가 요구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테스트 해역은 버지니아 주 스파닛슈 앞바다 백마일의 해상이므로 비행기로부터 왕복하는 마틴 폭격기의 항속력 2시간에 빠듯한 거리이다. 그 후에 다시 규정에는 만약 심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테스트의 중지를 명하며 조사원을 목표함까지 보낸다는 것을 첨가하여 있었다. 이러한 규칙이 실행되면 조사 중 육군비행기는 할일없이 상공을 선회하며 귀로에 쓸 연료를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 규정의 속심에는 미첼의 폭격 시간을 단축시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실시규정을 발표하였을 때 당시의 해군장관 조세프 다니엘스는 신문기자에게 웃으며 호언하였다.

“폭격테스트가 행해지는 동안 나는 모자 없이 오스트프리스트의 갑판에 서서 있어도 무방할 정도이지……”

불침전함

테스트의 제1일은 서막으로서 구 독일군의 순양함 프랭크홀트를 6백 파운드의 폭탄으로 격침하는 것부터 개시되었다. 최초의 투하폭탄은 백 미터 남짓 떨어진 해상에 흰 물기둥을 올렸다. 직시로 테스트 중지의 지령이 내려 조사원이 상하지도 않은 순양함으로 갔다. 육군의 비행기는 연료를 염려하면서 참을성 있게 상공을 계속선회 하였다.

그 후 다시 수발의 폭탄이 투하되었으나 하나도 명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지 명령이 발해졌다. 그러나 드디어 최후의 2발이 순양함의 함수에 명중하였다. 무서운 폭음이 함정 내에 반향했는가 생각될 무렵 함체가 두개로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하여 순양함은 20분 후 푸른 바다 속 깊이 자취를 잠겨져버렸다.

수송선 헨더슨의 함상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테스트 실시원 사이에 가는 다란 흥분의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라지고 말았다. 순양함은 경량함에 지나지 않는다. 테스트의 참 목표는 불침전함 오스트프 리스트이다!

제2일째의 목표함은 드디어 오스트프리스트다. 그러나 이날 미첼의 부하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전일과 같이 6백 파운드 폭탄 2발은 함상에 작렬하여 갑판을 여지없이 날려 버렸으나 거함은 마치 소총 탄환을 맞은 것 같이 꿈적도 하지 않았다.

신문은 「해군의 대승리!」라는 큰 표제로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여 해군장교를 기쁘게 하였으며 일반국민은 ‘역시!’하는 표정으로 대하였다.

그리하여 미첼과 해군은 1대1의 스코어로 드디어 최후의 날을 맞았다.

1912년 7월 24일 목요일의 아침은 아름답게 갠 날씨였다. 대서양상은 바람 한 점 없이 짙은 곤색 바다가 유유히 흐르고 수평선에는 양과 같이 흰 구름이 한 점 두 점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 푸른 해상에 오스트프리스트 호는 잠자는 고래와도 같이 조용히 거체를 띄우고 있었다.

실로 ‘카이젤의 자랑’인 위용은 바다를 제압하는 감이 있다. 동쪽 저 먼 해상에 오늘의 사형집행의 결과여하를 보려는 미국대서양 함대의 대열이 망원된다.

구독일 전함으로부터 안전거리를 가지고 떠 있는 수송함 헨더슨 함상에는 테스트 실시원인 육해군 장교 양원의원, 내각각료, 각국의 외교관, 신문기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적 실험을 본다는 긴박감은 없고 유럽선 같은 유유했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해군사관들은 자신있는 듯이 크게 웃고 있으며 육군장교들은 어딘가 약한 태도로 미첼에 대하여 농담을 하는 등이었다. 그것은 장난꾸러기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참 말썽꾸러기어서”하는 변명 비슷한 것이었다.

군인이 아닌 관람자 간에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이 미승부는 결정난 것이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조차 헛수고라는 투다.

정오를 몇 분 지났을 때쯤 지키고 섰던 수명이 서방수평선상에 일곱 개의 점이 나타난 것을 보고 했다. 이 7점은 기러기형을 만들면서 차차로 헨더슨 호의 머리 위로 가까워 왔다.

마틴 폭격기가 6대 그 선두에는 한드레 페지 소형기가 날고 있다. 선도기의 미익 끝에는 5색의 장기가 밝게 개인 벽공에 선명이 흐르고 있다. 그 화려한 장기는 헨더슨 함상의 해군군인에게 도전하고 있는 듯하였다.

“미첼이란 자식!”

육군의 장교들은 갑자기 불쾌한 듯 잠잠하고 있었다. 저 선두기는 미첼이 조종하고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왜 저 사나이는 위엄 있는 육군의 군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가. 준장이란 자가 젊은 사람과 함께 몰려 경경히 선두에 날아오고—. 거기에서 이것을 보라는 듯이 장기를 달고—. 저런 소동을 일으키고 실패하면 도대체 어쩔 셈이란 말이야.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란 말야…….

격침하여 육군의 명예를 보전하고 싶다고 희망하면서도 장성들의 얼굴에는 미첼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불쾌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헨더슨 호의 상공에 왔을 때 한드레 소형기는 날개를 흔들며 인사를 하고 그대로 기수를 올리자 곧장 급상승하여 저 멀리 창공 속으로 흘러가듯 날아갔다. 6대의 마틴 폭격기는 편대를 지은대로 잠시 동안 목표물의 상공을 선회한 후 선도기의 뒤를 따라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커다란 폭탄을 매달은 마틴 6대는 계단을 올라가는 임부와도 같이 숨찬 듯이 조금씩 고도를 올려갔다. 각 대가 동체에 장착하고 있는 2천 파운드의 폭탄은 당시로서는 육군창설이래의 거인폭탄이었다.

폭격기는 드디어 규정된 고도에 달하였다. 그러자 즉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첼의 조종하는 선도기가 거꾸로 떨어지듯 전함을 향하여 내려 밖에 왔다. 25 파운드의 조준탄이 전함의 후미 약 백 미터 수중에 투하되었다. 마틴 1대가 편대로부터 떠나기가 무섭게 옆으로 미끄러지듯 급강하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거인폭탄이 투하되었다. 무기미한 낙하음을 내면서 검은 대형폭탄은 각각 스피드를 가하면서 전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함수(艦首)전방 약 2백 미터 수면에 커다란 물기둥을 세울 뿐이었다. 무서운 폭정이 수중에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커다란 물과 연기의 기둥이 수백 미터나 높이 공중으로 뿜어 올랐다.

물을 따라온 대진동에 헨더슨 호는 격심히 좌우로 흔들렸다. 함상의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서둘러 철책을 붙잡고 몸을 가누었다. 오스트프리스트의 거체도 크게 흔들려 그 갑판 위를 파도가 넘는 것이 보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틴 기들로부터는 차례차례로 거탄이 투하 되었다. 그 때마다 대서양의 물결은 때 아닌 풍파를 일으켜 백퇴의 진동이 관람자의 귀를 뒤흔들었다.

드디어 전 탄환을 투하하자 6대의 비행기는 다시 편대를 고치고 나더니 공격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듯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해상에 가득 찬 수연이 차차로 개어갔다. 헨더슨 호상의 사람들은 굳은 침을 삼키며 전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에…… 이러한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잠겨져있었다.

그러나 수연이 개인 해상에는 오스트프리스랜드의 유용(悠容)이 잠잠히 떠있었다. 펍 강한 동풍이 일 어 닷줄을 힘껏 잡아 다려 놓았다고는 하나 그의 거체는 꿈적도 안한다. 해군 측으로부터는 일제히 환성이 일어났다.

“어떤가 놈들의 탄환은 가까이도 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한 제독이 기뻐하는 반면 두상의 미첼을 바보와 같이 여기는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때

“저것 봐라!”

한 사람의 신문 기자가 외쳤다.

오스트프리스랜드 호는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헨더슨 호의 함상에는 깊은 침묵이 지배되었다.

비웃고 있던 제독은 입을 멍하니 연채로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비볐다.

“이상한걸. 오스트프리스랜드 호는 손상당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거함은 함수로부터 차차로 물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하였다. 함미가 차츰 높이 올라감에 따라 흡수선보다 아래에 몇 군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진 것이 보였다.

관람자 중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그것은 위대한 인물의 최후에도 흡사한 장엄하고 웅대한 광경이었다.

오후 12시 33분 오스트프리스랜드는 함미를 수직으로 하여 완전히 수중에 침몰되었다. 그로부터 5분후 함체는 다시 한 번 바로잡혀 불과 함수를 해면에 보이였으나 12시 40분 완전히 물결 속에 숨어 영구히 떠오르지 않았다.

불침전함은 왜 침몰하였느냐? 함벽이 몇 군데 파괴되었다고 침몰할리는 없다……. 그러나 한 관측원은 정확히 그 이유를 눈으로 보았다. 폭격이 끝날 무렵 은빛 날개를 번쩍이며 천상으로부터 급강하한 미첼이 조종하는 페지기가 1천 5백 피트 고도로부터 전함의 연통 속에 소형폭탄을 투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실로 미첼의 신기였다.

헨더슨 호상에는 칭찬과 분노의 소리가 드높았다. 육군의 제복을 한 백발의 한 장군이 굳게 쥐 주먹으로 허공을 치며 중얼거렸다.

“이 애비 없는 자식이!”

그 눈동자에는 감동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한드레 페지는 장기를 휘날리며 6대의 비행기를 거느리고 육지로 기수를 돌렸다. 선상의 흑자는 그 조종석에서 백색의 치아를 보이며 웃고 있는 미첼의 얼굴을 푹푹히 보았다.

공군독립론

20세기의 초두에 있어서는 비행기는 단지 육상작전을 돕는 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14년 제1차 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독일, 영국의 비행기의 활약이 예상외로 눈부시었다.

당시 육군소령이었던 미첼은 이 활약을 보고 장래는 공군력이 전쟁방법에 혁명을 가져오리라는 확신을 얻어 스스로 희망하여 1916년 비행기 조종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17년 그는 군의 명령으로 전선시찰차 구주로 갔는데 그가 탄 배가 유람에 도착한 때 미국도 참전선 언을 한 것 때문에 미첼은 즉시로 영군사령관 휴우 트레차 소장 휘하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그는 영·불의 비행사와 같이 독일공적에 참가하여 공중전투도 경험하였으며 그 훈공에 의하여 프랑스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중령에 진급한 미첼은 미 전선비행 교육대 사령관에 임명되어 유럽에서 미군의 비행사교육을 시작하였다. 다시 미첼은 비행대와 군사령부의 직접연락을 파이싱그 장군에 진언하여 1918년 가을 자기의 손으로 공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 때 연합군은 독일의 젠트 미첼 돌출진지 작전에서 고투하고 있었다. 3년에 걸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진지는 꿈적도 안한다.

미첼은 이 돌출진지에 대하여 공군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의 최대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가 지휘하는 4백기에 의하여 개시된 1918년 9월 12일의 대 파상공격에 그렇게도 불락을 자랑하던 독일의 요새는 할 일 없이 함락되고 독일병 1만 1천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 훈공에 의하여 미첼은 준장으로 승진되었으며 미 육군집단항공부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다시 적의 배후에 낙하산부대를 강하시킬 것을 진언하였으나 그의 결행예정일인 1919년 봄을 맞기 전에 대전은 종료하였다.

이 대전으로 해서 공군력에 대한 편견은 제거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공군력을 위요하고 육군과 해군사이에 주도권 쟁탈이 시작되었다. 쌍방 모두 자기편에서 공군을 장악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고국에 개선한 미첼의 해군항공병력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육해군이 뜻밖의 발언이었다.

“앞으로는 국방성을 설치하여 육군, 해군, 공군의 3군을 병립해야 할 것이다”

그는 도도하게 대항건조에 열중하는 것보다 항공병력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육해군에 대한 모반에도 흡사한 이 설은 군 상층부를 크게 노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선 공군독립이란 무서운 위협사상으로 해석되었다.

큰일 난 것은 영웅승배를 좋아하는 국민들 사이에 젠트 미첼 요새를 공략한 미첼의 설이 차차로 침투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거기다가 1921년 의회가 구

독일전함에 대한 비행기공격 테스트 안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 전함이 격침되고 해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이었다.

미첼의 대전함 무용론은 점점 강력해져갔으며 공군력에 의하여 미합중국영역에 접근하는 적을 격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1923년 미첼의 비행부대는 해군이 주최하는 테스트에서 재차 구전함인 뉴저지와 버지니아의 2척을 격침하였다.

“폐물건조(廢物建造)에 세금을 소비하지 말라!”라는 국민의 외침은 급기야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해군은 격노하여 미첼이 소속하는 육군에 대하여 강경이 틀어댄다. 육군 장성의 일부에서도 미첼의 인기와 방약무인의 설에 반감을 품은 자가 파벌을 지어 해군 측에 동조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미첼은 국내 항공부대 부사령관의 지위에서 쫓겨났으며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로써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어 텍사스 주의 휴스턴 항공부대장으로 좌천당하고 말았다.

비행선추락

1925년 9월— 해군은 때마침 가을시장이 열리고 있는 디트로이트에 비행선 쉘랜드 호를 파견기로 결정하였다. 지휘관에는 란스타운 대령이 임명되었다. 등대령은 이 비행선에 위구감을 느껴 비행증지를 진언하였으나 해군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또한

당시의 정부여당인 공화당의 정략으로 쿠릿지 대통령은 이 진언을 각하하였다.

해군은 이 이외에 8월 31일 3대의 비행기—PNI형 2기와 PBI형 1기를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간 무착수 비행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9월 1일의 신문은 해군의 PBI형이 엔진조정이 나빠 출발불능이 된 것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PNI형 1대가 연안 3백마일 어간에서 추락하였으며 남은 1대는 행방불명이 된 것을 보도하였다.

9월3일. 비행선 쉘랜드 호는 뉴저지 주 테이크하스트부터 서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비행선은 결국 디트로이트에 닿지 않았다. 비행선은 도중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에 조우하여 오하이오 주 에이비아 상공에선 3분해되어 선수의 곤드라에 타고 있던 28명의 승무원은 기적적으로 산속에 강하하였으나 지휘관 란스타운 대령이하 14명은 비행선과 운명을 같이하고 말았다.

텍사스에서 이 비보를 접한 미첼은 이제 더 목시하고만 있을 수 없음을 알았

다. 설령 어떠한 비난을 받던지 간에 이 책임을 묵시하면 안 되겠다. 그는 9월 5일 사무실에 신문기자를 초청하고 폭탄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나는 전국 모든 부층으로부터 수일 전 연이어 일어난 무서운 사건—귀중한 인명과 고가의 기재를 상실한 항공사고에 관하여 의견의 개진을 요청받고 있다. 이 성명서는 그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귀중한 국방기재에 대한 무능력 또한 범죄적인 점점의 결여로부터 일어났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 성명에서 육해군당국 수뇌의 항공에 관한 태만, 무통제를 폭로하고 통렬한 비난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최후에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일개의 충성된 미국 시민으로서 나는 그와 같은 육해군당국의 유감스러운 방침으로 해서 야기되는 국민의 생명의 손실과 공군에 대한 기만에 대하여 이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미첼의 폭탄선언은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육해군당국은 이를 무시하려 하였으나 정부는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국회를 통하여 국민의 압력이 방치해둘 수 없도록 격앙하여 왔기 때문이다. 드디어 대통령은 비군인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결성을 명하였다.

9월 22일, 미첼 대령은 항공조사위원회에서 증언키 위하여 현직을 물러나고 워싱턴에 초치되었다.

미첼에 대한 비난과 찬성의 소리는 전국에 물 끓듯하였다. 반대하는 측 중에는 미첼은 공산주의자인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도하며 혹은

“그 자식은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므로 삐뚤어진 모양이야”
등등 저열한 비평마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하와이 비행에 출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던 PNI형기가 발견된 후 미첼의 말이 입증되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 비행기는 해상에 불시 착하여 9일간 태평양상을 표류한 후 잠수함에 전원 구조되었는데 그의 사고 원인은 점점 부족 때문에 일어난 가스파이프 누설에 의한 때문이라고 한다.

군법회의

1925년 10월 8일 아침 돌연 전국의 신문은 대서투필로서
“미첼대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육군조령 제96에 의한 통수권 침범의 죄에 의한 것이다.

10월 28일 오전 9시 45분 미첼 대령은 밀려든 군중을 헤치며 육군성 현관에 도착하였다. 그의 측근으로 아내인 베틀과 누이동생 하리엣트가 같이 있었다.

성내 1실에는 3인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은 성내의 어둡침침한 한방에서 행해졌다. 10시 계원인 상사가 기립을 호령하였다.

13인의 판사가 엄숙히 입정하였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군법회의는 드디어 열렸다.

재판장에는 전 하와이 경비사령관인 찰스 사메를 소장, 판사에는 소장이 5인 준장이 6인 대령이 1인 거기에 기이하게도 한국전란 중 토르만 대통령에 의해 파면되어 제2의 미첼 사건이라 칭함을 받은 다그라스 맥아더 소장도 판사의 열에 포함되어 있다.

쌍방으로부터 여러 사람의 증인이 환문을 받았다. 리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호단의 활약은 눈부신바가 있었으며 군인이 아닌 증인은 하나같이 미첼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그 증인 중의 한사람 라고디아 하원의원은 얼마 후 법정외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정은 미첼 대령을 심문하는 공기가 아니고 대령 측이 한 떼의 허리 빠진 장성들을 꾸지람 하듯 하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리드 등의 분투도 헛되이 그날도 어두운 오후 6시 34분 결국은 미첼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향후 5년간 휴직을 명하며 그간의 일체의 급여를 정지한다.

해군 측의 강경론에 대하여 이정도로 멈춘 것은 말하자면 육군의 동정에 의한 것이었다. 5년간 암전하게 하고만 있으면 원상복귀 할 수 있다…… 판결에는 그런 뜻이 내포되고 있었다.

그러나 철저한 미첼 대령은 이 판결에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자기는 정정당당하다. 가만히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죄를 인정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다음해 1월 27일 정식으로 해직원을 제출하고 원상복귀의 가능성이 있는 육군과의 인연을 자기의 손으로 끊어 버렸다.

역사는 증명한다

미첼에 대한 군법회의 후의 수개월간 정부와 군당국은 고통을 면치 못했다. 국회는 정부공격의 불꽃을 올려 미첼을 유죄언도한 군법회의의 재판장과 판사

들을 탄핵하며 공화당의 음모이다 라고 대드는 등 대단한 기세였다. 개중에는 미첼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그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이 까지도 있었다.

국민들로부터는 미첼은 예언자, 선각자 애국자로서 예찬되었으며 잔다르크, 갈릴레오, 콜럼버스, 소크라테스 등의 예를 들어 당국의 완패함을 비난하였다.

“군 수뇌는 자기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첼에게 독을 부은 것이다. 전국적인 미첼 구제위원회를 일으키자”

라는 소리가 높아갔다.

어느 날의 뉴욕선 지의 만화란의 설명문에 이러한 기사가 기재되었다.

“광고—미 육군 항공부대에 근무하는 대령을 구함. 단 에스맨의 성질을 가진 자에 한함. 비행기조종 경험자는 부적. 연락처는 워싱턴군법회의—”

그러나 항상 있는 일이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국민들의 열정도 차차로 식어가서 미첼에 관한 뉴스도 종당에는 표면에서 자취를 감추어 가고 말았다. 그러나 미첼은 결코 속수무관하지 않았다. 관직을 떠난 그는 출생고향인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공군건설십자군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우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라던가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와 동격의 항공사관학교 건설을 위하여 민간기금모집 유세행각을 떠났다.

이 운동은 전국적인 반향을 환기하여 자금도 순조롭게 모일 듯하였다. 그러나 미첼은 갑자기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런 방법은 서툴렀다. 항공사관학교는 정부서 만들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의가 없다. 이제부터는 그런 운동으로 이행하자”

미첼의 공군독립의 비원은 재직 중보다 더 강력히 정력을 기울여 외치었다. 1928년 그는 잡지 리버티 에

“일본은 미합중국과 싸울 것인가?”

라는 표제로 일본의 전법을 예언하면서 당국에 경고하였다.

“공군을 기간으로 하는 일본군은 첫째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것이며 계속하여 필리핀을 점령 알라스카에의 상륙, 이러한 순서로 미합중국진공의 전략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 대한 군 당국의 반격은 “전쟁미치광의 잠꼬대”라고 악담할 뿐이었다.

미국정부가 미첼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는 동안에 일본과 독일은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었다. 그들은 미첼의 의견을 역용하여 착착 실

시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리하여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미첼이

젠트 미첼 요새에서 남긴 교훈을 이용 공군에 의한 맹격을 가하여 난공불락 을 자랑한 마지노 라인을 가볍게 돌파하였으며 또한 일본군은 미첼의 예언과 같이 진주만 기습을 실행해 보였다.

군당국의 물리해와 반대에 의하여 미첼의 비원은 결국 달성되지 못하고 1936년 그는 잠기지 않는 눈을 영영 감아버렸다.

그를 유죄로 몰아넣은 미국 국민에 대한 피의 형벌은 그의 사후 5년째인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 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첼의 예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육군에서는 42년 그에 대한 판결 을 취소하고 다시 46년 고 미첼 대령에 대하여 일약 2계급진급인 소장으로 승진결정을 보아 국회는 그에게 명예 훈장을 추증(追贈)하였다.

그리고 1947년 미합중국 국회는 미첼의 비원대로 공군의 독립을 결의하여 1950년 비로소 국방성이 설치되어 육·해·공 3군의 통합참모부가 설치되었다.

1955년 미첼의 군법회의가 있는 지 만 30년 그의 비원은 드디어 완성을 보았다. 즉 웨스트포인트 및 아나폴리스와 완전히 동격인 항공사관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안에서는 윌리엄 미첼 소장을 최초의 공군원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나고 있다.

그의 의견은 그의 생전에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과오를 안 사람들은 지금 용사의 무덤 앞에 명예의 꽃다발을 바치고 자기의 불명함을 사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나의 주장이 옳지 않았더냐.”

고 사람들의 불명을 조소할 사나이는 아니다. 아마도 지금도 하늘을 달리는 미첼의 혼은 안도감의 미소를 띠우고 있을 것이리라. (끝)

이상의 기사는 미국 워너회사에 의하여 「군법회의」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상영될 것이다.

(주연은 캐리 쿠퍼)

표지해설(表紙解説)

제트항공기가 발달함에 따라 초음속 및 고고도 비행이 시작되었다. 표지의 그림은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로 비행할 때나 산소가 적은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로부터 조종사나 승무원을 안전하게 낙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자 카푸셀이다.

이것은 미국 굤드이어 항공기회사에서 5년 전부터 연구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낙하시의 돌풍으로부터 탑승원을 보호하며 산소의 부족도 보충할 수 있다. 어떠한 전투 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전하게 낙하할 수 있게 조종사나 탑승원의 의자주위에 작은집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비상시 조종사는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재빠르게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카푸셀의 낙하산은 개선하여 낙하속도를 늦게 하여 준다.

그리고 이 카푸셀은 방수 및 방공기의 장치로써 밀폐되어 있으며 항공기와는 별도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다.

특히 카푸셀은 무게가 가볍고 견고하며 저항성이 강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이종승(李鍾勝)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소령(空軍少領) 최지수(崔枝洙)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